

0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arts change the world

성평등 
예술지원
정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안
연구

/ 2020. 4

성평등 예술지원정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안 연구

2020년 4월 인쇄
2020년 4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성평등 예술지원정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안 연구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성평등 예술지원정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6일

주 관 기 관 :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연구책임자 :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장현선 대 표

공동연구원 :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옥경인 상 무

연구보조원 :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신선영 연구원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최수경 연구원

보 조 원 :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서효영 연구원

(주)장애파트너스그룹 김수진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 개요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 범위	19
	3. 연구 추진단계	22
제2장	문화예술계 성평등 관련 논의	
	제1절 : 미투 관련 언론 보도	25
	1. 미투 운동의 시작	25
	2. 미투 운동의 확산	26
	3. 미투 운동과 젠더 갈등	27
	제2절 :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활동 현황	31
	1. 소위원회 회의 운영 및 논의 내용	31
	2. 오픈테이블 운영 및 논의 내용	70
제3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제도 내 성평등 현황	
	제1절 : 분석 대상 사업	81
	제2절 : 심의제도 내 성평등 현황	83
	1. 심의위원 구성 특징	83
	2. 성평등 관점의 심의제도	85
	제3절 : 예술위 지원제도 내 성평등 현황	87
	1. 전체 현황	87
	2. 공연분야 성평등 현황	95
	3. 시각분야 성평등 현황	108
	4. 문학분야 성평등 현황	124

제4절 :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현황	139
1.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	139
2.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사례	143
제4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제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국내외 사례	
제1절 :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기구 성평등 제도	173
1. 유네스코	173
2. 영국 ACE	177
3. 영화진흥위원회	191
제2절 :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관련 제도	203
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3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4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제도 개선방향 제안	
제1절 : 정책 제안	227
1. 예술지원사업 심사위원 선정	227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성인지 교육	228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상 성평등 교육	230
4.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소위원회 활동 공유	231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업 및 공동논의	232
6.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기반 및 지속적인 공시방안 마련	233
제2절 : 예술지원제도 내 성평등 관련 자료 축적 방안	234
1. 심의위원 데이터 통합관리	234
2.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예술단체 성평등 현황 관리	236
부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2019년 7월 지원사업 데이터 분석 결과표	241

표 목 차

<표 1-1> 연구 추진단계	22
<표 2-1> 미투(Me-too) 운동 및 성평등 이슈의 흐름	28
<표 2-2>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구성	31
<표 2-3>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현황	31
<표 2-4> 오픈테이블 개최 현황	70
<표 3-1> 분석 대상 사업 분류	82
<표 3-2> 심의의원 등록 대비 선정 현황	83
<표 3-3> 성 및 연령집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90
<표 3-4> 국가성평등지수 연도별 추이	90
<표 3-5> 2015~16년도 예체능계열 취업률 현황	90
<표 3-6> 예술기관 여성 종사자 현황	93
<표 3-7> 예술기관 직급별 여성 종사자 현황	93
<표 3-8> 공연예술분야 지원 신청 건수	99
<표 3-9> 공연예술분야 세부사업별 지원신청 건수	101
<표 3-10> 공연예술분야 세부사업별 선정 건수	102
<표 3-11> 공연예술분야 성비 비교	107
<표 3-12> 2016년~2019년 7월 문예진흥기금 아르코 시각예술 지원 현황	108
<표 3-13> 지원사업 건당 평균 지원결정액	109
<표 3-14> 시각예술 개인/단체 지원 현황	112
<표 3-15> 아르코 시각예술지원(개인) 사업	113
<표 3-16> 아르코 시각예술지원(단체) 사업	114
<표 3-17> 2016~2019년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신청 단체 및 대표자 연령대	118
<표 3-18> 전시지원 지원신청/선정 성별 건수 및 비율	119
<표 3-19> 전시사건연구지원 지원신청/선정 성별 건수 및 비율	119
<표 3-20> 공간지원 여성대표 단체 건수 및 비율	120
<표 3-21>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및 비율	121
<표 3-22>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및 비율	122

<표 3-23>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신청/선정 건수 및 비율	123
<표 3-24> 연수단원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및 비율	123
<표 3-25>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 분야 지원사업 종류	130
<표 3-26> 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의 개인/단체 유형에 따른 선정자 성별 분석	134
<표 3-27> 2018년도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139
<표 3-28> 예술경력단절 경험	140
<표 3-29> 분야별 예술경력단절 경험	140
<표 3-30> 예술경력단절 횟수	142
<표 3-31> 여성 예술인 좌담회 참석자	143
<표 3-32> 20/30대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사례	143
<표 3-33> 40/50대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사례	153
<표 4-1> DCMS 산하 기관 국고보조금 비중	177
<표 4-2> DCMS 산하 유관기관 국고지원금 세부내역(일부)	177
<표 4-3> ACE 주요 산업(2015-2018 계획)	178
<표 4-4> Diversity of Chief Executive/Artistic Director/Chair	182
<표 4-5> Gender Profile of Other Staff Across Arts Council England	183
<표 4-6> Gender Profile of Board Members of Arts Council England	183
<표 4-7> Diversity of Boards	184
<표 4-8> Focus on Employment of Creative Industries	185
<표 4-9> Grants for the Arts	187
<표 4-10> Gender Pay Gap	188
<표 4-11> 1기 소위원회 위원 주요경력	191
<표 4-12> 2기 소위원회 위원 주요경력	192
<표 4-13>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개정 내용	193
<표 4-14> 상위 5개 서사동기	199
<표 4-15> 다양성 테스트 - 흥행 50위 영화	200
<표 4-16> 전공계열별 경력단절여성의 단절사유별 현황	207
<표 4-17> 과제별 소관 부처	216
<표 5-1> 예술지원사업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제안	227
<표 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제안	229

<표 5-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상 성평등 교육에 대한 제안	230
<표 5-4>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소위원회 활동 공유에 대한 제안	231
<표 5-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업 및 공동논의에 대한 제안	232
<표 5-6>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기반 및 지속적인 공시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	233
<표 5-7> 심의위원 데이터 관리 예시	234
<표 5-8> 사업명 통합 관리 예시	237
<표 5-9> 예술단체 구성원 데이터 관리 예시	237

그림 목 차

[그림 1-1] 문화비전 2030	15
[그림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2030	16
[그림 3-1] 2017 성 격차지수	88
[그림 3-2] 2017 성 격차지수-OECD 남성대비 여성 임금 지표	88
[그림 3-3] OECD 남성대비 여성 무급노동(가사, 보육, 간병) 지표	89
[그림 3-4]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89
[그림 3-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현황	91
[그림 3-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	91
[그림 3-7] 대학 교원의 성비 현황	92
[그림 3-8] 개발국가와 혁신적 포용국가의 특징	95
[그림 3-9] 사회적 가치 우선 책임 주체	96
[그림 3-10] 정부혁신 비전 체계도	96
[그림 3-11] 사회적 가치의 변화 방향	97
[그림 3-12] 공공기관 설립 목적의 수정 방향	97
[그림 3-13] 사회적 가치 3대 실현 분야	98
[그림 3-14] 공연예술분야 연도별 연간 지원금액 및 지원 건수	99
[그림 3-15] 공연예술분야 사업별 지원/선정 규모	100
[그림 3-16] 지원신청 건수 기준 구성비	100
[그림 3-17] 선정 건수 기준 구성비	101
[그림 3-18] 공연예술분야 사업별 평균 지원금액	104
[그림 3-19] 아르코 공연예술분야 지원 성별 구성비	104
[그림 3-20] 공연예술분야 성별 구성비와 아르코 공연예술분야	105
[그림 3-21] 공연예술분야 지원 성별 구성비(지원금액 3천만원 이상)	105
[그림 3-22] 공연예술분야 사업별 개인/단체 구성비	106
[그림 3-23] 공연예술분야 개인/단체 구성비	106
[그림 3-24] 아르코 시각예술 지원사업	108
[그림 3-25] 연도별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금액/건수	110

[그림 3-26] 예술창작 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신청/선정 건수	111
[그림 3-27] 인력육성 지원 및 문화향유 지원 신청/선정 건수	111
[그림 3-28] 지원신청 건수 기준 구성비	112
[그림 3-29] 선정건수 기준 구성비	112
[그림 3-30] 아르코 시각예술지원(개인) 성비	114
[그림 3-31] 아르코 시각예술지원(단체) 성비	115
[그림 3-32]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성비-고등교육통계 졸업생 성비 비교	115
[그림 3-33] 시각분야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여성 비율(개인)	116
[그림 3-34] 시각분야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여성 비율(단체)	116
[그림 3-35] 시각분야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개인)	117
[그림 3-36] 시각분야 선정 건수-예술인활동증명 연령대별 구성비 비교	117
[그림 3-37] 시각분야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단체)	118
[그림 3-38] 전시지원 선정 건수 기준 연령대별 개인/단체 구성비	120
[그림 3-39] 공간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단체)	120
[그림 3-40]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개인)	121
[그림 3-41]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연령대별 구성비(단체)	122
[그림 3-42]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연령대별 구성비(개인)	122
[그림 3-43] 연수단원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단체)	123
[그림 3-44] 문학 대학 입시 구조	124
[그림 3-45] 문학계 등단 구조	125
[그림 3-46] 문학출판사 운영 구조	125
[그림 3-47] 예술경력단절 이유	141
[그림 4-1] Female Workers at NPOs	180
[그림 4-2] Ethnicity of Staff at NPOs(2017~2018)	180
[그림 4-3] Sexual Orientation of NPOs/MPM Workforce	181
[그림 4-4] Disabled Workers in NPOs/MPM	181
[그림 4-5] Portion of Male/Female Employees in Each Quartile	188
[그림 4-6] Creative Case for Diversity Ratings	189
[그림 4-7] 지원사업 심사제도 개선 내용	194
[그림 4-8] 개봉영화 스태프 성비	195

[그림 4-9] 여성 비율이 낮은 직종(2009-2018)	195
[그림 4-10]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2009-2018)	196
[그림 4-11] 감독 성비	196
[그림 4-12] 주연 성비	196
[그림 4-13] 경력 단계별 여성 비율(2018)	197
[그림 4-14] 영화 교육기관 교수 성비(2018)	197
[그림 4-15]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성비(2009-2018)	197
[그림 4-16] 백텔 테스트 통과 비율 - 흥행 50위 영화	198
[그림 4-17] 주연 및 감독 성비-흥행 50위 영화	200
[그림 4-18] 여-여 주연, 남-남 주연 영화 비율 - 흥행 50위 영화	200
[그림 4-19] 주연 성별에 따른 연령 비율 - 흥행 50위 영화	201
[그림 4-20]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연혁	203
[그림 4-2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비전 및 전략	204
[그림 4-22]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사업 분야	204
[그림 4-23]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규모	205
[그림 4-24] 자연·공학 계열 전공자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205
[그림 4-25] 자연·공학 계열 미혼·기혼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206
[그림 4-26] 여성과학기술인 연령별 분포	206
[그림 4-27]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이후 일자리 변화	207
[그림 4-28]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월 임금 격차	208
[그림 4-29]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208
[그림 4-3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9
[그림 4-31] 복귀단계별 교육 내용	210
[그림 4-32] 경력디딤 멘토링 진행 현장	210
[그림 4-33] 중간점검·현장컨설팅 진행 현장	211
[그림 4-34] 연도별 경력복귀 지원 규모	212
[그림 4-35] 연도별 정규직 복귀율	212
[그림 4-36] 사업 참여자 만족도	213
[그림 4-37] 여성의 경제활동 고리 4R	21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추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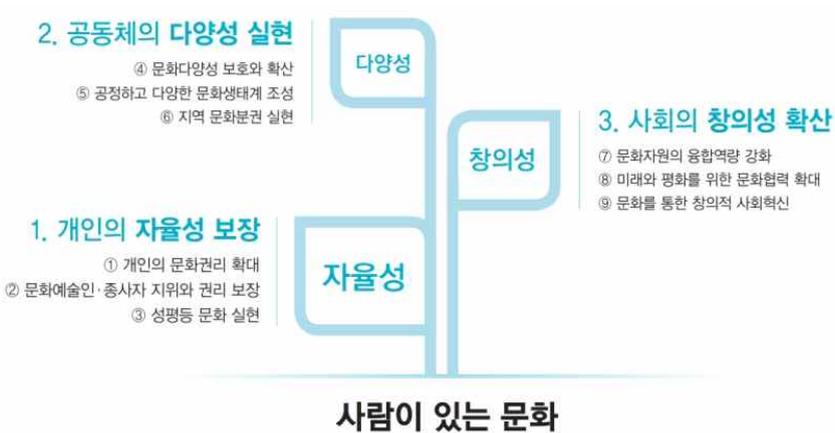
제1절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공정한 예술지원에 대한 지속적 요구
 -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공정한 예술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로 성평등 예술지원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
- 문화예술계 성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 필요
 - 미투 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내의 성 불평등이 젠더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문화예술계 내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요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 3대 방향, 9개 전략과제 중 성평등 문화실현이 채택

[그림 1-1] 문화비전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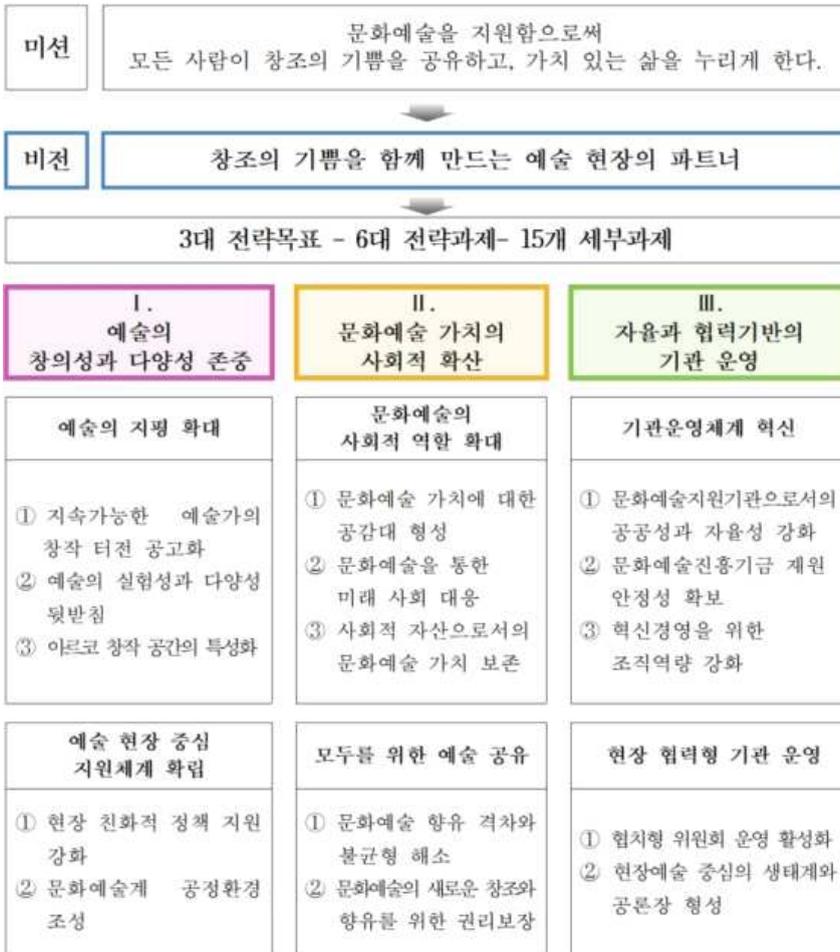
-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해 1)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2)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3)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이 제시됨.
- 특히 문화비전 2030에서는 예술대학 입학생 중 여성의 성비가 남성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술현장에서 예술인들의 성비, 소득이 높은 예술인들 비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은 점 등을 언급하며, 문화예술계내 성평등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ARKO 비전 2030에서 성평등 예술 창작환경 조성의 필요성 강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3대 전략목표,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음.

[그림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2030



- 15개 세부과제중 하나인 ‘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 계획’을 위해 1) 성평등 예술 창작환경 조성, 2) 예술계 공정임금에 대한 인식 확산을 제시함.
- 비전 2030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 자행된 성범죄와 성폭력 등 ‘권력자 예술인’이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오랜 묵인과 방관 속에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예술계 내 성범죄 및 위계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권 보장 및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음.

2) 연구 목표 및 방향

- 문화예술계의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을 타 분야와 비교하여 예술분야 특징을 발굴
 -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타 분야 여성의 성 불평등에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하여 문화예술계의 특징을 비교하여 확인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인·예술단체 정책 및 지원제도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확인
 - 여성 예술인·예술단체의 생애주기 및 경력 형성단계를 고려하여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책 및 지원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확인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정책과 현장(예술인·예술단체)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및 과제 수립에 반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 예술인·예술단체의 예술활동에 대한 전국단위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예술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성평등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제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정책 및 지원제도 중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확인하여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함.
 - 성평등 예술지원에 관련된 미디어 스캐닝(기사검색 및 분석), 여성 예술인 좌담회 등, 현장을 기반한 성평등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 및 과제 도출에 주력함.

2. 연구 범위

1) 선행연구·조사 자료 분석

□ 여성 관련 기본 데이터 분석

- 통계청,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 등 여성 관련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등 문화관련 공공기관 여성 관련 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성평등 예술지원 관련 해외 주요국 사례

- 미주·유럽 지역을 포함한 성평등 관점의 예술지원의 사례 발굴
- 예술지원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의 제도 확인

□ 국내 예술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 예술지원 내 성평등 주제 혹은 성평등을 위한 예술지원 정책 및 제도 분석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성 예술인·예술단체 지원 분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정책·제도 현황 분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정책 성평등 관점에서 지원 구조 분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 중 분석대상 사업 선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 예술인·예술단체 특징 분석

- 여성 예술인 및 예술단체(대표)의 지원율, 선정율 등 지원사업 관련 통계 데이터 분석
- 분야별, 지원금액별, 지원형태별 성비 차이 확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 운영 특징 분석

- 지원사업의 선정, 운영 과정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주요 사항 분석
- 주요 개선사항 및 이슈 도출 (여성 예술인·예술단체의 예상 어려움 등)

3) 여성 예술인 대상 좌담회 운영 및 내용분석

- 예술현장 종사자로 예술 경력단절 경험 여성 대상 좌담회 2회 운영
 - 20-30대 여성 예술인 좌담회 1회
 - 40-50대 여성 예술인 좌담회 1회
- 좌담회 내용 분석을 통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예술지원 방향 도출
 - 성평등 관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의 특징 확인
 -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정책 및 제도 제안

4) 성평등 관점의 예술지원 정책·제도에 관한 미디어 스캐닝

- 미투 사건 이후 예술지원 정책의 성평등 관점의 주요 여론 검색
- 주요 일간지, 전문지, 기관별 뉴스레터(웹진) 등의 성평등 관점 예술지원에 대한 기사·원고 검색

5) 연 3회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관련 포럼 운영

- 연구 과정에 따른 성평등 예술지원 정책 포럼 주제 선정
 - 소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성평등 예술지원 정책 포럼 주제 선정
- 포럼 주제에 맞는 발제자 섭외 및 운영
 - 주제의 내용을 이해하고 발표가 가능한 주요 발제자 섭외
- 포럼 내용 분석을 통한 관련자 여론 및 의견 분석
 - 녹취록에 기반한 내용 분석 및 현장토론 내용 반영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예술지원 정책 제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정책 비전 반영에 관한 제안

- 성평등 관점에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 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예술지원 정책 및 제도 제안

3. 연구 추진단계

<표 1-1> 연구 추진단계

구분	연구내용
<착수보고회>	- 착수보고서 제출 (보고회 3일전 제출) - 착수보고회 진행
기초 조사	- 여성관련 기본 데이터 분석 - 성평등 예술지원 관련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
미디어 스캐닝	- 예술지원정책, 제도, 사업 관련 언론기사 미디어스캐닝 - 여성 예술인/예술단체 지원 관련 기사 조사
예술지원제도 현황 분석	- 여성 예술인/예술단체 지원 현황 조사·분석 - 예술지원제도 관련 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예술지원사업 분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 정책 방향 및 지원사업 분석
조사 자료 브리핑	- 예술지원제도 관련 자료 및 현황 분석 자료 정리 및 브리핑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참여	- 월 2회, 연간 10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회의 참석 - 회의록 작성 및 분석, 주요 쟁점 정리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 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
포럼 발제자 선정	- 포럼 발제자 섭외 - 공개 토론 주제 선정 및 원고 취합
발제자 워크숍	- 포럼 운영 방안 공유 - 포럼 회차별 스케줄 조율
성평등 예술지원 포럼 준비	- 유관 기관, 단체, 개인 대상 홍보 - 포럼 리플렛 및 자료집 준비 - 포럼 장소 임대 및 기자재 준비
성평등 예술지원 포럼 운영	- 성평등 예술 지원 포럼 4회 운영 - 포럼 내용 분석 및 주요 쟁점 정리
좌담회 운영	- 연령별 좌담회 운영 및 여성 예술인/예술단체 의견 수렴 - 녹취록 분석을 통한 좌담회 내용 분석 - 예술지원 내 성차별 경험, 성평등 예술지원 정책 및 제도를 위한 개선점 도출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성평등 예술지원 정책 개념정립 - 포럼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예술지원 정책 방향제시, 사업 개선 및 추진 과제 제시
최종 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제2장

문화예술계 성평등 관련 논의

제1절 : 미투 관련 언론 보도

1. 미투 운동의 시작
2. 미투 운동의 확산
3. 미투 운동과 젠더 갈등

제2절 :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활동 현황

1. 소위원회 회의 운영 및 논의 내용
2. 오픈데이블 운영 및 논의 내용

제1절 미투 관련 언론 보도

- 미투 사건에 대한 대중적 이슈 및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문, 매거진 등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스캐닝을 진행하였음.
 - 뉴스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하여 2015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언론 기사와 뉴스 총 9,001건을 수집함.

1. 미투 운동의 시작

- 2015년에 국악단원들의 성추행·성폭행 피해 주장 하에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불거지게 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게 되었고 이것이 문화예술계에서 만연하는 성추행·성희롱을 폭로하는 시초가 됨.
- 문학계에도 점차 성 추문이 확산되며 문인들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름. 박범신 작가, 박진성 시인, 배용제 시인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홍대 미대생들의 폭로와 함께 성추행 파문이 대학가로도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됨.
- 2017년에는 김기덕이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되며 영화계에서의 성추문이 공론화됨. 또한, 할리우드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 십 년간 성희롱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미투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킴. 이에 정부는 성폭력 피해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지원자 지침서’를 배포함으로써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함.
- 2018년에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스타들이 평화와 저항의 상징인 하얀 장미를 들거나 가슴에 달고 등장하며 미투 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하였음. 한국에서는 현직 여성 검사가 성추행 경험을 폭로 한 것이 ‘미투 운동’의 시작이 되어 시인 고은, 배우 이명행, 연극 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민기, 배우 조재현 등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성추행 의혹을 받아 직급에서 사퇴하게 됨.

2. 미투 운동의 확산

-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3월 성희롱·성추행 등의 문제로 인권상담센터에 상담전화가 온 건수는 231건으로, 이는 2017년에 174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였을 때 33% 증가한 것임.
- 점차 확산되는 ‘미투 운동’에 정부는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 임직원 채용과 징계 규정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성희롱 특별조사단이 신고센터로 확대되어 상담 지원 체계가 마련됨.
- 독립영화제 작품들에서 미투운동과 성평등이 드러나고 있음. 인디포럼작가회의는 ‘인디포럼 2018’에서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고 밝혔음. 고전 작품 내용을 둘러싼 성폭력 지적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선녀와 나무꾼, 구지가, 메밀꽃 필무렵 등의 고전 작품들이 성폭력 미투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음.
- 성평등도서관에서 2018년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청소년 #미투,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있다!” 가 개최됨. 서울시 의회는 앞으로 청소년 성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힘.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되었음. 그러나 재판부는 8월, 1심에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고, 피해자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함.
-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가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확산됨. 스쿨 미투는 2018년 1월 서지현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의 성추행 폭로의 영향을 받아 시작돼 상반기에 약 20여개교에서 폭로가 이어졌음.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스쿨 미투가 발생하면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라 필요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열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3. 미투 운동과 젠더 갈등

- 미투운동부산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크 프로그램 ‘영화계 미투 이후, 우리가 살아 가는 법’이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림.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에서는 현 예술계의 위계 관계 구조에 대해 비판하였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오자영 위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하였음. 이번 권고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의 5가지 목표 과제를 담고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에서 내년부터 성폭력 전과자의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밝힘.
- 대중음악의 은유적으로 표현된 가사들이 표현의 자유인지, 여성 혐오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남.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미투 운동에 힘입어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음악이나 영화 등 예술작품에 관한 페미니즘 시각의 비평이 늘어난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함.
- 미투 운동의 시작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체감상 변화는 미미하고 소수의 권위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여전히 성폭력 사실을 고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들은 처벌은 고사하고 공적으로 면죄부를 받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피해자는 오디션 볼 기회를 면전에서 박탈당하는 등 미투 이전과 다른 점이 없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됨.
- 미투로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극작가 김태수가 ‘김지환’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긴 채 대한민국연극제에 작품을 출품하였으나, 대한민국연극제 조직위원회는 논란 작가의 제명 및 경연자격 박탈을 결정함. 또한,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작가가 개명을 한 뒤 출품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힘.

- 미투 운동 1년 만에 예술계 가해자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있음. 가해자들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만큼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음.
- ‘82년생 김지영’은 개봉 12일만에 누적 관객수가 249만 8984명을 기록함. 여성들은 영화가 지닌 높은 여성 공감능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남성은 ‘열 받아서 봤다’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임.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젠더 갈등 상황은 양성평등으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의견을 보임.

<표 2-1> 미투(Me-too) 운동 및 성평등 이슈의 흐름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5년	4월	- 국가인권위원회가 천안시립예술단 소속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섬
2016년	5월	- 검찰이 ‘충남국악관현악단 성추행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섬
	10월	- 이준규 시인, 배용제 시인 등 문학계에서 성추문 고발이 제기됨 - 홍대 미대생들의 폭로가 잇따르며 대학가로 문화계 성추행 파문이 확대됨 - SNS 상에서 ‘해시태그 성폭력 말하기’가 확장됨
2017년	4월	- 대전의 한 문화원장이 상주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됨
	8월	- 김기덕 영화감독이 촬영장에서 배우를 폭행하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됨
	10월	-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 십 년간 성희롱 및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저질러 최소 8명의 여성과 합의, 익명을 요구한 회사 관계자 2명에게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도함
	11월	- 여성가족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함
2018년	1월	- 미국 뉴욕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미투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하는 흰장미가 등장함 - 현직 여성 검사가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경험을 폭로함
	2월	- 시인 최영미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밝히며 미투 운동에 동참함 - 연극연출가 이운택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희단거리패 등 자신이 맡고 있던 극단의 예술 감독직에서 모두 사퇴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배우 조민기, 연출가 오태석, 배우 조재현, 사진작가 배병우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성추행 의혹을 받음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 '영웅' 등을 제작한 윤호진 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모두 인정함 - 교수 시절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전력이 있는 감태준 시인이 한국시인협회 신입 회장직에서 사퇴함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대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을 받음 -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됨 - '미투 가해자 의혹'을 받아온 배우 조민기가 자살함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생민의 영수증'으로 전성기를 맞은 방송인 김생민의 성추행 사실이 폭로됨 - 국가인권위 미투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 권력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함 - 유명 유투버 양예원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함 -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폭력·성범죄 가해자가 문화예술단체장일 경우 해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 인권상담센터 성범죄 상담이 작년 동기 대비 33% 증가함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가 성평등 문화 실현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대표성을 확대해 나가고, 성차별·성폭력 금지와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함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신고상담센터로 확대 운영될 계획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영화계 작품들도 미투 운동의 영향을 받아 '여성 이야기'가 대세로 떠오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투 운동으로 인해 달라진 시각으로 우리의 고전 작품들이 재해석 되고 있음 - 성평등도서관에서 개최된 2018년 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청소년 #미투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있다!'에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이슈에 관한 강연과 워크숍이 진행됨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업무상 위력 입증 부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함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Me Too · 나도 피해자다)'가 열풍임 - 이운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을 공개하였는데, '예술활동 방해죄' 법안 16조1항에 성희롱, 성폭력, 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10월	- 미투운동부산대책위원회가 부산에서 ‘영화계 미투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법’토크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현 예술계의 위계 관계 구조에 대해 비판함
	11월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해 예술인들의 성범죄 관련 고충을 처리할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라고 주문함
	12월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에서 내년부터 성폭력 전과자의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밝힘
2019년	2월	- 대중음악들에 드러난 성차별적 표현에 대해 논란이 발생함.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미투 운동에 힘입어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술작품에 관한 페미니즘 시각의 비평이 늘어난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함
	3월	- 미투 운동이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학가 성 감수성’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4월	- 미투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체감상 변화는 미미하고 피해자가 업계를 떠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소수에 집중된 권력구조와 주변 예술인들의 언행을 통한 2차 가해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6월	- 미투로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극작가 김태수가 ‘김지현’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긴 채 대한민국연극제에 작품을 출품함. 대한민국연극제 조직위원회는 작가가 개명을 한 뒤 출품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힘
	7월	- 여성들의 성 상품화 논란으로 인해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대회 위상이 하락하며, 선발대회의 지상과 중계가 중단됨 - 방송 제작 현장은 미투 운동 이후에도 개선이 미진하며, 성폭력 예방 가이드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됨
	8월	- 남성 중심이었던 미술 시장이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출품 되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 증가함 - 미투로 인해 한국 영화계에서 여감독들과 그 작품들이 주목받기 시작함
	11월	- 미투 운동 1년 만에 예술계 미투 운동 가해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함. 이에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음 - ‘82년생 김지영’영화를 통해 젠더 간 갈등 상황이 드러나고 있음. 몇몇 전문가는 극단적인 젠더 갈등 상황은 양성평등으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음.

제2절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활동 현황

1. 소위원회 회의 운영 및 논의 내용

1)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현황 및 회의 운영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 현장에서의 성평등 요구를 예술정책과 지원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를 2019년도에 신설함.

-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는 2명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과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됨.

<표 2-2>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구성

성명	현직	입기
강윤주(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매개행정전공 교수	2019. 2월~2020. 2월
강홍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전)고은 사진미술관장	2019. 2월~2020. 2월
김정어	지식에너지연구소 대표	2019. 2월~2020. 2월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2019. 2월~2019. 12월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주임교수	2019. 2월~2020. 2월
오세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운영팀장	2019. 2월~2020. 2월
최혜자	문화디자이너자리 대표	2019. 2월~2019. 5월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2019. 2월~2019. 12월

□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는 약 2~3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예술현장에서 요구하는 성평등 관련 이슈들을 예술 정책 및 지원 제도 안에서 실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음.

- 총 16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2-3>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현황

순서	개최일시	참가자	주요 논의사항
1차	2019. 3. 11.(월) 18:00	강윤주, 김정어, 김혜인, 박소현, 오세형, 최혜자, 허정숙	- 위원 및 사무처 직원 소개 - 소위원회 운영 규정 안내 - 향후 운영방안 논의
2차	2019. 3. 25.(월)	강윤주, 강홍구, 김정어, 김혜인,	- 향후 활동 주제 논의

순서	개최일시	참가자	주요 논의사항
	15:00	오세형, 허정숙	(심의위원 구성, 성평등 팩트체크, 지원사업 점검, 생애사적 관점 논의 등)
3차	2019. 4. 8.(월) 15:00	강윤주, 강홍구, 박소현, 오세형, 김정이, 허정숙	- 2017년 시각예술, 공연예술분야, 2018년 문학분야 선정 결과 분석 내용 공유 - 향후 연구 주제 및 방법 제안
4차	2019. 4. 22.(월) 11:00	강윤주, 강홍구, 박소현, 오세형, 김정이, 허정숙, 김혜인	- EQUALITY, GENDER, DIVERSITY 영역에 대한 해외 연구 발제 - 국내외 성 주류화 관련 발제
5차	2019. 5. 13.(월) 16:00	강윤주, 강홍구, 박소현, 오세형, 김정이, 허정숙, 최혜자	- 2017년 예술위원회 지원사업 파일럿 데이터(시각 17건, 공연 59건) 심층 분석 - 예술가 및 단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논의
6차	2019. 5. 27.(월) 16:00	강윤주, 강홍구, 박소현, 오세형, 김정이, 허정숙, 김혜인	- 성평등, 성 주류화 관점에 대한 발제 - 성평등 관련 정책 방향 논의 - 제1차 오픈테이블 순서 및 방식 논의
7차	2019. 6. 10.(월) 15:00	강윤주, 강홍구, 김정이, 김혜인	- 현장소통소위 제안 관련 논의
8차	2019. 6. 24.(월) 14:00	강윤주, 강홍구, 김정이, 김혜인, 오세형, 허정숙	- 제1차 오픈테이블 발제 최종 점검
9차	2019. 7. 22.(월) 15:00	강윤주, 강홍구, 김정이, 김혜인, 박소현, 오세형, 허정숙, 장애파트너스그룹 연구진	- 제1차 오픈테이블 평가 및 결과 논의
10차	2019. 8. 5.(월) 15:00	강윤주, 강홍구, 김정이, 김혜인, 박소현, 오세형, 허정숙, 장애파트너스그룹 연구진	- 시각예술 신청/선정, 심사위원, 선정단체 인력 분석결과 공유 - 예술지원정책 분석 대상 선정
11차	2019. 9. 6.(금) 14:00	강윤주, 강홍구, 김정이, 김혜인, 허정숙, 장애파트너스그룹 연구진	- 데이터 클리닝 관련 사항 논의 - 공연예술 데이터 1차 분석결과 논의 - 시각예술 데이터 1차 분석결과 논의
12차	2019. 9. 23.(월) 13:00	강윤주, 강홍구, 김정이, 김혜인, 박소현, 오세형,	- 데이터 분석방법 변경안 논의 - 문학 데이터 분석결과 및 분석방

순서	개최일시	참가자	주요 논의사항
		장애파트너스그룹 연구진	향 논의 - 공연예술 데이터 분석결과 및 분석방향 논의 - 시각예술 데이터 분석결과 및 분석방향 논의
13차	2019. 10. 28.(월) 15:00	강운주, 강홍구, 김정이, 오세형, 장애파트너스그룹 연구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 전문가 등록 현황> 자료 논의 - 제2차 오픈테이블 평가 및 결과 논의 - 제3차 오픈테이블 계획 논의
14차	2019. 11. 13.(수) 10:00	강운주, 강홍구, 박소현, 오세형, 장애파트너스그룹 연구진	- 40~50대 여성예술가의 생애사적 경력단절 경험 사례 발표
15차	2019. 12. 03.(화) 11:00	강운주, 강홍구, 김정이, 김혜인, 오세형, 허정숙, 장애파트너스그룹 연구진	- 20~30대 여성예술가의 생애사적 경력단절 경험 사례 발표
16차	2019. 12. 19.(목) 15:00	강운주, 강홍구, 김정이, 김혜인, 박소현, 오세형, 허정숙, 장애파트너스그룹 연구진	- 정책 제안방향 논의 (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업 및 공동논의 테이블 필요, 예술위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의 제도화, 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등)

2) 회의 논의 내용

가. 1차 회의

□ 위원 소개 및 사무처 직원 소개

□ 소위원회 운영 규정 안내

□ 향후 운영방안 논의

- 운영 계획

- 예술위가 예술계의 중요 기관으로서 성평등 예술지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알릴 필요가 있음.
-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3개월에 한 번씩은 오픈테이블 행사를 개최하여 예술 현장에 제안 및 공유하도록 함.

- 단, 이미 문체부 및 다른 유관기관에서 비슷한 주제로 토론회를 많이 진행했었기 때문에, 미션을 명확하게 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논의 안건

- 차기 회의 전까지 위원 각자가 이번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를 통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간략한 안건 및 주제에 대해서 작성해오면, 그것을 토대로 1년의 활동 계획을 수립함.
- 예술 지원정책 현황 파악을 위하여 차기 회의에는 전체 예술위 지원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성평등 관점에서 보는 기회가 필요함.
- 이 외에도 기존의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성평등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이 있다면 같이 브리핑하도록 함.
- 이후에는 예술계 양성평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술지원 정책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기회를 마련한 후,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들에 대하여 접근하도록 함.

- 회의 방법

-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단기적으로(3개월) 스터디하고 논의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단계적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는 방법이 있음.
-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솔루션까지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준거의 틀은 잡되, 그 틀 내에서 데이터 수집, 문헌연구, 자료 백업 및 분석 등을 해줄 수 있는 외부 연구진이 필요함.

- 인원 충원

- 농촌 지역 예술인, 장애인 예술인, 청년 예술인 중 위원을 2명 정도 충원하여, 다양한 현장 여성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차기 회의 전까지 추가 인원 보강에 대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서 논의할 것임.

나. 2차 회의

□ 향후 활동 주제 논의

- 심의위원 구성

- 여러 규정 및 절차에는 형식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져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격차가 있음. 운영규정에는 적절히 안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절히’에 대한 불신이 있음.
 - 무용분야는 여성예술인이 대다수인데 남녀 비율로만 기준을 세우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현황과 원인을 파악한 후,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강제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문화예술계 현장의 성평등 팩트체크
- 현장에서 어떤 불평등이 있는지 증명하는 일이 필요함.
 - 심의위원 구성 시 성비를 맞추고, 지원대상자들도 여성들이 많다는 것만으로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현실임.
 - 특히, 문화예술계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성이 있어 보이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음.
 - 현장에서 느끼는 불평등을 인지하고, 세부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함.
- 지원사업 점검
- 새로운 사업제안보다 기존 사업들의 추진절차와 과정에 대한 점검 및 개선안 도출이 필요함.
 - 지원규모, 파급효과,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화 되어 있는 예술위의 지원제도 내에서도 어떤 성별 불평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방식이 필요하고, 예술위에서 직접적으로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고착화된 성역할에 대한 지적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함.
 - 향후 성 불균형이 있는 사업이 발견된다면, 직접적으로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설계할 것인지 판단이 가능하고, 사업 설계 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생애사적 관점
- 여성 예술인들의 경력단절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단절임을 증명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전형성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내는 것은 어려우나, 오픈데이블을 통해서 여성예술가의 삶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연결시켜서 의제화 해서 던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임.
 - 여성가족부에 임신, 출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별도정책이 있기 때문에, 부처 협력형으로 경력이 단절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예술위 직원대상 성인지 인식조사
-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예술위 직원들의 성인지 인식 조사가 필요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인지에 대한 교육은 없음.
 - 블랙리스트 사건 때 성차별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예술인들도 있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구조가 있다는 예술계의 불신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예술위 조직 내부의 성평등 문화를 조사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

다. 3차 회의

□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회의자료 설명

- 2017년 시각예술(17건), 공연예술(59건), 2018년 문학분야(77건) 선정 결과를 간략 분석하여 공유함.
- 2017년 심의위원 성별 분석을 진행함.

□ 제2차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재검토

-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분야별, 사업별 특성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여부 확인이 필요함.
- 심사위원의 남녀 비율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님. 2017년 심의위원 성별 분석표를 살펴보면 어떤 분야에 서는 심의위원 성별 차이가 큼.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강제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여성들

본인이 자기검열처럼 심사위원이 되는 것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임.

- 기존 사업의 추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지는 맥락에서 지금까지 해온 제도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보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 검토가 필요하며,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모범적인 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심의위원 성별 비율, 성인지 의식 조사가 필요하며 여성 예술인들의 경력단절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단절임을 주장할 수 있는 전형성을 만들기 위해 생애사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함.
- 현장에서 어떤 불평등이 있는지 증명해야 하고 차등화 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을 기획하는 예술위 직원들의 인식조사도 중요함.

□ 성평등 관련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한 포괄적 대내외 현황 분석

-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의 경향성 분석
 - 사업의 지속성보다는 경향성이 중요함. 심사위원 성별 비율이나 고액 지원금 수혜와 관련된 성별 비율 등에서 연도별로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면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 있음.
- 성평등 팩트 중심 현실 인식을 구체적인 지원사업 설계에 반영
 - 예술위와 현장이 성평등 이슈 관련해 팩트 중심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그 다음은 사실로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받아서 향후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원 절차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
 - 단순히 남녀의 성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부분에 주목하고, 디테일을 강조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문제로 예술위원회 운영 자체와 형질 변화와 관계된 부분임.
 - 오픈테이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기준이 설정됨. 첫 번째는 위원회 내부 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성평등 이슈를 정리하고, 두 번째는 현장 예술인들이 갈급한 임신, 출산 등에 따른 경력단절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어떤 지원들을 권고하고 지원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제안하도록 함.
- 성평등 관련 연구용역 추진

- 소위원회 위원들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젊은 연구자 중심의 워킹그룹과 함께 4차에 걸친 오픈데이블, 이슈페이퍼, 최종 결과보고서 발간 등 진행. 현실 가능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차기년도에 더 큰 주제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함.

□ 연구 주제와 방법에 대한 제안

- 심의위원 선정 과정 검토
 - 심의위원 성별 숫자 비율을 보면 선정 과정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 심의위원 구성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함. 심의위원 위촉 시 어떤 질적 특성, 경향성을 보이는지 분석하면 심의위원 성별 편차 요인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함.
 - 예술위 직원들 대상 FGI를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시스템 안에서 성차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볼 수 있음. 차후에는 예술위 직원들의 성인지 조사결과와 연결하여 분석 가능함.
- 성평등 이슈 공시제도 마련
 - 성평등 관련 통계를 일일이 실적보고서를 찾아 통계를 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문제가 있음.
 - 실적보고 시스템 안에서 성평등 관련 이슈나 과정들이 드러날 수 있게 양식을 바꾸거나, 결과 발표 시 어떤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 남녀 비율을 맞춰 선정되었다는 것을 모든 지원기관이 함께 공시하는 등의 제도적 마련을 고려해야 함.
- 여성 예술인의 생애주기적 특성 연구
 - 장기간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연구이나 이전까지 진행된 적이 없는 연구이므로 독립적인 연구가 별도로 필요함.
 - 생애주기 특성들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조사하고 공표하는 것 보다 우선적으로 현장 이야기를 듣고 노출하는 것에 집중함.
 -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해 많은 남성 예술가들도 경력단절이 이루어짐.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섹터가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차년도에 지원사업으로 구체화 되기 바람.

- 개인 지원/단체 지원 간 성별 차이 원인 분석
 - 대체로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여성이 많고 단체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대표자 비율은 남성이 높음.
 -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계 유리천장으로 볼 수도 있음. 예술계에서 어떤 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한 단체나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되는 것이 상위 그룹 권력자인데 개인 예술가에 있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는 남성들이 많은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가 필요함.
- 소액 지원/고액 지원
 - 개인 예술가 지원의 경우 소액 지원, 단체 지원의 경우 고액 지원이 많음.
 - 특히 1억 5천 이상의 지원은 뮤지컬이 대다수이며 8건 모두가 대표가 남성임. 단순히 여성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지원하지 않느냐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산업에 여성 리더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를 문제제기하는 것이 중요함.
- 개인 예술가의 기획력 강화 지원
 - 무용의 경우 예술대학 안에서 여성들이 안무, 기획 등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개인 예술가의 기획력을 강화하는 창작지원 섹터를 신설해 훈련되는 예술가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나 지원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계 내에서의 가부장적 문화 작동 방식 고찰
 - 기획자를 지향하는 개인 예술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
- 시각예술계에서의 권력 변화 양상
 - 시각예술 쪽은 권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술대학에 여성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고, 활동하는 숫자도 많으며 우수

의 미술관 관장들이 여성임.

- 여성 관장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권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라. 4차 회의 논의 내용

□ EQUALITY, GENDER, DIVERSITY 영역에 대한 해외 연구¹⁾ 발제(오세형 위원)

- 영국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rtscouncil.org.uk/>)에서는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 리포팅, 젠더 다양성(gender diversity) 관련 NPO나 활동 사례들 공유하고 있음.
- 영국에서 여성 문제를 (문화)다양성 맥락에서 다루고 있으며 주로 여성이 어떻게 예술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리더십)에 초점을 맞춤.
- 본 보고서는 2012년부터 작성되었는데 2015-16년까지는 평등(equality)이 들어가 있었고 2016-17년부터는 일부 삭제, 2018년부터는 완전히 제외되고 다양성(diversity) 관점으로 전향함.
- 약 50페이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예술작품이나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및 기관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을 검토해 데이터화하여 제시함.
-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후반부에 간략하게 나오고 그 부분은 블로그 등을 통해 따로 소개되어 있음. 또한 크리에이티브 케이스를 연구해서 매년 책으로 펴내고 있음
- 성 비율은 해당 연도 비율뿐만 아니라 연도별 추이를 비교함.
- NPO(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s), MPM(Major Partner Museums) 모두 여성이 많은데 이사회나 주요 간부 쪽은 여성이 적음. 조직의 인원에 있어서 성별, 인종, 장애유무, 성적 지향성, 나이까지 조사함.
- 직급에 따른 데이터에서 매니저 부분과 각종 스태프 부분에서의 여성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장애인의 고용비율은 4%에 멈춰 있는데 한국의 의무고용률이 4%인 것과 같이 영국도 그 정도 수준임.

1) ARTS COUNCIL ENGLAND, 『Equality, Diversity and the Creative Case. A Date Report, 2016-2017』

- 주요 기관마다 조사를 진행하여 스태프에서의 여성/남성 비율, 화이트/블랙 등 인종 비율, 장애인, 연령별 비율 등의 데이터가 포함됨.
- 이러한 조사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100개 기관을 조사한다면 거기서 나온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의무고용률이나 권장해야 하는 채용 비율 같은 것이 있다면 압박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영국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리더십 개발 방향으로 젠더 이슈를 풀고 있음.
- 주요 간부와 아티스트 성별에 대한 매년 통계치를 내고 변화 양상을 공개함. 보고서에 수치로 나오므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가 됨.
- 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나 예술 감독(Artistic Director) 부분에는 여성이 많은데 의장(Chair) 부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비율이 차이가 있고, 이 영역에서는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됨.
- 선정 비율에서 여성의 경우 100명이 신청하면 39명이, 남성은 41명이 선정됨. 문화 향유층(audience)에 대한 조사도 진행함.
- 영국 예술위원회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 여성비율이 65%에서 66%로 올라갔고 민족, 장애, 연령별로 다 공개함. 감독(director)급에서는 여성이 46%, 남성이 54%, 매니저급에서는 여성이 많고(여성 68%, 남성 32%) 타 스태프 급(여성 66%, 남성 34%)도 여성이 많으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남성이 많은 걸 볼 수 있음. 백인 중심이며 장애인은 적음.
- 'National and Area Council'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비율에서 남성이 많은데 2017년 성비가 거의 1:1로 맞춰짐.
- 영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데이터도 확보함.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 논의가 있는데 영국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65세 정년 연장이나 기타 여러 논의를 구체적으로 함.
- 65세 이상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 문화 향유층의 만족도, 스스로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영국에서는 여성의 평등(equality) 문제를 장애나 소수자 문제와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영국과 한국은 다른 사회이고 영국에서는 인종부분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정책적 비전이 다름.

□ 해외연구(영국사례)발제에 대한 논의

- 매니저 급에서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감독 급에서 균등한 것은 여성 탈락률이 높다는 것임.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성 비율로 봐서는 여성이 많은데 최고 직급은 동일한 비율로 진급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국가 과제 중 성비율을 맞추는 것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은 이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영국예술위원회의 경우 결과보고를 받을 때 시스템에서 성별, 인종, 성적 지향 성 등의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해야 승인이 이루어지게 됨. 우리도 그런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함.
- 관련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음. 다양성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경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직원의 남녀비율 정도만 공개됨. 직급별 성비율은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음.
- 예술계의 비정규직, 정규직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데 이러한 데이터는 어디서도 공개를 하지 않음. 관련 자료 공개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임.
- 전국 기초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음. 기초문화재단도 영국처럼 여성들이 많으나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었음. 정규직, 비정규직에서 남녀비율은 비슷하거나 여성이 좀 많거나 하는 정도이나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급감하고, 이사급으로 가면 여성이 없음.
- 한국의 기관별 성별 분석에 대한 자료들을 좀 더 섬세하게 분화시켜야겠다는 시사점이 도출됨. 소위의 논의 주제는 예술위 지원정책에 한정해 지원받는 수혜자의 성별 등 예술위 안의 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임. 그러나, 예술위 지원정책이 만들어지는 기제를 보면 상위 기관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며 이 과정이 필요함.

□ 국내외 성 주류화 관련 발제(박소현 위원)

- 성평등, 성 주류화 논의는 예술계와 관련된 논의이기도 하지만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 전반에서 보편성과 연계 되어야 함.

- 예술현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새롭게 결성된 단체들도 있음. 그 중 하나가 ‘여성문화예술연합’이고 보도자료를 내거나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해 왔음. 예술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조사, 실제로 성폭력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들까지 포괄하여 논의하고 있음. 예술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떤 식으로 연계시키고 확장시킬 방법을 살펴볼 수 있음. 성희롱, 성폭력은 구조적인 위계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는 문제인식과 관점이 일관되게 나타남.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초안이 마련되어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 한 챕터가 성평등 관련 주제이며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조직을 새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음.
-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여성 대표성 관련해서 논의를 해 왔음. 실제로 예술정책에서 여성 대표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 되어야 함.
-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rts, Culture and Media Comparative Perspectives」
 -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 내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남녀 성비 문제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급여와 연금 격차를 같이 다루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술위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과 연결될 필요가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예술 실태조사나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조사항목으로 성비 등 성평등 이슈가 반영될 필요 있음.
 - 일·가정양립은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정책의 보편타당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 지표들, 지표범주와 세부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하고, 이것을 추가/보완하여 문화예술계 현실에 맞추는 것이 필요함.
- 「UNESCO_Gender Equality Heritage and Creativity」

- 유네스코 차원에서 예술영역을 다 포괄하여 나온 보고서로 이러한 해외 보고서를 참고해서 우리도 몇 가지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새 예술정책(2018-2022)」
 - 여러 실행과제 중 예술계 성평등 실현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언급함. 기본적으로 성평등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의 근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관점이 중요함.
- 성 주류화 정책을 여성가족부가 총괄하지만 문화영역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문화정책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성 주류화 정책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는 매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를 통해 여성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표나 항목을 가지고 정리를 할지, 그리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음.
- 문화예술계에만 집중해서 성평등 이슈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책 안에서 문화예술정책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 (예. 경제활동 지표 - 고용률, 근로형태 등)

□ 성 주류화 발제에 대한 논의

- 생애주기별, 경력단절에 대한 발제 때, 영국의 차일드케어 서비스에 대한 언급도 필요함.
- 영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협회나 연맹이 계약할 때 문서로 구체적인 지침들을 마련해서 공유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한국도 지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조직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 있음.
- 영국예술위원회는 예술계 종사자(workforce)만 다루고 있고 문화 향유층(audience)은 다루지 않고 있음. 소위에서는 예술계 종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봄. 문화 향유층에 집중하면 논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음.
- 성 주류화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어려워 결국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이슈는 고용이나 복지 분야에 비해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성 주류화 관점은 다른 고용이나 복지와는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가 어려운 문제임. 첫 번째 오픈테이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계 성 주류화 관점은 이래야 한다.’ 라고 발표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필요함.

□ 1차 오픈테이블 주제 논의

- 1차, 2차 오픈테이블은 내부(예술위) 지원사업 분석으로 정해져 있음. 그동안 우리가 본 데이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우선되므로 예술위 원회 사업을 성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필요함.
- 1차 목표는 예술위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이지만 가능하면 예술계 공공사업에 대한 분석이 전체적으로 필요함. 예술위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공공기관과 단체의 영향이 큼.
- 2019년에는 알리오에 공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성비를 드러내고 이 데이터들을 상시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이러한 조사에 반드시 응하거나 경영공시를 해야 될 부분을 선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현실적임.
- 첫 번째 오픈테이블의 발제 내용
 - GENDER, DIVERSITY 관련 해외 사례 발제 (오세형 위원)
 - 예술기관 내 성별비율 관련 발제 (김혜인 위원)
 - 성평등, 성 주류화 관점에 대한 발제 (박소현 위원)

마. 5차 회의 논의 내용

□ 2017년 예술위원회 지원사업 파일럿 데이터(총 76건, 시각-17건, 공연-59건) 위원별 심층 분석

- 시각예술(전시사전연구지원)
 - 주제 : 여성성,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음. 개념미술에 이르기까지 내용은 대체로 중성적임.
 - 인적 구성 : 대표는 6개 단체 중 1명 남성, 나머지는 모두 여성이며, 참여

작가의 경우 실적보고서 상에서는 이름만으로는 성별을 특정할 수 없어 추정만 할 수 있었는데 팀별로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 않음. 기획자는 여성이 많으며 참여 작가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음(60-70%)

- 인적구성의 차이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작가 풀이 남성이 더 넓을 수도 있고 내용에 있어 특별히 성별을 다루는 주제가 없었으며 개념미술, 미디어아트, 조각 등에서 지금까지의 남성작가가 많은 영향일 것으로 추정 가능함.

- 시각예술(전시지원)

- 주제 : 성 특정적 주제 없었음. 젠더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임.
- 인적 구성 : 여성기획자가 많은 것은 대학교육과 연계해볼 수 있음.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보통 예술학과, 미술사학과 등을 지원하는데 여성 비율이 높음. 여대에 만들어진 학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음. 주제 자체가 젠더 특정적이지 않다면 기획자의 성별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함. 결과보고서만으로는 실제 작업환경이나 과정에서 젠더문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힘들. 양식에서 주요관람인사 명단도 놓게 되어 있는데 지명도와 젠더문제의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지명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이 성과보고서에 드러나는 것이 적절할가를 고민할 필요 있음.
- 작가가 지원 시 젠더 특정적 내용을 제출하면 선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 검열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중성적인 내용이나 남성적 주제들을 고르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층 면접이 필요함.

- 공연예술(올해의 레퍼토리-연극)

- 주제 : 전통극, 일반 연극, 레퍼토리화 된 연극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뉘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어떤 대표의식을 찾아보기 힘들.
- 인적 구성 : 인력구조가 창작, 기획, 스태프, 출연의 4개 파트로 구성됨. 성비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2017년 1차에 지원받은 1개 단체는 창작파트 대부분이 남성임. 이 단체만 특이함. 다른 사업들에서는 성 비율이 큰 의미가 없음. 여성이 많거나 비슷하고 여성이 작가면 남성은 연출을 하는

등임. 2차에 지원한 단체의 경우 당시 미투 운동이 진행되었을 때 연극계 분위기가 서늘되어 있음.

- 실적보고서 양식에 표준계약서 작성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차후 지표를 뽑는 참고서류가 될 수 있을 듯함. 이 실적보고서 양식 자체가 젠더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양식이 아님.
- － 공연예술(올해의 레퍼토리-전통, 창작뮤지컬)
- 주제 : 사회성을 담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도 남성적인 문화들을 끌어 온 것이 있어 보이나 크게 유효하지는 않음.
 - 인적 구성 : 연출이나 무대 스태프들의 성 비율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임. 창작 뮤지컬 미 정산 3단체의 경우 모두 대표가 남성이고, 두 단체는 출연자 전체가 남성임.
- － 공연예술(올해의 레퍼토리-무용)
- 인적 구성 : 8개 단체 중 남성 대표자 5개 단체(62%), 여성 대표자 3개 단체(37%), 기획은 남성이 1명(12%), 여성 7명(87%), 피디는 남성 3명(10%), 여성 18명(85%), 스태프는 남성 33명(80%), 여성은 3명(19%)임. 출연진의 경우 남녀가 거의 비슷함. 대표 비율은 남성:여성이 20:80이고 기획은 역전되어 여성의 비율이 80% 이상임. 예산단가표를 보면 대표와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은 평균 단가율이 250만원대이고 출연진은 100만원 이하, 스태프들은 평균 130~150만원대임. 여성들이 대표인 경우 남성 스태프들에게 300~400만원대의 디자인비가 지출됨. 역할에 있어 단가가 높은 역할은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단가가 낮은 역할에 있어 여성들이 많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함. 피디역할은 남성들이 드물고 스태프의 경우 여성이 극소수로 들어가 있는데 의상, 음악작곡 두 명 정도가 유의미해 보임. 피디나 행정업무처럼 수동적인 역할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담당하고 창작의 영역은 남성들이 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됨.
- － 공연예술(올해의 신작-무용, 전통)
- 주제 : 무용과 전통 모두 매우 추상적이고 작가주의적 주제임. 현실적인 삶, 일상적인 문제는 다루지지 않음.
 - 인적 구성 : 올해의 신작-무용의 경우 심사위원 전체가 여성임. 그러나 선정

된 단체의 대표는 전체가 남성임. 심사위원 전원이 여성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궁금하고, 또한 심사위원 전원이 여성인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듦. 창작자도 대부분 남성이고 출연자는 남성과 여성이 섞여 있으며 제작, 스태프는 반반 정도의 비율임. 한 단체는 대표와 창작 인력은 남성인데 출연진은 전체가 여성이기도 함. 올해의 신작-전통의 경우 개인이 한명, 나머지는 단체였는데 그 개인이 여성이었고 나머지 단체의 대표는 남성이었음.

— 공연예술(올해의 신작-연극)

- 인적 구성 : 실적보고서 양식에서 계량적 사업성과를 넣는 부분에 있어 한국인/외국인 참여 예술인을 넣게 되어 있는 반면, 남/여 예술인 성별을 넣는 부분이 없음. 일자리 창출 성과를 넣는 부분에도 역시 남/여 성별을 넣는 부분이 없는데 이 두 표에 성별을 넣는 부분을 추가했으면 함. 비계량적 사업성과를 넣는 부분에서도 남녀평등에 기여한 부분을 넣을 수 있게 했으면 함. 무대, 기술, 감독 등 역할별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나와 있는데 이 표에 성별, 연령, 경력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게 하면 좋겠음. 경력이 어느 정도 된 여성 혹은 남성이 얼마를 받는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임.
- 영국예술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성적 지향성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성별과 장애, 연령에 대한 내용까지 취합하면 좋을 것 같음. 대학교수들 연구업적 기입처럼 온라인 시스템에 기입하면 도표화 되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면 작성자 스스로가 자신의 단체가 어떤 인적 구성을 갖는지 인식하지 못하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함.
- 성인지 교육 관련해 계약을 맺을 때 의무화 되었으면 하지만 교육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표준계약서 등에 명문화하여 문서를 읽고 서명하도록 했으면 함.

□ 예술가 및 단체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논의

- 예술위의 경우 선정단체 워크숍을 진행할 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 교육 참석은 대표자 참석을 권고하지만 실무자가 주로 참석함.
- 교육방식에 있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콘텐츠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 교육을 필수로 하느냐 안하느냐의 수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술가, 단체가 주체

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즉, 규제와 함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장 수시 모니터링도 필요함.

바. 6차 회의 논의 내용

□ 성평등, 성 주류화 관점에 대한 발제(박소현 위원)

- 예술의 역할 재정의 필요
 - 지원사업이라는 작은 틀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함.
- 성평등 예술정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가 필요
 - 예술위가 지원금을 분배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기관이어야 함(예술위 정책기능 회복).
 - 예술위의 역할 중 예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성평등 예술 정책도 예술위의 중요한 프레임으로 선언되어야 함.
 - 유네스코(“예술가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문서가 생산되고 있는데 기본 출발점은 ‘예술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다.’에서 출발함. 예술위도 새로운 역할이나 기능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성평등 예술지원정책의 관련성
 - 성평등 예술지원정책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행과 긴밀한 연결이 필요함. 2000년 11월 비준후 협약의 원칙과 방안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며 그 안에서 성평등 예술정책 추진이 필요함. 유네스코 논의에서도 성평등 문제 역시 문화다양성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중요한 아젠다로 포함시키고 있음.
 - 관련한 주요 아젠다 : ① 문화예술분야에서 여성은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있음. 절반이상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취약함.

- ② 성차별이 창작자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향유자의 문화권을 침해하는 두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③ 사업을 구상할 때 성차별적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편견을 깨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여러 통계자료 등 생산의 중요성 강조함.
- ④ 성평등 원칙은 1948년 인권 선언의 문화권 보장, 문화다양성 보장의 초석이 되었으므로 성평등은 피해갈 수 없는 아젠다임.
- 가치사슬 관점의 접근이 중요함. 예술을 창작자, 창작영역의 관점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전파되고, 유통되고, 향유자들의 접근성과 연결되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떻게 성평등을 생각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함.
-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후 유럽을 중심으로 나오는 또 다른 아젠다는 문화주류화임. 국가 전반적인 영역에서 문화와 예술이 덜 중요한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음.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성평등, 성폭력 이슈 역시도 덜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주류화와 젠더주류화가 같이 보조를 맞춰 조망되어야 함.
- 단순히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협업이 필요함.

– 점검 과제

- 예술위 차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토론회를 통해 구체화시켜야 함. 개별 신고건수들을 개별사안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정책 방향,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것들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예술위의 운영 방침과 성평등의 가치적인 연계성, 이 두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예술위가 예술에 어떤 사회적 중요성, 역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알리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연결해서 생각했으면 함. “훌륭한 예술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다.” 예술위 홈페이지에 숨겨져 있는 이 문구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훌륭한 예술이란 무엇인가’ : 기존 전통적인 정의 방식이 아니라 성 주류화 전략 차원에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술,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이나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강했음. 이러한 점에서 ‘훌륭한 예술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예술위가 기능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기관이라는 방향성이 필요함. 홈페이지의 경우도 성평등 관련해서 내용과 구성이 정리되었으면 함.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누가 보더라도 예술위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예술위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성평등을 지지한다는 관점들이 같이 포함되면 함. ‘훌륭한 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창작지원이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사슬 안에서 순환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방향성 안에서 사업설계가 필요함.
- 예술위의 정책수립 기능 강화 및 지표 개발, 사례
 - 성 주류화 전략이 문화다양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정책방향과 정책 안에서 어떻게 안착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함. 문화주류화, 예술주류화와 성 주류화가 맞물려 문체부에 정책을 역 제안하는 방식이 필요함. 예술위의 정책수립이나 제안 역할이 강화되었으면 함.
 - 두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 성평등 지표가 만들어져야함. (1) 문체부 산하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평등 지표 공동 개발, (2) 예술위와 지역 문화재단들이 묶여 공통 지표 개발.
 - 런던박물관 gender pay gap data :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위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여러 기업들도 다양성 지표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음. IT 기업을 중심으로 조직 내 임금격차(성별, 인종 등) 지표를 개발해서 자신들의 다양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예술위도 문화계 전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예술가들과 예술활동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가치를 공유할 것인가(적극적 조치, 임파워먼트)

- 예술가 중에서 여성, 문화예술계에서 여성 종사자들에게 임파워먼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함. 이 부분은 예술위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National Museum of Women in the Arts : 여성 예술가들, 여성 종사자들이 겪는 여러 성차별 관련 사실들을 수집하고 가공해서 공개하고 아카이빙 하고 있음. 연구센터도 운영함. 여성 예술가들의 예술활동이나 여성 예술가들을 계속 알려 여성의 힘과 여성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기관에 확대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음. 지금 당장 별도의 조직이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술위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
-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in the CCI 연구프로젝트 : 조사 전 단계에서 기존에 있었던 성평등에 대한 개념들이나 예술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함.

□ 성평등 관련 정책 방향 논의

- 성평등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점이 하나 있었으면 함. 타겟 지점을 데이터로 만드는 팩트 기반으로 접근해야 함. 공공기관은 어떤 데이터로든 그 부분들이 경영공시에 포함되어야 한하는데 초점을 맞춰 강력하게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 등이 필요함.
- 성평등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된 사항을 포함 하여 전체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음.
- 여가부는 우리사회가 성평등한 사회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강조하여 성평등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제시함. 한국사회 구도상 사회진출이나 복지혜택 등 수치로 드러나는 부분은 추진하기 쉬우나 문화예술계는 그 수치 안을 깊게 들여다봐야 함. 같은 틀로 보면 보이지 않음. 여가부의 경우는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제시해주길 원함.
- 유네스코의 다양성 관점으로 문화예술계 성평등 이슈를 보는 것이 맞는지를 봤을 때 개념상으로는 맞지만 전략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음. 문화예술계에 특화된 성평등 관점에 비전 또는 관찰 방향을 명시화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음. 예술위의 미션과 역할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예술위가 원래 추구하는 미션이 있는데 어떤 관점을 가져야만 이 미션이 충족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첫 오픈테이블에서 이야기 했으면 함. 예를 들어, 기재부나 산업부의 경우 ‘해당 분야가 성평등해지면 GDP가 특정 시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식의 분석을 내기도 함. 접근 방식의 맞고 틀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성평등에 속도를 붙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 예술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언급이 첫 번째 오픈테이블에서 나왔으면 함.

- 기본권 문제로 접근하여 여성이 존중받는 가치가 사회에 중요이슈로 부각될 수 있음. 이는 없었던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적 변화로 중요성이 상승한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헌법 기본권과 연관 지을 수 있음.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과 관련됨.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추가된다면 한국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됨.
- ‘훌륭한’ 예술에서 내용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넘어서, 즉 기능적 접근을 넘어서 제작과정 자체에 민주적 과정을 조금 잘 드러나게 하기 바람. 예전에는 장르의 수월성을 ‘훌륭한 예술’로 보았다면 지금 시대에서는 ‘훌륭한 예술’에 반영되어야 할 키워드들을 더 붙여서 고민하고 제시했으면 함.
- 사회 안에서 예술가들의 위치 자체가 좋지 않음. 남성예술가들의 위치도 지배적 위치가 아님. 사회 전체 안에서 예술이 비주류적 입장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드러낼 필요가 있음. 오픈테이블 토론 주제도 서로 점검해서 민감성이나 반응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을 것 같음.

□ 제1차 오픈테이블 순서 및 방식

- 일시 : 2019. 7. 1(월) 오후 2시 ~ 4시, 장소 : 이음센터 5층 이음홀
- 전체 진행 : 강윤주 위원장
- 발제 순서
 - ① 강윤주 위원장 :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정책-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활동 소개 및 2017년 예술위원회 데이터 분석

② 박소현 위원 : 성평등한 예술지원 정책 상상하기 - 성평등, 성 주류화 관점

③ 김혜인 위원 :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지형, 왜 우리는 변화를 얘기하는가
- 국내 공공기관 경영공시 등 국내사례

④ 오세형 위원 : 문화다양성 정책과 성평등 지표의 의미 : 영국 예술위원회의 사례 - 영국 예술위원회 등 해외사례

- 발제 시간 : 각 20분

- 토론 방식 : 사전에 6개~10개 정도의 토론거리를 선 공개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할 경우 발제자 외 위원들이 플로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 예술가 및 단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 적극적인 형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함.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만들어주고 단체 구성원 전체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일반적인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진행하고 여성민우회나 예술계에서는 영진위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반응이 좋음. 복수로 지정해두고 그 중 하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길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전문 강사 육성 사업을 하고 있음. 아직 초기단계라 강사 풀과 사례가 축적되어야 함. 연극계에서는 자체적인 행동강령도 만들고 있음.

-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성폭력 문제는 다른 분야와 다름. 문화예술계에서 제일 심각한 점은 어떤 것이 성폭력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임. 협회별로 관련된 미션을 주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당사자들의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음. 예술가들이 교육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전체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전략 방향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위에서 실적보고서에 성평등·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 등 구체적 실천부터 시작해야 함.

아. 7차 회의 논의 내용

□ 현장소통소위 제안 관련 논의

- 성폭력·성희롱 관련 질문은 1차 오픈테이블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며 소위에서도 다뤄야 하는 이슈임. 1차 오픈테이블에서 소위의 계획과 해당 이슈를 언제 이야기할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위원들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이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 합의해야함.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현장소통소위와 협력하도록 함.
 - ① 예술위 전체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
 - ② 예술위 차원에서 성폭력 성희롱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지원정책으로 이어질 것인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연구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점을 언급
 - ③ 우리가 왜 성폭력 성희롱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 다루지 않는지 언급
 - ④ 다음에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언급
 - ⑤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오픈테이블에서 발표하고 현장소통소위에도 전달

□ 성평등 예술지원 정책 수립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

- 성평등한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소통의 다양성들이 확대됨. 세대별, 연령별, 성별 다양성들이 논의테이블을 구성할 것이고 논의테이블에서 다양성이 구성되는 순간 현장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디테일의 영역이 확장됨. 일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 부분에 과잉집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지금은 수월성의 시대를 넘어서 예술 장르 경계도 허물어지고 확장되고 있음. 훌륭한 예술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도 성평등한 비율 등을 담보할 때 훨씬 더 현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좋은 창작물이 나올 수 있음. 예술가들의 예술성을 고양시키고 자극하기 위해서도 지원구조에서 성평등한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현재 꼭 필요하고 시급함.
- 문화예술계에 성불평등한 구조가 있으나 이것이 고착화되어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음. 남성과 여성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 여기에는 지원 구조가 만들어낸 위계를 흐트러뜨

리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 이슈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성평등한 사회는 지금보다는 좋은 사회를 의미함. 그런 의미에서 예술위에서 갖고 있는 미션 안에 성평등한 예술이 있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어떤 사업이 특정 성별에게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이를 고쳐야 함. 성평등한 렌즈로 지원정책을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쳐야 하고, 이를 통해 여성예술가들에게 창작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마이크로 한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의 성취이나 성평등 관점이 지원정책에 반영되었을 때 성평등 렌즈로 한국 사회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성평등 환경은 예술적 동기와 역량을 키울 수 있음.

자. 8차 회의 논의 내용

□ 제1차 오픈테이블 발제 최종 점검

- 제1차 오픈테이블 발표에서는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설치 배경 및 목적, 회의 차수별 경과보고, 예술위 지원사업 결과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음. 예술위원회 지원사업 분석, 개인 및 단체, 소액 및 고액 등의 지원사업에서 보이는 성비를 조사하였고, 차후 경력단절 과정과 이를 통한 현장 이해의 필요성을 다룸. 위원별 질적 조사내용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연구용역의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 다룰 예정임.
-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설치 배경이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와 이에 관해 제기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미투운동의 골자인 성 주류화 문제뿐만 아니라 예술 주류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해야 함. 성 주류화 관점이 성평등 이슈가 사회 주요 이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고, 예술 주류화는 성평등의 지평을 확장시켜서 예술이 사회 주요 이슈에서 당연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임. 새로운 개념인 예술 주류화를 관객들의 이해를 위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성희롱을 넘어 성평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예술계에서 어떤 상태가 성평등한지 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기계적인 성평등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기계적 성평등이 이뤄졌다해도 이를 문화예술계에 적용시켰을 때, 성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현재 문화예술계 종업자, 취업자, 의사결정 구조 상의 성별 격차 비율을 확인해보면 후자로 갈수록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짐.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을 때, 남성에게 유리한 환경 외에도 여성의 자발적 포기비율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술위원회 목적자체가 예술창작을 진흥하기 위함이나 남녀에게 일어나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창작지원을 한 경우는 없었음. 설계단계에서부터 남성중심의 시각 또는 남녀구별 없이 특정 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설계됐을 수 있기 때문에 젠더적 관점을 넣어서 남녀 각각에게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접근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환경이 요구하는 것 외에 근본적으로 남녀가 다른 부분은 인정하고, 남녀 모두가 똑같은 지점까지는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평등인데 현재는 결과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적이 필요함.
- 한국의 양성평등정책과 문화비전2030은 여성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지만 실제로 구체화 된 정책이나 실효 수단이 부재하여 그림자 정책이나 다름없고, 문화비전2030 제작 단계부터 다양성과 여성문제 섹터가 구분되어 정책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했음. 영국 예술위원회의 사례에서 양성평등의 구체적인 프레임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영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이고, 큰 범주에서 인구 구성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젠더 이외의 요소들인 민족, 나이, 성적취향 등을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레임을 만들 수 있었음. 한국은 그 모든 것을 분할해서 다루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됨. 한국도 정책적, 사회적으로 성비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함.

차. 9차 회의 논의 내용

□ 제1차 오픈테이블 최종 평가

- 성평등 정책과 다양성 정책 간의 관계 설정

- 한국의 다양성 정책이 장애인과 노인 양 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 공감함. 그 외 다른 문제는 굉장히 소수화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 문제나 성평등 문제는 어중간한 위치에서 논의되면서 결국 성평등 이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듦. 다양성은 현재로서는 주류로 끌어들여서 논의하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으나, 아예 논의에서 제외시키게 된다면 콘텐츠의 질적 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임.
 -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함.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일단 성평등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다양성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2차, 3차 단계별로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관계
-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문제 역시 ‘다양성을 확산시킬 것인가 축소시킬 것인가’와 유사함. 오픈데이블에서도 제 3의 성, 제 4의 성, 또는 성적 소수자까지 포함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소위원회에서 실천 행위로서는 ‘양성평등’의 방향에서 여성문제를 주로 다룰 수 밖에 없지만, 조각적 정의에서는 ‘성평등’으로 용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앞서 얘기한 단계적 로드맵 중, 현시점에서는 여성의 문제들을 주로 다루지만, 후반부로 진행하면서 다양성의 측면으로 넓혀가는 동시에 성별과 소수자 정체성을 교차시켜서 현상을 파악하려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음을 밝혀야 함.
- 심사 기준의 문제점
- 심사 위원들에게 각성 효과를 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혹은 공고문이 필요함. 심사하기 전에 이를 서류로 만들어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숙지시킨다면, 심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줄어들 것임.
 - 다른 공공기관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가이드라인은 기관의 내부 문건이므로, 소위원회 위원 중 심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용역수행업체에 가이드라인을 모아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수합해야 할 듯함. 자료가 취합되면 예술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임.
- 심사위원 선정의 문제점

- 심사위원 자격 조건을 보면 30대나 40대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임.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청년세대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음. 이는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소위원회의 연구를 통해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성평등한지, 더 나아가 청년 세대의 개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함.
 - 이를 위해서 먼저 심사위원 비율이 지금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특히 심사위원 풀이 어떤 식으로 선정되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함. 이는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음.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심사위원 풀 데이터는 예술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할 예정임.
 - 시각예술 창작 산실의 '17, '18, '19년도 자료(신청 개인/단체와 선정 개인/단체의 성별, 연령, 지역에 대한 자료)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예정임.
- 성평등 통계 및 지표 생산
- 통계 및 지표 생산은 예술위원회보다는 문화부에서 다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함. 실제로 문화부에서 현재 시범조사로 기초단위 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므로, 이후 그 자료의 통계화 문제는 문체부에서 다룰 문제임.

카. 10차 회의 논의 내용

□ 시각예술 신청/선정, 심사위원, 선정단체 인력 분석결과

- 시각예술 창작산실 선정/지원현황
- 선정은 '17년도 기준 개인에서 여성과 남성이 5:5로 나타남. '18년도에는 단체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지만(남45:여55),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 지원-선정에서 단체는 '16년에 비해 '17년도에 여성단체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음. 개인에서는 '16년과 '17년에 여성이 훨씬 높았으나 '18년에는 남성이 높게 나타남. 전체적으로 '16년/'17년에는 여성이 높았으나 '18년도에 들어서면서 균형이 맞춰진 것으로 보임.
 - 분야별로는 공간에서 여성이 높은 편이고, 전시에서는 남성이 높은 편임.

연구/비평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남.

— 심사위원 풀/선정 현황

- 서울 지역의 심사위원 선정률은 남성이 55.7%인 반면 여성은 70%로 지역 여성들은 심사위원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남. 심사위원 참석 횟수는 1~2회가 남성이 67%, 여성은 56%임. 한 두번 참석한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은 남성은 다양한 사람이 참석했으며, 여성은 심사에 참여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참석했다는 것을 의미함. 결국, 여성은 수도권에 집중해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오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참석했다고 볼 수 있음.

— 시각예술 창작산실 공간지원 선정단체 인력 현황

- 선정된 단체들의 결과보고서 데이터로 단체별 인력을 분석함. 결과보고서에 성별은 작성하지 않는 관계로 성별을 추정하였고 연령도 미상인 경우가 많았음. 또한, 상근과 비상근의 개념이 모호하게 작성된 경우가 다수여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짐.
- 초기 계획은 <예술인 실태조사>의 데이터와 실제로 선정된 단체의 인력 구성비를 비교하는 것이었으나, 예술인 실태조사에 응답자의 구체적인 소속 단체/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함.

□ 예술지원정책 분석 대상 선정

- 문예위 지원사업 중 시각, 공연, 문학의 비중이 큼. 나머지 분야는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정도로 케이스가 많지 않고, 자료 취합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분석은 하나의 장르를 단독 발제로 진행하기로 함. 단독 발제로 진행해야 장르별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음.

□ 관리코드, 세부분야 재분류

- 지원사업 관리코드가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코드를 유형별로 묶어준다면 성별/연령별 차이 등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관리코드 : 1)공간지원, 2)전시지원/전시지원1차/전시지원2차/우수전시순회사업/지역순회, 3)비평지원/비평연구지원, 4)리서치지원/전시사전연구지원

으로 재분류

- 세부분야와 세부유형은 문예위의 지원신청서 확인이 필요함.

타. 11차 회의 논의 내용

□ 소위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제도 변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공정심의부에서 심사위원 구성, 심사 가이드라인, 심사위원 교육에 대해 초안을 작성 중에 있음.
- 예술위원회 위원 워크샵에서 심의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따로 열릴 계획임.
- 예술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성평등 소위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성인지 교육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공유됨.

□ 데이터 클리닝 관련 사항

- 장애파트너스그룹에서 사업 중 주관처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 축제/콜로키움/연구 사업 등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후(데이터 클리닝 실시) 1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함.
- 분야별 데이터 클리닝에 대한 각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여 분석 대상을 재정리한 후 확정할 계획임.
- '19년도 신규사업인 '청년예술가생애찾지원' 사업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예술창작지원사업 하위 사업으로 분석 대상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예술위 지원사업명의 모호성

- 분석을 진행하면서 예술위의 사업 분류 체계가 사업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함. 사업이 세부적으로 좁혀질수록 사업에 대한 구체적 특성이 보여야 하는데 현재의 사업명은 이를 파악해 내기 어려운 구조임.
- 예산 구조와 사업 구조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예술위 전략팀이나 평가소위 등에서 사업 구조 및 사업명을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공연예술 데이터 1차 분석결과

- 각 사업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사업 분류를 세분화하여 분석을 진행함.
-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순 성별에 따른 선정건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성별을 개인과 단체로 세분화하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됨. 남성 단체들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 구조임이 확인됨.
- 지원금액 교차분석 실시 결과, 유의미한 수준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단체가 개인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함.
- 연령대별 지원 금액도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는데, 여성 60대가 가장 큰 금액을 지원받고 있고 여성 20대가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사업별 분석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사업 유형별로 60대 여성은 지원 규모가 큰 사업에 몰려 있다던가, 20대 여성은 사업 지원 건수는 많은데 지원금이 굉장히 작게 설정돼서 소모되고 마는 사업들에 몰려있다던가 등 사업 특성과 함께 분석돼야 해석이 가능함.
- 전체 지원율은 남성과 여성이 50:50 정도로 비슷한 반면, 연도별로 살펴보면 '16~'18년까지는 여성이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19년도에 여성의 지원률이 남성을 역전함. 이는 미투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남성 위주로 알려지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들이 여성들에게 확산되는 과정이며, 성평등한 인식을 갖게 한 것이 실제적인 결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보임.

□ 시각예술 데이터 1차 분석결과

- 시각예술분야는 전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6:4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시각예술분야는 왜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봄.
- 지원에 대해 개인/단체를 비교한 결과, 여성 개인의 지원 건수와 금액이 70%까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함. 이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시각예술계의 생태

계와 비슷하게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시각예술분야의 전체 구조를 비교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활동증명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매년 연차보고서에 예술인활동증명을 한 사람들의 성비, 연령대에 대한 통계수치를 발표함.
 - 고등교육통계 : 졸업생 현황을 보면 젊은 시각예술인의 성비를 살펴볼 수 있음. 젊은 연령층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 고등교육통계의 대학, 대학원 이상의 시각예술 관련 대학 전공 졸업생 비율 취업률을 살펴보면 여성:남성의 비율이 7:3 정도임.

□ 문학 분야 데이터 1차 분석 결과

- 문학분야에서는 50/60대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우리나라 문학분야에서 창작 지원이 규모가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연령대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문학분야의 활동자 연령대가 높다는 의미로, 문학 활동인 연령대를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와 비교 분석이 필요함.

과. 12차 회의 논의 내용

□ 데이터 분석방법 논의

- 사업이 개인지원과 단체지원으로 나뉘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개인/단체로 분류해 분석해야 함.
- 기존 연령대 분류방식(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연령대 분석 외 예술가의 생애사 분석(데뷔 연도를 중심으로 한 경력연도별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나, NCAS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함. 따라서 예술인복지재단에 연령-분야 교차분석을 실시한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를 요청해 대체할 예정임. (예술인복지재단에 별도의 데이터 요청이 필요함)
- 청년 세대 관련 이슈들은 생애사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 3차 오픈테이블에서 논의하기로 함. 2차 오픈테이블에서는 '2019년도에 청년 섹터에 대한 별도

지원(청년예술가생애치트원 등)이 신설돼 청년층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로만 다를 예정이다.

- 공연과 시각 분야는 12차 회의에서 사용한 시각분야 PPT자료를 기본 분석틀로 사용하도록 함. 기본 분석 외 각 분야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는 추가 분석을 실시해 덧붙일 예정임.
- 장르별로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그러한 언급을 통해 '단체의 대표가 남성인 경우, 단체 내부 환경이 남성 중심적 환경으로 조성될 확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남성이 상대적으로 권력을 쉽게 보유할 수 있게 된다'등의 실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성평등 이슈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해석 방식은 서로 달라야 함.
- 예술지원의 성평등 이슈는 개인 데이터로 해석해야 함. '단체 대표가 남성이 많기 때문에 지원금이 남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해석 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단체 데이터가 기금지원사업의 성비불균형을 얘기하는 데이터로 해석되기 보다 문화예술 단체나 기관의 권력구조에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추정으로 해석돼야 할 것임.

□ 문학 분야 데이터 분석결과 및 방향

- 문학 분야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임.
 - 문학 지원사업 분석 : 문제의식을 던질 수 있는 주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PPT로 발제
 - 지원사업 분석 결과와 성평등 이슈 간 연계를 통한 문제의식 제기
- 문학 분야 데이터와 고등교육통계 자료와의 비교 분석은 제외됨.
(고등교육통계 중 전문대학에서만 문예창작과가 별도 학과로 분류되어 있음)

□ 공연예술 데이터 분석결과 및 방향

- 공연예술 분야는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남성 비율은 줄어듦과 여성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공연예술계 여성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
- 공연 분야는 예술위원회의 전체 사업의 구조를 지원과 선정, 예산 금액 규모로 살펴보고 연도, 연령대, 성별 차이를 통해 여성들은 지금 어떤 지원들을 받아왔

고 받고 있는가를 살펴볼 예정이다.

- 공연예술 사업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언급할 계획임.
 - 예술위라면 기본적으로 창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향유지원사업이 50%대에 육박하는 반면, 창작 지원은 24%대임. 창작보다는 향유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예술위의 방향성이 올바른 것인지, 사업의 중심성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이에 예술위는 향유지원사업 역시 창작 지원사업에 가까운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공연예술사업가들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답변함.
 - 무계획한 사업의 확장/중단 등 사업 구조 문제 등 지원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제를 진행할 경우 성평등이라는 포커스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짧게 언급할 필요가 있음.

□ 시각예술 데이터 분석결과 및 방향

- '19년도부터 국제 교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됨. 이에 국제 교류의 지원/선정 건수가 19년도에 소폭 감소함.
- '19년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서 지원 건수가 급감함. 관련 예산이 '16년도를 기점으로 '19년도까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16/'17년까지는 지원금 배부 전, 평가를 통해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제도가 존재했음. '19년도부터는 이러한 탈락 제도를 없애고, 처음에 선정된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함.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감소된 것처럼 보임.
- 선정 건수와 예술활동증명의 성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각예술을 전공한 예술대생, 고등교육조사 데이터와 비교하면 여성 비율이 13%p 정도의 차이를 보임. 시각예술은 공연, 문학분야에 비해서 여성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배출되는 시각분야 여성 예술인에 비해 선정 건수는 낮은 수준임. 그 원인으로서는 시각 예술을 전공한 여자 예술인들이 실제 예술인으로 활동하지 않을 경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의 벽을 깨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된 것이라 예상됨.
- 40대 이후로는 개인과 단체 모두 여성의 비율이 감소함. 즉, 시각예술 분야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이 점점 사라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3차 오픈데이

블에서 생애주기별 분석을 진행할 때, 시각예술 분야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함.

- 시각예술 분야는 개인-여성 비율에 비해 단체-여성의 비율이 20% 정도 낮게 나타남.

하. 13차 회의 논의 내용

□ <심의 전문가 등록 현황> 자료 논의

- 심의위원으로 등록된 전체 인원을 연령별로 보자면 40~50대가 제일 많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73:27). 특히, 비수도권의 남녀 비율이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비수도권의 여성 심사위원 풀이 매우 적으므로, 지역 여성 예술가에 대한 논의도 소위에서 다룰 중요한 안건 중 하나가 되어야 함.

□ 제2차 오픈테이블 결과 논의

- 오픈테이블에 대한 홍보 확대
 - 포럼을 통해 정리된 결과들이 알려지는 통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오픈테이블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언론과 연계되어 확산되었으면 함.
 - 이후 진행될 오픈테이블에서는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해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종료된 후에도 오픈테이블 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지역 격차에 대한 논의 필요
 - 지방의 경우, 협회를 중심으로 남성이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인데, 정보에 접근할 때 권위를 바탕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것이 정보 격차로 이어짐.
- 논의의 확장 필요
 - 데이터를 통한 문제제기에서 멈춘 채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음.
 - 소위원회의 역할 중 아젠다를 제시하고, 사업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현실에 반영될 만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함.
 - 예술위원회 지원사업 데이터 정도로는 파급력 있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 타 문화예술기관과의 연계 등 논의를 확장하여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함.

□ 제3차 오픈테이블 계획

- 생애사적 논의

- 예술가들의 생애사적 주기(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경력의 단절이 큰 이슈라고 생각함. 생애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으며, 생애사와 관련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어떻게 지원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세대별로 경력단절 이유가 다르므로, 세대별로 예술가를 섭외하여 FGI를 실시했으면 함. 20~30대와 40~50대를 묶어서 FGI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 및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오픈테이블을 통해 공유했으면 함.

- 타 분야 정책 사례 공유

- 과학 분야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업무 복귀를 장려하는 제도가 있음. 타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 복귀를 위해 실시하는 여러 제도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함.

거. 14차 회의 논의 내용

□ 40~50대 여성예술가의 생애사적 경력단절 경험 사례 발표

- 14차 회의는 40/50대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경력단절을 일으키는 사례들을 예술가들에게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함.

너. 15차 회의 논의 내용

□ 20~30대 여성예술가의 생애사적 경력단절 경험 사례 발표

- 15차 회의는 20/30대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경력단절을 일으키는 사례들을 예술가들에게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함.

더. 16차 회의 논의 내용

□ 정책 제안 정리

- 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업 및 공동논의 테이블 필요
 -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의 예술 지원에 대한 문제는 지원 체계와 복지 체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할 수 있음. 예술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려면 예술인 복지재단하고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함. 협업 방식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함.
- 예술위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의 제도화
 - 7기 위원들이 선출된 후 워크숍에서 성평등 교육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함.
 - 단순한 성희롱, 성폭력 교육이 아닌 예술위의 예술지원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교육을 1년에 1회 정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함.
- 소위원회 안건의 예술위원회 적용에 대한 고민 필요
 - 정기 회의에서 소위별로 보고를 항상 하지만, 그 전에 본 안건에 대한 논의로 소위의 보고 내용들은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1년 동안 소위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제일 큰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예술위 내부직원 또는 예술위원들에게 호소력 있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실제로 예술위원회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소위원회 논의사항 구체화를 통한 정책 적용
 - 성평등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중 구체적인 것들을 정책으로 제안하여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를 들어, 사업을 평가할 때 성평등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개선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심사 시 유지해야 하는 성평등 관점에 대한 지침을 심사위원들이 같이 보게 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결산보고서나 정산보고서에 참여 인력들에 대한 성별, 지역별, 연령별, 장애

요인, 이주민 여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원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도입됐으면 함. 다양성 차원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예술위원회에서 지원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됨.

- 예술위원회 자체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함. 성평등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안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현재 예술위의 지원제도에 관련된 회계정산시스템은 NCAS와 e나라도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음. 교부신청서까지는 NCAS로 받지만, 사업 결과는 모두 e나라도움으로 받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방식을 통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오픈테이블 운영 및 논의 내용

1) 오픈테이블 운영 현황

-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는 총 3회의 오픈테이블을 개최하였으며,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2-4> 오픈테이블 개최 현황

순서	개최일시	장소	주요 논의사항
1차	2019. 07. 01.(월) 14:00~18:00	이음센터 이음홀	- 성 주류화 개념 및 전략 - 국내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현황 - 영국 예술위원회의 사례를 통한 국외 문화 예술계의 성평등 현황
2차	2019. 10. 10.(목) 13:30~17:00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 1차 오픈테이블 내용 정리 - 한국예술위원회 공연, 시각, 문학분야 지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원 정책 논의
3차	2020. 01. 09.(목) 14:00~18:00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 여성 예술가들의 경력단절 사례 발제 - 과학기술분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경력복귀 지원사업 현황 - 여성예술인의 경력 유지와 복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논의

- 1차 오픈테이블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정책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예술지원 정책을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하였음.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션별 발표가 진행된 후에는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

- <Session 1> 강윤주 위원장 -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정책’
 - 예술위원회 안에서 논의되어 왔던 성평등 관련 주제들에 대한 개괄적 발표를 진행함.
- <Session 2> 박소현 위원 - ‘성평등한 예술지원 정책 상상하기’
 - 예술지원 정책 안에서의 성 주류화 개념과 전략에 대해 살펴봄.
- <Session 3> 김혜인 위원 -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지형, 왜 우리는 변화를

얘기하는가'

- 국내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지형을 조망함.
 - <Session 4> 오세형 위원 - '문화다양성 정책과 성평등 지표의 의미 : 영국 예술위원회의 사례'
 - 국외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지형을 조망함.
 - <Session 5> 자유토론
- 2차 오픈테이블에서는 '16년부터 '19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야별 예술지원의 성평등 현황을 분석해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하였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분야별 지원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성평등 관점에서 예술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참가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됨.
- <Session 1> 강운주 위원장 - '1차 오픈테이블 리마인드&피드백'
 - 1차 오픈테이블 내용 및 자유토론 의견 정리
 - <Session 2> 김정이 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공연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 공연분야 지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술위원회 공연분야 예술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
 - <Session 3> 장현선 (주)장애파트너스그룹 대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시각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 시각분야 지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술위원회 공연분야 예술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
 - <Session 4> 장은정 문학평론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문학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 문학분야 지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술위원회 공연분야 예술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
 - <Session 5 > 자유토론
- 3차 오픈테이블에서는 여성예술가들의 경력단절 사례 발표와 경력 복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1부에서는 4명의 여성 예술가들의 경력단절 사례 발제가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경력 복귀 지원 정책 제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음.

- 1부 : 여성예술가들의 경력단절 사례 발표
 - <Session 1> 남정애(영상)
 - <Session 2> 유정민(연극)
 - <Session 3> 조미영(시각)
 - <Session 4> 최선영(시각)
- 2부 : 경력 복귀 지원 정책 제안 발표
 - <Session 5> 차은지(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R&D경력복귀지원팀 팀장) - 과학기술분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R&D경력복귀 지원사업 논의
 - <Session 6> 최유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실장) - 여성예술인의 경력 유지와 복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
 - <Session 7> 자유토론

2) 오픈테이블 논의 내용

가. 1차 오픈테이블

□ 성평등 정책과의 관계 설정

- 성평등 정책과 다양성 정책 간의 관계 설정
 - 성평등(젠더) 이슈를 다양성(소수자) 이슈 안에 녹일 경우, 그 필요성과 절실함이 희석될 수 있음. 부분 과제가 아닌,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성평등과 젠더 이슈가 정책 과제로 수립되었으면 함.
 - 다양성 의제 안에 성평등 문제가 간히게 되면 소극적 차원으로 표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메타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성평등 이슈는 이슈로 머무르기 쉬움. 만약, 남녀 성비 기준만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파급력이 없는 통계 조사로만 남게 되어 소극적 차원에 머무를 수도 있음.

- 문화다양성협약에서의 다양성 관점은 문화부의 문화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 정책 영역을 관통하게 만들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문화다양성협약에서도 당연히 젠더의 문제를 거둬서 강조하고 있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다양성 정책 안에 당연히 젠더 문제를 포함시켜야 하나, 쟁점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자면 ‘여성 정책과 소수자 정책 사이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좁힐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젠더 정책은 인구 정책을 바탕으로 시행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소수자 정책과 혼동하는 것은 피해야 함. 그렇다고 해서, 소수자 정책 자체를 배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교차성의 문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함. 성별과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소수자 정체성을 교차해서 파악했을 때, 그 동안 파악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 교차성의 문제를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함.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 성평등 소위원회가 앞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교함’으로 ‘소위 활동이 실제로 지원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함께 갈 수 있는 관계인가?
- 사람을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구분했을 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 이것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양성 정책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현재의 다양성 협약 정책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성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성평등의 관점에서 경계해야 할 관점임.

□ 성평등 통계 및 지표 생산

- 여성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실시 제안
- 예술인 실태조사라는 국가 통계 조사에 기본적으로 남녀 성비가 구분돼 있음. 조사를 살펴보면 경력단절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단절의 이유를 살펴보면 임신, 출산과 관련해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 여기서 더 나아가 좀 더 세부적으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통계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봤으면

함. 현재 우리가 가진 이와 관련된 기초 통계 자료가 아직 전무한 상황임.

- 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수많은 예술단체 내에서 실제로 여성들은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음. 예술 단체, 그 중에서도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지원 방식을 위한 조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면 함.

– 성평등 지표 수립 및 적용

- 문화예술 각 기관마다 스스로 성평등 지표를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함. 인권 지표나 협업 지표 등을 만들어 내듯이, 성평등 지표를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경우,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여겨짐.

□ 성 고정관념 해결방안

– 여성 스스로 고정관념을 깨려는 노력 필요

-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얘기할 때, 여성이 고정관념을 자기화시키는 것이 문제임. 문화예술계 안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자신의 역할이나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불평등, 어느 위치까지밖에 갈 수 없다고 스스로 고정화 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것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나가는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용기를 받아 많은 여성들이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성 리더십 교육 실시

- 예술계의 여성 리더십에 관한 교육 또는 워크숍 등을 자주 가질 수 있었으면 함. 리더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을 경우, 나이가 들었다고 어느 순간 갑자기 리더십을 발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여성들과 어린 여성들의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여성 리더십 워크숍이나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 2차 오픈테이블

□ 발제자 및 소위원회 의견

-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젠더 불평등 해결필요성 인식 공유 필요
 - 데이터 분석으로 밝혀진 팩트를 통해 예술계 현장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자 했음. 그리고 이러한 합의점을 바탕으로 ‘현장의 모두가 함께 바뀌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함.
 - 2차 오픈테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젠더 불평등 문제 접근의 필요성 공유
 -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결과물이 근거 등의 부분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왜 고립된 상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2차 오픈테이블이 유의미했다고 보여짐.
 - 지원/선정 과정에서 e나라도움을 통해 수많은 정산서와 자료들을 받고 있지만, 역할별 성비 등 실제 현장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들은 확보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젠더 불평등/평등의 기준에 대한 논의 및 정책 반영 시스템 필요
- 성별의 비율만으로 젠더 불평등을 논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방식일 수도 있음. 이를 해결하려면 공정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비평적으로 분석하는 논리가 필요함. 그러나 사람마다 공정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다르고, 사회적으로도 공정성에 대해 합의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데이터를 비평할 수 있는 공론장이 부족하므로 기관에서는 사업운영뿐만 아니라, 비평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함.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낌.
- 성비 불균형 해결을 위해 남녀동수의 접근법에서 남녀의 입장과 의견 반영노력 필요
- 성비를 분석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성비 할당제에 대해 고민하게 됨. 남녀 동수로 수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별 주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생각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성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수적 성비를 맞추는 것을 넘어 어떤 가치와 내용들을 실제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 2차 오픈테이블 참가자 의견

- 문학계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단을 구성하는 연결 고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여태까지 문단에서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특정 가해자를 처단해야 한다거나, 일부 출판계 등 특정 부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음. 2차 오픈테이블을 통해 문학분야의 성폭력이 문단의 구조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앞으로는 등단 제도라든가 심사위원들의 구성 등 구조를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연결 고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임.
- 예술지원은 예술가 복지로도 이어지므로, 정책을 통한 일정 부분의 간섭이 필요함.
 - ‘예술지원의 기준을 지원의 수월성과 예술계의 밸런스/균형 중 어느 것으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지원 제도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발표였음. 이는 예술인 복지와도 이어지는 문제로, 공공영역이 포함되게 되므로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시장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책이 시장을 제재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사라지는 여성 무용수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무용의 경우, 여성 무용수들에게 임신/출산/육아는 경력단절을 의미함. 숫자가 적은 남성 무용수들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여성 무용가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향후 오픈테이블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

- 지원사업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예술계 전반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예술위 조직의 성비 구조가 실제로 심의위원 선정이나 지원사업 선정 등의 부분들과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함. 이

밖에도, 여성 기획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기획 단계 및 선정 과정에 대한 분석도 실시되어야 함.

- 여러 데이터를 통해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팩트는 많이 제시되지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드러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함.

제3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제도 내 성평등 현황

제1절 : 분석 대상 사업

제2절 : 심의제도 내 성평등 현황

1. 심의위원 구성 특징
2. 성평등 관점의 심의제도

제3절 : 예술위 지원제도 내 성평등 현황

1. 전체 현황
2. 공연분야 성평등 현황
3. 시각분야 성평등 현황
4. 문학분야 성평등 현황

제4절 :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현황

1.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
2.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사례

제1절 분석 대상 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제도의 성평등 현황을 살펴보고자 '16년부터 '19년 7월까지 NCAS(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를 통해 등록된 공연/시각/문학분야 지원사업별 지원자 데이터를 분석하였음.
- 지원사업 중 지원 대상이 예술가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분석 대상이 너무 적은 경우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 등 대상이 시도 문화재단, 시도 문화재단 소속 공연장, 시도 소속 예술단인 경우
 - 인력과건 및 인력지원을 받은 대상이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거나 지자체 소속 예술단인 경우
 - 유관기관(예정센터, 한문연 등)에 사업비를 총괄 지급한 뒤, 해당 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개인/단체를 운영한 경우
 - 행사성 사업(콜로키움, 축제 등)으로 예술가/예술단체가 아닌 기획사가 참여한 경우
 - 공모에 연구 용역이 포함된 경우
- 분석대상 선정 및 분류기준 정리
 - 대/중/소분류 기준을 선정하고 각 분류별로 유사한 사업들을 그룹화하여 분류 기준을 정리하였음. 각 분야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3-1> 분석 대상 사업 분류

분야	대분류(세부사업)	중분류(세부사업명)	소분류(관리코드명)
시각	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등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리서치지원 등
	문화예술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대상자맞춤형/발굴형 등
	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현장예술인력육성	연수단원지원,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등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비평연구지원, 전시지원 등

분야	대분류(세부사업)	중분류(세부사업명)	소분류(관리코드명)
공연	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등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리서치지원 등
	문화예술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대상자맞춤형/발굴형 등
	예술의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
	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무대예술전문교육, 창작아카데미 등
		현장예술인력육성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연수단원지원 등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	무용/오페라/연극/ 음악창작산실 등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
공연예술행사지원		-	
문학	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리서치지원 등
	문화예술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대상자맞춤형/발굴형 등
	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창작아카데미
	예술창작지원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집필공간운영지원 등

제2절 심의제도 내 성평등 현황

1. 심의위원 구성 특징

- 서울 지역의 심사위원 선정률은 남성이 55.7%인 반면 여성은 70.1%로, 지역 여성들은 심사위원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남. 심사위원 참석 횟수는 1~2회가 남성이 67%, 여성은 56%임.
- 한 두번 참석한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은 다양한 사람이 참석했으며, 여성은 기존 심사에 참석하던 사람이 많이 참석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결국, 여성은 수도권 심의에 집중되었으며, 다양한 사람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 여성 심사위원은 남성 심사위원에 비해 지역 위원들이 배제됨. 또한 다양한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기보다는 심사에 왔던 사람이 다른 심사에도 계속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 심의위원 등록 대비 선정 현황

(단위 : 명, %)

		2019년 등록 심의위원	2018년 선정 심의위원	
전체		1035(100.0)	302(100.0)	
성별	남성	585(56.5)	158(52.3)	
	여성	450(43.5)	144(47.7)	
연령	30대	55(5.3)	9(3.0)	
	40대	388(37.5)	139(46.0)	
	50대	410(39.6)	110(36.4)	
	60대 이상	182(17.6)	44(14.6)	
분야별	문학	257(24.9)	68(22.6)	
	시각예술	222(21.4)	24(7.9)	
	음악	94(9.1)	36(11.9)	
	연극	144(13.9)	62(20.5)	
	무용	115(11.1)	33(10.9)	
	전통예술	115(11.1)	44(14.6)	
	문화일반	88(8.5)	35(11.6)	
성별 * 지역별	남성	서울	295(50.4)	88(55.7)
		경기/인천	68(11.6)	23(14.6)
		경남권	63(10.8)	13(8.2)
		경북권	32(5.5)	8(5.1)

			2019년 등록 심의위원	2018년 선정 심의위원
		충청권	45(7.7)	8(5.1)
		전라권	55(9.4)	11(7.0)
		강원/제주	27(4.6)	7(4.4)
	여성	서울	305(67.8)	101(70.1)
		경기/인천	39(8.7)	9(6.3)
		경남권	36(8.0)	14(9.7)
		경북권	8(1.8)	2(1.4)
		충청권	24(5.3)	7(4.9)
	전라권	29(6.4)	9(6.3)	
	강원/제주	9(2.0)	2(1.4)	
성별 * 심사 횟수별	남성	1~2회	106(67.1)	106(67.1)
		3~9회	32(20.3)	32(20.3)
		10회 이상	20(12.7)	20(12.7)
	여성	1~2회	82(56.9)	82(56.9)
		3~9회	39(27.1)	39(27.1)
		10회 이상	23(16.0)	23(16.0)
성별 * 분야별	남성	문학	148(25.4)	47(29.7)
		시각예술	144(24.6)	13(8.2)
		음악	55(9.4)	18(11.4)
		연극	82(14.0)	30(19.0)
		무용	38(6.5)	11(7.0)
		전통예술	61(10.4)	20(12.7)
		문화일반	57(9.7)	19(12.0)
	여성	문학	109(24.2)	21(14.6)
		시각예술	78(17.3)	11(7.6)
		음악	39(8.7)	18(12.5)
		연극	62(13.8)	32(22.2)
		무용	77(17.1)	22(15.3)
		전통예술	54(12.0)	24(16.7)
		문화일반	31(6.9)	16(11.1)

2. 성평등 관점의 심의제도

□ 심사 기준의 공정성 문제

-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 선정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음. 그러나 창작 산실이나 예술작품 지원은 남성 선정자 비율이 여성 선정자 비율보다 높음. 중년 남성 중심으로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예술계 안에서 지원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경력 중심의 선정을 하고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계속 지원사업을 가져가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현재 체계가 계속 유지되기 쉬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신진 예술가로 촉망받던 여성 예술가들이 왜 탈락됐는지'이유를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함.
- 요즘 인터뷰나 PT형식의 심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러한 심사 방식이 오히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사에 반영시킬 수 있음. 서면 심의나 2차 인터뷰에서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정한 후 피드백을 받는 형식이 아닌 심사 방식들은 성별이나 개인의 특질들을 심사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음.

□ 획일화되고 평균화된 전문성, 기계적인 심사위원 선정의 변화 필요

- 모든 기관에서 거의 동일한 심사위원 선정 규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심사위원 규정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의 경력, 높은 학력, 많은 경험, 전문적 소양, 훌륭한 인격 등을 요구하고 있음. 모든 심사위원에게 기계적인 선정 기준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함.
- 심사위원으로 40대가 선정되기 어려운 큰 이유 중 하나는 경력 조건이 10년이 넘기 때문임. 젊은 예술위원의 티오를 따로 만들기 전에는 지금의 예술위원 구성 안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임.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인 학력, 경력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현재의 틀이 변화되기 힘들.
-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데, 전문성이 한 분야의 전문성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심사위원이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구성된다면,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고 분류화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함. 이런 방식으로

전문가를 선정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보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젊은 심사위원을 선정한다면 경력은 상대적으로 없지만, 젊은 젠더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표할 수 있게 됨.

□ 성평등 문제의식을 가진 심사위원 위촉

- 성평등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는 것과 아닌 것에 따라 선정작품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
- 문화예술의 전 분야에서 성평등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거나, 이러한 심사 기준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심사위원의 젠더 교육 제안

- 심사위원의 기계적 성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들이 기존의 시각을 바탕으로 현재의 젠더 감수성은 없는 상태로 작품을 읽어내고 기획서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음. 작품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이 가진 기존의 사회적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에게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 심사 자리에 오는 여성심사위원들조차도 심사 과정에서 일종의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심사위원들에게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실제 심사 위원들이 심사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심사에서 하지 않아야 할 언행들과 심사자들을 대하는 태도, 기타 불공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 직전에 심사위원들이 서로 확인하고 태도의 결을 맞추는 것임.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심사자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음.

제3절 예술위 지원제도 내 성평등 현황

1. 전체 현황²⁾

1) 문제의식

- 문화예술계는 소위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임.
 - 일반적 성비로 따지면, 여성의 비율이 높아 다른 분야보다 나음.
 -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서 발견되는 성비는 그와는 반대이며 미투는 계속 발생하고 있음.
-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 불평등의 실제 모습과, 가장 심각한 불평등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계에 적용해야 한다는 ‘성평등한 모습’은 현재 남성들이 전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리, 기회, 참여를 똑같이 보장받으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2) 우리 사회의 차별, 성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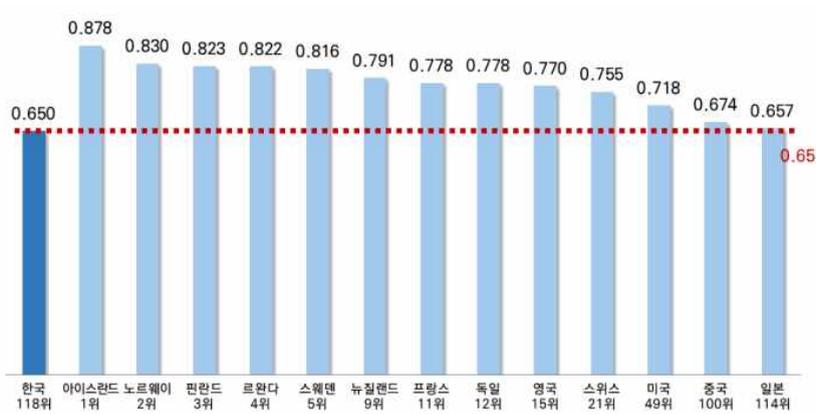
-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17 세계 성 격차 보고서> 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임.
 - 성 격차 지수³⁾
 - 각 나라의 자원의 분배와 기회의 접근성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측정 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남성에게 치우치고, 1에 가까울수록 양성 간에 동일하게 분배됐다는 의미임.
 - 2017년에 한국은 0.65점으로 144개국 중 118위를 차지하였음.
(튀니지-117위-와 감비아-119위- 사이임)
 - 한국과 다른 나라의 성 격차 지수 비교

2) 김혜인 위원의 1차 오픈테이블 발제문을 재구성함

3) <https://korea-ggi.github.io/sm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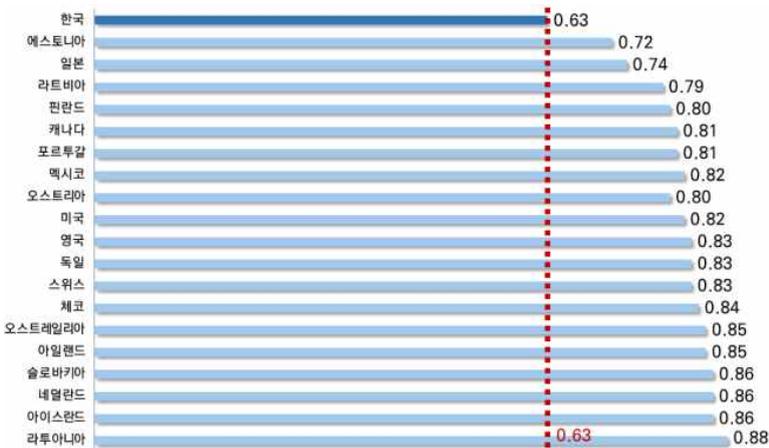
- 아이슬란드 1위, 영국 15위, 미국 49위, 중국 100위
- 한국은 교육에서의 성별 차이는 적지만, 여성의 경제적 차별 격차가 큼.

[그림 3-1] 2017 성 격차지수



□ 한국은 OECD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1위임,

[그림 3-2] 2017 성 격차지수-OECD 남성대비 여성 임금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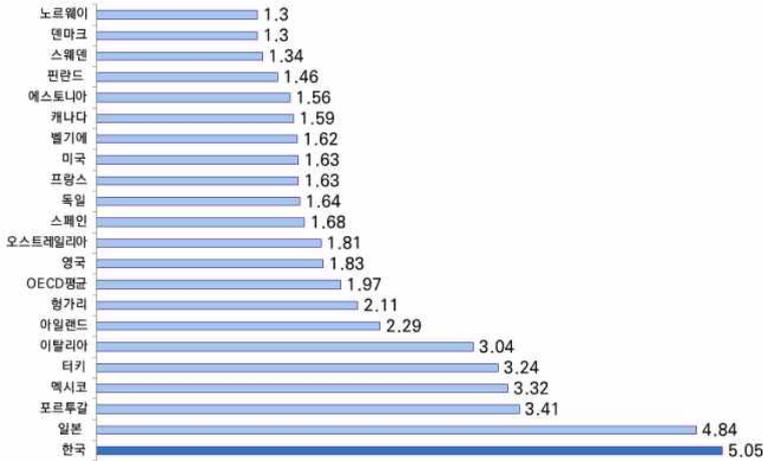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0분 이상 많은 무급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많은 무급노동을 하고 있으며, 남성대비 여성 무급

노동 비율 OECD 1위로 조사됨. (남성은 45분, 여성은 227.3분)

[그림 3-3] OECD 남성대비 여성 무급노동(가사, 보육, 간병) 지표



□ 평균 임금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4.7%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⁴⁾

[그림 3-4]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4)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인 이상 기준)

□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녀 성 비율 격차⁵⁾

<표 3-3> 성 및 연령집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33.8	34.8	33.2	34.2	33.2	32.5	32.2	32.4	32.8	32.9
성	남자	28.8	28.1	26.9	27.7	27.0	26.4	26.4	26.3	26.3
	여자	40.7	44.0	41.7	42.9	41.4	40.6	39.9	40.2	41.2

3) 의사결정부문 성 격차의 파악

□ UNDP <국가성평등지수> 의사결정 분야 점수 26.5점

<표 3-4> 국가성평등지수 연도별 추이

분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종합지수	67.8	68.5	68.7	69.2	70.2	72.7
의사결정 분야	18.9	20.0	21.3	23.6	24.9	26.5
안전 분야	64.2	65.4	60.8	55.1	55.4	64.1
복지 분야	68.2	69.8	69.6	69.0	71.6	72.0
경제활동 분야	68.9	68.5	68.7	69.2	70.2	72.7
가족 분야	59.8	60.9	62.9	66.7	70.0	78.0
문화정보 분야	84.1	84.9	85.8	87.7	87.1	87.3
교육직업훈련	91.5	91.3	91.5	93.3	93.4	93.7
보건 분야	95.3	94.3	95.8	95.8	96.9	97.0

4) 문화예술계의 성 불평등

□ 고등교육기관 예술계 졸업자 및 취업자 여성비율 다수를 차지함.⁶⁾

<표 3-5> 2015~16년도 예체능계열 취업률 현황

(단위 : %)

구분	2015			2016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예체능계열	총계	61.9	65.7	60.0	63.6	67.0	61.9
	디자인	65.1	67.9	65.1	66.3	69.1	65.3

5)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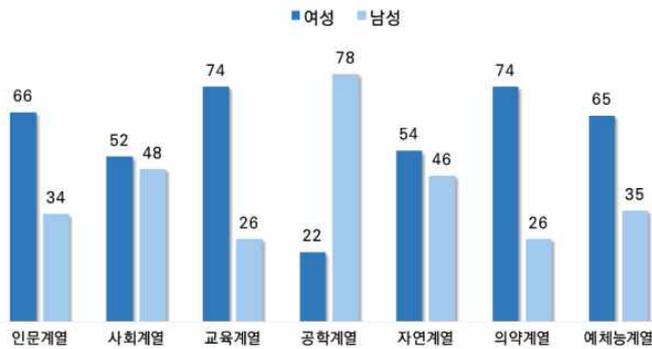
6) <201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DB 연계 취업통계조사>, 교육부(2017)

구분	2015			2016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응용예술	63.2	64.9	63.2	65.0	67.8	64.2
무용·체육	65.4	67.3	65.4	66.6	68.1	63.9
미술·조형	58.0	63.0	58.0	59.2	59.5	59.1
연극·영화	61.9	63.9	61.9	64.7	66.5	63.4
음악	47.7	56.6	47.7	50.8	58.2	48.0

□ 고등교육기관 예술계 졸업자는 여성이 다수인 반면, 취업은 남성이 다수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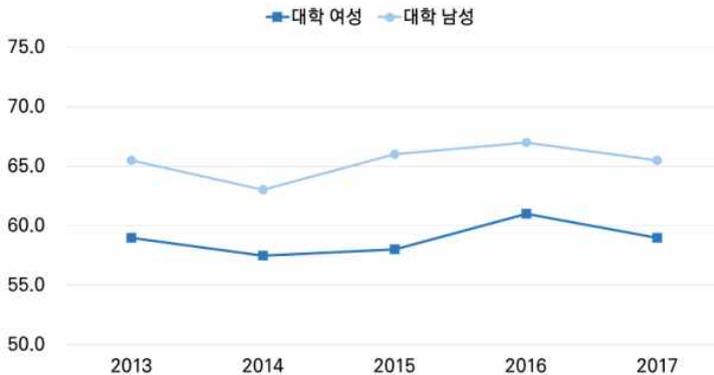
[그림 3-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현황

(단위 : %)



[그림 3-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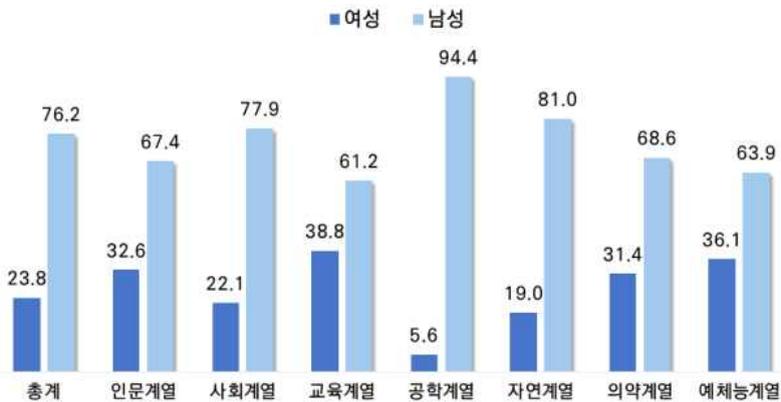


- 기계적 평등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공자는 여성이 많은 반면, 취업률은 남성이 높음.
 - 취업율에서 보인 격차보다 점차 심해지고 있음.
-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대표성을 갖는 자리에 대한 방식과 조건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설계된 것인가?
 - 오랫동안 활동해 온 여성 전문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현상인가?
 - 여성들은 대표성, 의사결정권을 갖는 자리에 거부감이 있는가?
 -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할 수 있는 증거들은 가지고 있는가?

□ 대학 교원의 성 불평등 - 수직적 성별 직종 분리 현상

[그림 3-7] 대학 교원의 성비 현황

(단위 : %)



- 예술가를 교육하는 대학 교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이 더 높음. 직급이 높은 교수일수록 차이가 더 심화됨.
 - 예술계 안에서 소위 좋은 직업인 교수가 되는 길에서 여성의 길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만약, 여성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한 후, 교수의 길 등을 상대적으로 덜 원했기 때문이라면 억지로 성비를 맞추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음.

□ 정책 및 의사결정 분야 불평등⁷⁾ - 수직적 성별 직종 분리 현상

<표 3-6> 예술기관 여성 종사자 현황

(단위 : %)

기관명	총원 대비 여성 비율	무기계약직 여성비율	고위직 여성비율 (3급이상, 정무직 등)
문화체육관광부	47.0	(과악 불가)	0.0(정무직) 0.0(국장급 이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9.0	58.0	0.0(3급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45.0	54.0	0.0(2급+위원 이상)
예술인복지재단	56.0	(과악 불가)	9.0(3급 이상)
한국영화진흥위원회	29.0	74.0	14.0
한국콘텐츠진흥원	44.0	61.0	16.0(G2급 이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3.0	71.0	18.0(선임 이상)
예술경영지원센터	78.0	(과악 불가)	28.0(3급 이상)

□ 주요 권력, 의사결정구조 상의 불균형과 역전 현상

<표 3-7> 예술기관 직급별 여성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세부 구분 (장르 or 지역)	전체기관장(명)	여성기관장(명)	여성비율(%)
전체		192	20	10.4
중앙정부 산하	문화예술일반	23	4	17.3
	시각예술(미술관 등)	17	2	11.7
	공연예술(복합 포함)	11	2	18.2
지자체 산하	서울/인천/경기	68	8	11.8
	충청도	14	2	14.3
	전라도	16	1	6.3
	경상도	26	1	3.8
	강원/제주	16	0	0.0

-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성비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음

- 취업율에서 보인 격차보다 점차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봐야 함.

7) 인사혁신처 및 알리오경영공시 자료 재가공 (2018년 4, 7월 공시 기준)

5) 어떤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목표로 하는가?

□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적 시각 적용

- 성 주류화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강조하는 성평등접근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성주류화는 여성만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사업 안에서 별도로 운영하거나 여성만을 구성 요소로 하는 고용프로그램을 지양함. 모든 사업의 모든 활동에 대해 젠더 관점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함. 즉, 여성과 남성이 무엇을 할지 또한 이들이 어떤 의사결정과정 혹은 정책과정에 접근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젠더 관점을 만들어내야 함”⁸⁾
- ‘주류화’는 여성을 특정 정책 분야에서 식별되도록 하지 않고, 정책 영역 전체에서 고려되는 ‘주류의 요인’으로 활용될 때 이루어짐. 즉, 모든 과정에서 여성이 주류가 되는 것은 단순히 성비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아님.

□ 예술창작지원 전체 과정에 젠더적 관점 적용

- 지원의 이유, 지원의 대상, 지원대상의 선정방법, 지원방법 등은 남성/여성 예술인 모두에게 적합한 방법이었는가?
- 지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성비만 맞추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 여성/남성 예술인 각자의 입장에서 창작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지원은 각각 무엇인가?
- 문화예술계 젠더 권력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는가?

8) Office of the Special Advisor on Gender Issues and the Advancement of Women(OSAGI)

2. 공연분야 성평등 현황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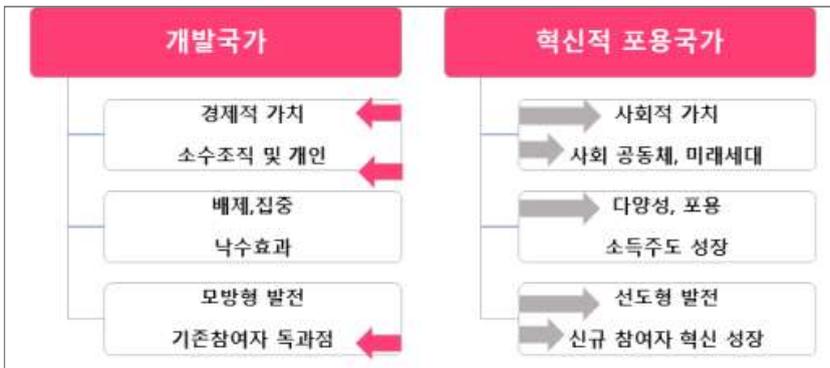
1)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연분야 예술지원 팩트체크의 필요성

□ 시대별 국가운영 목표 및 지향 가치¹⁰⁾

- 1960년대~1990년대 : 경제 성장 중심의 개발국가
- 2000년대 : 국가인권위원회, 지속가능발전
- 2010년대 : 저탄소녹색성장/국민행복, 경제민주화/삶의질
- 2019년~ : 혁신적 포용국가

□ 개발국가와 혁신적 포용국가의 특징 비교¹¹⁾

[그림 3-8] 개발국가와 혁신적 포용국가의 특징



9) 김경이 위원의 2차 오픈테이블 발제문을 재구성함

10) 양동수, 김진경, 조현경, 고동현, 은누리, 이원재(2019). 솔루션 2050-0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LAB2050

11) 양동수, 김진경, 조현경, 고동현, 은누리, 이원재(2019). 솔루션 2050-0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LAB2050

□ 사회적 가치 우선 책임 주체¹²⁾

[그림 3-9] 사회적 가치 우선 책임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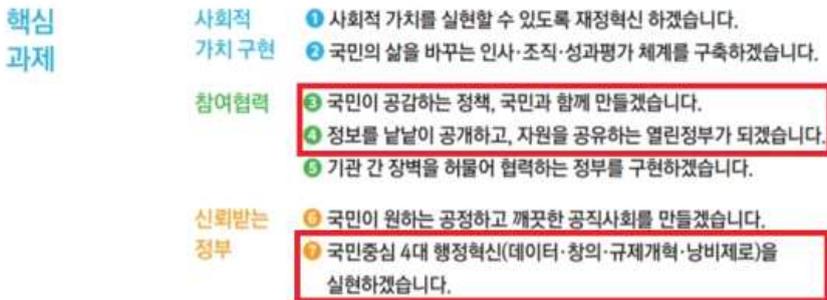


□ 정부혁신 비전¹³⁾

- 핵심 과제

- “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 “ 정보를 낱알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정부가 되겠습니다 ”
- “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데이터, 창의, 규제개혁, 낭비제로)을 실천하겠습니다 ”

[그림 3-10] 정부혁신 비전 체계도



12) 양동수, 김진경, 조현경, 고동현, 은누리, 이원재(2019). 솔루션 2050-0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LAB2050

13) 출처 : 양동수, 김진경, 조현경, 고동현, 은누리, 이원재(2019). 솔루션 2050-0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LAB2050

□ 사회적 가치의 변화방향과 공공기관 설립 목적의 수정 방향 비교¹⁴⁾

[그림 3-11] 사회적 가치의 변화 방향



[그림 3-12] 공공기관 설립 목적의 수정 방향



□ 사회적 가치 3대 실현 분야¹⁵⁾

14) 출처 : 양동수, 김진경, 조현경, 고동현, 온누리, 이원재(2019). 슬루션 2050-0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LAB2050

15) 출처 : 양동수, 김진경, 조현경, 고동현, 온누리, 이원재(2019). 슬루션 2050-0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LAB2050

[그림 3-13] 사회적 가치 3대 실현 분야

	TYPE 1	TYPE 2	TYPE 3
정의	실행 목적 달성 (공공성 및 공공성)	조직 운영 상의 사회적 책임 이행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사회적 가치 이행 및 확산 (사회적 가치 창출 주제 확대)
실행주체	내부	내부	내부 / 외부
영향발생	외부	내부 / 외부	외부
특징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공공성)	민간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활동과 동일	공공기관으로서 외부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
역할 책임	공공기관	공공기관 = 민간기업	공공기관 > 민간기업
예시	LH공사의 도시재생, 지역 공동체 책임수자원공사의 물 복지 실현 요제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반부패 경영, 공정 운영 관행 준수 환경경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 협력사 선정 시 사회책임경영 평가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지원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
- 예술가 개인 및 단체 지원 선정시 사회책임경영 평가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및 창작 활성화 지원

2) 공연예술분야 지원구조

□ 연간 지원금액과 지원 건수

[그림 3-14] 공연예술분야 연도별 연간 지원금액 및 지원 건수



□ 사업별 지원 규모

<표 3-8> 공연예술분야 지원 신청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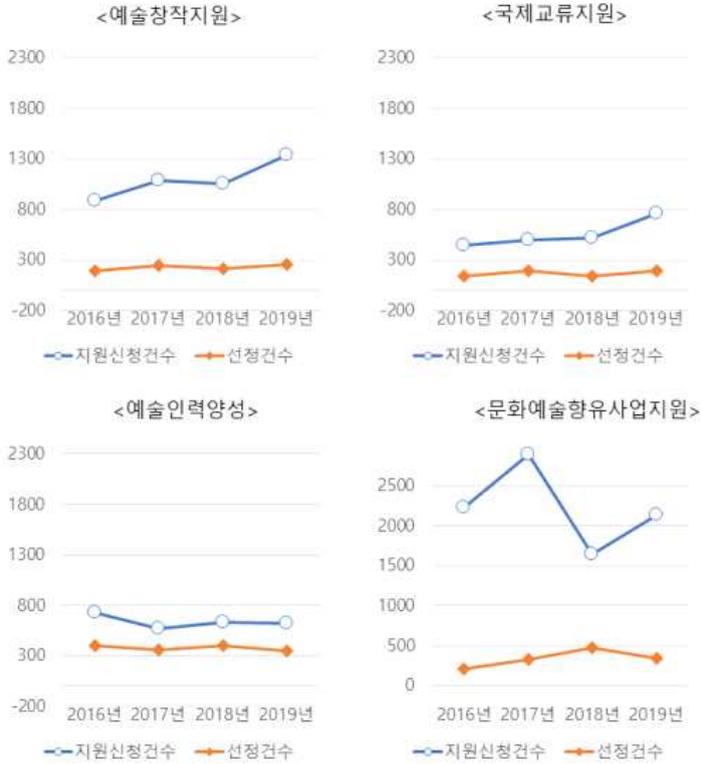
(단위 : 건, %)

	전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18,037	4291	5052	3832	4862
	100.0	23.8	28.0	21.2	27.0
예술창작지원	4,356	889	1082	1051	1334
	24.2	20.7	21.4	27.4	27.4
국제교류지원	2,221	445	501	514	761
	12.3	10.4	9.9	13.4	13.4
예술인육성	2,557	726	575	630	626
	14.2	16.9	11.4	16.4	12.9
문화예술향유사업지원	8,903	2231	2894	1637	2141
	49.4	52.0	57.3	42.7	44.0

□ 사업별 지원/선정 규모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 건수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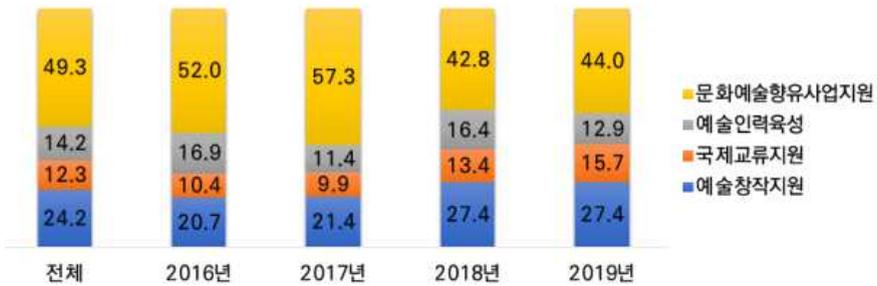
[그림 3-15] 공연예술분야 사업별 지원/선정 규모



□ 예술창작지원의 지원/선정 건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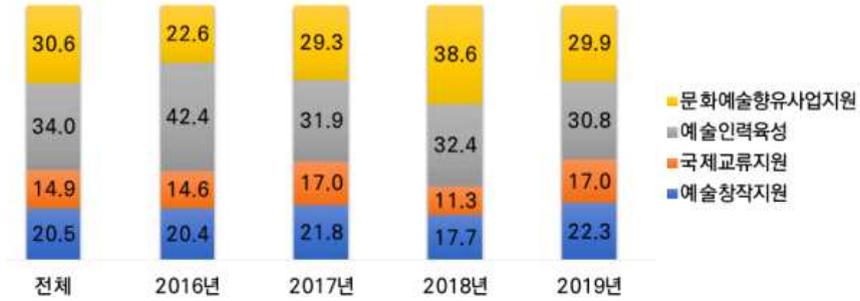
[그림 3-16] 지원신청 건수 기준 구성비

(단위 : %)



[그림 3-17] 선정 건수 기준 구성비

(단위 : %)



□ 세부사업별 지원신청 건수

<표 3-9> 공연예술분야 세부사업별 지원신청 건수

			전체 (2016~ 2019)	연도			
				2016	2017	2018	2019
합계			18,037	4,291	5,052	3,832	4,862
예술 창작 지원	공연예술 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 연구활성화 지원	137	43	27	34	33
		뮤지컬 창작산실	473	132	118	103	120
		창작실험 활동지원	501	0	177	140	184
		오페라 창작산실	117	31	37	25	24
		창작활성화 지원	112	0	0	112	0
		무용창작산실	541	116	148	137	140
		연극창작산실	1,010	235	244	257	274
		음악창작산실	212	57	29	77	49
	전통예술 창작산실	372	73	91	102	106	
	공연예술 특성화극장 운영	공연예술특성화 극장운영	128	0	0	64	64
공연예술 행사지원	공연예술 행사지원	413	202	211	0	0	

			전체 (2016~ 2019)	연도			
				2016	2017	2018	2019
	청년예술가생 애척지원	청년예술가 생애척지원	340	0	0	0	340
국제 교류 지원	예술가해외레 지던스 지원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259	42	50	83	84
		아르코국제 레지던스 개척지원	10	0	5	5	0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국제예술공동 기금사업	101	23	30	23	25
		국제교류기획 리서치지원	52	7	24	21	0
		국제주요플랫폼 진출지원	75	27	34	14	0
		국제예술 교류지원	1,503	346	358	368	431
		청년예술교류 역량강화	221	0	0	0	221
예술 인력 육성	현장예술인력 육성	공연예술전문 인력지원	995	316	202	226	251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	986	285	204	252	245
	차세대예술 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576	125	169	152	130
문화 예술 향유 사업 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매칭형	6,112	1,907	2,034	940	1,231
		발굴형	1,527	247	375	214	691
		대규모우수 콘텐츠확산 프로그램	77	77	0	0	0
		소규모 순회	968	0	485	483	0
		신나는예술여행 _청년예술	219	0	0	0	219

□ 세부사업별 선정 건수

<표 3-10> 공연예술분야 세부사업별 선정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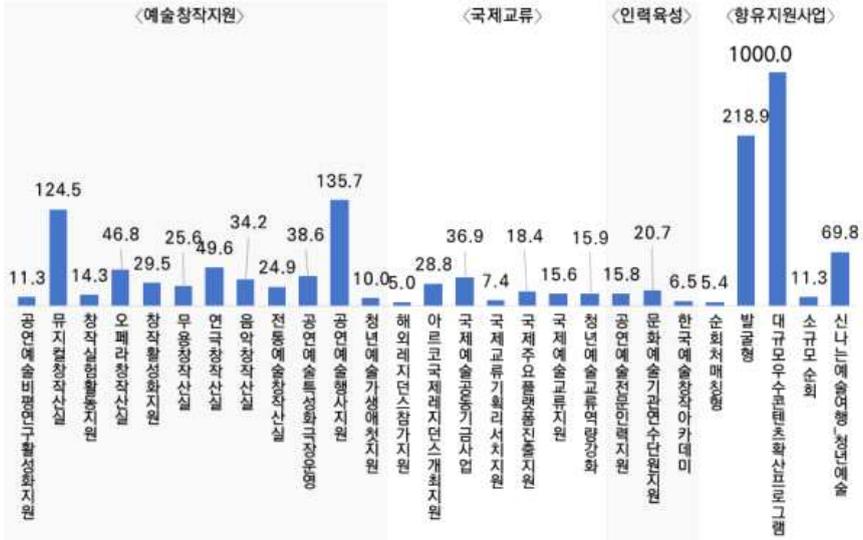
공연예술분야 선정 건수	전체 (2016~2019)	연도			
		2016	2017	2018	2019
합계	4,452	941	1,125	1,234	1,152

공연예술분야 선정 건수			전체 (2016~2019)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창작 지원	공연예술 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 연구활성화지원	79	16	20	22	21
		뮤지컬창작산실	100	28	25	22	25
		창작실험활동지원	77	0	28	26	23
		오페라창작산실	31	7	8	9	7
		창작활성화지원	24	0	0	24	0
		무용창작산실	122	29	33	30	30
		연극창작산실	118	33	32	26	27
		음악창작산실	80	19	17	22	22
	전통예술창작산실	54	9	18	14	13	
	공연예술특성화 극장운영	공연예술특성화 극장운영	48	0	0	23	25
공연예술 행사지원	공연예술 행사지원	115	51	64	0	0	
청년예술가 생애첫지원	청년예술가 생애첫지원	64	0	0	0	64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지원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145	28	29	40	48
		아르코국제레지던스 개최지원	8	0	5	3	0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 공동기금사업	32	8	6	9	9
		국제교류 기획리서치지원	21	1	13	7	0
		국제주요플랫폼 진출지원	25	11	12	2	0
		국제예술교류지원	388	89	126	78	95
청년예술교류 역량강화	44	0	0	0	44		
예술인력 육성	현장 예술인력육성	공연예술 전문인력지원	741	198	179	201	163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	598	150	128	163	157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174	51	52	36	35
문화예술 향유사업 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차매칭형 발굴형	890	193	210	236	251
		대규모우수콘텐츠 확산프로그램	111	19	13	29	50
		소규모 순회	1	1	0	0	0
		신나는예술여행 _청년예술	319	0	107	212	0
			43	0	0	0	43

□ 사업별 평균 지원금액

[그림 3-18] 공연예술분야 사업별 평균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3) 공연예술분야 성비 격차

□ 아르코 공연예술분야 지원 성별 구성비

[그림 3-19] 아르코 공연예술분야 지원 성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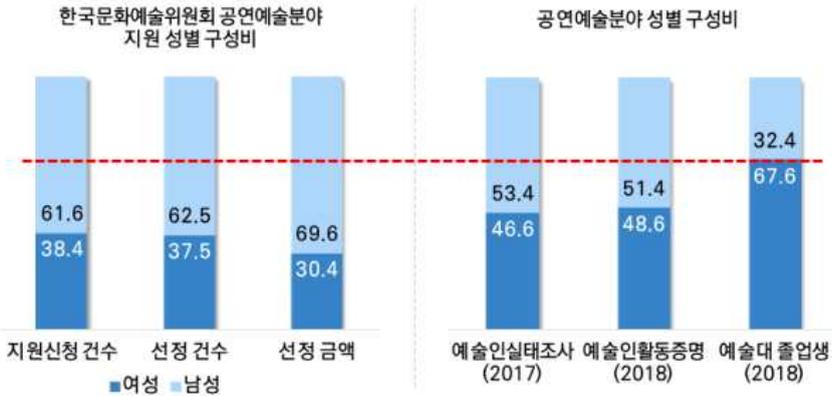
(단위 : %)



□ 공연예술분야 성별 구성비와 아르고 공연예술분야 지원 성별 구성비

[그림 3-20] 공연예술분야 성별 구성비와 아르고 공연예술분야 지원 성별 구성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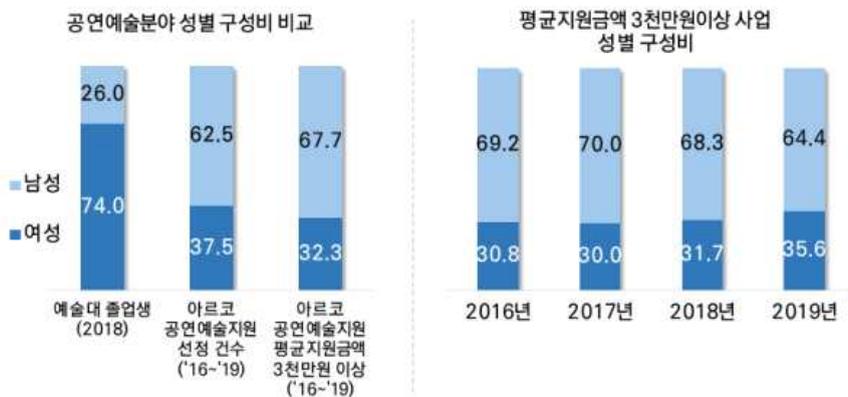


□ 아르고 공연예술분야 지원 성별 구성비(지원금액 3천만원 이상)

- 평균 지원금액이 높은(3천만원 이상) 사업에서 남성의 비중이 소폭 상승함.

[그림 3-21] 공연예술분야 지원 성별 구성비(지원금액 3천만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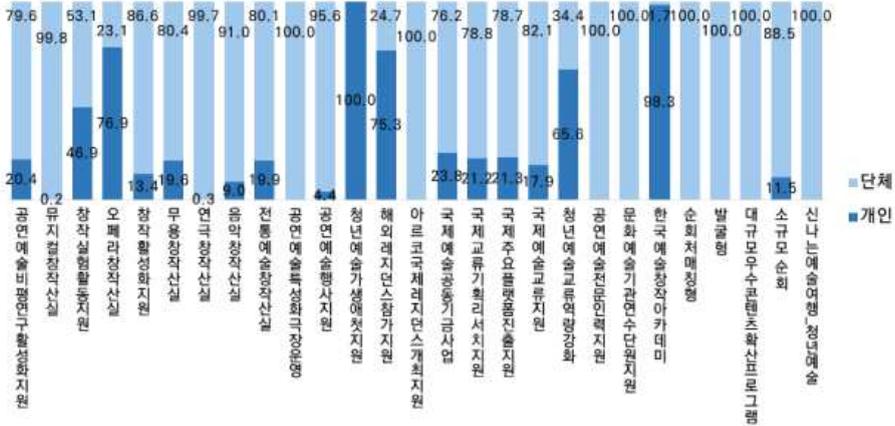
(단위 : %)



□ 공연예술분야 개인/단체 구성비

[그림 3-22] 공연예술분야 사업별 개인/단체 구성비

(단위 : %)



□ 공연예술분야 개인/단체 성별 구성비

- 개인에서 여성의 비율에 비해 단체에서의 비율이 낮은 편

[그림 3-23] 공연예술분야 개인/단체 구성비

(단위 : %)



<표 3-11> 공연예술분야 성비 비교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예술대 졸업생	26.0	74.0
아르코 지원사업 신청	61.6	38.4
아르코 지원사업 선정	62.5	37.5
아르코 평균지원금액 3천만원 이상 지원사업	67.7	32.3

4) 시사점

□ 졸업과 예술활동의 경로

- 현장조사
-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원 시스템 검토

- 사업구조의 안정화
- 심사위원의 성비

□ 경력단절

- 보육과 돌봄에 대한 안전망
- 임신, 육아, 출산에 대한 인정

□ 여성의 대표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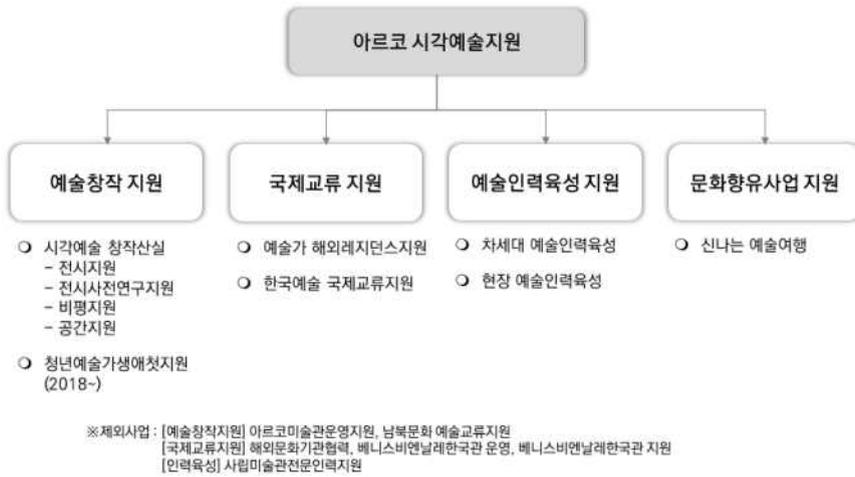
- 여성공연단체에 대한 우대
- 균형을 위한 기계적 조정

3. 시각분야 성평등 현황¹⁶⁾

1) 시각예술지원에 대한 이해

□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지원인 예술창작(국제교류), 예술인력육성, 문화향유사업 지원에 대해 분석함.

[그림 3-24] 아르고 시각예술 지원사업



□ 공간/전시지원, 해외레지던스/국제예술교류지원, 연수단원지원의 비중 높음.

<표 3-12> 2016년 1월 ~ 2019년 7월 문예진흥기금 아르고 시각예술 지원 현황

사업 구분		지원신청 건수(건)	선정 건수 (건)	지원금액 (백만원)	
예술창작 지원	시각예술 창작산실	공간지원	227	117	3,838
		비평연구지원	124	50	401
		전시지원	241	57	2,394
		전시사전연구지원	45	18	90
	청년예술가 생애첫지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170	35	266
국제교류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554	194	1,044

16) 장앤파트너스그룹 장현선 대표의 2차 오픈테이블 발제문을 재구성함

사업 구분		지원신청 건수(건)	선정 건수 (건)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	해외레지던스 지원	아르코국제레지던스 개최지원	12	5	99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72	18	616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34	9	123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13	9	146
		국제예술교류지원	659	156	2,222
예술인력 육성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560	51	176
	현장 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319	227	3,594
		문화예술향유사업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78	25

□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건당 평균지원금액이 상이 전시지원, 공간지원, 국제예술 공동기금사업의 건당 비용 높은 편임.

<표 3-13> 지원사업 건당 평균 지원결정액

사업 구분		건당 평균 지원결정액 (만원)		
		개인	단체	
예술창작 지원	시각예술 창작산실	공간지원	-	3,300
		비평연구지원	764	850
		전시지원	4,393	3,605
		전시사전연구지원	500	500
	청년예술가 생애찾지원	청년예술가생애찾지원	760	-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537	-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	1,980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1,713	4,714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1,633	833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1,575	2,000
	국제예술교류지원	1,336	1,577	
예술인력 육성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344	-

사업 구분			건당 평균 지원결정액 (만원)	
			개인	단체
	현장 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1,583
문화예술향유사 업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신나는 예술여행	-	571

2) 시각예술지원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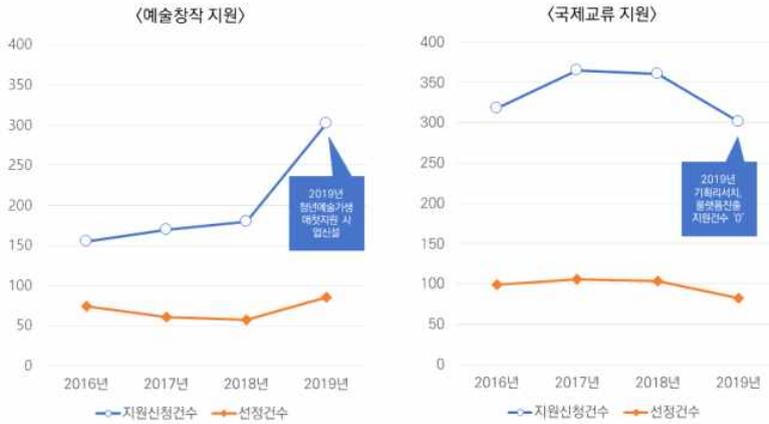
- 시각예술 지원신청건수는 2016년 이후 소폭 감소세 연도별 선정율은 약 30%로 큰 변화 없음.

[그림 3-25] 연도별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금액/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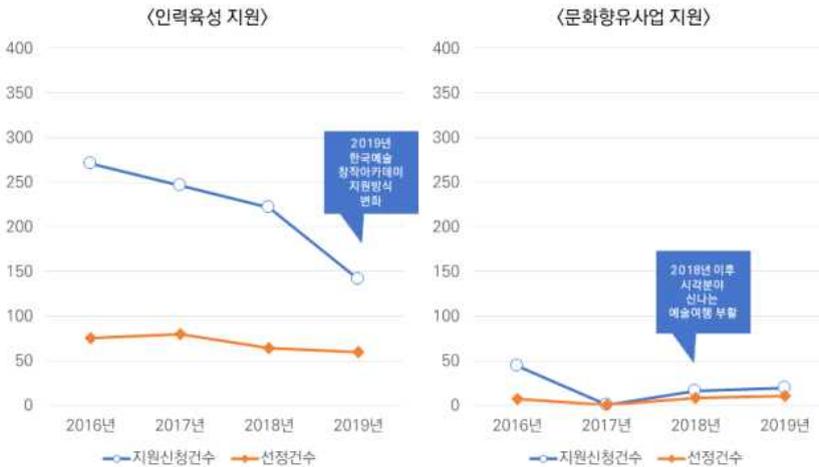
- '19년 청년예술지원 신설로 예술창작 지원건수 상승, '19년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감소로 지원/선정 건수 감소함.

[그림 3-26] 예술창작 지원 및 국제교류 지원 신청/선정 건수



- 인력육성지원 중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 방식 변화로 신청건수 감소, 신나는 예술여행의 지원/선정 건수 전체 시각예술지원에서 미미함.

[그림 3-27] 인력육성 지원 및 문화향유 지원 신청/선정 건수



- 청년예술지원의 2019년 신설로 인해 예술창작지원의 지원신청 및 선정건수가 2019년 급격히 증가함.

[그림 3-28] 지원신청 건수 기준 구성비



[그림 3-29] 선정건수 기준 구성비



2) 시각예술지원의 성평등 팩트체크

가. 시각예술 전체

- 개인 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직접적 지원을 의미, 단체는 프로젝트 팀 외에도 공간/시설의 운영을 포함

<표 3-14> 시각예술 개인/단체 지원 현황

사업 구분		개인	단체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 창작산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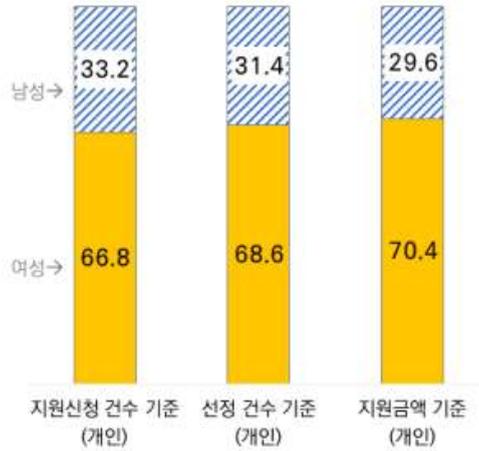
사업 구분			개인	단체
		전시지원	■	■
		전시사전연구지원	■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	■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	■
	국제예술교류지원	■		
예술인력 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문화예술향유 사업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신나는 예술여행		■

- 지난 4년간 예술위 지원제도 내 개인 예술지원의 성비는 여성 69 : 남성 31
 -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성비를 차지함. 그러나 이것을 성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표 3-15> 아르코 시각예술지원(개인) 사업

사업 구분		
예술창작 지원	시각예술 창작산실	비평연구지원
		전시지원
		전시사전연구지원
	청년예술가 생애첫지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인력 육성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그림 3-30] 아르코 시각예술지원(개인) 성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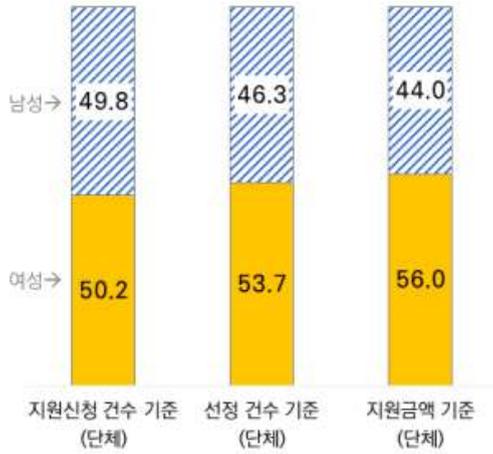


□ 지난 4년간 아르코 시각예술 단체지원의 성비는 여성 54 : 남성 46/ 여성대표 비율이 남성보다 소폭 높음. 그러나 이것을 성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려면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표 3-16> 아르코 시각예술지원(단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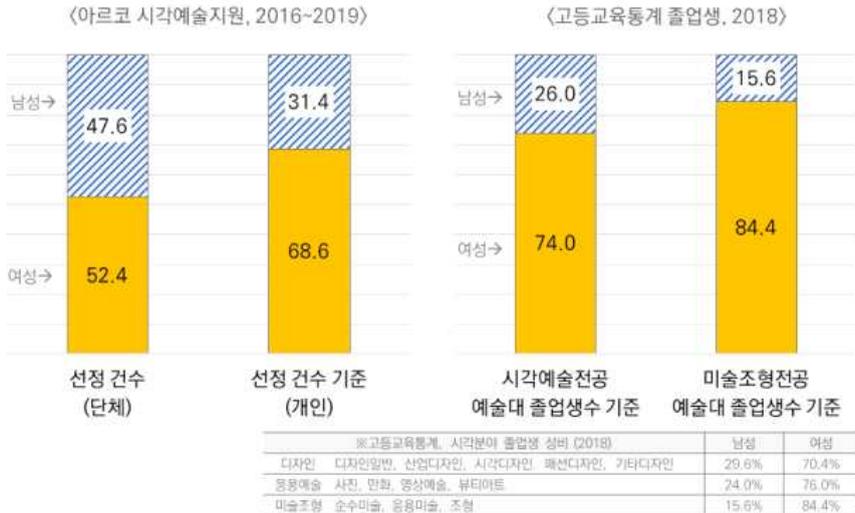
사업 구분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 창작산실	공간지원
		비평연구지원
		전시지원
		전시사전연구지원
국제교류지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지원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 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문화예술 향유사업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신나는 예술여행

[그림 3-31] 아르코 시각예술지원(단체) 성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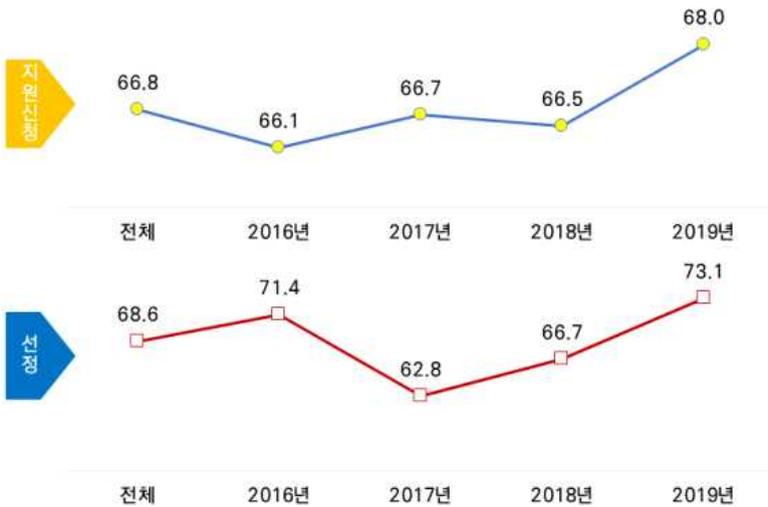
□ 시각예술지원을 받는 여성예술가가 남성보다 많지만, 실제 균형과 맞지 않음. 미술/조형 전공자의 성비로 보면 최대 30%p 차이까지 벌어짐.

[그림 3-32]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성비-고등교육통계 졸업생 성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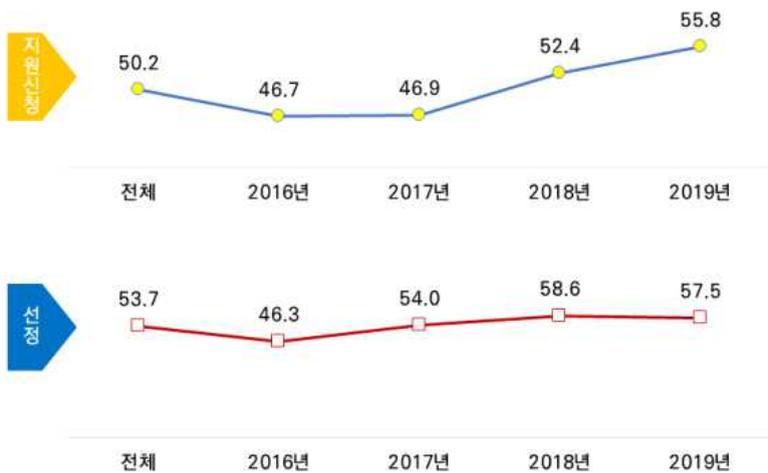
- 2016년 이후 시각분야 개인 예술가의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여성 비율은 지속 상승 중임.

[그림 3-33] 시각분야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여성 비율(개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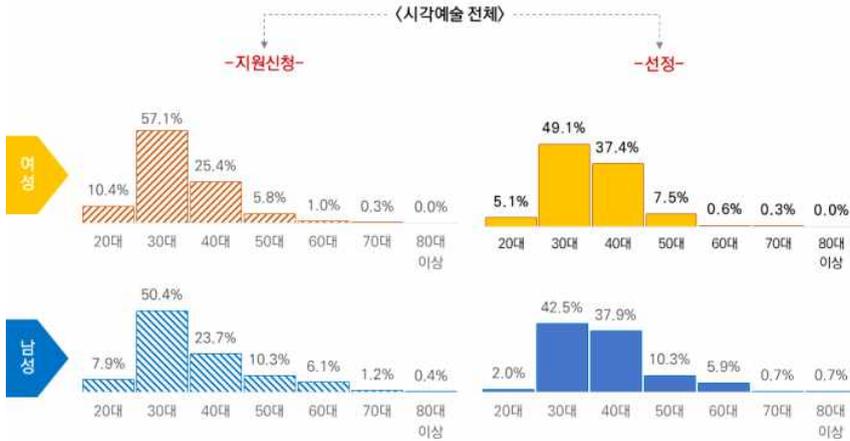
- 2016년 이후 시각분야 예술단체 여성 대표의 지원/선정비율은 상승세이나, 여전히 개인보다 여성대표인 단체의 비율은 낮은 편임.

[그림 3-34] 시각분야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여성 비율(단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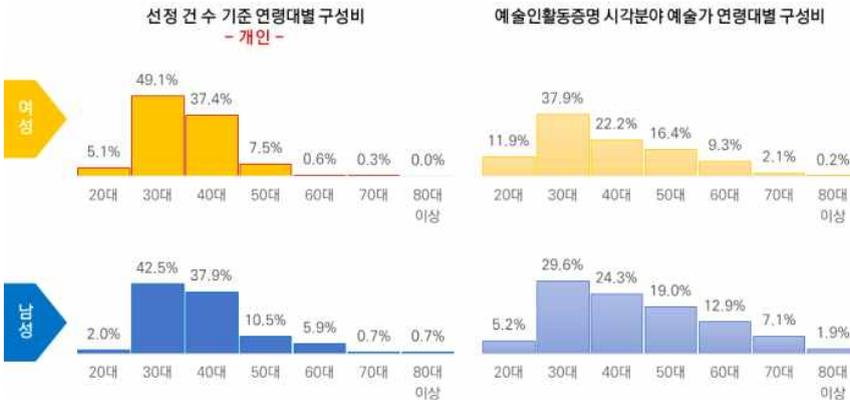
- 남녀 모두 주로 30-40대가 개인자격으로 아르코 시각예술지원에 신청/선정 단, 여성에 비해 남성 개인예술가의 연령범위가 더 넓음

[그림 3-35] 시각분야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개인)



- 30-40대 개인예술가 중심의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예술인활동증명 발급 연령대에 비해 30-40대 집중된 지원신청/선정

[그림 3-36] 시각분야 선정 건수-예술인활동증명 연령대별 구성비 비교



- 여성대표 단체 중 20~30대 젊은 대표가 있는 단체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대표가 있는 단체는 40대~70대까지 고르게 분포

[그림 3-37] 시각분야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단체)



- 단체의 경우 성격에 따라 대표의 연령대가 다양하게 분포

<표 3-17> 2016~2019년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신청 단체 및 대표자 연령대

구분	남성								여성								총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갤러리	-	-	1	-	7	-	-	8	-	14	8	4	-	1	-	27	35
대안공간		1	16	30	8	8		63	-	7	43	14	3	-	-	67	130
미술관/박물관	3		4	31	48	33	13	132	-	-	18	55	55	41	4	173	305
비평/연구	-	1	-	10	1	-	-	12	-	2	9	11	15	7	-	44	56
재단	-	-	-	16	26	26	-	68	-	-	6	7	-	4	-	17	85
독립단체/법인/회사	-	23	69	21	27	3	1	144	2	44	94	24	21	5	-	190	334
협회	1	1	14	30	33	21	2	102	-	-	8	12	7	-	1	28	130
협동조합	-	-	2	-	5	6	-	13	-	-	-	-	-	-	-	-	13
총합계	4	26	106	138	155	97	16	542	2	67	186	127	101	58	5	546	1,088

나. 예술창작지원

① 전시지원 및 전시사전연구지원

- 전시지원 및 전시사전연구지원에서 여성의 비율을 80% 이상임. 단, 프로젝트팀으로 지원하는 전시지원에서 여성대표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

<표 3-18> 전시지원 지원신청/선정 성별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지원신청 건수	남성	여성	총합계
개인	49 (29.9)	115 (70.1)	164 (100.0)
단체	44 (57.1)	33 (42.9)	77 (100.0)
합계	93 (38.6)	148 (61.4)	241 (100.0)
선정 건수	남성	여성	총합계
개인	8 (18.6)	35 (81.4)	43 (100.0)
단체	9 (64.3)	5 (35.7)	14 (100.0)
합계	17 (29.8)	40 (70.2)	57 (100.0)

<표 3-19> 전시사전연구지원 지원신청/선정 성별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지원신청 건수	남성	여성	총합계
개인	6 (15.0)	34 (85.0)	40 (100.0)
단체	2 (40.0)	3 (60.0)	5 (100.0)
합계	8 (17.8)	37 (82.2)	45 (100.0)
선정 건수	남성	여성	총합계
개인	2 (13.3)	13 (86.7)	15 (100.0)
단체	- (0.0)	3 (100.0)	3 (100.0)
합계	2 (11.1)	16 (88.9)	18 (100.0)

- 전시지원에서 여성은 개인/단체에 상관없이 30~40대 중심임. 이에 비해 남성은 개인은 30~60대, 단체는 대표연령이 40~60대로 보다 넓음.

[그림 3-38] 전시지원 선정 건수 기준 연령대별 개인/단체 구성비



② 공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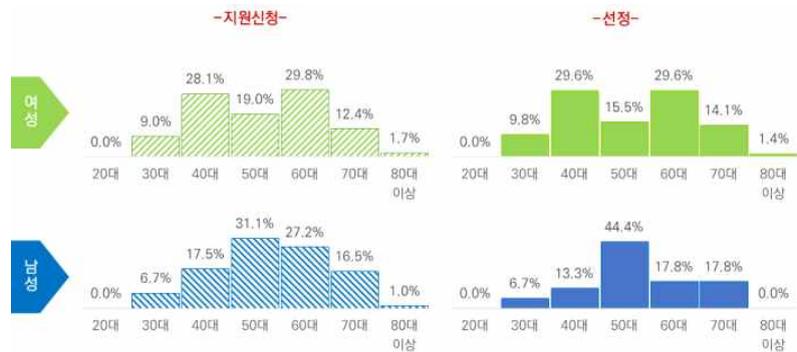
- 아르크 시각예술지원 중 단체대표가 여성인 비율이 평균 54%인 것에 비해 공간지원의 여성대표 비율은 61%로 소폭 높음.

<표 3-20> 공간지원 여성대표 단체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구분	남성	여성	총합계
지원신청 건수	103 (46.0)	121 (54.0)	224 (100.0)
선정 건수	45 (38.8)	71 (61.2)	116 (100.0)

- 공간지원에 지원신청/선정된 여성대표의 연령대 분포가 가장 넓음

[그림 3-39] 공간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단체)



다. 국제교류지원

①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국제예술교류지원은 여성이 약 60%인 반면,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하여 여성이 대표인 경우 약 14%p 낮음

<표 3-21>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지원신청 건수	남성	여성	총합계
개인	163 (42.2)	223 (57.8)	386 (100.0)
단체	146 (53.5)	127 (46.5)	273 (100.0)
합계	309 (46.9)	350 (53.1)	659 (100.0)
선정 건수	남성	여성	총합계
개인	40 (40.4)	59 (59.6)	99 (100.0)
단체	32 (56.1)	25 (43.9)	57 (100.0)
합계	72 (46.2)	84 (53.8)	1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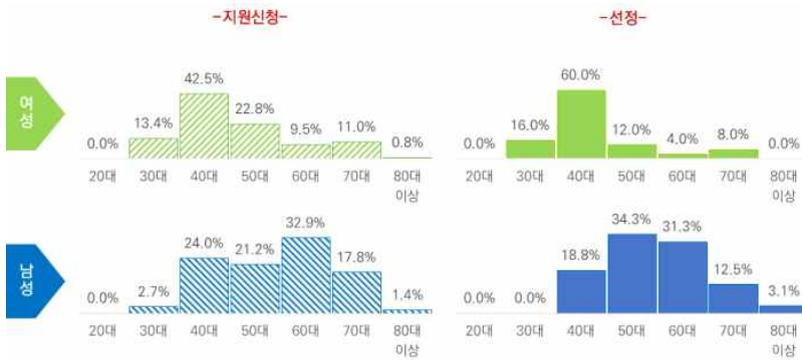
□ 국제예술교류지원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40대를 중심으로 30~50대가 지원신청/선정됨

[그림 3-40]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개인)



□ 국제예술교류지원은 전시지원과 유사하게 개인과 프로젝트팀(단체)로 구성, 여성은 개인과 동일하게 40대 집중, 남성은 40~70대까지 연령대 범위 넓음.

[그림 3-41]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연령대별 구성비(단체)



②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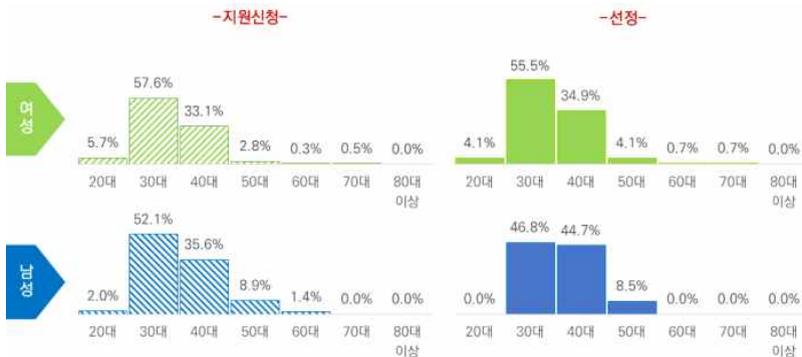
□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에서 여성 예술가의 비율이 높은 편임.(전체 개인여성예술가 비율 약 69%)

<표 3-22>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구분	남성	여성	총합계
지원신청 건수	144 (26.5)	399 (73.5)	543 (100.0)
선정 건수	47 (24.4)	146 (75.6)	193 (100.0)

□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은 남녀모두 30~40대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3-42]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연령대별 구성비(개인)



라. 인력양성지원

①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지원자의 여성비율에 비해 선정자의 여성비율이 약 10%p 가까이 낮으며, 20대 보다는 30대 중심으로 지원/선정되고 있음.

<표 3-23>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신청/선정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구분	남성	여성	총합계
지원신청 건수	144 (26.5)	399 (73.5)	543 (100.0)
선정 건수	189 (33.8)	371 (66.3)	560 (100.0)

②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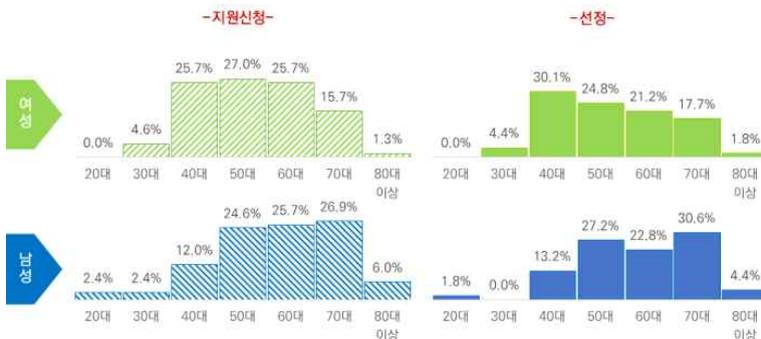
- 시각예술분야 단체에게 인력지원을 하는 연수단원지원사업은 여성대표보다는 남성대표 중심의 단체가 선정되는 경향을 보임.

<표 3-24> 연수단원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구분	남성	여성	총합계
지원신청 건수	167 (52.4)	152 (47.6)	319 (100.0)
선정 건수	114 (50.2)	113 (49.8)	227 (100.0)

- 협회/재단이나 미술관/박물관의 영향으로 남녀대표 모두 연령대가 넓게 분포, 여성대표는 40대, 남성대표는 70대의 구성비가 가장 높음.

[그림 3-43] 연수단원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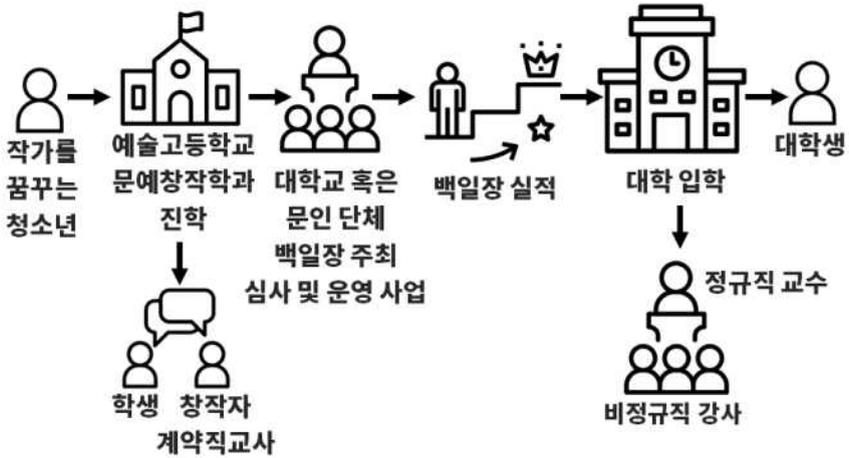


4. 문학분야 성평등 현황¹⁷⁾

□ 문학계 현황

- 대학 입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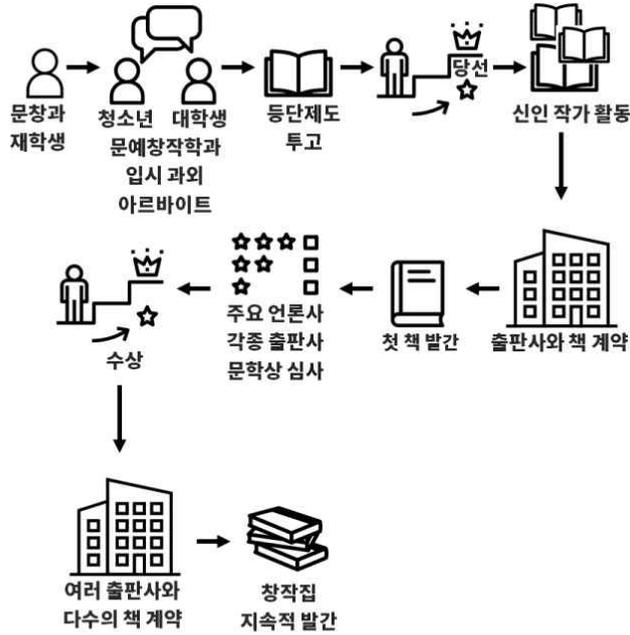
[그림 3-44] 문학 대학 입시 구조



17) 장은정 문학평론가의 2차 오픈테이블 발제문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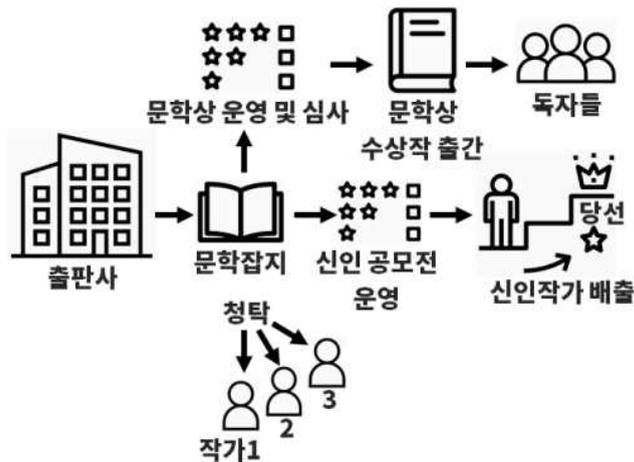
－ 등단 구조

[그림 3-45] 문학계 등단 구조



－ 출판사 운영 구조

[그림 3-46] 문학출판사 운영 구조



□ 문학출판계의 ‘특수성’에 입각한 정책 비평의 위상

- 최근 3~4년 간 문학 분야에서는 ‘문학출판계’라는 장(場) 자체가 중요한 비평적 대상으로 설정되기 시작했다. 신경숙 표절 사건이 발생했던 2015년 6월, 문학출판계의 많은 구성원들은 이 사건을 단지 한 창작자의 창작 윤리 문제로 바라보는 대신 주요 대형 출판사들이 50년 넘게 운영해온 문예지 체제에서 비롯된 비평 담론의 고착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음.
- 신경숙 사건 이전의 ‘문학작품’이 작가의 고유한 산물로 받아들여졌던 것과 다르게 문학이 어떠한 환경에서 창작되고 출판되며 또한 어떠한 비평적 조건 속에서 그 문학적 가치가 형성되는 것인지, 문학출판계의 ‘구조’에 대한 문체의 식으로 그 중심점이 명확히 옮겨 갔음을 보여줌.
- 같은 해인 9월, ‘비평 없는 문학잡지’를 전면에 내세운 《악스트》의 출현은 단지 문학출판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넘어서서 ‘다른’ 문학출판계를 모색해보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음. 《악스트》 이후 ‘문예지 혁신’이라는 주요한 의제가 문학장을 휩쓸면서 기존의 잡지들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리뉴얼되거나 폐간 되고 펀딩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독립잡지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함.
- ‘16년 10월,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의 등장은 ‘문학출판계’라는 장(場)의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숙고되어야 함. 신경숙 표절 사건과 문예지 혁신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설정된 것이 문학잡지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비평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촉발시켰다면,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문학출판계가 주요한 공모전에 통과해야만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부여 받게 되는 ‘등단제도’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술고에서의 ‘입시 제도’, 예술대학에서의 사제 관계, 등단제도를 통과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로 수강하는 사설업체의 문학창작 수업에서의 위계관계에 이르기까지 문학출판계가 끝없는 경쟁시스템과 그에서 비롯된 위계관계로 촘촘히 엮여있음을 낯설게 목도하게 되는 충격적인 계기로 작동했음.
- ‘16년의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통해 발화한 많은 피해자들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 세대에 속해 있었다면, ‘18년 최영미 시인의 미투는 고은

이라는 원로 시인을 가해자로 지목함으로써 문학출판계의 젠더 불평등에 의한 폭력 구조가 단지 최근의 일이 아니라 문학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사적 요소였음을 보여줌. 이처럼 문학출판계는 최근 3~4년 동안 그야말로 ‘전면적인’ 변화의 시기 속에 놓여있다고 봐야 할 것임.

- 흥미로운 것은 이 격변의 시기 속에서 언제나 주요하게 문제적 대상이자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정된 것이 대형 출판사라는 점임. 신경숙 표절 사태에서도 그 비판의 대상은 대형출판사들을 향했고, ‘16년에 지목된 성폭력 가해자들이 특정 출판사에서 시집을 낸 시인들이라는 점을 들어 출판사 측에 그 책임을 묻거나 대응방안을 요구하기도 했음.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때 ‘성폭력’ 조항을 넣는 것 역시 개인과 기업 간의 관계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임.
- ‘19년 현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의아한 것은 문학출판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로서 공공의 영역이 전혀 호출되지 않았다는 점임. 독자들의 문제의식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온라인 대형 서점 직원들의 남녀성비와 대표자 성비를 문제 삼는 담론이 크게 형성된 바 있지만 이 역시 모두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문학출판계에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의식이 발생한 바가 없음.
- 물론 2016년에 결성된 여성예술인연대는 예술인 복지재단에 상설 성폭력 상담 기구를 설치하기를 요구하거나 성평등교육의 의무 실시를 요구하고 예술기관에 성폭력 비리와 관련된 채용 규정 및 징계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유독 문학계에서만은 눈에 띄지 않고 있음. 최근 서울문화재단을 둘러싼 연극계의 빗발치는 비판과 적극적인 요구안들과 비교한다면 문학계의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거의 무관심에 가까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분야 지원사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문학출판계의 주요한 변화들과 그 변화 속에서 누락되어 있는 ‘공공영역’의 위상을 우선 살핀 것은 2019년 새로 발족된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마련한 2차 오픈테이블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포럼이 현재 문학계에서 갖는 위치를 우선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사실상 문학계에서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이란 단순히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으로서만 한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만일 이러한 담론 내부에 이 포럼을 위치시킨다면 던질 수 있는 질문들 역시 제한적인데, 예술위원회 문학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평면적인 해석 및 평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하지만 문학계 내에서 활발히 활성화 된 젠더 이슈 담론 내에 공공기관의 수행 사업들을 위치시킨다면, 지원사업들에 참여한 사람들의 남녀 성비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 ‘젠더 (불)평등’이라는 용어가 문학계 내에서 어떻게 사유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공공기관이 활성화시켜야 하는 문학계의 공공영역이 갖는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사유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학 정책 분야에서의 ‘젠더 평등’ 담론의 부재

- 2019년 10월 2일, 예술위에서 진행한 2019년 2분기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선정 심의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되었을 때, SNS에서는 시 분야 심사평을 두고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된 바 있음.¹⁸⁾
- 시라는 장르는 타 분야 예술장르 중에서도 그 작품의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이 특히나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평적 논리를 꼼꼼히 개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 선정 작품들에 대한 비난과 폄하에 가까운 발언을 심사평으로 게시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었음.
-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세대론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압도적이었던 사실이었음. 시 분야 2차 심사위원 전원이 40~50년대생 출생자들이었으며 소위 청년 세대로 분류되는 젊은 작가들의 시집이 선정자에서 대거 제외된 사실이 위 심사평에 대한 반발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태에 대해 젠더 불평등 관점에서 접근하는 입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임. 심사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문제가 된 시 분야 2차 심의위원 성별은 전원 남성이며, 소설, 수필, 아동/청소년, 평론/희곡 분야를 모두 통틀어서 총 14명 심의위원

18) 문제가 되었던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시 부분의 2차 심의 심의위원들은 1) 소통이 안 되는 시집, 2) 시성에 이르지 못한 시집, 3) 시의 문법을 잘 모르는 시집이 여전히 많다는 등의 얘기를 나누었다. 더불어 4) 한국어 문장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언어통치를 시라고 내놓은 경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2019년 2분기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선정 심의 결과 발표 시 분야 심사평 중 일부 인용.

https://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3.do?mode=view&page=&cid=1602490&sf_icon_category=cw0000020

중에서 여성은 단 2명에 그쳤음. 12:2이라는 극명히 대비되는 성 비율이 왜 작가나 독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문학계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6)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문학평론가들로 이루어진 문학비평 담론을 통하지 않은 ‘여성 독자’들의 가시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음. 2008년에 출간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창비) 이후 처음으로 백만부 판매를 돌파한 첫 사례임. 2018년에 일본으로 번역된 이후 2019년 8월 기준 일본에서도 총 13만부 이상 판매되면서 한국 소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다른 여성소설가들의 번역 역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임.¹⁹⁾ 현재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들 거의 대부분이 여성작가들이며, 출판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키워드는 단연 ‘여성서사’일 것임. 여성이 여성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하는 여성독자들이 존재하는 조건이 형성되고서야 비로소 여성평론가들 역시 가시화되기 시작했음. 낱낱이 흩어져 있던 여성평론가들이 서로의 논의를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참조하고 확장하고 자발적으로 이어받으면서 여성 서사를 다각도로 비평하면서 페미니즘 비평 담론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중이며, 이는 최근 퀴어 서사의 등장과 더불어 퀴어 담론과 트랜스 담론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문학계의 젠더 이슈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문학 분야의 정책 영역에 대해서는 젠더 불평등 관점의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맥락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공기관이 문학 분야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학계가 겪어내고 있는 여러 변화들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임. 그러나 정말 문학 분야의 지원사업들은 현재 문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여러 이슈들과 무관한지, 만약 무관하게 작동되어 왔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별도의 매커니즘으로 분리되고 말았는지, 이러한 질문을 중요한 전제로 삼아 문학분야의 지원사업이 작동하는 경계의 안팎을 드러내면서 문학출판계에서의 예술위원회가 현재 수행 중인 기능과 앞으로 예술위원회가

19) 일본 출판시장에서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갖는 의미는 다음의 글을 참조. 구라모토 사오리, 번역 승미, 『문학이 견인하는 ‘연대’의 가능성』, 문학웹진 《비유》, 2019년 6월, 18호.
http://view.sfac.or.kr/html/epi_view.asp?cover_type=VWCON00002&cover_idx=86&page=1&epi_idx=507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만들어나가야 하는 공공영역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고자 함.

□ 문학계 지원사업에서의 ‘기회’와 ‘평등’

- 문학출판계의 최근 3~4년 간 벌어진 여러 변화들이 갖는 젠더 관점의 특수성을 우선 짚고, 그러한 특수성 하에서 공공영역에 대한 담론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한 것은 이 포럼의 제목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문학출판계’에 적용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지점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임. 포럼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기회’, ‘평등’, ‘과정’, ‘공정’이라는 네 개의 개념은 그동안 문학 분야의 지원사업 내에서 어떻게 작동되었는가와 어째서 페미니즘 이슈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문학계에서 ‘젠더 평등’의 관점이 공공영역에서는 사유되지 않는가에 대해 알아보려 함.
- 문학계에서 문학정책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공공영역은 또한 무엇인지, 성별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시화할 수 있는 것과 가시화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함. 이 글이 대상으로 다루는 문학 분야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표 3-25>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 분야 지원사업 종류

대분류(사업명)	중분류(세부사업명)	소분류(관리코드명)
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문화예술 향유사업지원	신나는예술여행	순회처매칭형
		발굴형
		대규모우수콘텐츠확산프로그램
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예술창작지원	문학창작산실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문예지발간지원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대분류(사업명)	중분류(세부사업명)	소분류(관리코드명)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소분류에 따르면 총 14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 사업들 중에서 오로지 개인의 자격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이며, 단체의 자격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문예지발간사업’과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그리고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사업임. 개인과 단체 어느 형태로든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과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이 해당함. 단체의 경우, 그 단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의 성별 구분과 세대 구분 등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분석해야 단체 구성의 성별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데이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성별로 표기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 받은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2016~2019년 총 4년 간 예술위의 문학분야 지원사업에 응모한 전체 지원자들의 성별 분포는 여성은 2,277명, 남성은 1,929명으로 여성이 8.2%의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만약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문학계에서는 성비가 비슷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남녀성비는 그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임.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여성이 4,831명, 남성은 1,78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3,051명이 더 많아서 전체 졸업생의 73%를 차지하여 무려 46%의 차이를 보임. 대학원의 경우에는 여성이 874명, 남성은 227명으로서 여성이 전체 졸업생의 79%를 차지하여 58%의 차이를 보임. 물론 국문학을 전공한 학생 모두가 작가로서의 꿈을 안고 국문과에 진학하는 것은 아님. 졸업 이후 방송계나 출판계 혹은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국어국문학 대학원 진학은 연구자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문학 분야의 지원사업

지원자 유입율을 직접 따지는 것이 그리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평가하긴 어려움.

- 작가로서의 진로를 이미 결정하고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기에 입학 당시부터 실기 점수를 대입 합격의 기준으로 반영하는 문예창작학과 전공자들의 경우를 살펴보았음. 문예창작학 전공의 대학과 대학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어서 우선적으로 예술전문대학 출신의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여성은 312명, 남성은 64명으로서 여성이 248명이 더 많아 남녀 비율이 무려 66%가 차이남. 즉, 최소 46~66% 정도 차이가 나는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 졸업생의 성비가 지원사업 응모자로 옮겨오면 8.2%로 줄어드는 것임. 문예창작학과 출신의 전공자들에 한정한다고 해도 문학 분야 지원사업에 도달하기까지의 확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히 더 높은 현상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이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로 함. 만일 이 과정 속에 젠더 불평등이 작동 중이라면 공공기관은 이 과정에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로 지원사업 내부에서만 젠더 불평등을 분석하게 되면 지원자의 자격에 이르기 전에 탈락하게 되는 여성 문학인들은 공공영역에서 처음부터 제외되고 말 것임.
- 2019년 7월 1일에 개최된 성평등 소위원회 첫 번째 오픈테이블의 발표자였던 김혜인은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지형, 왜 우리는 변화를 얘기하는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문화예술계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로서 ‘일반적 성비로 따지면, 여성의 비율이 높아 다른 분야보다 나은 곳’으로 인식되지만 주요 결정권한의 성비는 왜 반대로 나타나는지 또한 어째서 예술계의 미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지를 발표의 여는 질문으로 삼은 바 있음. 이 질문을 필두로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 불평등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또한 가장 심각한 불평등이 어디서 일어나며 문화예술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성평등한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음.²⁰⁾ 이는 문학계의 젠더(불)평등을 사유할 때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질문들임. 만일 ‘젠더(불)평등’의 의미를 고찰할 때, ‘남녀동수제’라는 기계적인 5:5 대응을 평등의

20) 김혜인,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지형, 왜 우리는 변화를 얘기하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주최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1차 오픈테이블 자료집 p.46.

지표로 삼게 되면 문학 분야의 지원자가 되기도 전에 작동하는 젠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공공기관은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게 될 것임.

□ 지원자로서의 ‘기회’와 ‘평등’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 2년 간 잠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위의 문학분야 사업 중 1,690백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금액의 지원사업일 뿐 아니라 문학 분야 전체 지원자 중에서 그 비율이 77.2%에 달하는 가장 큰 사업임. 이 사업은 시·시조, 소설, 희곡, 아동문학(동시, 동화), 수필, 평론 등 문학 분야에 종사하는 작가 중에서 (1)등단 5년 이상의 작가이거나 (2)등단 5년 미만의 작가 중 만 36세 이상의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등단’이란 (1)신춘문예 당선 (2)단행본 출간 (3)신인문학상 수상을 의미함. 등단 년차와 생물학적 나이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은 나이와 등단년도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대에 등단제도를 일찍 통과한 경우, 만 36세 이하이면서 등단 5년 이상의 기성 작가로 활동할 수도 있고, 30대 중후반 이후로 등단제도를 통과한 경우, 만 36세 이상이지만 등단 5년 미만의 신인일 수도 있음. 문학출판계에서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등단제도’는 타 예술 분야와의 큰 차이점이며 이 사업에서 5년을 기점으로 지원 신청 대상을 구분한 것은 작가들이 대체로 첫 단행본을 출간하는 데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있거나 개인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작가, 혹은 2020년까지 개인 작품집 발간 계획이 이미 있어서 발간계약서 첨부 시 우대 조건이 있다는 점임. 이 사업이 문학출판계 구조 내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출판계에서 작가가 활동하게 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등단제도를 통해 작가로서의 (제도적) 자격을 획득한 자가 5년을 기점으로 자신의 작품집을 2년 내에 출간하기 위해서는 시의 경우 50~60편 정도, 단편소설의 경우 10편 정도의 작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함. 또한 자신의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예지에서 작품을 연달아 발표할 만큼 문학계 내에서 작가로서의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여야 가능한 셈임. 즉, 등단년도와 생물학적 나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1)등단 5년 이상의 작가이거나 (2)등단 5년 미만의 작가 중

만 36세 이상의 작가를 대상으로, 문학상 수상 및 작품집 발간 실적을 고려하고 발간계약서 첨부 시 우대해준다는 것은 이미 문학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확보한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뜻임.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을 때 성별 데이터는 여성이 선정자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 사업 내에서는 젠더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쉬움. 흥미로운 것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에서 선정자의 성비가 거의 2배 이상 차이나는 압도적인 비율에도 불구하고 문학 분야의 전체 지원사업의 선정자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은 50.2%, 남성은 49.2%로서 거의 5:5의 비율에 가까워진다는 점임.
- 문학 분야 지원사업에서 전체 지원자의 무려 77.2%를 차지하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여성 비율이 어떻게 전체 사업에서 5:5로 남녀동수로 변하는지, 남성의 비율을 압도적으로 높이는 특정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개인의 자격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에서는 여성지원자의 선정이 도드라지게 높지만, 단체의 자격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문예지발간사업과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에서는 남성 대표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즉, 개인의 자격으로 지원할 때와 단체의 자격으로 지원할 때 젠더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등장함. 다음의 표는 문학출판계의 지원사업에서 젠더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매우 극명하게 보여줌.

<표 3-26> 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의 개인/단체 유형에 따른 선정자 성별 분석

대분류(사업명)	성별	유형	선정건수
예술창작지원	여성	개인	129
		단체	52
	남성	개인	53
		단체	115

- 위의 표는 여성들이 주로 개인으로서의 작가 정체성으로 활동하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위의 표가 문학출판계에서 갖는 의미는 훨씬 더 상징적임. 위의 표에서 등장하는 남성 대표자의 단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사업은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이기 때문

임. 문학출판계에서 문학잡지가 갖는 위상은 문학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 글 서두에서 2015년 6월 신경숙 표절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문학계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 사건을 단지 한 창작자의 창작 윤리 문제로 바라보는 대신 주요 대형 출판사들이 50년 넘게 운영해온 문예지 체제에서 비롯된 비평 담론의 고착화에서 그 원인을 찾은 바 있음을 언급했음. 문학출판계는 독자와 작가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학잡지’라는 매체를 중간 매개로 하여 교류함. 즉 문학출판계의 제도권 내에서 작가로 활동한다는 것은 출판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학잡지에 작품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독자들을 만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로 인해 문학잡지라는 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작가에게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을 뜻함. 또한 많은 문학잡지들이 등단제도에 해당하는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기에 문학잡지를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작가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가’, ‘한정된 지면 중 누가 작품을 발표할 만한 실력을 갖춘 훌륭한 작가인가’를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뜻임. “나한테 직접 원고 주면 2차 심사부터 볼 수 있는 거다.” 혹은 “개 시 같은 실험 정신 가득한 시는 나니까 뽑아준 거다. 너도 그렇게 쓰면 내가 뽑아줄 수 있어.”와 같은 발언들²¹⁾은 이러한 등단제도와 문학잡지의 청탁 권한을 권력으로 남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음. 문학 매체를 대표하는 성별이 남성이며 74%를 차지한다는 것은 현재 문학출판계의 중요한 의사결정 권력을 남성이 쥐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임.

□ 문학계 지원사업에서의 ‘과정’과 ‘공정’

- 문학계에서는 페미니즘 이슈가 활발히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호명된 바 없음을 지적한 바 있음. 만일 개인의 자격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아르코문학창작기금과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에서의 선정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남녀 성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심의 결과만 봐서는 문학계에 젠더 불평등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21) 김지현 기자,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 연대모임 “아가미” 2차 좌담회 ‘파급력 파티’ 열려>, 뉴스페이퍼, 2019년 8월 2일 자 기사.

있음. 문학출판계의 등단제도와 문학잡지 체제는 ‘누가 작가가 될 것인가’ 또는 ‘누가 훌륭한 작가인가’를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구조 자체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영역에서는 쉽게 가시화되지 않음. 왜냐하면 문예지발간지원사업과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의 선정결과는 모두 문학잡지 명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매체의 대표자 성별이 완전히 지워지기 때문임.

- 아마 이것이 젠더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는 문학계임에도 공공영역이 그 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설정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 짐작됨. 이는 만일 예술위가 문학 분야의 지원사업 중 문예지발간사업과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에서 대표자 성별을 심의 결과에 직접 표기하거나, 지원 단체 구성원의 젠더 평등 지표를 도입하여 심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문학출판계의 젠더 불평등 구조 문제를 공공영역이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재생산하는 것에 동원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즉, 단순히 예술위에서 시행 중인 지원사업들의 선정자들의 성별 대조표만으로는 문학계가 가진 특수한 젠더 불평등 구조를 가시화할 수도 없으며, 가시화조차 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없음은 더욱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예술위에서 시행 중인 문학계의 지원사업은 모두 등단제도를 통과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문학출판계는 단지 제도적 자격을 부여받은 작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음. 작가가 되길 꿈꾸는 청소년들이 문예창작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입시를 통과하는 중요한 조건인 백일장 당선 이력을 남기기 위해 숱한 백일장에서 경쟁함. 그러한 백일장에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요 문학단체의 구성원들이며, 백일장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인력 역시 그 단체에 소속된 신인 작가들이 작은 일거리로 나눠 받으면서 일당을 받아 생활비에 보탬. 백일장 이력을 쌓아 문예창작학과의 예술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은 다시 문예창작학과 대학 입시를 통과하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기 시험을 위한 과외 수업을 하기 시작함. 예술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경우에도 정규직 교수의 자리는 한정적이므로 비정규직 강사들은 임용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논문 실적과 강의 경력을 쌓음.

- 주요 출판사가 운영하는 문학잡지는 그 자체로는 이익이 남지 않지만, 등단제도와 청탁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획득되는 상징 권력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획득된 상징권력은 해당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여러 시집과 소설집들의 문학적 가치를 독자들에게 설득하는 마케팅 요소로 동원됨. 어렵게 등단제도를 통과한 작가들은 이제 첫 작품집을 출간할 수 있는 작가의 소수 명단에 들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첫 책을 발간한 작가들은 다시 발간된 작품집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문학상을 두고 경쟁하게 됨.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편집자들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주요 결정권을 가진 대표와 임원들, 계약직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편집자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위계는 존재함. 그리고 이 모든 출판계의 다양한 위계 구조마다 젠더 불평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결정적임.
- 문학출판계는 이처럼 대학 입시제도와 문학출판 산업이 등단제도와 문학잡지라는 매체를 통해 촘촘하게 맞물려 있는 구조이며, 이는 문학계의 젠더 불평등을 떠받드는 주요한 구조로 되어있음. 2015년의 신경숙 표절 사건 및 연이은 여러 주요 문예지들의 혁신, 2016년 10월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2018년 최영미 시인의 미투에 이르기까지 최근 3~4년 간 문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변화들이 앞서 나열한 문학계가 작동되는 구조의 문제점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사건들임.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이 전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상징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등단제도를 거친 작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현재 예술위의 문학계 지원사업들은 '누가 작가인가'를 기존 출판산업이 필터링하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에 문학출판계의 구조를 재구성하기는커녕 마치 문학출판계의 작은 부품으로서 그 구조 속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는 것임.
- 예술위의 성평등 소위원회가 주최한 첫 번째 오픈테이블의 발표자였던 박소현은 「성평등한 예술지원정책 상상하기」 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현재의 예술위는 단순히 지원금을 분배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매우 기능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술위는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여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지하고 알리는 기관이어야 함을 피력한 바 있음. 이 발표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슬로건인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이라는 문장에서의 ‘훌륭한 예술’이 성평등과 연계된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학’이라는 장르는 한 편으로는 대학 입시제도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출판 사업 구조에 의해서 성립되고 있으며 이는 문학계의 젠더 불평등을 작동시키는 주요한 구조이기도 함. 대학 입시제도와 출판 산업이 만들어낸 촘촘한 경쟁 시스템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들만을 예술가로 인정하고 오로지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문화예술 정책의 유일한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현재의 문학출판계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이들, 그리하여 예술정책에 지원할 자격조차 갖지 못한 이들이 글쓰기를 이어나가는 것이 개인의 몫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 한지, 또한 겨우 이 구조 속에 들어온 작가들 중에서도 매체를 가지고 ‘누가 작가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와 ‘좋은 작가’로서 선택 받아야 하는 개인 예술인의 위치가 성별로 인해 분할되는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위의 문학 분야는 어떤 예술정책을 펼칠지 생각해야 함. 결국 문화예술 정책이 구현하는 ‘공공성’이란 예술이 생산되는 과정과 향유자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임.

제4절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현황

1.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예술인들의 경력단절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2018년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활용하였음. 전체 문항 중 예술인의 경력단절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만 추려내어 살펴보았으며, 전체 조사 개요는 아래와 같음.

<표 3-27> 2018년도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예술분야	- 14개 분야(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조사 모집단	-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응답자 수	- 4,953명
설문 항목	- 예술활동 분야 및 내용 (활동분야, 작품발표 횟수, 개인창작공간 보유 현황 등) -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지난 1년간 계약 현황, 프리랜서 여부, 실업급여 준거기간) - 생활 및 복지(수입 및 지출, 실업급여, 경력단절 경험 등)
표본 추출	- 14개 분야, 17개 시도별 층화무작위추출법
조사 방법	- 방문면접조사

1) 예술경력단절 경험

- 전체 응답자 중 21.0%가 예술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예술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성(23.1%)이 남성(1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40대(28.8%)에서 단절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28> 예술경력단절 경험

(단위 : 명, %)

		응답자 수	있음	없음	
전체		4,953	21.0	79.0	
성	남	2,875	19.5	80.5	
	여	2,078	23.1	76.9	
연령	30대이하	2,272	24.5	75.5	
	40대	872	28.8	71.2	
	50대	846	18.1	81.9	
	60대이상	963	8.2	91.8	
연령 * 성	30대 이하	남	1,165	22.9	77.1
		여	1,107	26.2	73.8
	40대	남	510	28.4	71.6
		여	362	29.3	70.7
	50대	남	516	17.1	82.9
		여	330	19.7	80.3
	60대 이상	남	684	8.8	91.2
		여	279	6.8	93.2

2) 분야별 예술경력단절 경험

□ 예술경력단절 경험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만화 분야가 3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영화(35.4%), 방송연예(33.3%), 연극(30.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3-29> 분야별 예술경력단절 경험

(단위 : 명, %)

		응답자 수	있음	없음
전체		4,953	21.0	79.0
주 활동 예술분야	문학	559	20.2	79.8
	미술(디자인 포함)	623	23.0	77.0
	공예	191	12.0	88.0
	사진	470	6.0	94.0
	건축	153	5.2	94.8

		응답자 수	있음	없음
	음악	477	19.3	80.7
	국악	347	9.8	90.2
	대중음악	529	22.3	77.7
	방송연예	255	33.3	66.7
	무용	344	20.6	79.4
	연극	463	30.9	69.1
	영화	277	35.4	64.6
	만화	192	37.0	63.0
	기타	73	17.8	82.2

3) 예술경력단절 이유

□ 예술경력단절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76.4%, 58.7%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17.7%p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출산/육아’에 있어서도 남성은 0.4%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여성이 14.9%로 나타나 성별 간 매우 큰 격차를 보여줌. 다른 항목에서는 성별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그림 3-47] 예술경력단절 이유



4) 예술경력단절 횟수

- 예술경력단절 횟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 1회가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횟수가 증가할수록 응답자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과 남성 모두 예술경력단절 횟수가 많아질수록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이유인 경우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음. 남성의 경우, 단절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 수입 부족을 원인으로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91.2%까지 증가함.

<표 3-30> 예술경력단절 횟수

(단위 : %)

구분		전체	남	여	
예술경력 단절 횟수	1회	44.7	43.4	46.3	
	2~3회	35.2	34.1	36.5	
	4회 이상	20.1	22.5	17.2	
예술경력 단절 횟수 * 단절 이유	1회	학업	8.6	6.6	10.8
		출산/육아	8.6	0.4	17.6
		질병	8.0	8.2	7.7
		예술활동 수입 부족	58.7	66.3	50.5
		기타	15.7	18.5	12.6
		없음	0.4	0.0	0.8
	2~3회	학업	5.7	6.8	4.6
		출산/육아	6.0	0.5	12.0
		질병	6.0	5.8	6.3
		예술활동 수입 부족	72.1	79.6	64.0
		기타	10.2	7.3	13.1
		없음	0.0	0.0	0.0
	4회 이상	학업	2.8	2.4	3.6
		출산/육아	5.3	0.0	13.3
		질병	4.8	2.4	8.4
		예술활동 수입 부족	81.8	91.2	67.5
		기타	4.8	4.0	6.0
		없음	0.5	0.0	1.2

2.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사례

1) 여성 예술인 좌담회 개요

- 여성 예술인의 경력단절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8명의 여성 예술인을 대상으로 좌담회(FGI)를 실시하였음.
- 여성 예술인 좌담회 개요
 - 좌담회 진행 그룹 수 : 총 2그룹(연령대를 나누어 진행)
 - 좌담회 진행시간 : 2시간
 - 주요 내용 : 경력단절 이유, 예술지원사업으로 인해 좋았던 점, 예술지원사업의 개선점 등

<표 3-31> 여성 예술인 좌담회 참석자

구분	참석자
1그룹 (20/30대 여성예술가)	윤00(시각), 윤00(무용), 이00(무용), 조00(시각)
2그룹 (40/50대 여성예술가)	남00(영상), 유00(연극), 임00(시각), 최00(시각)

2) 20/30대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사례

<표 3-32> 20/30대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사례

분야	경력단절 사례
시각	경력 연장을 위해 어린이집이 필수적이거나, 예술가 부모에게는 어린이집을 위한 서류 마련의 어려움이 있음
	어린이집 등원 시간에 작업 시간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
	미술계 내 남성 네트워크는 많은 반면, 여성 네트워크는 없는 편임
	공정한 기준을 통한 인력 선발이 필요함
	육아/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함
	국내 예술지원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임
	국내 레지던시 참여 후 양질의 네트워크에 합류할 수 있으나, 엄마 작가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편
	작가의 작품이 아닌 경력으로 판단하는 국내 예술지원 심사의 문제점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작가들이 모여 여성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함
	육아를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분야	경력단절 사례
	정형화된 조건에 맞아야 하는 현재 예술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열린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함
무용	무용계에서 소수의 남자무용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착화되어 있음
	무용가에서 안무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성 무용가는 소외되고 있음
	안무가의 대부분은 남성이 차지하고, 여성은 뮤즈로서만 존재하고 있음
	여성 무용 교수님이 남성 무용가들을 위주로 키워내려고 함
	출산 이후 무용가로서의 복귀가 불투명함

가. 윤00 / 학예사

□ 여성 예술가로서의 어려움

-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음.

“현재 ‘00 창작 스튜디오’라고 00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레지던시가 있는데 요, 거기에 입주 연구사로 입주해 있습니다. 전에는 00시립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아이들이 네 살과 다섯 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쨌든 저는 경력단절이라는 걸 겪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운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당연히 00시립미술관에 어린이집이 있었다는 것을 꼽을 것 같아요. 바로 옆 건물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었고, 항상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었죠.”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특성상 좀 늦게 퇴근을 하거나 해도 항상 아이들이 늦게까지 많았고,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덜 부침을 겪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게 한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경험을 했던 거죠.”

- 예술가(작가) 부모는 어린이집 제출서류 마련이 쉽지 않음.

“둘째 같은 경우에는 시립미술관 나오고 나서 어린이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고, 그냥 단지 내에 가정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제가 00 창작 스튜디오의 레지던시로 있지만 월급을 받는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그런 서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막연히 작가 분들이, 큐레이터인 나도 이렇게 일하기 힘든데 작가 분들이 확실히 그런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울 것이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다면 자기의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경력단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육아를 하는 여성 작가분들을 위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한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이 정식으로 딱 마련이 되어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진짜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게 하늘에 별따기예요.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실 텐데, 다들, 전쟁이거든요,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 특정시간(자녀의 등원시간)내에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작가로서의 어려움을 내재함.

“일단 아이디어라는 게 딱 아이가 등원한 10시부터 4시 사이에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애들을 등원 보내고 여기에 온 건데 그 사이에 제가 할 일을 하고 뭔가 붙이 붙어서 더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하원 시간인 거죠. 가서 애들 재우고 나서 다시 뭔가 일을 하려면 나도 지쳐 있고”

- 미술계 내에서 남성 네트워크로 인한 남성의 진출 용이한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네트워크는 없는 편임.

“이상하게 남자들은 남자들을 끌어주더라고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런 뭔가 유대관계가 엄청 있어요. 제가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직장 상사 분들은 대부분 남성분들이잖아요. 특히 미술관에도 간부들이 남자들이 많고. 뭔가 자리가 생겼을 때 항상 남자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맞벌이 직전으로 ‘안 된다.’ 약간 그러면서 여자들도 여자들의 추천인을 넣고 하고 싶은데, 그들의 어떤 그 유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지켜봐 왔고, 그리고 약간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더 활동할 수 있는, 무거운 걸 잘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돌쇠가 한 명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분위기도 있기는 있어요. 물론 일할 때 돌쇠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계속 어떤 자리가 났을 때마다 남자를 추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 여성 예술가 경력단절 연결을 위한 방안

- 네트워크에 의한 인사가 아닌 특정 기준에 의한 인력 선발이 필요함.

“어떤 능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애초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는 이래서 장점이고 여자는 이래서 장점이고 그걸 떠나서 그냥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면 남녀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임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국공립 기관일수록 더 그런

인맥이나 어떤 경험이 더 많이 작용한다는 걸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약간 사람 잘못 뽑으면 사업 하나가 날아가거든요. 그런 일들이 비밀비재 하나까 이왕이면 아는 사람, 안전한 사람, 믿음만한 사람을 뽑으려는 심리는 이해는 하면서도, 거기에 약간 성별 문제가 작용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특히 이때 그런 어떤 추천권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남자라는 게 거기서 성평등이 안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육아/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이 필요함. (예. 예술행사의 유모차 구비 문구, 돌봄/육아 병행 예술가/직장 여성에 대한 교육 운영)

“어떤 식의 행사든 미술관, 레지던시, 이런 모든 예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유모차를 구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 하나만 넣는 거가 되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유모차를 누군가가 와서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온 유모차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의 행사든 홍보 문구에 ‘유모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보면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 나도 저기 갈 수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저기에 가도 환영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일단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기를 갖고 있는 아이 엄마한테는 너무 반갑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행사에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을 다른 아이가 없는 분들도 봐야 돼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존재를 바로 옆에서 느끼고 아이와 인사를 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어야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만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국공립 미술관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직장 어린이집의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로부터의 받는 약간 힘듦이 있었어요. 사실 육아라는 게 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지금 다들 문명인이고, 21세기 사는데 꼭 경험해야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직장이든 조직 내에 아이를 키우든 동료가 한 두 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조직에 이런 유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돌봄 노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동료들 전부가 알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께서는 아트센터에서 일을 하셨을 때 상당히 그때 문화가 너무 좋았대요. 육아를 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육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전시를 앞두고 대부분 밤을 새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진해서 ‘그러면 내가 오후에는 이 일을 내가 해 놓을게. 그럼 너가 얘기 재우고 10시에 와서 우리 새벽에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소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력단절을 하지 않고, 아이가 있어도 함께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도 전시를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료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조00 / 시각예술가(조소)

□ 여성 예술가로서의 어려움

- 국내 예술지원은 경력단절 여성, 40대 이상 여성에게 열려있지 않음.

“제가 조소과를 졸업을 했는데, 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못하다가, 계속 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고. 어느 정도 가보니까 제가 결혼도 했고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그런 상황에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첫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다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2008년이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러 가지 그런 공공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의, 시립미술관에 지원금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한 군데도 안 되고 다 떨어졌어요.”

“저는 이미 작품을 2008년,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밀어 넣고 나서부터 한 대어섯 시간씩 계속 충분하게 작업량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 다음에 사진 촬영도 다 했었고 개념도 어느 정도 다 잡았었고 이렇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아니었죠.”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나이는 이미 한 30대 후반, 거의 40에 가까웠지만 커리어는 굉장히 짧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술계에 네트워크도 별로 없었고”

- 해외는 작가의 작품으로 판단하는 반면, 국내 예술지원은 경력으로 판단함.

“제가 해외에도 좀 많이 컨택을 했어요. 해외에 있는 기금을 제가 두 개를 받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에 레지던시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폴락 크라즈너 재단 지원금’이라고 해서 약 2천만 원 정도 지원도 받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지원결정시 커리어를 본다든 거죠. ‘제가 이렇게 잘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 작품들, 이미지,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커리어를 보고, 그 동안에 왜 비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고”

- 국내 레지던시 참여 후 양질의 네트워크에 합류할 수 있으나, 엄마 작가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편임.

“지금 국공립 레지던시들이, 저는 한 번도 기본 적은 없거든요. 많은 훌륭한 작가들, 여성 작가들이든 남자 작가들이든 갔다 왔을 때 주변에 있는 굉장히 좋은 평론가들하고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작가들이랑 교류하고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성장하는 것을 봤는데, 엄마 작가 들은 거기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이는 많고 커리어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던시가 원하는 어떤 전형적인 작품 스타일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에서 우리(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예술가)는 굉장히 벗어나 있거든요.”

- 작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족의 희생이 필요하다 느끼는 순간 예술가 경력을 스스로 단절함.

“주중에는 저희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고 주말에는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4개월을 갔다 오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 시선은 그런 거죠. “남편이 대단하다. 저 엄마가 아무 생각이 없다. 어떻게 지금 공부시키고 영어 학원 보내고 애들 해야 되는데 자기 일 한다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없는 4개월 동안에 모든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막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더 이상 이렇게 작품을 계속 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거를 포기할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아이들은 지금 이 시점이 지나면 애네들은 내가 케어해 줄 수가 없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아, 작업은 나중에 할 수도 있겠다. 50, 60이 돼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거의 작품을 놓고 15년부터 지금까지 육아를 다시 합니다. 육아를 다시 하고, 사춘기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머무르고 작업실에 가지 않고 같이 밥을 먹고 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지냅니다.”

- 경력의 재단절 이후 다시 한번 복귀의 어려움을 느낌.

“제가 뉴욕 가기 이전 스타일로 작업을 했을 때 제가 다시 작업을 한다 그래서 ‘가능할까?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나 혼자서 내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만 열심히 하면 뭔가 해결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똑같이 낡고 똑같이 되지 않고 똑같이 고립된 상황이 다시 반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커리어가 또 몇 년이 비었으니까. 더 이상 미술관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다시 신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 육아가 끝나면(40대 중후반) 시작되는 부모세대 돌봄을 상대적으로 시간적 자유로움이 있어 보이는 여성작가들의 몫으로 남음.

“지금 제가 아이들을 많이 키웠는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돌봄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어요. 제가 ‘아 이제는 조금 이렇게 50대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면서 또 전업주부들, 시간 많은, 그 다음에 작가들, 이런 자녀들이 돌봄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성의 돌봄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당연한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른 남성 예술가 또는 육아나 돌봄을 하지 않는 예술가들의 작업 속도에 비해 거의 1/2, 1/3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계획할 때 내가 멈출 수 있다는 것,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 여성 예술가 경력단절 연결을 위한 방안

- 육아를 하는 여성시각예술가들의 모임을 통해 여성예술가들의 삶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함.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다가, 제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나면 저랑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작가 네 명이 모여서 ‘사공토크(사적이고 공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경력단절은 각자의 개인적인 이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육아이고, 그렇게 해서 커리어가 비어 있는 작가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서로 좀 네트워크를 만들자. 내가 작품을 했을 때 그걸 봐 줄 나머지 세 명이 있고, 내가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세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치 지금까지 미술계의 분위기는 어땠나면 아이가 있는 것을 드러냈을 때 굉장히 이게 무슨 패널리처럼, 어떤 단점처럼, 자기 약점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우린 약점이 아니다. 이거는 약점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렇다. 우린 애 엄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자.”

- 지원이 없다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작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함.

“저희가 주로 하는 활동은 한 달에 한 번씩 여성 작가들, 아이가 있는 작가들도 있고 비혼인 작가들도 있고, 그 분들을 모셔서 저희 8개의 귀로 아티스트 토크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듣고, 같이 힘들었던 것들 공유하고, 예술적인 영감 주고받죠.”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무형의 레지던시’라는 개념을 잡았어요. 무형의 레지던시라는 게 사실 제가 뉴욕의 ‘레지던시 언 리미티드’라는 레지던시를 갔었는데, 거기가 사실 스튜디오가 없는 레지던시인 거예요.”

“작은 공간이었었는데 거기서 작가랑 작가를 연결해주고 작가랑 평론가, 콜렉터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만, 어떤 공간이 아닌 소프트 프로그램만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 사회적으로 육아를 책임지는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저희가 자녀를 키우는 건 정말 이게 패널리가 아니거든요. 단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선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priority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약점처럼 돼 버렸고, 맘충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낳고 싶어서 낳으면서 네가 책임져라.’ 다 개인화시켜 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형화된 조건에 맞아야 지원되는 예술지원을 모두에게 열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사업에서의 어떤 카테고리에 안에서 이거를 넣는 거는 사실, 또 지원사업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쟁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거든요.”

“지원사업에서도 당연히 뭔가 지원 카테고리가 들어가야 하겠지만, 어떤 다른 식의 뭔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어떤 컨퍼런스든 네트워크든 공간이든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집담회든. 집담회 해서 그런 처지에 있는 작가들을 다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정말로 필요한 시스템이 뭘까를 한번 얘기를 해보든”

“국내지원사업은 정말 이렇게 완전히 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한국 지원사업 한 5년 동안 단체 기획에서는 넣어본 적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당연히 안 될 거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다. 이00, 윤00 / 무용

□ 무용계의 특징

- 소수의 남자무용수를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용계에 고착화되어 있음.

“무용계는 교육계 장에서부터 남성 무용수들이 굉장히 소수인 반면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해야 되나. 여초 사이에서도 굳건하게 다지고 있는 남자 무리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혹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의 흔히 말하는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자가 10명인데 남자가 3명이면 항상 뭔가 희소가치 때문에 좀 우대받는 게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 분위기가 뭔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교육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발레리노들은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런데 남자를 세우기는 세워야 되니까, 뛰고 돌지 못해도 뛰고 돌게끔 만드는 거죠. 확연히 성별을 떼고 보면 어떤 남자 무용수도 여자 무용수를 제치고 무대에 설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결국 여자가 여자를 들 수는 없으니까, 발레의 무대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현대 무용도 비슷하고, 한국 무용도 비슷하고”

“남자 무용수 같은 경우에는 죽어라 군 면제 문제 때문에, 진짜 잘 추지도 못하면서 그냥 뭔가 버티는 것, 희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죽어라 춤을 추는데, 그런 모습을 또 학교 입장에서 그냥 할 일만 하고 가는 여학생들보다 죽어라 하는 남자들이 더 예뻐 보이냐 보죠?”

- 스터디 그룹이 무용계 미투 대응을 기점으로 단체로 발전하고 있음.

“‘페미 플로어’라고 여성 현대 무용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같이 외부로 활동하고 있고요. 스터디 그룹으로 만났는데, 올해에 ‘ㄷ’ 무용단에 무용계 미투가 크게 터진 게 있거든요. 그거를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이’라는 단체가 주도적으로 연대 활동하셨고, 저희가 거기에 같이 연대 활동 하는 걸로 갑자기 일이 되게 많아졌었고”

“‘행동강령’이라고 미술계 행동강령, 무용계 행동강령, 인디 음악계 행동강령을 만드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무용계 행동강령을 맡아서 올해는 진행을 했었어요.”

“무용하는 사람 모여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을 만들자.’라고 한 게 거의 처음 있는, 그런 이슈로 모인 게 거의 처음이어서 사람들이 할 말이 되게 많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 무용가에서 창작자(안무가)로 전환되는 구조에서 여성 무용가가 소외됨.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사실 학교(무용과)에 대한 것. 그러니까 무용계의 진입이라고 하면 무용과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거든요.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창작 활동으로 무용과 안무가, 그 학교 안에서 그들만의 세계로 돌아가는 구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용과에 들어가면 교수님의 무용수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창작자가 되어서 뭘가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여성 무용수들한테 그런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성 무용수들은 무용수를 열심히 하다보면 안무가가 돼서 내 작품도 해보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여성은 누군가의 안무가의 무용수로서만 계속 한정지어지고 제한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 안무가의 대부분은 남성이 차지, 여성은 뮤즈로만 존재하는 분위기임.

“발레라든지, 약간 그계 협회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발레협회, 한국무용협회, 현대무용협회 협회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 매년 공연하는 것들 보면 사실 안무가가 대부분 남성이에요.”

“그래서 뭐 성비를 맞춘다 해도 50대 50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90%가 여성인 집단에서 항상 남성이 적극성을 가지고 안무가가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

“여자들이 뮤즈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자기의 창작 작업을 하겠다고 일단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 여성 교수님이 키워내는 것은 여성이 아닌 남성임.

“자기는 사실은 안무에 뜻이 없는데도 어쨌든 무용계에서 무용수로만 활동하면서 커리어를

이어가기는 힘든 거죠. 결국 언제인가는 자기 이름을 건 작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떠밀려 가듯이. 남자들은 그런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환경인 거죠.”

“여성 교수님들이 훨씬 많고 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결국 키워내는 거는 남성을 키워내고 계시거든요.”

“여성 교수님들도 일단은 좋은 남성 무용수를 키워야 자신의 명예도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고, 여성들은 워낙 많으니까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고, 남성들은 희소하니까”

“무용계의 문제 지적할 때 ‘다 여성권력자들인데 뭐 거기가 무슨 성차별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겉에만 보시는 부분이고, 그런 똑같은 가부장적 문화 안에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선생님 무용단에서 활동하다가 ‘너도 이제 네 작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무언의 어떤 그렇게 연결해서 안무가로서 해주는 그런 것도 남자들에게 주로 권유합니다.”

□ 여성 예술가로서의 어려움

- 여성이 출산 이후 무용가로서의 복귀가 불투명함.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 신체를 이용해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 무용계에 있기는 있는데, 저번에 기사를 내는데 00 발레단이었나? 거기 출산하고서 복귀하신 분 인터뷰 기사가 하나가 떠서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사실 발레가 유독 신체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심하면 잘 예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제약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또 무용수가 이름 복귀하겠다고 해도 그걸 얼마나 받아들지, 발레단 안에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 여성 안무가와 남성 안무가를 보는 시선/기대의 차이가 있음.

“무용계 쪽도 행동강령 나온 얘기 중에 몸무게 지적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몸무게 지적과 다이어트 그 부분이 무용계에 너무 일상화 되고 당연한 얘기어서 그거를 행동강령으로 ‘그런 것 하지 마시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게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했어요.”

“관객도 그렇고, 공연을 제작하는 내부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들도 그렇고, 여자 안무가 혹은 여자 무용수가 가지고 오는 작품과 남자 무용수 혹은 남자 안무가가 작품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프레임이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사실 남자 안무가가 뭔가 가지고 오면 뭔가 이미 파워풀한 신체 기술력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걸 위해서 남자 안무가를 또 뽑을 수도 있고, 또 여자 무용수나 안무가가 지원을 했을 때는 적어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의 여성 무용수의 탈을 벗어내지 않는 그런 작품을, 그런 무용수들이 출연하는 작품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3) 40/50대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사례

<표 3-33> 40/50대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사례

분야	경력단절 사례
시각	육아를 하면서 예술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항상 양해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감정적인 불편함을 느꼈음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서조차 육아/돌봄에 대한 배려를 느끼지 못함
	현재 예술지원 제도는 다양한 입장의 예술인들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
	예술계 내에서 엄마인 여성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부담을 느낌
	활동 단체에서 육아를 공동으로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됨
	예술가 부부일 경우, 남편의 육아 분담이 없음
연극	여성예술가는 예술가 네트워크에서만 아니라 학부모 네트워크에서도 소외되고 있음
	배우로서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함
	임신한 여성은 당연히 배우로 활동할 수 없다는 예술계의 시선이 존재함
	여성예술가의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특히 남편의 지지가 필요함
	육아보다 일을 우선한다는 주변의 시선(특히 여성의 시선)이 상처였음
	예술활동보다 육아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여성 자신의 시각이 가장 큰 장벽임
영상	예술계 동료들의 육아에 대한 인정과 지지가 가장 큰 도움이 됨
	예술가 부부 중 여성이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하더라도 남성이 경제적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흔함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 네트워크로 도움이 되었음
	육아를 병행할 경우, 협업을 해야 하는 작업현장에서 스태프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경력단절 여성예술가는 현실적으로 예술인 활동증명이 어려움(육아로 단절된 시간에 대한 보상/인정이 필요함)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함(예술감각 되살리기, 기술변화 습득, 네트워크 형성 기회 확대 등)	

가. 최00 / 시각예술가

□ 여성 예술가로서의 어려움

- 임신·출산 이전에 전시 작업 위주 활동, 출산 이후 집에서 음반 작업으로 경력 이어감. 모유수유를 3년간 하면서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사실 아이를 낳고 많이 정서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혼자 스마트폰으로 새벽마다 세상은 계속 굴러가고 미술신은 이렇게 변화하고, 내가 알고 있던 작가들이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보는데, 나는 집에서 밤마다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이런 게 많이 우울했던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해야 겠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단지 그냥 버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밤마다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음악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반적인 예술활동의 방식을 이어나가는 게 경력단절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삶에서의 예술적인 방법론을 찾아가는 게 진짜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다른 예술영역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집에서 하는 예술활동(음악작업)에 대한 지지를 했기 때문임.

“저는 삶에서의 연대를 하는 사람이 제가 경력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 경력단절 이전에 예술을 장르로 접근했던 관점이 단절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관점으로 자유롭게 장르를 넘나드는 형태로 변화함.

“뭐든지 예술도 될 수 있고 나의 관점에 따라 오히려 나의 실천에 따라 다르겠다는 생각이 저나 남편이나 좀 크게 생겨서 이후에 활동들이 둘 다 좀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진 지점이 있어요.”

“여성의 삶에서 경력이 단절된다는 것도 예술가라면 사실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상상하는 것들로 다른 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술이 뭘까? 예술가에게 창작 방식은 얼마나 다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런 작업을 하면서 생겼고요.”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서 공동육아를 하는 단체에 파견되면서 육아와 작업을 같이 하는 환경을 경험하였으나, 이것이 현재 일반적인 예술계에서는 불가능한 환경임.

“제가 파견된 기관은 서울에 있는 지역의 작은 카페였는데, 거기가 아이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육아도 하고 마을 협동조합 같은 것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 제가 파견은 됐지만 카페 안에 아이들이 노는 놀이방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계속 회의도 갈 수 있고 작업을 하러 갈 수 있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 아이 엄마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아이의 옷이나 신발을 보내기도 하고 서로 이려고 있는데, 그 일상적인 관계 형성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는 아이 엄마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예술 신 안에서는 저는 언제나 좀 미안해하거나 양해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어요.”

- 예술 단체에서 활동할 경우 주변에 육아를 하는 사람이 없어 감정적 불편함이 있음.

“창작그룹 단체에서 대표로 활동하는데 그 이전의 비영리 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저만 아이 엄마였기 때문에 계속 회의 시간을 잡는 것부터나 이런 게 계속 엇나갈 수밖에 없고, 그게 서로 감정적으로 불편한 것까지 발생되는데 저는 집에서도 계속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하고 나와서도 같이 일하는 창작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 여성 예술가 경력단절 연결을 위한 방안

- 예술인복지재단/문화재단 사업에서도 육아/돌봄에 대한 배려가 없었음.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을 막 시작할 때 여기 대학로 마침 마로니에 공원에서 만남의 광장 이런 걸 하거든요. 파견 예술가들끼리 만나야 하는 자리를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정도 하는데 그때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예술가랑 계속 상담하는 내내 옆에 돗자리를 깔아두고 아들한테 짜파게티를 컵라면 먹이면서 개는 거기서 놓고 저는 계속 일을 해야 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남들에게는 당연한데 하나하나 해야 될 때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무리를 해야지만 가능한가?'라는 좀 생각들이 있었고”

“일반적인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의 사업들에서는 전혀 그런 게(여성의 출산·육아) 고려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 여성 예술가로 삶(사업이 아닌)을 지원하는 무정산 사업(한국여성재단 ‘변화의 리더’)의 벤치마킹이 필요함.

“‘사업에만 쓰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엄마에게 그동안 옷도 못 사드렸다면 옷이라도 사주셔도 되고 밥도 좀 사 먹고 택시도 좀 타시라. 그리고 월세를 좀 내시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1년 동안은 제가 힘들 때 택시를 탈 수 있었고, 뭔가 배고플 때 제일 싼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지원을 받을 때 좋았던 점은 정산을 안 하기도 하지만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계속 증명해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이 지원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여성 활동가들에게 그 재단이 돈을 빌려줬다가 그거를 다시 받은 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 이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반적인 창업이나 혹은 자기 사업 문화기획 같은 것 발표하는 자리는 처음이 기획의도,

비전 이런 건데, 거기(한국여성재단)는 자기소개인데 거의 다 첫 장면이 아이들 사진, 그 다음에 가족 사진. 그래서 자기소개가 언제나 “몇 명 아이의 엄마다.” 이런 얘기로 시작된다는 것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저는 좀 내가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희한했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을 아우르지 못하는 것이 현재 예술지원 제도의 한계점임.

“다양한 삶의 방식이 유입되기 어려운 현재의 지원제도가 문제다’ 이런 식의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이클이나 밀도로 작품을 생산하고 발표하는 예술가를 전제하고 있는 지원제도 자체가 한계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작품에 온전히 집중해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로 전제되어 있고, 그런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것으로서의 지원제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삶이 유입될 수 있는 지원 제도로서의 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지원제도의 차원을 넘어서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 임OO / 시각디자인

□ 여성 예술가로서의 어려움

- 예술계 내 ‘엄마인 여성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움.

“여성, 엄마가 된 작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오히려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때가. 애 때문에 네 시 이후는 못 나가고 여섯 시 이후는 못 나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때 특특 던지는 말들이 제일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 애는 나가지고 그래.’ 그런 말들하고.”

- 예술가 부부일 경우 남편의 육아에 대한 도움이 없음.(여성 = 생활에 대한 부담 + 육아에 대한 부담)

“한 지붕 두 작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때 아주 명료하게 알아들었죠.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불가능한 거였어. 남편은 작가로서 굉장히 자율성과 독립, 그 다음에 그런 자분에 저항해야 된다는 그게 있었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남편이 낭만적으로 혁명 타령한다 이런 입장이어서”

- 여성예술가로 비평가들과의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벽을 느낌.

“저는 그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막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막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저쪽은 너무 이게 넘사벽인 거예요. 네트워크나 그게”

“그때부터 변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는 저보고 카르텔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 더 그런 걸 보면서 특히 여성 비평가들이 더 그렇게 소외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깊게 상처로 남아 있고,”

- 여성 예술가들은 진영에서 소외됨.

“미술은 혼자 해서는 안 된다. 그 진영 논리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확연하게 소외된 현상을 느꼈고요. 민중미술 진영이든 상업주의든 다 그렇게 그게 건전한 미술 생태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여성 작가들은 좀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자녀로 인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김.(중의적 감정)

“결혼을 하는 후배작가들이 많은데 종종 저한테 그러는 거죠. 어떻게 애 키우면서 작업했냐고. 그런데 저는 애가 원망은 많은데, 삶속에서 받은 상처나 이런 과정들 때문에 원망은 많지만 아이 때문에 작업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 여성 예술가가 아닌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소외감을 느낌.(나의 정체성과 맞지 않음)

아이가 초등학교 거기 다닐 때, 그 엄마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엄마들이 앉기만 하면 학원 얘기하고, 다음 주는 어느 엄마가 와서 간식을 해야 되고, 청소는 몇 조가 하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이상한 미운 오리새끼같이 제가 그렇게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서. 싹싹하게 하고 으쌰 으쌰 그래야 되는데 무슨 칼국수도 먹으러 가야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 여성 예술가 경력단절 연결을 위한 방안

- 활동하는 단체에서 육아를 공통으로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됨.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00센터) 가서 애는 그냥 거의 방목한 거거든요.”

“모든 00센터의 청소년과 활동가들이 다 00이의 이모이자 삼촌이었고, 다 그때 가족처럼 애 그냥 거기다가 방목해도 됐으니까”

다. 유00 / 배우

□ 여성 예술가로서의 어려움

- 배우로서 결혼/출산을 하는 것에 대한 예술계 내의 부정적 시각이 있음.

“남편도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 제작 기획 연출을 하고 있는 예술가고요, 극단에서 만났어요.”

“제 주변에 사실 여성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주로 여초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결혼한 예술가들이 없어요. 다 미혼들이시고,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한다”

“제 주변에서 제가 결혼 한다 그랬을 때 일단 머리 쥐어뜯으러 온다는 언니 있었고,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전화해서 저한테 미쳤냐고 욕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출산한 여자 선배들이 다 물러났거든요.”

“극단에서 만난 커플이 10커플이 넘는데 저 이전에 다 그만뒀고 제 이후에도 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예술가로 두고 있는 여성이 없었어요.”

- 예술가 부부(배우)의 경우, 여성이 생활비와 육아 모두를 책임짐.

“결혼하고 아이 낳고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 언니들이 말씀하셨던 건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 남편이 너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이리 맡기고 저리 맡기고 다니면서 시댁 한번 친정 한번 아이 맡기러 다니면서 공연을 해야만 했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우들끼리 결혼하면 특히 여자가 일을 그만두고 보험 설계사가 된다든가 필라테스 강사가 된다든가 하는 케이스들이 일반적이었고”

-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생계만을 위해 살다가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음.

“아내는 배우이고 남편은 연출가로 있다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원 강사로 갔어요. 둘 다 사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남편이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일들을 못하고 살고 있다가 10년을 그렇게 참고 살다가 가출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냥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 육아로 단절된 예술가의 경력 복귀는 연속성이 없는 예술작업 특성상 어려움이 있음.

“일단 아이를 맡기기가 쉽지 않았고, 두 번째는 경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10년 동안 안 했는데, 배우도 어쨌건 감각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일이라 멈추고 있으면 그 다음에

무대에서 자기가 손발이 어디에 있는지도 감각을 찾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왜 카페에 취직해. 배우를 다시 해야지.’ 근데 막막한 거예요. 다시 연결해주거나 동료들이 지지해주거나 불러내주거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뜻, ‘오디션을 봐서 한 작품 겨우 하고 나면 10개월을 쉬어야 되는데. 계속 연달아서 뭔가 자기가 안정적으로 경력을 형성해오지 못했는데.’라는 두려움이 계속 큰 거예요.”

-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예술가로서 예술적 지향점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사실은 남편이랑 따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독자적으로 있는데도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지원책이 좀 있으면, 여성 CEO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상담이든 아니면 지원이든 뭔가 있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기도 합니다.”

“마음껏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닌 지점은 있어요. 형편을 맞춰서 좁혀서 해야 되는 일들, 아이를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일들, 남편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일들에 국한해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 공연 연습시 아이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육아 = 방목)

“애를 업고 리딩을 했어요, 기본 리딩을. 아직도 그걸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아끼띠 업고 리딩하는 사진. 그렇게 뭔가 좀 한 발을 나가기 시작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 ‘나와’, ‘애는?’, ‘업고 해. 그냥 기어다니게 내버려둬. 굴러다니게 하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패드 깔아놓고서는 아예 재우든가 하고, 애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탓에 업고서는 리딩을 했어요.”

- 육아보다 일을 우선한다는 주변의 시선(특히 여성)이 상처가 됨.

“그 해에 생후 6개월 만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 어린이집이 대학로에 있었고 11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공연 끝나고 다다다다 달려와서 아이를 픽업해서 집으로 갈 수 있는. 물론 주변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저 엄마가 미쳤다, 재는 일에 미친 애다.’ 이런 이야기를 뭐 그냥 제 뒤에서 많이 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애보다 일이 더 좋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적은 여자구나. 아, 여자가 더 이해를 못해주는 거구나.”

- 임신한 여성은 당연히 배우로 활동할 수 없다는 예술계의 암묵적 합의가 있음.

“최종 오디션이었어요. 아마 후보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경력 이 1년 동안 없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네,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았으니까 경력 갖기가 쉽드니까 저는 이해시키려고 당당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아..’ 하고 물러나시더라고요. 질문이 그 다음에 없으셨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떨어지는 거구나.’”

“주인공이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감당이 가능하다고 얘기해도 그때 바뀐 기획팀장님은 안 된다고 하시고 그냥 하차. 근데 이것도 제가 다른 일로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얘기를 받은 거고, 통보도 없이 그냥 저를 하차시킬 생각이셨더라고요.”

“‘임신하면 일을 못할 거야. 임신하면 예술활동 하지 못할 거야. 연기를 못할 거야’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인식부터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그 어떤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임신한 여성이 해야 하는 금기가 예술활동의 장벽으로 작용함.(아이가 잘못 될 것이라는 인식)

“같이 공연했던 언니가 공연 끝났을 때 그랬어요. 끝나는 날. ‘난 니가 미친 애라고 생각했어. 울고 불고 자살하려고 소동부리는 역할을 임신 중에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게 진실이 아니고 허구인 걸 아니까,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라는 걸 내가 아니까 아이도 알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이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임신 중에 뭘가를 하고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복귀를 했을 때 ‘위험할 거야. 잘못될 거야. 아이가 문제가 생길 거야’라고 경고성 멘트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그렇게 키워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그냥 제가 ‘안 그렇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조금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 예술활동보다 육아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여성 자신의 시각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함.

“여성 자신도 ‘내가 애를 키워야지 어딜 나가.’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 친구도 아마 그래서 10년 동안 ‘그래, 나는 애를 키우는 게 더 행복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개인적인 이기심을 위해서 아이를 놓고 나가는 게 일을 하는 거지. 여성 예술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성 스스로도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띠를 들춰 업고 안무를 했어요. 그거를 재미있어 하면서 동영상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걸 보신 다른 선배가, 10년 동안 활동이 없으셨던 선배예요. 그 선배도 무대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되게 좋아했던 선망했던 선배인데, ‘나 왜 눈물 나지, 이거 보는데. 난 10년 동안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둘째 픽업하러 어린이집 앞에 나와 있는데 나 왜 눈물 나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답글을 다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애착 이론. 마치 신화처럼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때 육아를 먼저 했던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만 2년은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겁을 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엄마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인가?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0살 때부터 배우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꿔고, 수입도 잘 안 되는 극단 들어가서 1년에 연봉 270 받으면서 겨우 경력을 쌓아서 이제야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남편의 지지는 머리로만 하는 지지에 불과하고 실질적 도움은 주지 않음.

“남편이 지지를 하지만 육아를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전혀 어떤 지지도 해주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머리로만 지지를 해주는 상태.”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전담해서 키워보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세계, 여성이어도 남성이어도 전혀 모르는 세계. 그래서 성별을 무론하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 그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야 ‘아, 뭐가 필요하구나. 이때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지금 친구를 만나러, ‘나 한 달에 한 번은 술자리 가자.’라고 사람이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일단 일이 끝나면 바로 들어오는 상태가 된 게 딱 육아를 해보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 여성 예술가 경력단절 연결을 위한 방안

- 여성 예술가가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특히 남편)의 지지가 필요함.

“경력단절이 일어났던 건 제 케이스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임신 기간. 배우는 무대에서 배부르면 안 쓰기 때문에 배부르기 직전까지 무대에 섰어요, 16주까지. 뱃속에서 16주까지 무대에 서고, 낳고 두 달 만에 무대에 섰어요.”

“제가 사실 일을 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일단 남편이 그만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해줬어요.”

“사실 표는 잘 안 시주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작품을 같이 만들고 있는 남편이었으니까 ‘그만두지 않아도 돼. 계속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 예술계 동료들의 육아에 대한 인정과 지지가 가장 큰 도움이 됨.

“지지를 받은 거죠. 동료들의 지지를 받았고, 제가 애를 딱 안고 생후 한 5개월 쯤 됐을 때, 100일 쯤 되는 날에 아이를 안고 가요. 그러면 아기띠 안고 리허설 할 때 극장 문을 열면

극장 감독님이 막아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스태프 나오요. 그래서 ‘언니, 애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딱 엮고 오퍼를 하고 저를 무대에 올려서 ‘몸 푸세요.’라고 시간을 줘요.”

“동료들이 애 재우는 시간에 저희 집에 와서 회의를 해줬었어요. ‘나는 애 재워야 되니까.’ ‘그래, 너는 팀이니까. 너는 애까지 팀이잖아. 이 스케줄 인정해.’라고 해서 그냥 밤에 애 재우면 똑똑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서 새벽 네 시까지 회의하고 가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실 생각조차 못하는 일인 거구나. 누군가가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해준 적이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동료들한테 미안한 일이 아니라고, 동료들도 같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 임신/출산/육아를 하는 여성예술가로서 예술가로 활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 딸에게 해 주고 싶은 것임.

“그냥 저는 저 사는 것, 제가 활동을 멈추지 않는 것, 적어도 내 아이한테 딸이 셋이기 때문에 내 딸들한테 ‘니 꿈을 멈추지 않아도 돼, 엄마가 되어도’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던 것뿐이라서,”

“거의 전쟁하듯이 살았던 거라서 어떻게 좋은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은 힘든 상황이지만 제가 만났던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보육 도우미와 같이 개별 파견 지원이 필요함.(예술지원사업 사용내역에 도우미 파견비용 포함한 사례가 있음)

“저는 일단 애 맡길 데가 없었어요. 배우로 사는 건 직장 생활이랑 다르잖아요. 예술가로 사는 건 정해진 9 to 6가 아닌 삶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밤 11시, 12시까지 집에 막 혈레벌떡 뛰어 들어와도 12시 반인 경우가 있어요,”

“ ‘그냥 연습할 때 좀 봐주는 사람이 집에 파견되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제 돌봄 선생님 보내주시는 국가 지원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불가능해요. 임파서블이에요. 일단 셋은 아무도 안 맡아 주시고요. 1년 2년을 기다려도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대가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밤 11시까지 필요한데 그 시간까지 일해주는 시터는 따로 없었어요.”

“배우이신데 연출가로 아이를 키우고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 단체를 끌고 계시는 분도. 근데 아예 육아 도우미를 제작비 안에서 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과 그 아이를 같이 맡겨서, 왜, 기관에 맡길 수 없는 아이들이거나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안 하는 시간이 있고”

- 여성 예술가의 육아의 어려움을 자녀들과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 (아이들에게

역할을 주기, 이해시키기)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하라고 하면 정신을 차리잖아요. 어지르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 큐가 있고 이렇게 알면. 극장에서도 잘 있고 연습실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큰 애는 동화 낭독하는 나레이션을 시키고 막내를 출연을 시켜가지고 계속 극장에 같이, 연습실에 같이 있으면서 키웠어요.”

“저희는 저희 연습실 공간을 꾸미면서 아예 방을 따로 마련을 했거든요. 제 사무공간으로 평소에 쓰다가 유사시 아이들이 오면 그냥 누워서 자거나 뭔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장난감들도 방에 놔기 때문에 ‘방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다섯 명을 집어넣고서는 연습을 했거든요.”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아이들한테 엄마를 이해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모를 일을 아이들이 피부로 ‘엄마가 나와 있지 않는 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좋은 방법을 엄마가 선택한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출산, 육아의 경험이 예술인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임신이, 육아가, 출산이 저주가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너 너무 힘들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인생의 굉장히 큰 경험들을 쌓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아이들 때문에 고민했던 내용들도 지금 새로운 콘텐츠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기는 경험과 제가 가지게 된 새로운 관점들을 예술에 적용시킨다면 더 풍성한 예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예술가로서의 스펙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경력 복귀 지원책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함.

“지원책이 마련이 된다면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정보가 많이 달혀 있었어요. 애만 보고 살고 있는, 마음속으로는 일을 하고 싶지만 내 눈 앞에 있는 애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열어줄 수 있는 센터가 열렸으면 좋겠고, 멘토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 남00 / 영상작가

□ 여성 예술가로서의 어려움.

- 프로덕션 회사의 폐업으로 실질,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전향함.

“저는 1993년부터 방송 작가 일을 했어요. 20년 정도 방송 일을 하는데 갑자기 프로덕션이 문을 닫아요. 하던 프로그램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이 나 작가 권익 단체에서 그것을 여성 작가들이 재취업을 한다든가 퇴직금을 받는다는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4대 보험은 당연히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시작한 게 저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해왔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서 다큐 작가가 아닌 감독으로 전환을 해요. 제가 그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다 시사 교양,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이런 것이 불합리함을 많이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저도 그 상황에 똑같이 처하게 된 거죠.”

“제가 2007년부터 한국에서의 여성 비정규직 문제가 초기화될 때 한국철도공사 KTX 여승무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어진 게 새마을호 계약직이 여성들이 외주화가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이 제 일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때 다큐멘터리를 시작했어요. 정말 장비 하나 카메라 하나 딱 들고 스태프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작업을 해가지고 ‘첫 차’라를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로 여성 노동 영화제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됐어요.”

- 임신 이후 육아를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분노/우울증에 시달림.

“결혼한 지 6년 지나서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남편하고 이야기 할 겨를도 없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육아로 제 모든 걸 걸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경력단절의 상황에 고립됐던 거는 한 5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정 부모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친척도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제가 24시간 아이를 케어하는 걸로 우리 부부가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봤다고 그렇게 되었어요. 남편은 미술 쪽에서 작업하는 회화 쪽의 작가이고요. 그 영역에서 나름 또 분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제 일로 다가 왔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잘 넘기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면서 마음속에 산후 우울증과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니만, 왜 니만 이걸 해야 하지. 나도 작가인데.’ 하는 생각이 있었고.”

- 예술가 부부 중 여성이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하더라도 남성이 경제적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음. 경력단절 극복의 계기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보다 생계를 위한 것으로 시작됨.

“역시 한 집에 두 명의 작가가 평안히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저는 시작했는데 한쪽(남

편)은 그 질문이 없었고 ‘당연히 육아는 엄마가 해야 된다. 당연히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 남편이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경력단절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지점은 그 지점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이 육아에 전적으로 올인 하면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뭐가 또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 저는 두 가족보다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 육아/경제난/작가의 정체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함.

“어떻게 하면 육아와 경제난과 또 내가 작가로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지점에서 이제 막 타협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파트 타임을 했어야 했어요.”

-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함.

“세 살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그때부터 ‘낮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찾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가장 손쉬운 게 지역의 공동체 도움을 받는 것이었어요.”

“지역에 다행히 생협이 있어서 생협에서 아주 작은 내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협에서 엄마들의 지지를 좀 받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사수하기 시작했고”

“제가 과거에 방송 작가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홍보 영상, 제가 그래도 다큐멘터리를 만들다가 그만둔 사람이라는 걸 그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홍보 일을 좀 부탁을 했었어요.”

- 사회적 기업을 통해 다큐멘터리 작업을 이어감 (작업 대비 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

“당시 똑같이 경력단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오방놀이터’라는 사회적 기업을 시작한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같이 그림책도 만들고 어린이 장난감도 개발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는데 자원 봉사로 “영화를 제가 찍겠다, 메이킹 영상을 내가 찍겠다. 우리 엄마들의 자립기에 대해서 찍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제작비 한 푼도 없이 그거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더니 “아주 싸게 일을 해주는 엄마가 있단다.” 하는 소문을 듣고 대안학교 엄마들의 모임이었는데 지원사업으로 이걸 하게 됐는데, 나에게 기록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저도 그 그룹에 참여해서 기록을 하면서 했던 작업이 버킷리스트 대소동이라는 작업이에요.”

“그때 저희 같이 사는 분(남편)이 하신 말씀은 “미쳤냐. 잠도 안 자면서 그걸 왜 하나.” 왜냐하면 그 작업은 되게 고되었거든요. 아무런 스텝도 없이 혼자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받는 대가도 사소한데 왜 그 고생을 하나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작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아, 저분은 엄마지만 뭔가 조금 전문직이야.”라는 소리를 조금 듣게 되었어요.”

- 단기적 활동에서 직업을 갖기 위한 시도를 했으나 취직이 되지 않아, 지원을 찾기 시작함.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다음에 작가로서 이력서를 사방에 내었어요. 이력서를 2, 30군데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희 방송작가 구조가 한 40대가 되면 그때부터 방송판에서 밀려나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연출자들은 다 20대, 30대인데 함께 일하는 작가가 나이가 많아질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부담스러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 데도 작가로서 연락이 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작업을 해야겠다. 그런데 이 작업을 병행하려면 경제적으로 뭔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았고”

“‘직업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컨텐츠진흥원에서, 아이가 네 살인가 그 무렵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미디어, 그때 스마트폰이 막 붐이 일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미디어 강사 양성 과정이 생겼어요. 근데 조건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것이 어 가지고 그때 제가 거기를 지원을 했어요.”

- 경력이 단절된 여성 예술가는 현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기 어려움.(육아로 단절된 시간에 대한 보상/인정 필요)

“제가 그나마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업을 예전에 그렇게 간간히 엄마들하고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업이고 아르바이트고. 근데 그 때 했던 영화작업에 대해서 기록을 했었고, 방송작가 선배들이 어떤 특집 다큐멘터리 기회가 생길 때 저를 불러주어서 그런 특집 다큐멘터리들을 비정기적으로 했던 두세 편, 그게 제 포트폴리오에 징검다리의 하나의 축이 되어주었고, 과거에 일했던 어떤 한 프로듀서가 그런 영화 시나리오를 한번 맡겨줬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가 제 포트폴리오에 기록이 되었지 그게 없었다면 저는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인 증명이 당시로서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작가라면 방송에서 몇 편 이상의 방송을 해야 되고, 영화라면 극장에서 상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경력단절 여성 중에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이 제도가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진입할 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 있다. 그 경력단절로 인해서 작업이 이어지지 않았을 시간에 대한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육아를 병행하며 여성예술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작비의 부족, 협소한 네트

워크를 극복해야 함.

“제작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사방에서 일을 주시면 아르바이트를 거절하지 않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작비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경력단절로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 사생활이 거의 좀 없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낮에는 아르바이트 하고 그런 상황이고, 저녁 시간에는 제 직업이나 또는 주문 받은 작업을 해야 하고 그렇다보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게 조금 힘들고요.”

“‘두 번째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 다큐멘터리 하는 여성 감독들에게 모두 화두예요. 육아와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2017년에 인디 다큐 페스티벌에서 이걸 이슈화해서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 작업을 위해 남편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남편과 요일을 지정해서 몰아서 작업하는 형태를 유지함.

“제 영화에는 현재도 저는 타협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 안에서도 이거를 타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도 안에서도 타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적으로 그 상장이 제 영화에는 아간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간 신을 한 번 찍기 위해서는 같이 살고 있는 분한테 특별히 요청해서 “오늘은 제가 일해야 하니까 시간을 좀 빼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약속한 게 일주일에 하루는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겠다. 그래서 그게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로 그날 촬영을 많이 가요. 일요일 날 촬영을 많이 가고 저녁, 아이가 학교에 돌아와서 저녁밥을 먹어야 하는 6시 때까지는 엄마가 집에 온다. 그래서 저희가 신데렐라라고 하거든요. 몇 시 신데렐라, 몇 시 신데렐라 라고 하는데”

- 협업을 해야 하는 작업현장에서 스태프와의 관계 문제가 있음.

“아이들과 약속한 시간에 집에 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그래서 영화 찍다보면 관계 맺고 출연자들하고 라포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항상 변명이 ‘죄송하다.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하고 돌아와요”

“스텝과 시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정말 원맨밴드예요. 혼자 시간 잡고 혼자 정하고 혼자 가서 찍고 편집도 혼자 하고 후반에만 다른 분들하고 협업을 합니다”

- 몰아서, 혼자 작업해야 하는 환경은 몰입의 깊이나, 예술적 표현에 대한 아쉬움이 남음

“영화 비평을 한 번 받았어요. 제가 만든 작업을 가지고 비평을 딱 받게 되었는데, 그때 날아온 신랄한 비판 앞에서 ‘내가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좌절을 좀 겪었어요.”

“시간에 쫓겨서 인터뷰를 하다보니까 특별한 좋은 공간에 모시고 이분들을 하기도 어렵고 제작비용도 없는 거예요. 500만원 제작비 안에서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어떤 공간을 연출하고 이럴 여력이 안 되니까 정말 시간에 쫓겨서 하는 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몰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조금 더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딜레마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 여성 예술가 경력단절 연결을 위한 방안

-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로 활동함.(경력단절의 극복의 수단으로 자격증 활용)

“강사양성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미디어 강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비정규직 방송 작가로서 불안정한 삶이 아닌 조금 더 자격증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저는 자격증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공신력이 있는 자격증을 따고 싶다”

“미디어 교육사 자격증을 땀더니 그것이 어려모로 쓰임새가 있어서 주변에서 미디어 정책이 나 미디어 관련한 그런 걸 할 곳에 함께 하는 계기들이 조금 생겼었고요. 자격증에 제가 의존해서 경력단절을 좀 넘으려고 했었고”

-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이 네트워크로 도움이 됨.

“제가 경력단절 기간에 도움을 줬던 건 함께 했던, 과거 사회적 기업 오방놀이터에서 함께 했던 엄마들과의 네트워크였어요.”

“그분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진출하셔서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서울 마을 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런 센터의 요직들에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이후에 짬짬이 홍보영상들을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작년까지 했던 것 중에 한 해에 그나마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건 그런 단체들의 홍보 미디어, 이런 아카이브하는 작업이었어요.”

- 생계를 위한 작업 외에 예술가(작가)로서의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이것이 생계작업에서 충족되지 않아 지원사업을 통한 기회를 찾음.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제가 그런 홍보영상만 만들다가 정말 작가로서 더 이상 삶을 지속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2015년부터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에 참여한 게 그나마 작가로서는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이었다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지원사업은 각자도생, 제가 알았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로 겨우 겨우 연명했다면, 작가로서 지원 받아본, 제도적으로 크게 지원받아 본 건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이 그나마 가장 큰 지원사업이에요.”

“제가 그 사업 하면서 일정 정도 6개월 정도의 안정적인 활동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계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영상제작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그리고 네트워크로 주변의 다른 감독들 작가들 그런 분들과 함께 작업하는 계기들이 생겨서 그게 좋았고.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6개월 정도 안정적으로 예술인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예술인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긍심, 자존감의 회복, 그동안 상실했던 나에 대한 평가 절하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육아 지원과 관련돼서 망원동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아이돌봄센터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이가 1학년 때 무렵인가 2학년 때 무렵에 그게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아이가 방과 후에 도움을 받으면서 육아를 할 수가 있었요”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된 지원 필요함. 이를 통해 예술적 감각 되살리기, 기술변화 습득, 스태프 등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확보할 필요 있음.

“경력단절 여성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을 되살리는 교육과 그리고 그 분들이 다시 현업에 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10년 만에 작업을 하려고 돌아왔을 때 겪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제작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변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교육을 받고 계속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재교육에 대한 비용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네트워킹에 대한 필요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사실 저도 오랜만에 현장에 돌아왔을 때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밀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성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받고 싶을 때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나름의 어떤 프레임이 되어서 너무 해석의 여지가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에서 주제의 협소함 (성 문제 등 주제가 여성인 경우에만 지원)이 있으며, 이를 경력단절된 여성이 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할 필요 있음.

“저처럼 경력단절인데 여성 문제가 아니면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성이나 여성의

성폭력이나 성 이런 문제와 관련된 주제여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올해같이 이런 작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때 여성 경력단절이고 여성이지만 다른 문제로 인권이나 사회문제로 지원을 할 때는 좀 받기가 어려워서 이 주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지원한다는 것 안에만 너무 충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지원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 서울시 여성활동지원센터의 네트워크 지원사업(영작동행)은 함께 작업을 할 동료들을 구해주는 사업으로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그래서 최근에 저는 여성 영화인들은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서울시 여성활동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가 여성 영화인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어요.”

“공간 지원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영작동행’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여성들끼리, ‘원하시는 분 오세요.’ 이래서 두 번째 영화를 찍고 싶은 사람들, 영화인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할 동행을 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예요.”

“저도 올해 거기에 참여해서 제가 하고 있는 영화의 음악이라든가 프로듀서라든가 번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작업할 때 그걸 좀 찾고 싶고”

-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예술가(작가)가 되고 싶어요’ → 경력여성예술가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바뀔 필요 있음.

“저는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분들을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감수성이라든가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이 올 때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작은 다리들을 조금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프레임이잖아요.”

“저희는 작가이고 싶은데, 오늘 불려온 것도 경력단절이라는 여성에서 불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계속 작가이고 싶지만 제 존재의 한 부분이 경력단절 여성인 거지 저는 어디서나 우리가 그렇게 프레임이 되어서”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그 프레임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이러한 경력단절에 대한 배려를 시작으로 사회 전체가 약자에 대한 배려들로 이어지는 제안들이어야지,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 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4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제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국내외 사례

제1절 :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기구 성평등 제도

1. 유네스코
2. 영국 ACE
3. 영화진흥위원회

제2절 :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관련 제도

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절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기구 성평등 제도

1. 유네스코²²⁾

- 유네스코는 성평등을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인권과 문화다양성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음. 따라서 인권의 제한/침해를 정당화하는 데 문화를 이용하는 것에 엄격히 반대하는 입장임. 또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영역에 모든 여성과 남성이 완전하고도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소녀들을 사회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이 이루어낸 성취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단언함.
- 이러한 관점에서 평등한 문화권의 실현이란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
 - 첫째, 여성/소녀들이 남성/소년들과 동등하게 문화적 삶의 모든 국면에 접근, 참여, 기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 둘째, 무엇을 문화유산으로 결정하고, 문화유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어떤 문화적 전통, 가치, 실천이 보존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그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일에 여성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
 - 셋째, 참여의 권리는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동반하는 것이어야 함. 여성/소녀들의 인간적 존엄을 위협하는 어떤 행사, 관습, 실천도 문화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거나 참여를 강제해서는 안 되며, 여성/소녀들이 법적 처벌이나 폭력의 공포 없이 공동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모임이나 공동체를 만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함.
 - 넷째, 이러한 권리 보장에 관한 토론과 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여성들이 새로운 문화적 의미와 실천들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평등한 문화권의 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문화가 항상 권력관계와 연관되기 때문임. 문화적 권리는 누가 집단 정체성을 규정할 힘을 갖는가의 문제와 연관됨. 따라서

22) 박소현 위원의 1차 오픈테이블 발제문을 재구성함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 욕망, 관점들을 대변하는 모든 목소리들이 차별받지 않고 전달되어야만 평등한 문화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또한 한 사회나 집단의 문화 정체성이 그 사회나 집단 내에 속한 특정한 집단(여성 등)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여성과 특수한 젠더 집단들의 문화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문화의 기본적인 역동성을 훼손하는 일이자 인권에 반하는 일이 되는 것임.

- 이런 맥락에서 유네스코는 모든 개인이 동시에 복수의, 다양한, 변화하는 공동체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개인들을 오직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일 역시 경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성평등의 관점은 성평등이 기존의 성역할을 변화시키면서 더 많은 창조적 표현의 공간들을 만들어 내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권리를 찾아주고 권한을 부여하는 일인 까닭에, 단순히 '여성의 문제'로만 국한되거나 치부될 수 없음을 환기시키고 있음. 즉, 성평등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음.
- 여기에서 '성(평등) 주류화'가 요청됨. 성평등과 문화에 관계된 모든 정책은 성차별을 조장하는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근절하는 포괄적인 성평등 전략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문화영역에서의 성차별은 정치·사회·경제 영역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의 징후이자 일부임. 모든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여성참여가 제한되는 '유리천장', 특정한 활동들에 대한 진입차단('유리벽'), 지속적인 훈련, 역량개발, 네트워킹의 기회 제한, 가정이나 사적 영역에서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무보수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강제되는 상황, 취약한 고용/노동조건(파트타임, 계약직, 비정규직 등), 문화적·관습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성역할과 편견 등은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이며, 문화영역도 예외는 아님.
-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차별의 문제나 상황이 여성들의 동의나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 더 나아가 문화영역에서의 성별 데이터 생산과 관리가 취약한 점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차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성차별 문제 자체를 은폐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유네스코는 문화와 성평등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인권에 기반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8개의 권고조항을 발표했다.
 - 1. 문화영역에서 국제 협약들과 선언들의 완전한 실행을 보장할 것. 이는 다른

인권보장 수단들과 병행해서, 그리고 성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함. 그 목적은 (1)여성들과 남성들, 소년들과 소녀들의 창조적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 (2)문화적 삶에서 평등한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

- 2. 국가통계기관에 의해 문화영역의 모든 분야에 관한 성별 데이터를 정규적/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배포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강화할 것. 여기에는 문화영역의 고용, 교육, 역량개발, 참여, 소비가 포함되어야 함.
 - 3.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시키도록 문화영역에서 젠더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 이때 서로 다른 집단들과 개인들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불이익을 심화시킬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요인들과 차별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4. 여성들과 남성들이 문화영역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을, 재원들,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수준을 보다 강화할 것.
 - 5. 여성 크리에이터들과 유산 전문가들의 리더십과 멘토링 권한을 강화할 것. 그리고 문화영역의 상위 리더십 부문에서 성비 균형을 보장할 것.
 - 6. 문화적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적 편견과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인식개선 및 지지·확산 캠페인(advocacy campaigns)을 지원할 것.
 - 7. 문화영역의 성평등을 증진시키는 전략에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이것은 문화에 대한 성평등한 접근, 참여, 기여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들을 증진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집단들·공동체들과의 협력을 포함함.
 - 8.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 관련 집단이나 공동체에서의 성평등에 관한 학제간 연구를 지원할 것. 이러한 연구지원은 해당 분야에서의 젠더 관계들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권력구조들을 고려해야 함.
-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성평등 문화정책은 유네스코 회원국들(및 협약 비준국들)에게 이행의무(강제성)가 있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약(2005)을 통해서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다양성 협약의

정신 및 그 이행이라는 틀에 입각해서 유네스코가 거듭 강조하는 성평등에 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음.

- 1. 문화예술분야에서 여성은 여전히 과소대표되고 있음 : 정책결정 등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적어, 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결정 및 그 영향력이 취약함.
- 2.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성차별은 창작자 및 향유자의 문화권을 침해함 : 차별 없는 문화 창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함.
- 3. 성평등한 문화정책은 성차별과 성적 편견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함 : 문화예술 분야 성차별/성평등 현황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 생산이 시급함.
- 4. 성평등, 문화권(인권으로서의 문화권), 문화다양성의 연계 속에서 문제해결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 문화권 보장은 성평등 없이는 불가능함.
- 5. 문화다양성 협약은 성평등 원칙을 인권과 문화권의 초석으로 설정하고 있음 : 협약은 성평등을 증진시킬 정책과 수단을 요구함. 협약은 여성을 예술가이자 문화상품/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인정하고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처럼 문화다양성의 틀 내에서 성평등의 원칙을 더욱 정교화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유네스코는 ‘문화 주류화(Cultural Mainstreaming)’라 칭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흐름을 강조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문화의 창조, 생산, 유통/전파, 접근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강화를 지향함 : 창조/생산, 유통/전파, 접근/향유 등을 각각 독립적인 행위나 영역으로 취급하지 않고, 창조가 전과과정을 통해 향유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가치사슬’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방식, 의미화되는 방식과 그 연계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술이 다수의 사회적 삶에 밀접한 관계와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함.
- 2. 문화정책의 수단은 문화부의 정책수단과 체계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국가 차원의 타 분야 정책수단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함.
- 3. 정책 모니터링과 영향평가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정부영역 사이의 참여적 모델이 요구됨.

2. 영국 ACE²³⁾

-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의 제정 이후로 적극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영국예술위원회에서는 젠더이슈를 문화다양성 정책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음.
- 영국의 문화예술 조직 및 예산

<표 4-1> DCMS 산하 기관 국고보조금 비중

(단위 : 천 파운드, %)

지원 영역	2015/16년		2016/17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문화예술	977,299	22.2	1,023,739	22.7
미디어(방송)	3,208,596	73.0	3,263,512	72.3
스포츠	137,986	3.1	165,281	3.7
기타(게임, 관광 등)	69,626	1.6	59,511	1.3
합계	4,393,507	100.0	4,512,043	100.0

<표 4-2> DCMS 산하 유관기관 국고지원금 세부내역(일부)

(단위 : 천 파운드, %)

DCMS 산하 기관	2015/16년		2016/17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Arts Council England	468,991	10.7	460,526	10.2
BBC PSB Group	3,115,800	70.9	3,156,700	70.0
British Film Institute	22,225	0.5	23,965	0.5
British Library(indudes public Lending Right)	93,043	2.1	93,911	2.1
British Museum	41,768	1.0	53,569	1.2
Curches Conservation Trust	3,208	0.1	2,749	0.1
Historic England	90,191	2.1	87,806	2.0
Sub-total Grant in Aid	4,393,507	100.0	4,512,043	100.0

- 영국 예술위원회²⁴⁾

- 주요사업은 4분야이며 NPOs, MPM, 전략기금, 예술보조금으로 구성됨.

23) 오세형 위원의 1차 오픈테이블 발제문을 재구성함

24) 출처 : 예술향유정책 현황 및 개발방안 연구, 2018

- NPOs 지원은 663개의 예술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영국의 대표적인 연극, 시각예술, 음악, 통합예술을 하는 단체와 기관을 지원 하는 사업임.
 - Royal Opera House, London Symphony, Southbank Center 등을 지원함.
- MPM 지원은 21개 박물관 미술관을 지원함.
 - 연간 방문자수 15만 명 이상인 박물관, 미술관을 대상으로 총 21개 기관에 지원
 - National Gallery, Tate Modern, British Museum 등
- 전략기금은 예술위원회의 5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Creative Case for Diversity 등 문화다양성 사업이 여기에 포함됨.
- 예술보조금은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며 국내의 예술지원사업과 유사함.

<표 4-3> ACE 주요 산업(2015-2018 계획)

(단위 : 천 파운드, %)

구분	금액	비율
내셔널포트폴리오(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 지원	978,300	62.0
박물관·미술관 지원(Major Partner Museums)	67,800	4.0
전략기금(Strategic Funds)	312,000	20.0
예술보조금 지원(Grant for the Arts)	210,000	14.0
총 지출규모	1,568,100	100.0

□ 미션 :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 5대 목표

- 예술적 수월성
- 모두를 위한 예술
- 변화대응성 및 지속가능성
- 다양성과 기술
- 차세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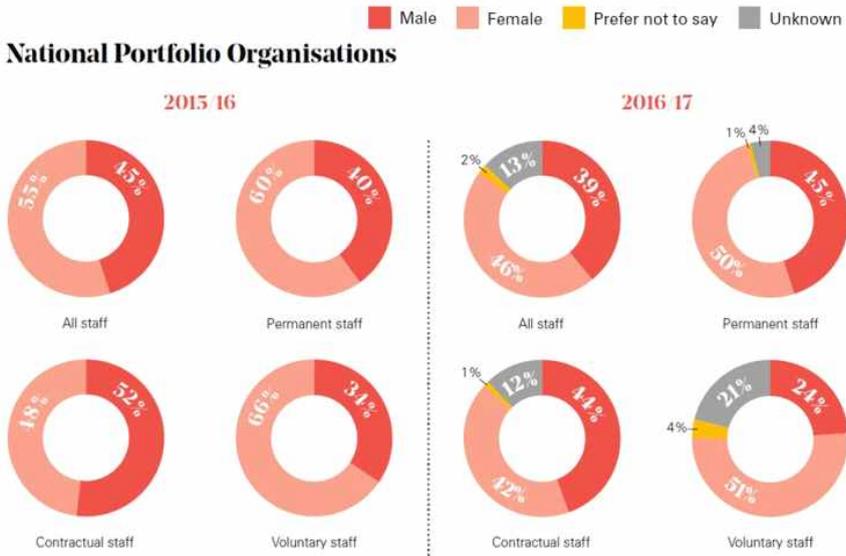
□ Equality and diversity - 5대 목표

- <Creative Case for diversity> 활성화
- 더욱 '다양한' 관객의 참여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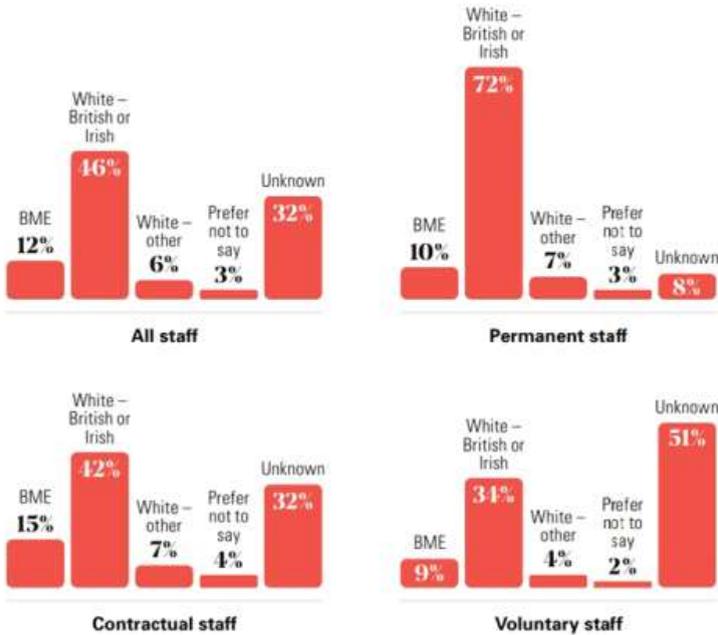
- 다양성 있는 리더를 지원하고 투명, 공정한 기회제공을 통한 다양성 인력 확대
 - 평등과 다양성에 관한 평가에 반영되는 수치의 질 개선
 - 평등과 다양성 의제에 대응하도록 예술위원회 역량을 지속적 개발²⁵⁾
- <Creative Case for Diversity>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평등과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함.
- 50인 이상 기관, 단체의 사업 및 운영, 인력구성의 다양성, 평등성을 평가하여 기금지원에 환류함.
 - 젠더이슈는 주로 고위직의 비율확대에 초점을 둠.
 - <Creative Case for Diversity> 평가
 - 평가 : ‘탁월함’, ‘우수’, ‘적합’, ‘부적합’ 의 4단계 지표로 지원기관을 평가하며 지원받는 NPO의 개별평가표는 공개됨.
 - ‘우수(Good)’평가를 받은 NPOs가 2015/16의 33%에서 2016/17에는 45%로, 2017/18에는 51%로 비율이 증가함.
 - 부적합 평가기관은 2015/16년의 4%에서 2017/18에는 1% 이하로 감소함.

25) 출처 : Art Council England 홈페이지

[그림 4-1] Female Workers at NP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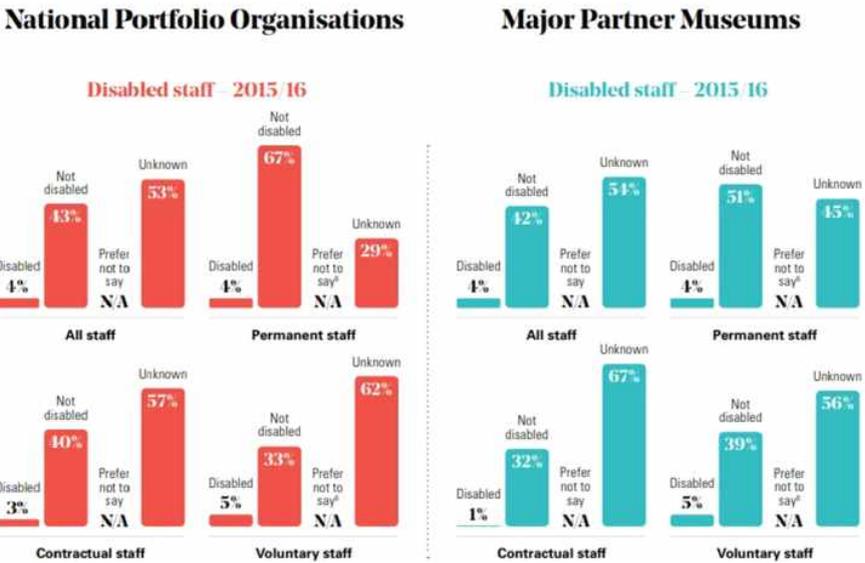
[그림 4-2] Ethnicity of Staff at NPOs(2017~2018)



[그림 4-3] Sexual Orientation of NPOs/MPM Workforce



[그림 4-4] Disabled Workers in NPOs/MPM



□ 성평등과 리더쉽

- NPO에서 전체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2015/16의 55%에 비해 2017/18에는 50%로 감소하는 등 고용평등은 이루어짐.
- 젠더측면에서는 고위직 여성의 낮은 비율을 올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평가함.
- 여성 이사진(Board Membership) 구성에서 NPO는 전년의 47% 유지, MPM에서 38%에서 39%로 소폭 증가함.
- 지난 3년간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는 40%에서 51%로 증가, 예술감독은 28%에서 46%로, 위원장(Chair)급은 32%에서 37%로 증가함.

<표 4-4> Diversity of Chief Executive/Artistic Director/Chair

(단위 : %)

Ethnicity	Chief Executive			Artistic Director			Chair		
	2015 /16	2016 /17	2017 /18	2015 /16	2016 /17	2017 /18	2015 /16	2016 /17	2017 /18
White	75.0	82.0	85.0	58.0	72.0	78.0	80.0	84.0	85.0
BME	8.0	8.0	9.0	10.0	10.0	12.0	9.0	10.0	10.0
Prefer not to say	17.0	3.0	3.0	32.0	4.0	3.0	11.0	2.0	2.0
Unknown	-	6.0	3.0	-	14.0	7.0	-	4.0	3.0
Disability									
Yes	5.0	6.0	7.0	5.0	6.0	8.0	5.0	6.0	6.0
No	70.0	76.0	82.0	57.0	69.0	77.0	70.0	74.0	78.0
Prefer not to say	25.0	6.0	5.0	38.0	6.0	4.0	25.0	5.0	4.0
Unknown	-	12.0	6.0	-	18.0	11.0	-	15.0	12.0
Gender									
Female	40.0	46.0	51.0	28.0	35.0	46.0	32.0	35.0	37.0
Male	43.0	44.0	45.0	40.0	47.0	46.0	57.0	58.0	59.0
Prefer not to say	16.0	2.0	1.0	31.0	4.0	2.0	11.0	1.0	2.0
Unknown	-	8.0	2.0	-	14.0	6.0	-	5.0	2.0

□ 영국의 예술과 문화 부문에서의 평등과 다양성

- 장르별로 조사를 실시한 <Equality and diversity within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in England> 보고서에는 NPOs/MPMs의 정규/계약직의 여성비율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고위직 비율을 강조하며 직급에 따른 성평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 정규직의 여성비율은 51.0%로 파트타임 업무가 66.2%인 것과 대비됨.

<표 4-5> Gender Profile of Other Staff Across Arts Council England's 2012-15 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s/Major partner museums

(단위 : %)

	Permanent staff				Contract staff		Total	
	(Full time men)	(Full time women)	(Part time men)	(Part time women)	Men	Women	Men	Women
Combined arts	51.4	48.6	36.3	63.7	50.5	49.5	47.6	52.4
Dance	44.6	55.4	26.2	73.8	53.1	46.9	45.9	54.1
Literature	34.7	65.3	19.4	80.6	31.0	69.0	29.3	70.7
Major partner museum	52.6	47.4	31.5	68.5	34.7	65.3	42.3	57.7
Music	49.1	50.9	37.3	62.7	50.6	49.4	48.0	52.0
Not artform specific	34.3	65.7	31.4	68.6	25.4	74.6	29.1	70.9
Theatre	48.9	51.1	32.7	67.3	46.3	53.7	43.8	56.2
Visual arts	41.6	58.4	34.9	65.1	47.0	53.0	41.2	58.8
Grand total	49.0	51.0	33.8	66.2	48.1	51.9	44.8	55.2

- 문학분야의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은 70.7%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고위직 직급에서의 여성 비율은 46.7%의 비율을 보임.
- MPMs의 여성비율이 31.7%로 가장 낮고, 여성의 평균 비율은 43.5%임.

<표 4-6> Gender Profile of Board Members of Arts Council England's 2012-15 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s/Major partner museums

(단위 : %)

	Men	Women
Combined arts	56.0	44.0
Dance	45.5	54.5
Literature	53.3	46.7
Major partner museum	68.3	31.7

	Men	Women
Music	65.3	34.7
Not artform specific	55.1	44.9
Theatre	52.7	47.3
Visual arts	57.7	42.3
Grand total	56.5	43.5

<표 4-7> Diversity of Boards

(단위 : %)

Ethnicity	National Portfolio			Major Partner Museums		
	2015/16	2016/17	2017/18	2015/16	2016/17	2017/18
White	70.0	68.0	67.0	29.0	38.0	32.0
White - other	4.0	5.0	5.0	0.0	2.0	2.0
BME	12.0	14.0	15.0	1.0	2.0	3.0
Prefer not to say	-	3.0	3.0	-	46.0	30.0
Unknown	14.0	10.0	10.0	70.0	12.0	32.0
Age						
0-19	-	-	-	-	-	-
20-34	7.0	5.0	6.0	1.0	1.0	2.0
35-49	29.0	28.0	35.0	7.0	4.0	5.0
50-64	38.0	28.0	35.0	19.0	7.0	16.0
65+	14.0	11.0	14.0	11.0	5.0	11.0
Prefer not to say	-	2.0	4.0	-	31.0	30.0
Unknown	12.0	32.0	12.0	62.0	53.0	36.0
Gender						
Female	45.0	47.0	47.0	40.0	38.0	39.0
Male	55.0	51.0	50.0	60.0	58.0	58.0
Prefer not to say	-	1.0	1.0	-	-	-
Unknown	-	1.0	2.0	-	3.0	4.0
Disability						
Disabled	7.0	7.0	7.0	4.0	4.0	2.0
Not disabled	57.0	59.0	63.0	27.0	45.0	11.0
Prefer not to say	-	7.0	6.0	-	46.0	33.0
Unknown	36.0	27.0	25.0	69.0	35.0	54.0

	National Portfolio			Major Partner Museums		
Sexual orientatin						
LGBT	-	5.0	6.0	-	1.0	1.0
Heterosexual	-	45.0	48.0	-	10.0	14.0
Prefer not to say	-	17.0	12.0	-	56.0	33.0
Unknown	-	33.0	34.0	-	34.0	52.0

□ 영국 공연장 실태분석(2016)²⁶⁾

- 남녀고용비중은 동등하거나 여성이 약간 높아진 반면, 고위관리직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됨.
- 영국예술위가 2016년부터 다양한 출신의 고위급 직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을 알림.
- 여성채용에서도 동등한 기회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에서는 급여의 차이도 발견됨.

□ 영국문화산업 분야 고용실태(2015)²⁷⁾

-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여성의 활동율이 낮은 편에 속함.
- 가장 낮은 분야는 IT(19.7%)이며, 건축(26.6%), 영화, TV, 방송, 사진분야(35.1%)순으로 높아짐.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높은 여성비율을 사회 전체적인 고용구조의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성 시사함.

<표 4-8> Focus on Employment of Creative Industries

(단위 : %p, %)

Creative Industries Group	Female			Male	
	% Change 2011-14	% Change 2013-14	% Female 2014	% Change 2011-14	% Change 2013-14
Adverstising and marketing	3.1	1.5	41.9	19.8	12.4

26) <Arts Council England Analysis of Theatre in England>, 2016

27) <Creative Diversity>, Creative Industries Federation, 2015

Creative Industries Group	Female			Male	
	% Change 2011-14	% Change 2013-14	% Female 2014	% Change 2011-14	% Change 2013-14
Architecture	-2.4	1.7	26.6	11.7	9.9
Crafts	34.9	15.6	-	-49.6	-15.1
Design: product, graphic and fashion design	31.8	-1.5	43.5	35.0	20.8
Film, TV, video, radio and photography	-4.3	-9.8	35.1	16.4	2.9
IT, software and computer services	25.1	6.6	19.7	25.7	5.5
Museums, galleries and libraries	-17.3	-11.4	61.3	15.0	21.1
Music, performing and visual arts	37.0	16.2	51.2	29.7	17.2
Publishing	0.7	8.8	54.5	-17.2	-13.0
Creative Industries	11.2	3.5	36.7	18.6	6.8

* 출처 : Creative Industries : Focus on Employment, DCMS, 2015

- NPOs나 MPM의 직원구성에 대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성별, 인종, 나이, 성적 취향, 장애 등 5개 수치가 비교되고 평가됨.
- 지원받는 문화기관과 단체는 '적합' 이상의 평가를 받기 위해 수년간 프로그램 개발과 인적 구성원의 다양성에서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출판함.

□ 예술지원

- 신청비율 : 2015/16부터 3년 사이에 여성지원자는 39%에서 43%로 증가한 반면 남성지원자는 41%에서 33%로 감소함.
- 선정율 : 남성이 3년간 53%에서 48%로 하락한 반면 여성지원자는 49%에서 48%로 소폭 하락함.
- 장애인의 지원신청이 3년간 3%에서 6%로 상승하였고 BME지원자는 9%에서 11%로 상승함.

<표 4-9> Grants for the Arts

Grants for the Arts awards									
	Number			Value			% of total grants		
	2015/16	2016/17	2017/18	2015/16	2016/17	2017/18	2015/16	2016/17	2017/18
BME	453	517	543	6,965,537	8,394,187	8,326,242	9%	11%	11%
White-other	219	275	246	2,817,790	3,937,480	3,613,403	4%	5%	5%
Disability	147	290	301	2,275,855	4,148,484	4,357,413	3%	5%	6%
Female	1733	1945	1880	29,280,485	33,406,796	33,272,112	39%	43%	43%
Male	1494	1588	1374	30,784,308	29,448,340	25,659,873	41%	38%	33%
	Offered			Inteligible			Refected		
	2015/16	2016/17	2017/18	2015/16	2016/17	2017/18	2015/16	2016/17	2017/18
All applicants	37%	44%	37%	12%	12%	15%	51%	44%	48%
BME	34%	42%	37%	17%	17%	21%	49%	41%	43%
White-other	29%	37%	31%	21%	12%	17%	50%	51%	52%
Disabled	34%	43%	34%	17%	15%	18%	49%	42%	48%
Female	38%	44%	39%	14%	11%	13%	49%	45%	48%
Male	35%	43%	35%	12%	14%	18%	53%	43%	48%

□ 영국 예술위원회 2018년 성별 임금격차

- 2017년 영국정부는 250인 이상 조직의 시간당 임금차이를 공시하는 법률을 제정함.
- 2018년 예술위 급여대상자 521명중 남녀간 평균 임금격차는 6.7%(17년과 동일), 중간층 급여 차이는 -0.6%(17년 2.6%)로 조사됨.
- 분석에서는 급여차 6.7%가 실제 남녀급여의 차이보다 낮게 드러나는데, 이는 75.2%인 3분위의 여성수가 지나치게 과대 대표되어 높은 급여를 받는 4분위 고위급 남성의 비율을 상쇄한 결과로 보여짐.

<표 4-10> Gender Pay Gap

2018 stats	
Mean gender pay gap – Ordinary pay	6.7%
Median gender pay gap – Ordinary pay	0.6%
Mean gender pay gap – Bonus pay in the 12 months ending 31 March	7.4%
Median gender pay gap – Bonus pay in the 12 months ending 31 March	0.0%
The proportion of male and female employees paid a bonus in the 12 months ending 31 March	Male 76.7%
	Female 77.8%

[그림 4-5] Portion of Male/Female Employees in Each Quartile



□ NPO를 위한 평등활동 목표와 계획수립 가이드

- 평등-활동계획 개요
- 평등-활동계획 작성법
- Creative Case for Diversity 실천계획
- 다양성 관객 유치
- 평등/다양성을 이끌 이사진 구축
- 다양성 인력의 채용과 역량강화

□ <Creative Case for Diversity>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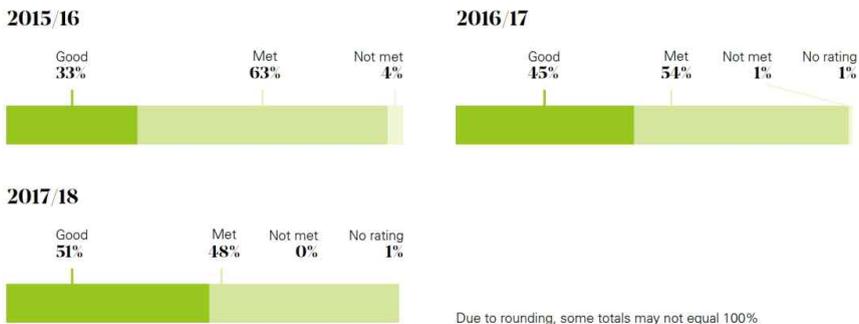
- 탁월 : <다양성을 위한 창의적 사례>에 탁월한 공헌을 하고, 다양성 평가를 위한 창의적인 사례 평가 체제의 ‘우수’ 기준에 맞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 리더 단체임.
- 강함(우수) : 벤치 마킹 등급. 모든 주제에 걸친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와 강력한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성 창의적 사례에 대한 증거를 보여줌.
- 적합 : 이 단체들은 최소한 하나의 범주에서 우수한 성과를 드러냄. 여러 주제에 걸쳐 <다양성을 위한 창의적 사례>에 대한 기여를 높힐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
- 부적합 : <다양성을 위한 창의적 사례>에 대한 실적이 부족하며 기여도를 높히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최우선으로 요구됨.

□ NPO대상 연간 사업성과 조사표(인력부분)

- 평가서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조직구성/인력, 재정상태, 재정확보 활동, 관객현황, 교육 및 참여, 국외 활동, 해외유통, Sector Support, 네트워크 기관

□ 다양성 정책 평가 비중의 연도별 추이

[그림 4-6] Creative Case for Diversity Ratings



□ 제언

- 영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하는 수단인 법령-제도-추진 체계-평가 등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량이 인상적인 부분임.
- 2010년 평등법 제정 이후로 영국의 다양성 정책은 사회구성원의 다원화에 맞춰 예술계 종사인력의 적극적 변화부터 프로그램의 변화에 걸쳐 구조적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차별금지라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창조적 변화라는 긍정적 비전을 드러내고 있음.
- 사회적 맥락에서 심화되어온 차별과 배제의 부정적 문화를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예술 자원으로 전환시키려는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 의지는 국내 젠더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에 참고할만한 사례임.
- 영국의 문화정책이 빈번하게 참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문화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핵심적인 역동성과 성과가 모니터링된 사례는 많지 않은 점은 사실상 양성평등 관점에서 다뤄지는 국내 성평등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많음.
- 예술계 내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실질적인 역할제고와 참여비중 확대를 지향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이 영국예술 지형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술창작물과 미학의 다양화와 다원화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최근 해외의 여성문화운동가나 소수자활동가에게서 제기되는 상호교차성(Intersctionality, 두 가지 이상의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주체)의 의제는 현재의 문화정책 범주에 포함되기 힘들며 두개의 문체부 부서에서 서로 미를 사안임.
- 국내에서도 성평등정책에서 논의되는 성 주류화를 넘어 예술주류화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성평등문제와 문화다양성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분할되어 다뤄지는 문화정책의 관점의 숙고가 필요함.

3. 영화진흥위원회²⁸⁾

1)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활동 현황

① 임무 및 운영

□ 임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 각 호와 관련된 영화산업 내 성평등 기반 조성
- 영화업계 내 성평등 환경 조성 및 성평등 재현 한국영화 지원정책 개발
- 성평등 및 다양한 소수자 집단 영화정책 자문 등

□ 운영

- 2018년 회의 3회 개최
- 2019년 회의 7회 개최(9월 현재)

② 구성

□ 1기 소위원회(2018.08.28.~2019.08.27.)

<표 4-11> 1기 소위원회 위원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주유신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 영산대 교수 -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수석프로그램머
김선아	- 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 영화학 박사(영화이론 전공)
김선아	- 단국대 교수 - 영화 <봄날은 간다>, <역도산> 제작
김진	-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 영화사 단단 대표 / 프로듀서

28)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제 2회 한국영화 성평등정책 포럼 자료집을 인용함

성명	주요경력
박현진	-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 영화 <6년째 연애중>, <좋아해줘> 연출
서은정	- 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 - 전 영화주간지 MovieWeek 편집부 취재기자
조혜영	- 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 영화학 박사(영화이론 전공)

□ 2기 소위원회(2019.08.28.~2020.08.27.)

<표 4-12> 2기 소위원회 위원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주유신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 영산대 교수 -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
김보라	- 영화 <벌새> 연출
김선아	- 단국대 교수 - 영화 <봄날은 간다>, <역도산> 제작
김진	-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 영화사 단단 대표 / 프로듀서
박현진	-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 영화 <6년째 연애중>, <좋아해줘> 연출
이선영	- 영화 <위킹걸>, <만신> 촬영
조혜영	- 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 영화학 박사(영화이론 전공)

③ 주요활동 내용

□ 심사위원 성비 5:5로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개정

<표 4-13>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p>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제 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③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5명 이상 외부전문가 비율 50% 이상, 여성 비율 3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심사위원 구성이 과도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성 위원 비율에 한해서는 “별표 1”에 따르되 전문분야별 특성 상 여성 심사위원 구성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p>	<p>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제 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③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5명 이상 외부전문가 비율 50% 이상, 여성 비율 5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심사위원 구성이 과도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성 위원 비율에 한해서는 “별표 1”에 따르되 전문분야별 특성 상 여성 심사위원 구성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p>
<p><신 설></p>	<p>부칙 제 2조(경과규정) ① 제 5조 제 3항 중 여성 비율과 관련한 부분은 2019. 7. 1.부터 시행한다. ② 2019. 6. 30.까지 위원회는 제 6조에 따른 심사위원 후보자군 내의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한 집중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p>

□ 지원사업 참여자의 성비 통계자료 제출 의무화

- 적용대상 지원사업

- 2019년도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중 보조금을 지급하고 완료 후 정산을 받는 일체의 사업
-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참여자들의 성비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그 용이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자료 제출 대상 참여자의 범위

- 제작지원사업 : 감독, 프로듀서, 작가, 촬영, 조명, 배우(주/조연) 등등 영화 제작 참여자 일체
- 제작지원사업 외 : 지급된 보조금의 주된 목적에 종사하는 참여자 일체

- 지원사업 요강 반영사항
 - 지원사업 결과 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 참여자들의 성비 통계자료 제출 의무화
 - 지원사업 요강 문구(안)

“ 본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사업 결과 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 양식으로 요청하는 참여자 성비 통계 자료를 반드시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한국영화아카데미 KAFA 교육프로그램 신설 (예정)

□ 한국영화 발전계획(2019~2021)

-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지원사업 심사제도 도입
 [그림 4-7] 지원사업 심사제도 개선 내용



- 심사위원 성비균형: 지원사업 심사제도 운영 시 심사위원 남녀 동률 구성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 평등 확대('19년 신규)
 - 성 평등한 관점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소재의 우수 작품 발굴 확대
 - * 여성 심사위원 구성 원칙: (기존) 30% 이상 → (개선) 50% 구성 원칙
 - ** ('19년) 기획개발·제작지원사업 → ('20년~) 위원회 직접 지원사업 대상 전면 확대
- 영화인 성비 균형 : 지원사업 심사 시 '젠더 다양성' 관점의 평가 강화로 영화계 안팎의 성 평등 가치 확산(20년 신규)
 - 창작자·스태프(감독, 작가, 촬영, 프로듀서) 및 주연배우 등 참여 인력의 성비 균형성이 높은 작품의 심사 인센티브 도입

2) 한국영화 성평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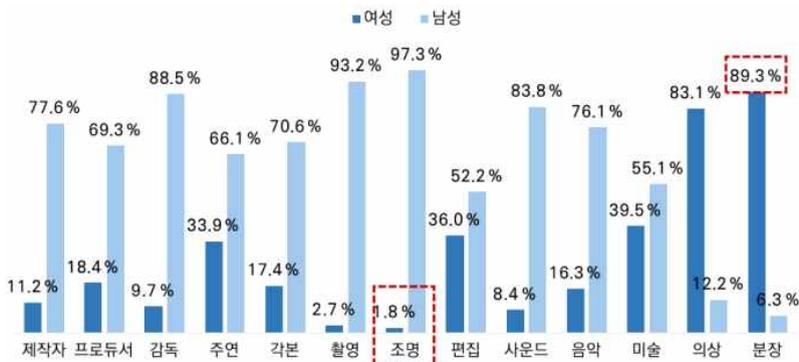
① 성비 분석 대상

- 개봉영화 스태프 성비(2009-2018, 1,433편)
- 국내 3대 국제영화제(부산, 전주, 부천) 공식초청 한국영화 감독 성비
- 전국 영화관련 학교 입학생 및 교수 성비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프로그램 감독 및 신청자 성비

② 영화계 종사자 성 비율

- 개봉영화 스태프 성비 (2009-2018, 1,43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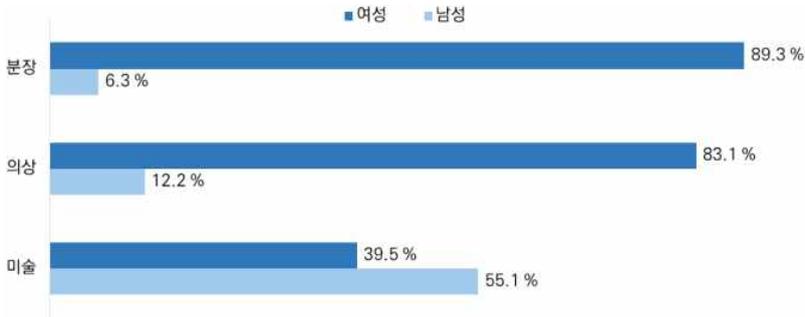
[그림 4-8] 개봉영화 스태프 성비



[그림 4-9] 여성 비율이 낮은 직종(2009-2018)



[그림 4-10]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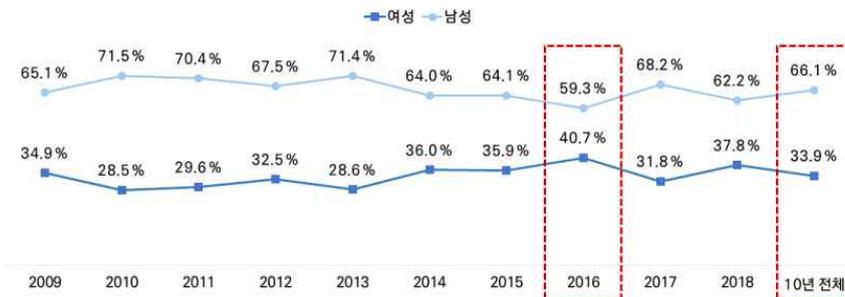
□ 감독 성비(2009-2018, 1,433편)

[그림 4-11] 감독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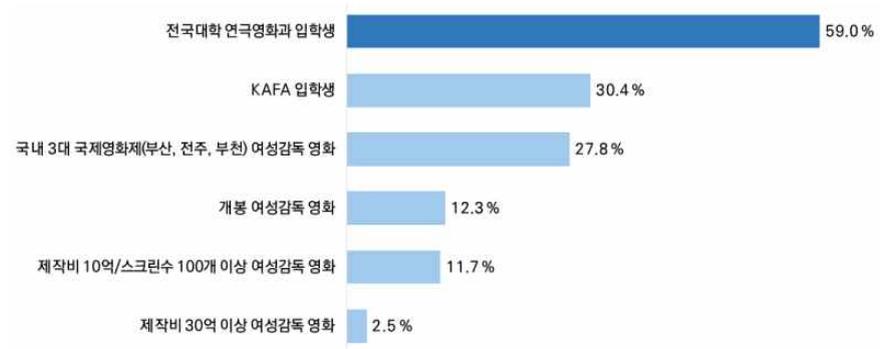


□ 주연 성비(2009-2018, 1,433편)

[그림 4-12] 주연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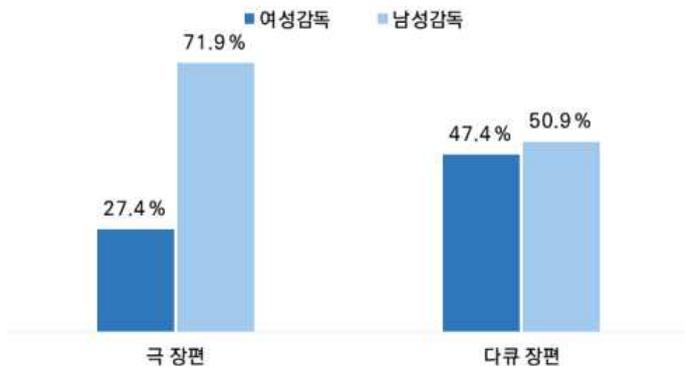
[그림 4-13] 경력 단계별 여성 비율(2018)



[그림 4-14] 영화 교육기관 교수 성비(2018)



[그림 4-15]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성비(2009-2018)



③ 한국영화 성인지 분석

□ 분석 대상

- 흥행 50위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옴니버스 제외) + 개봉영화 중 여성 감독 영화 총 500여 편
- 여성 주연, 남성 주연, 주연 중 여성이 없는 경우 여성 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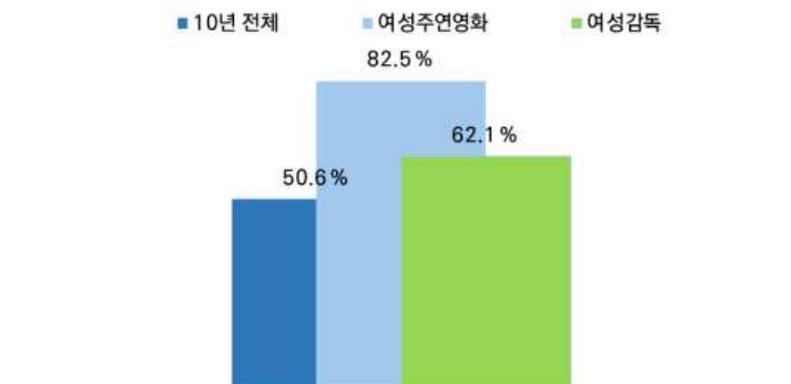
□ 분석 항목

- **기본** : 장르, 흥행순위, 감독 성별, 주연 성별, 직업, 연령, 결혼 여부, 죽음 혹은 실종 여부, 서사동기
- **여성 인물 서사 분석** : 여성인물의 남성 서사 종속여부, 여성연대 서사 존재 여부
- **테스트** : 백텔 테스트, 여성인물 스테레오타입 테스트, 다양성 테스트

□ 백텔 테스트

- 이름 있는 여성이 2명 이상 등장하는가?
- 두 여성이 서로 대화하는가?
- 남성에 대한 이야기 외의 대화를 나누는가?

[그림 4-16] 백텔 테스트 통과 비율 - 흥행 50위 영화 (2009-2018, 468편)



□ 서사동기

<표 4-14> 상위 5개 서사동기
- 흥행 50위 영화 (2009-2018, 468편)

여성	남성
로맨스 (21.7%)	로맨스 (18.6%)
가족 (14.8%)	성공 (14.9%)
생계/생존 (11.45%)	가족 (11.9%)
성공 (10.9%)	수사 (10.0%)
모성/부성 (8.6%)	생계/생존 (8.4%)

□ 다양성 테스트

- 분석 대상
 - 성적 소수자(LGBTQ)
 - 장애인
 - 다양한 인종, 종족, 국가
- 조사항목
 - 해당 정체성의 인물 존재 여부
 - 주인공 여부
 - 스테레오타입화 여부
- 테스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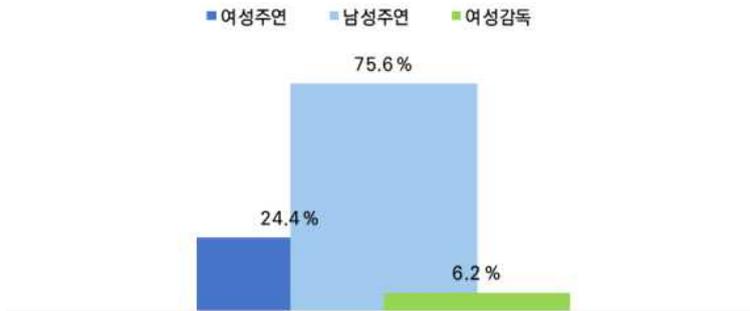
<표 4-15> 다양성 테스트 - 흥행 50위 영화 (2009-2018, 468편)

연도	성적소수자(LGBTQ)			장애인			다양한 인종, 종족, 국가		
	존재	주인공	스테레오타입화	존재	주인공	스테레오타입화	존재	주인공	스테레오타입화
2009	2	0	0	6	2	2	17	3	7
2010	4	2	2	8	3	1	16	4	7
2011	2	1	0	7	4	0	15	6	4
2012	4	0	0	6	1	0	13	4	3
2013	2	1	2	12	6	3	22	9	12
2014	2	2	0	19	12	8	16	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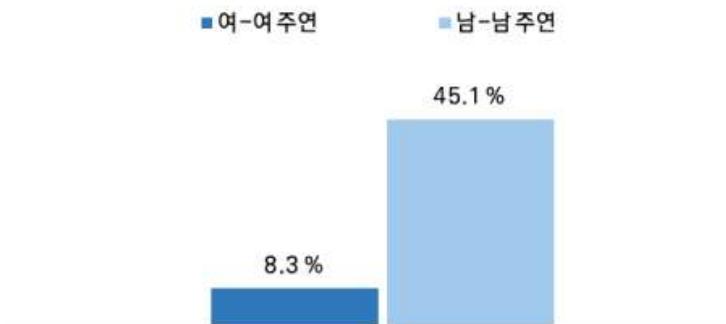
연도	성적소수자(LGQBQTQ)			장애인			다양한 인종, 종족, 국가		
	존재	주인공	스테레오 타입화	존재	주인공	스테레오 타입화	존재	주인공	스테레오 타입화
2015	2	2	0	9	5	1	17	3	13
2016	3	1	0	11	5	2	20	5	12
2017	0	0	0	3	2	1	16	5	7
2018	1	0	1	3	0	1	10	1	2
총합	22	9	5	84	40	19	162	43	80
백분율 (%)	4.7	1.9	22.7 (5/22)	17.9	8.5	22.6 (19/84)	34.6	9.2	49.4 (80/162)

□ 주연 및 감독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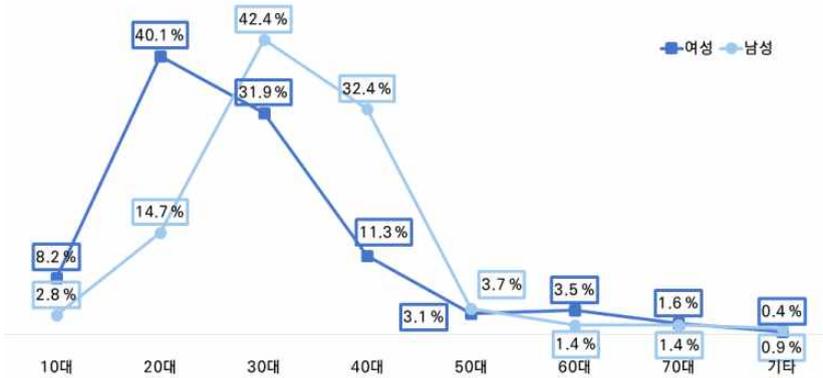
[그림 4-17] 주연 및 감독 성비-흥행 50위 영화 (2009-2018, 468편)



[그림 4-18] 여-여주연 남-남주연 영화 비율-흥행 50위 영화 (2009-2018, 468편)



[그림 4-19] 주연 성별에 따른 연령 비율 - 흥행 50위 영화 (2009-2018, 468편)



④ 영화현장 여성 스태프 좌담회 “영화현장 여성 스태프의 목소리를 듣다” 결과

□ 패넬

- 여성 스태프

- 김선령 촬영감독 <노무현입니다>, <남자사용설명서> 등
- 진민경 분장실장 <나의 특별한 형제>, <아이 캔스피크> 등
- 유은미 스틸기사 <항거 : 유관순이야기>, <싸이코메트리> 등

- 산업관계자

-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 박현진 한국영화성평등소위 위원
- 도동준 영화진흥위원회 팀장

□ 좌담회 결과

- 영화 현장 스태프는 남자여야 한다는 고정관념

- “(촬영은) 거칠다. 힘이 좋아야 한다.”
- “올초에 ‘여자잖아’라는 소리를 들으니깐 더 상처를 받더라고요. 여자 조감독도 괜찮아요?’ ‘여자 연출부도 괜찮아요? 라고”

-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 Q. 주변에서 출산이나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나요?
 - “맞죠. 일을 다시 하고 싶어도 경력단절이면 힘든 것 같아요. 추천을 해도 몇 년간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 어린 친구를 더 좋아하긴 하죠.”
- 여성에게 열악한 근로 환경 (화장실 문제 등)
 - “어느 현장 로케이션 가게 되면 저는 화장실부터 확인해요. 화장실이 멀거나 뛰어가서 가야 한다면 결국 현장에서 참게 되죠.”
 - “촬영장 중에서도 화장실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생리 지연을 위해 약을 먹거나 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 위계/서열에 따른 임금 책정으로 인한 불이익
 - “촬영장에 갔을 때 감독, 촬영, 조명 중심으로 움직이고 본의 아니게 서열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 그런 면에서 임금 책정을 했을 때 자리를 못 잡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 “키스텝들은 우위에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일을 하잖아요.”
- 성희롱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
 - Q. 성희롱이 있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제작진이 있었는지?
 - “아니요. 그렇게는 못 하죠. 특히 배우들이 그럴 때는 힘들죠.”

제2절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관련 제도

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²⁹⁾

1) 기관 소개

□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그림 4-20]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연혁



- 설립목적

-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활성화 및 제도·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양성·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 설립근거

- 민법 제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 주요기능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중·장기 정책목표 설정, 운영, 관리 평가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제도 운영 지원 및 정책 연구조사
-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 과학기술 관련 직종 취업 정보 및 지원 등 제공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성과공유 및 홍보

29)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차은지 팀장의 3차 오픈테이블 발제문을 재구성함

□ 비전 및 전략

[그림 4-2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비전 및 전략



□ 사업분야

[그림 4-22]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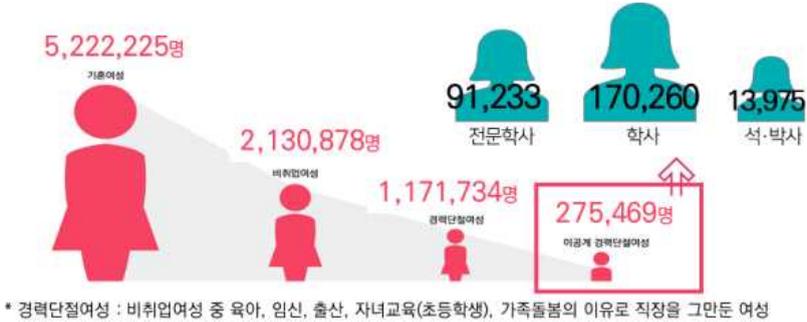


2)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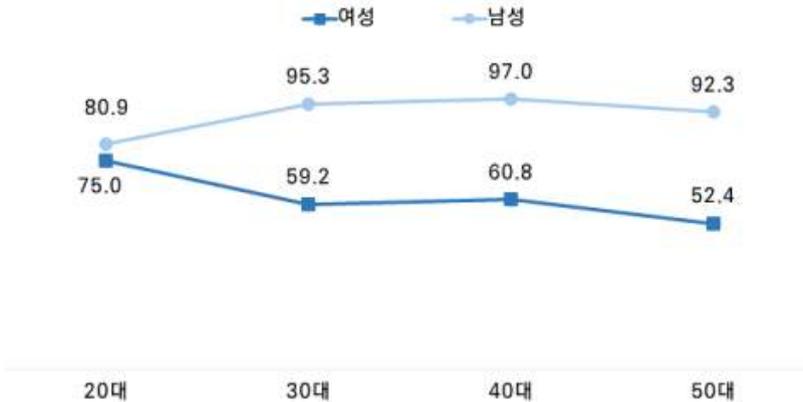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규모³⁰⁾
 - 자연·공학 계열의 비취업 기혼 여성 중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 27만 5천여명

[그림 4-23]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규모



- 남·여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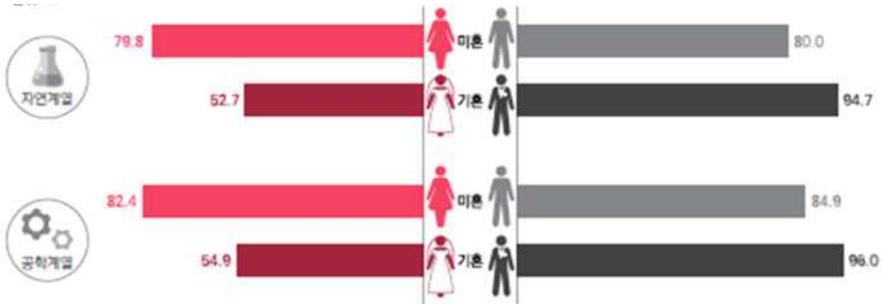
[그림 4-24] 자연·공학 계열 전공자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30), 출처 : WISET, 2018

[그림 4-25] 자연·공학 계열 미혼·기혼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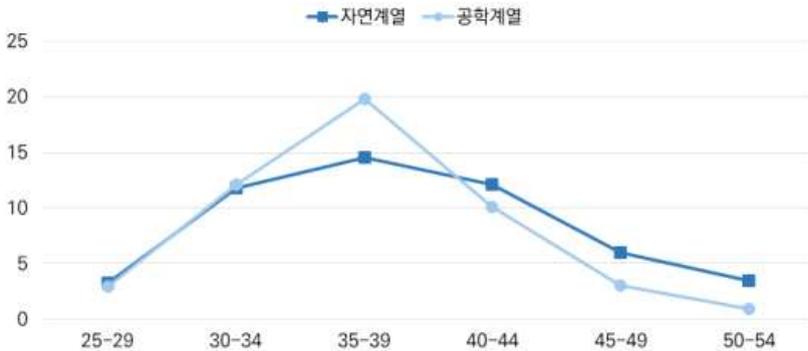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연령별 분포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이 30대와 40대 초반에 집중
- 공학계열 35~39세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가장 많이 분포

[그림 4-26] 여성과학기술인 연령별 분포

(단위 : %)



— 여성과학기술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력단절 사유³¹⁾

- 1위 : 육아(37.6%)
- 2위 : 결혼(31.9%)
- 3위 : 임신·출산(24.8%)

31) 통계청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재분석

<표 4-16> 전공계열별 경력단절여성의 단절사유별 현황(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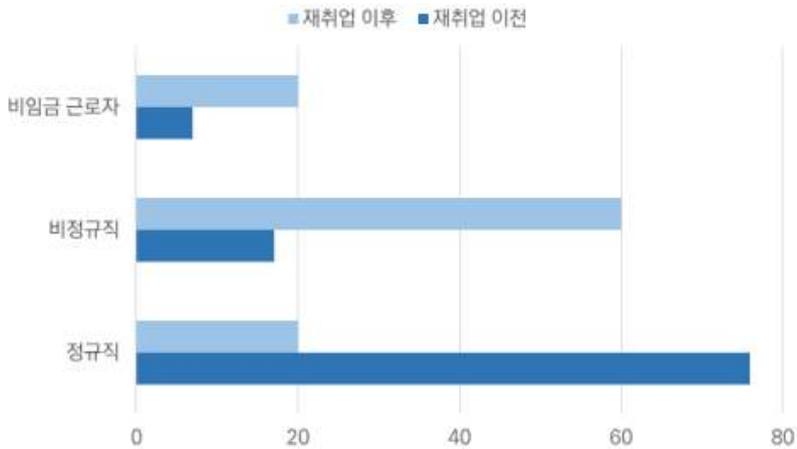
(단위 : 명, %)

전공계열 \ 인력	육아	결혼	임신·출산	자녀교육 (초등학생)	가족돌봄	전체
자연·공학계열	103,631 37.6	87,864 31.9	68,367 24.8	10,824 3.9	4,783 1.7	275,469 100.0
자연계열	51,701 35.1	50,963 34.6	35,737 24.3	6,025 4.1	2,851 1.9	147,267 100.0
공학계열	51,930 40.5	36,911 28.8	32,630 25.5	4,799 3.7	1,932 1.5	128,202 100.0
의약계열	31,566 40.5	18,810 24.1	22,757 29.2	2,615 3.4	2,275 2.9	78,024 100.0
인문·사회계열	191,074 34.9	189,483 34.6	134,358 24.5	18,550 3.4	14,754 2.7	548,219 100.0
기타계열	100,588 37.3	80,864 29.9	67,940 25.2	12,922 4.8	7,709 2.9	270,023 100.0
합계	426,860 36.4	377,021 32.2	293,422 25.0	44,911 3.8	29,522 2.5	1,171,734 100.0

*만 25세~64세 기혼(유배우, 사별, 이혼)여성 중 최종학위는 전문대 졸업생 이상만을 고려함

－ 경력단절 전과 후

[그림 4-27]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이후 일자리 변화
(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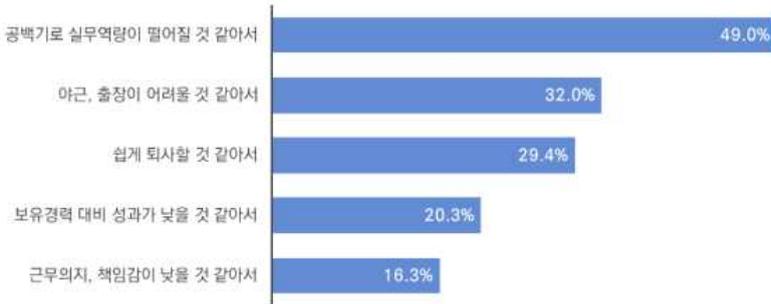
[그림 4-28]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월 임금 격차 (2018,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소요기간³²⁾

- 기업 62%,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부담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까지 평균 8.4년 소요

[그림 4-29]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도입

32) 출처 : 2019, 사람인(246개사 설문조사)

[그림 4-3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제 1차 기본계획	제 2차 기본계획	제 3차 기본계획	제 4차 기본계획
	육성	육성/활용	활용	질적성장
정책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중심사회구현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보 양성평등사회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 우수인재육성 과학기술강국 실현 여성일자리 확대, 선진국 수준 양성평등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 활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활용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여성과학기술인 전략적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도전, 균형, 다양성 정책가치 도출 과학기술분야성 다양성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과학기술인의 질적 성장과 잠재가치 실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

- 사업 목적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 분야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 성과 목표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및 활용 확대
- 사업 내용 : 경력단절된 석·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연구소, 기업, 대학 등과 매칭하여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재교육 등을 3년간 지원
- 지원 대상
 - (인력)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건강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된 여성
 - (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공공연구소, 기업, 대학 등)
 - * 채용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등 채용기초지원 필수 제공
 - * 채용인력의 연구참여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도·관리·점검 등 역할 위한 활용책임자 지정
- 지원 내용 :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복귀단계별 역량교육 및 경력 멘토링
 - (석사) 2,100만원/연, 최대 3년
 - (박사) 2,300만원/연, 최대 3년

□ 사업 추진 내용

- 복귀단계별(준비-유지-성장) 교육

- 경력복귀 단계별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한 경력성장 지원
- 총 5회, 354명 수료(2019년)

[그림 4-31] 복귀단계별 교육 내용



- 경력디딤 멘토링

- 목적: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모델 제시 및 멘토링을 통한 복귀자의 경력유지 및 성장 지원
- 과학기술 분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업무경력 15년 이상 여성과학기술인
- 매칭 : 지역 및 전공을 고려하여 멘토 1인당 1~3명의 멘티 매칭
- 활동 : 2019년 7월~11월(5개월), 키포프모임 및 소그룹 멘토링 (그룹당 2.6회) · 결과공유회

[그림 4-32] 경력디딤 멘토링 진행 현장



— 중간점검·현장컨설팅 및 평가

- 사업운영 현황 및 사업계획의 이행 점검
- 복귀자의 일자리 현장 적응 및 경력설계에 대한 점검과 애로사항 파악, 전문가 컨설팅 제공

[그림 4-33] 중간점검·현장컨설팅 진행 현장



— 성과평가(연차 및 최종)

- (연차평가) 업무 수행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최종평가) 복귀자 및 기관의 최종 목표 달성여부 평가, 우수 기관 및 복귀자 선정·시상
- * 우수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시상,
우수 복귀자 : 한국연구재단이사장상 시상

— 경력조사 모니터링

- 조사대상 : 3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 조사방법 :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 조사내용 : 경력유지 여부 및 고용 현황(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모니터링 결과 : 경력 유지도 78.7%

—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사업 참여중인 복귀자 및 활용책임자
- 조사방법 : 이메일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사업만족도, 업무만족도, 기관만족도, 지원서비스 품질 등
- 만족도 조사 결과 : 사업만족도 90%

3) 성과 및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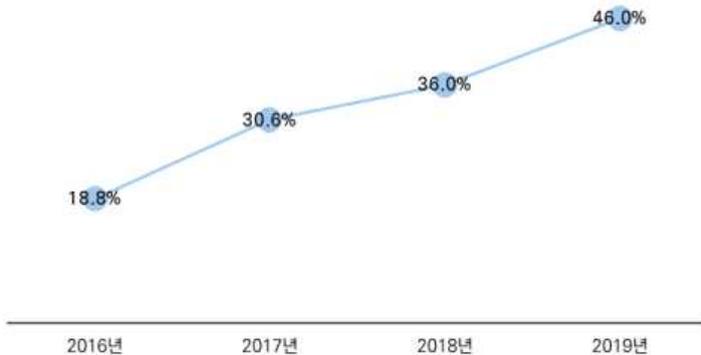
□ 사업 주요 성과

- 경력복귀 지원 규모의 지속적 확대
- 2012년 39명 → 2015년 116명 → 2019년 426명 지원
 [그림 4-34] 연도별 경력복귀 지원 규모



- 정규직 복귀율 증대
- 2016년 18.8% → 2019년 46.0%

[그림 4-35] 연도별 정규직 복귀율



[그림 4-36] 사업 참여자 만족도

(단위 : 점)



4) 종합

□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 활성화를 위한 노력

- 경력단절 이전 전문분야로 복귀 지원
- 복귀 이후 경력성장에 초점
- 민간분야로 지원 확대
- 지속적 수요 발굴과 좋은 일자리/인력 풀 확보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³³⁾

-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평등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
 - 문체부는 현안문제에 대한 적기 대응을 한 성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용 신고·상담센터 운영지원(심리상담, 소송·의료 지원), 성평등 문화정책 포럼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향후 과제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문화예술계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후속조치가 업무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임.
- 성평등 후속조치라는 것은 여성과 여학생들이 경험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경감시키고, 창작 및 경제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함에 있어서 부딪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정책들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함. 사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은 현장에서 여성을 대상화고 평가절하하거나 여성의 활동을 하찮게 여기고 여성들의 기여를 무시하는 사회적 함의들을 문제제기하고 약화시키는 ‘동등한 존중의 원칙’을 강하게 작동시키는 것과 병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임. 존경받고 존엄하게 대우받는다는 것은 단지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교육만으로, 또는 선언적 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는 전폭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일하는 현장에 여성들이 계속 머물러서 교정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것은 운동장 교정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
- 특히,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 통합에 이르는 경로(Dahl et al., 2009)이자 자원 접근권을 부여하여 중국에는 빈곤을 방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함(UNECE, 2013). 경력단절은 고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된 대체수입의 몫을 줄어들게 하며, 중국적으로 여성들을 사회적 임금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함(Fraser, 1997). 자신의 시장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의 우세는 재정적인 의존 상황에 놓여지게 하는 지름길이기도 함.
- 따라서 일·가정 양립 어려움, 경력단절, 대표성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중장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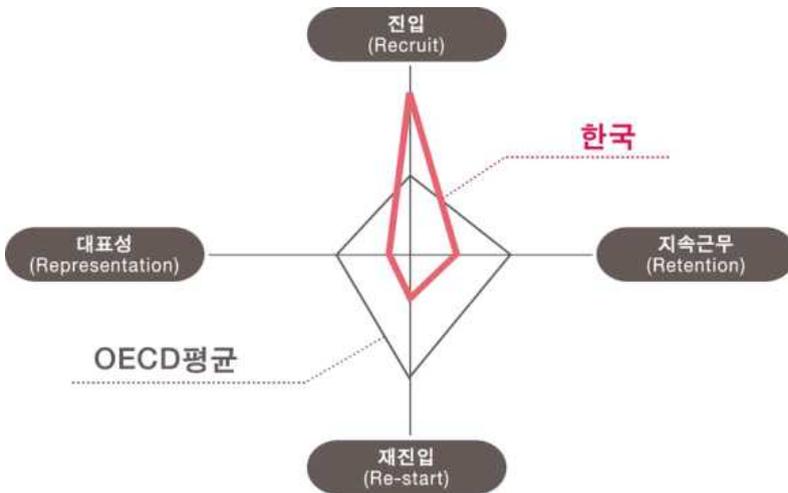
3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실장의 3차 오픈테이블 발제문을 재구성함

인 성차별 문제 해결이 가능함.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용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은 노동시장에서 낮은 위계의 문제와 연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고용 지위, 여성 대표성 문제 해결 없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정책적 개입은 상당히 제한적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서 여성문화예술인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는 없음. 물론,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49개 과제, 고용노동부 33, 보건복지부 14개 등 노동시장 참여자와 보육돌봄 서비스 확충에 기본적인 관심이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특화된 과제도 있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³⁴⁾은 한국 상황을 4R로 진단하여 계획을 수립함. 초기 진입(Recruit)은 양호한 편이지만, 출산·육아시기를 기점으로 경력유지(Retention)가 어렵고, 경력단절 후 재진입(Re-start)의 기회가 취약하며, 고위직·관리직으로 진출(Representation)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여 14개 부처와 시도가 참여하여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그림 4-37] 여성의 경제활동 고리 4R



34)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7쪽

<표 4-17> 과제별 소관 부처

주요 과제		담당부처
대표성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및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여가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충	기재부, 여가부, 시도
	여성 고위직·관리직 현황 공시	금융위, 기재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원 및 조치강화	고용부
진입	청년여성 대상 온오프라인 멘토링 운영	여가부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 내실화	여가부, 시도
	여학생에 대한 직업역량강화 지원	교육부, 시도, 고용부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육성 및 리더십 강화 지원	미래부, 산업부
지속 근무	여성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	여가부, 고용부, 시도
	자동 육아휴직 관행 확산	기재부, 여가부
	기업 등의 대체인력 확보 지원	고용부, 인사혁신처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지원	여가부, 고용부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단계적 확충	복지부, 고용부, 시도
	보육·돌봄 서비스 품질 개선-어린이집, 공육나눔터, 민간베이비시터	복지부, 여가부, 시도
	중소기업 등의 가족친화인증 확산	여가부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시도	
재진입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채용지원제도 확산	여가부, 고용부
	기업맞춤형·전문기술훈련 및 다양한 인턴십 확대	여가부, 시도
	국가기관전략산업훈련 등에 여성의 훈련참여 접근성 제고	고용부, 여가부
	예비 창업자 대상 연구개발 지원	중기청, 여가부, 시도
	여성농업인 소규모 및 공동 창업 지원	농식품부, 농진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계적 확충	여가부, 고용부, 시도
	다양한 형태의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확대	인사처, 기재부, 고용부, 시도

- 특히 경력단절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 연구(여가부, 통계청), 일 가정 양립제도 통합적 안내 시스템 구축(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시도),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정책 협의체 운영(기재부, 고용부, 여가부), 지역단위 일자리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고용부, 여가부, 산업부), 고용상 성차별, 일 가정

양립 등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여가부, 고용부) 등을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특정 분야 지원 과제도 포함되어 있음.
 - 여가부-미래부 협업을 통해 R&D분야 여성인력 재취업 위한 과학기술새일센터지정사업을 추진하여(2014년 5월) 서울과학기술새일, 대전배재대 ICT 융합새일, 경기IT새일, 고양MICE새일 등의 특화 센터를 운영.
 - ※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2009년 72개소에서 2019년 157개소로 확산.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창업자 맞춤형 교육, 연구개발 지원³⁵⁾ 등의 창업지원 과제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및 여성농업인 소규모 및 공동 창업 지원 과제를 추진.
 -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강원 영월, 충북 영동, 충남 부여 및 홍성, 전북 완주, 제주 서귀포) 지정·운영.
 - ※ 교육과정 전체 중 여성 농업인 교육생 참여비율 관리 (‘18) 40.1% → (‘19) 41% 이상,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여성(다문화 구성원 포함)을 20% 이상 우선 추천, 농업경영인 능력향상교육 기획공모분야 내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운영, 국외훈련·상향식 학습조직 등 선정 시 여성농업인 교육생 우선 선정.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시행지침 상 참여 구성원 중 여성비율이 높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선 선정.

□ 아이를 키워야 하는 예술인이 경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움. 특정 기업에 고용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육 인프라, 육아휴직제도, (경력복귀를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각종 제도적 지원책은 예술인의 직업 활동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크게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여성 예술인 좌담회에서 20-50대 여성예술가가 제시한 사항은 ‘아는 사람,

35) 여성창업지원사업은 창업경진대회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전국 17개센터 225개 보육실 180개사 입주, '18.12월 기준)사업도 포함됨. 예비 창업자 대상 연구개발 지원 과제는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여성 예비창업팀에 1년간 최대 1.5억 원의 정부 출연금 지원(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하는 것으로 2018년 161개 과제, 98억원 지원하였음.

안전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으로 예술생태계의 일부로 평가받을 수 있거나 육아 중에도 '작가들, 평론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공유할 수 있고, '육아를 하는 또는 육아가 예술가의 삶의 중요한 일부라고 인식하는 동료들이 많거나' 또는 '출산·육아기를 커리어의 일부로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 더불어, 육아 중에도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그룹에게 별도의 지원사업을 만드는 조치가 취해져야 육아가 패널티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함.(여성 예술인 좌담회)

- 이런 것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공토크(사적이고 공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를 만들어서 창작과 육아를 동시에 지원하는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공동체에서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 작업 활동을 유지' 하는 경우, '육아 도우미를 제작비 안에 배정'한 여성 제작자 사례나 '연습실 공간에 장난감 방을 설치'하는 사례도 출현했음. 하지만, 여전히 개별적인 대응책일 뿐이며 '(무용계의 경우)창작자나 안무가 경로나 여성 문화예술 CEO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은 부재함.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을 위해서는 '예술적 감각 되살리기, 기술변화 습득, 네트워크 형성' 등의 기회도 필요함.

※ 물론, (여성주의를 표방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 '변화를 꿈꾸는 리더' 사례도 있고,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이나 예술인복지재단 아이돌봄센터 설치와 같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님. 하지만, 긍정적인 지원 사례는 신문이나 나올 만큼 범위가 협소함.

※ 또한, 제도는 잘 만들어 놓았으나 (여성예술인 현실에 맞는) 예술인 활동을 증명할 방법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도 있음.

- 문화예술계는 조직이나 기업의 고용구조 안에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맥으로 인사가 진행되고 일용직 고용, 각종 기금 수령, 수상, 심사 등이 개인적 관계 안에서 이뤄지기 쉬움. 예술교육 현장인 학교/학원에서 관계가 전문인으로서 활동하는 직업인으로서 창작현장까지 고스란히 연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교육현장에서 창작현장까지 이어진 권력구조는 개인의 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특히 전문예술인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신진예술가들에게 막대한 장애를 초래함. 문화예술계의 경우 유형화된 조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

내의 위계폭력, 남성중심적 권력구조, 스승·선배가 활동영역에서 심사위원이 나 비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위계관계, 표현의 자유로 빙자되는 성폭력의 특징이 있음³⁶⁾.

□ 문체부에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음. 2019년 5월 8개 부처(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설치³⁷⁾와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정책의 양성평등 관점 반영(성 주류화) 및 성차별 구조 개선과 해당 기관 또는 관련 정책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문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업무³⁸⁾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 주류화(性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 향후,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평등 목표(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를 반영한 문체부 나름의 정책프레임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지만, 해당 계획은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9대 과제 중 하나로 「성평등 문화 실현」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화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경력단절 기본계획에 문체부는 없고, 문체부에 양성평등담당관은 이제

36) 문화비전 2030, p130-131

37) 미투 대응 등 영역별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 전담조직 필요성 대두됨. 문체부는 문화체육계 대책위('18.5.31) 권고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19.5)

38) 여성가족부가 예시한 공통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업무에는 첫째, 정책의 양성평등 관점 반영(성 주류화) 관련 업무로 ①양성평등 정책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②양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③소관 분야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과제 기획, 평가와 관류에 관한 사항, ④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등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원, ⑤성차별 모니터링 및 개선, ⑥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성인지 교육 등), ⑦승진·채용상 성차별 개선 등이 있고 둘째 소관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관련 업무로 ①영역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시행, ②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③성희롱·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④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⑤성희롱·성폭력 제발방지 대책 수립, ⑥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법·제도 개선, ⑦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 및 총괄·조정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6. 14, “문화체육계 등 성차별·성폭력 근절 위해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본격 운영”).

생겨났지만 여성인력에 대한 업무까지 포괄하지는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임. 따라서, 법률적 근거뿐만 아니라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정책 설계가 추진되어야 함.

- 첫째, (진입과 관련하여) 경력 설계와 관련된 멘토링 프로그램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성문화예술인의 인터뷰 내용은 출산과 육아 이후의 네트워크 부재를 호소하고 있는 바, 어느 정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그룹도 네트워크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진입이전에도 동일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에서 남성은 '고용주', '정규직', '일용직, 파견/용역'의 비율이 높으며, 여성은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 '파트타임/시간제',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홍기원 외, 2017)에 의거해서 볼 때 진입부터 경력 설계와 경력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선배여성의 경험을 활용한 역할모델링,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해당 사업을 누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현업 여성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원활한 추진도 가능할 수 있음.
- 둘째, (지속근무와 관련하여) 보육 여건 확충에 대해서는 다층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도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활동경력 증명 문제는 복지재단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기간 이전까지의 활동으로 경력증명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출산·육아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보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음. 더불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파견 육아도우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예술인 보육지원센터를 적어도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단, 예술인 보육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 및 야간보육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을 매개로 공동육아그룹을 조성하는 등의 유연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속근무 및 재진입과 관련하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확인된 계속 일하기에서의 이슈는 직무에서의 성별 위계와 네트워크 취약성, 재진입을 위한 직무 교육 기회의 부재 등임. 우선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CEO 또는 기획자라 리딩 그

롭으로의 역량개발 과정이 분야별로 설치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계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타 분야 여성 리더와 횡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개발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재진입을 위한 직무 교육은 창작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업계 동향이나 기술변화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단, 경력복귀 교육은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기획되어야 하므로, 창작분야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제는 예산과 더불어 접근성임.

- 넷째, (재진입과 관련하여) 경력복귀 교육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 문화예술인들이 육아를 하면서도 가까운 곳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함. 이와 같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성 인지적 개선을 통해서 추진 방안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문화도시선정 기준의 하나로 설정할 수도 있고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협업을 통해서 필요한 레지던시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짐.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 교육과 작품 활동 기회를 갖는 것은 이동이 손쉽고 돌봄이 지원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프라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여 돌봄 지원이 가능한 여성의 활동공간을 만드는 것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다섯째, 각종 문화예술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창작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최근에는 공공지원금 수혜 실적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위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음. 기회 균등을 위하여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불가피한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관련 인프라와 제도 등이 정비되기 전까지) 경력단절여성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관리자급의 성별은 남성 79%, 여성 21%이며, 관리자급 여성인력이 드물고 성별 직무분리가 비가시적으로 작동하여 비자발적 경력단절 요인도 존재함(홍기원 외, 2017). 사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대표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공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부처차원의 제도 도입이 요청됨.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및 여성관리

자 목표제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일급제, 성 주류화 조치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2030문화비전에서 보여지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가칭)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 운영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문제, 연금 등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과 고용평등 문제도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음.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가 대부분인 문화예술계에서 여성의 고용 불안정, 경력단절 등에 대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고, 문화·예술계 조직 내 성차별, 성차별적 창작·제작 환경 관련 분석 자료 또한 미비함. 성인지 통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통계에는 사업 참여자 성별 분리 통계 뿐만 아니라 성 차별적 현황에 대한 조사통계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정책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비전 2030의 정책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를 위한 내실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에 새로운 문화 비전을 현장과 함께 수립한다고 할 때, 성차별 개선은 어떤 현장과 함께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임.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업무계획 : 새로운 문화비전 수립³⁹⁾
- ✓ (과거 성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17.7~‘18.6) 하였고,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85개 제도개선과제 권고
 - ✓ (미래 준비) 현장과 함께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수립(5.16)
 - ✓ 문화예술교육(1.11), 스포츠비전(3.28), 새예술정책(5.16), 여가활성화(6.5), 국제문화교류진흥(5.28), 지역관광 활성화(7.11),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8.14), 콘텐츠 진흥(12.13), 방송영상진흥(12.19)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

□ 문화예술계 여성 인력 업무 포괄 정책 설계

- [진입] 경력 설계 관련 멘토링프로그램(현업 여성 네트워크 연계 필요)
- [지속근무] 보육여건 확충에 대한 다층적 장치 : 복지재단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 등록 시
[육아기간] 활동경력증명, 파견육아도우미도입, 예술인 보육지원센터 전국 확대

39)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업무계획, 1쪽

[시간제, 야간 보육 공공보육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그룹조성 그룹 매칭

- [지속근무 및 재진입] 교육훈련 프로그램 생성 및 체계화 : CEO과정, 리더그룹 역량개발과정, 문화예술계 이외의 여성 리더 횡적 네트워크 형성, 창작분야별 경력복귀 교육
- [재진입] 육아와 작품활동 병행 기회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지원사업 활용
예) 문화도시 선정 기준, 국토부도시재생 사업 여성문화예술인 레지던시조성. 특히 공간 조성시돌봄 지원 공간
- 문화예술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창작지원 프로그램 도입(청년예술인 프로그램과 균등 기회)
- 여성관리자 목표제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공시제 적용 대상이 조직 소수이므로 부처차원의 평가제도 도입(공공기관 평가체계 개선)
- 2030문화비전 주요 사업에 대한 성 주류화 조치 추진 : (가칭)문화예술노동권 위원회에 경력단절과 고용평등 이슈화. 성인지 통계 구축 등.
2030 정책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를 위한 민관거버넌스체계 구축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제도 개선방안 제안

제1절 : 정책 제안

1. 예술지원사업 심사위원 선정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성인지 교육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상 성평등 교육
4.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소위원회 활동 공유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업 및 공동논의
6.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기반 및 지속적인 공시방안 마련

제2절 : 예술지원제도 내 성평등 관련 자료 축적 방안

1. 심의위원 데이터 통합관리
2.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예술단체 성평등 현황 관리

제1절 정책 제안

1. 예술지원사업 심사위원 선정

- 심사위원이 적절한 방식으로 선정되었는지 심사위원의 성별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음.
 -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의 기계적인 성별 안배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분야나 사업에 따라 심사위원 성비의 균형이 불균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스스로 심사위원으로 신청하는, ‘자천’ 형태의 심사위원 풀(pool) 구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함.
 - 심사위원 자천방식에 대해 개인별, 성별에 따른 선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위원풀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성들이 자천하여 심사위원 풀에 들어가는 것을 낮설어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권유를 통해 ‘결정하는 위치’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5-1> 예술지원사업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제안

- ① 심사위원 성별 구성비 데이터 생산 및 공표
 - ② 심사위원 자천 형태의 구성방식 다양화 방안 마련
 - ③ 성비 균형이 맞지 않는 성별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 마련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성인지 교육

- 사업을 기획하는 예술위원회 직원들의 성인지는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성인지 교육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함.
 -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에서는 2차 오픈테이블의 내용 (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책 결과 산출된 데이터를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이 예술위원회 직원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원래의 2차 오픈테이블을 마치고 난 뒤 다시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차 오픈테이블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이 자리에는 전체 직원의 1/5 정도의 인원만이 참석하여, 다소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의 성인지 제고를 위해 이와 유사한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때 기관장을 비롯하여 중간관리자 이상(본부장, 부장급)의 직원참여 독려와 관심 제고가 필요함.
- 향후에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예술지원 정책 기획 및 실행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정례적인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실제 심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예술위원회 직원으로, 이들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매우 중요함.
- 스웨덴의 예술기금위원회에서는 예술인들의 성평등을 위해 공공지원 종사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성 주류화 원칙 및 이 원칙을 지원사업 설계 및 진행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담은 가이드를 제작하였음.
 - <Artistic Quality with demographic Perspectives: Gender equality integrated assessment of application for grants & scholarship>⁴⁰⁾이라는 가이드북에는 1) 예술기금위원회 직원이 이해해야 하는 성 주류화 원칙이 무엇인가, 2) 기금지원신청서를 리뷰 및 평가할 때 성주류와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 3) 예술인들의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술기금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적혀있음.

40) 이하 스웨덴 관련 내용은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책과 발전방향> (2019,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췌하였음

- 2) 기금지원신청서 리뷰 및 평가를 위한 원칙과 방법은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음.
- 가. 예술적 평가: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지 않은 예술적 평가만을 우선으로 하는 평가
 - 나. 예술 전체, 장르별 성비의 양적 특징을 고려한 예술적 평가: 1번의 기준만으로 성평등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가에 대해 평가
 - 다. 예술인들의 일상생활과 예술의 질 연관을 고려한 예술적 평가: 남녀간 소득 수준이 크게 발생하는 장르라면 소득 수준이 낮은 성의 예술인에게 기회를 더 주어야 하고 가정생활에 투여해야 하는 필요 시간이 더 요구되는 성의 예술인에게 기회를 더 줄 필요를 고려한 예술적 평가
 - 라. 비평적 성별인식의 질을 고려한 예술적 평가: 예술작품 중 비평적 성별인식을 담은 작품에 대해 기회를 줄 필요를 고려한 예술적 평가

<표 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제안

-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대상 정기적인 성인지 교육 실시
 - ② 성인지 교육에 대한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원참여 독려와 관심 제고
 - ③ 예술지원 사업 설계 및 진행시 성인지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작 및 활용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상 성평등 교육

- 위에서 언급한 예술위원회 직원 성인지 교육뿐 아니라 예술위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도 실시되어야 함. 단순한 성희롱, 성폭력 교육이 아닌 예술위의 예술지원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교육을 1년에 1회 정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한다 등의 제도화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예술위원들이 문화예술계 성평등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사태 및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음.

<표 5-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상 성평등 교육에 대한 제안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상 연 1회 성인지 교육 실시
 - ②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및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실천적 활동으로서 성평등한 예술지원 운영
-

4.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소위원회 활동 공유

- 1년 동안 소위활동을 하면서 소위원회 위원들이 느꼈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소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도 예술위원 내부직원 또는 예술위원들에게 호소력 있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실제로 예술위원회에서 어떻게 제도화하여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예를 들어, 사업을 평가할 때 성평등한 사업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과 그로 인한 개선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심사 과정상에서 성평등한 태도에 관한 지침을 심사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표 5-4>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소위원회 활동 공유에 대한 제안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소위원회 논의 안건 제도화 TFT(Task Force Team) 운영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평가시 성평등한 사업 운영 체크리스트 제작 및 활용
 -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심사위원 대상 성평등한 태도 및 관점 유지를 위한 교육 또는 체크리스트 제작 및 활용
-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업 및 공동논의

- 소위원회 3차 오픈테이블 ‘경력단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성폭력, 성희롱 문제는 위계 질서상 여성이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 여성 예술가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곧 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정책과 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적 지원 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예술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3차 오픈테이블과 같은 여성예술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간담회를 예술인복지재단과 공동 주관하여 연속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기록, 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예술위원회 예술지원 정책과 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지원정책 (임신, 출산, 육아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함.

<표 5-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업 및 공동논의에 대한 제안

- ① 여성예술가 간담회 정기개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업 및 공동주관)
 - ② 예술가 임신/출산/육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업 및 공동주관)
-

6.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기반 및 지속적인 공시방안 마련

- 지원사업 결산/정산보고서에 사업 참여 인력들에 대한 성별, 지역별, 연령별, 장애 요인, 이주민 여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원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도입됐으면 함. 다양성 차원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는 예술위원회에서 지원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함.
- 이를 토대로 매해 예술위원회 사업별 지원자/선정자 성별 분포 및 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작하고 공유해야 함. 영국 예술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Equality, Diversity and the Creative Case. A Date Report, 2016-2017』를 벤치마킹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분석 보고서가 제작되었으면 함. 위 보고서는 표지에서부터 ‘읽고 싶게 만드는’ 보고서로, 시각적으로 쉽게 눈에 들어오게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예술위원회 자체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함. 성평등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안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는 양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현재는 NCAS와 이나라도움 두 개의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음. 교부신청서까지는 NCAS로 받지만, 사업 결과는 이나라도움으로 받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방식을 통일하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아카이빙을 시급히 모색해야 함.

<표 5-6>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기반 및 지속적인 공시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결산/정산보고서 내 참여인력 다양성 반영 요소 체크 (예. 성별, 지역, 연령, 장애요인, 이주 등)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간 예술지원 결과 연도별 보고서 발간 (참고: 영국예술위원회 보고서)
-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 정보 시스템 구축 (단, NCAS 및 이나라도움 정보 통합을 위한 데이터 아카이빙 방안 모색을 우선)

제2절 예술지원제도 내 성평등 관련 자료 축적 방안

1. 심의위원 데이터 통합관리

- 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 후보와 연도별 공모사업 심의위원 현황이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음.
- 각 심의위원별로 성, 연령, 지역, 현직, 심의 횟수, 해당 공모사업 등 항목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령 : 해당연도의 한국 나이 기준
 - 현직 :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단체 기준
 - 학계 : (전문)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소속
 - 행정직 : 정부/지자체, 정부 산하 기관 소속
 - 기업 : 기업체 소속
 - 예술가/예술단체 : 예술가 개인 또는 예술 단체 소속
 - 심의 횟수 합산 기준 : 심의단계별 분야가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카운팅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 기준의 확립이 필요함. 예를 들어 동일 공모사업의 1차와 2차에 참여한 심의위원의 경우 심의 참여횟수를 합산하여 1회로 카운팅해야 함.

<표 5-7> 심의위원 데이터 관리 예시

성명	성별	연령	지역	현직	심의 횟수	해당 공모사업
김00	남성	51	서울	학계	2	무용창작산실, 전통예술창작산실
이00	여성	48	인천	행정직	1	국제예술교류지원

- 심의위원의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함으로써 심의위원 구성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분석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전체 및 세부 사업별 심의위원 성별 추적
 - 전체 및 세부 사업별 심의위원 평균연령 추적(소수 첫째 자리까지 제시)
 - 심의위원 연령대별 성비

- 전체 및 세부 사업별 심의위원 지역 추적(지방 비율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제시)
 - 심의위원 지역별(서울/경기 vs. 이외 지역) 성비
 - 심의위원 지역별(서울/경기 vs. 이외 지역) 평균 연령
- 전체 및 세부 사업별 현직 구분별 비율
 - 심의위원 현직별(서울/경기 vs. 이외 지역) 성비
 - 심의위원 현직별(서울/경기 vs. 이외 지역) 평균 연령 등

2.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예술단체 성평등 현황 관리

1) 연도별 사업명 통합 관리

- 현재 예술위의 사업 분류 체계가 사업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음. 사업 단위가 세부적으로 좁혀질수록 구체적 특성이 보여야 하는데, 현재 사업구조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동일한 맥락의 사업의 사업명이 연도별로 변화하여 사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사업 구조를 재조정하거나, 연도별로 변화하는 동일한 맥락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통합관리 구조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세분류인 사업명이 연도별로 바뀌더라도 이후 데이터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중분류 단위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을 제안함.

<표 5-8> 사업명 통합 관리 예시

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사업명)
시각	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등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리서치지원 등
	문화예술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대상자맞춤형/발굴형 등
	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현장예술인력육성	연수단원지원,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등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비평연구지원, 전시지원 등	
공연	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등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리서치지원 등
	문화예술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대상자맞춤형/발굴형 등
	예술의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
	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무대예술전문교육, 창작아카데미 등
		현장예술인력육성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연수단원지원 등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	무용/오페라/연극/ 음악창작산실 등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	
	공연예술행사지원	-	
문학	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

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사업명)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리서치지원 등
	문화예술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대상자맞춤형/발굴형 등
	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창작아카데미
	예술창작지원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집필공간운영지원 등

2) 예술단체 구성원 데이터 추적

- 현재의 지원 시스템상에서는 예술지원사업의 지원/선정 대상이 단체일 경우, 단체 대표자에 대한 데이터만 입력하게 되어 있음.
-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성별, 연령, 역할 데이터는 추적되고 있지 않아 예술 단체 성격 및 단체의 성평등 현황을 점검할 수 없음. 따라서, 지원사업 신청시 예술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예술단체 구성원 데이터 구조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표 5-9> 예술단체 구성원 데이터 관리 예시

성명	소속 단체명	성별	연령	담당 업무	근무 경력
김00	△△△△	남성	51	기획자	21년
이00	□□□□	여성	48	큐레이터	2년

3) 예술가·예술단체 구성원 데이터 통계 생산

- 예술지원사업 구조, 예술단체/개인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관리 및 축적된다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평등 관련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여 매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예술위 지원 및 선정구조에서 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실제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현재 엔카스와 이나라도움, 수많은 정산서 등을 통해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지만, 실상 이것들을 활용한 데이터들은 전혀 확보되고 있지 않음.
- 예술가·예술단체 구성원 데이터 분석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전체 분석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예술단체 참여자 성비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예술단체 참여자 평균 연령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예술단체 연령대별 구성비
- 분야(시각/공연/문학)별 분석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예술단체 참여자 성비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예술단체 참여자 평균 연령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예술단체 연령대별 구성비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개인 예술가 성비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단체 성비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단체 역할별(대표, 기획, 지원/스텝, 실연자 성비)
- 분야(시각/공연/문학) 내 분류별 분석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예술단체 참여자 성비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예술단체 참여자 평균 연령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예술단체 연령대별 구성비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개인 예술가 성비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단체 성비
 - 해당연도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단체 역할별(대표, 기획, 지원/스텝, 실연자 성비)

부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2019년 7월 지원사업 데이터 분석 결과표

공연예술분야
시각예술분야
문학분야

부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2019년 7월 지원사업 데이터 분석 결과표

1. 공연예술분야

공연_지원신청자 특성 분석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17,771	4,291	5,077	3,857	4,546
성	여	6,770	1,538	1,883	1,490	1,859
	남	11,001	2,753	3,194	2,367	2,687
연령	20/30대	5,895	1,092	1,542	1,394	1,867
	40대	5,706	1,426	1,697	1,215	1,368
	50대	4,015	1,149	1,175	815	876
	60대 이상	2,079	608	644	419	408
선정여부	선정	4,421	941	1,138	1,254	1,088
	비선정	13,350	3,350	3,939	2,603	3,458
구분	개인	1,936	346	569	438	583
	단체	15,835	3,945	4,508	3,419	3,963
분야	연극	5,302	1,353	1,506	1,210	1,233
	음악	3,378	916	1,159	689	614
	무용	1,912	446	524	485	457
	전통예술	3,431	862	1,057	781	731
	다원예술	545	339	12	-	194
	예술일반	3,203	375	819	692	1,317
유형	공연	13,810	3,419	4,122	2,918	3,351
	기획	343	76	86	65	116
	축제_페스티벌	747	222	212	123	190
	레지던스	259	37	53	87	82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245	79	58	52	56
	세미나_회의	90	16	27	23	24
	경연대회	33	10	13	5	5
	전시	258	25	67	63	103
	발간	166	31	42	40	53
	정보화	12	2	4	3	3
	조사연구	445	99	122	150	74
	행사	121	22	24	21	54
	연구	101	8	26	24	43
	강좌	39	6	15	8	10
	기타	1,102	239	206	275	382
	지역	서울	5,413	1,160	1,513	1,345
경기		1,121	210	351	272	288
인천		248	48	74	62	64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부산	379	85	105	87	102
대구	322	73	87	72	90
울산	125	35	50	20	20
경북	244	41	72	67	64
경남	339	71	91	86	91
광주	243	57	48	63	75
전북	322	59	78	91	94
전남	250	40	57	74	79
대전	270	54	71	59	86
세종	36	11	7	6	12
충북	223	33	62	65	63
충남	207	36	54	45	72
제주	104	15	28	23	38
강원	339	55	75	85	124
전국	5,731	1,830	1,840	915	1,146
해외	1,855	378	414	420	643

공연_지원신청자 특성 분석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17,771	4,291	5,077	3,857	4,546	
성	여	38.1	35.8	37.1	38.6	40.9
	남	61.9	64.2	62.9	61.4	59.1
연령	20/30대	33.3	25.5	30.5	36.3	41.3
	40대	32.2	33.4	33.6	31.6	30.3
	50대	22.7	26.9	23.2	21.2	19.4
	60대 이상	11.7	14.2	12.7	10.9	9.0
선정여부	선정	24.9	21.9	22.4	32.5	23.9
	비선정	75.1	78.1	77.6	67.5	76.1
구분	개인	10.9	8.1	11.2	11.4	12.8
	단체	89.1	91.9	88.8	88.6	87.2
분야	연극	29.8	31.5	29.7	31.4	27.1
	음악	19.0	21.3	22.8	17.9	13.5
	무용	10.8	10.4	10.3	12.6	10.1
	전통예술	19.3	20.1	20.8	20.2	16.1
	다원예술	3.1	7.9	0.2	0.0	4.3
	예술일반	18.0	8.7	16.1	17.9	29.0
유형	공연	77.7	79.7	81.2	75.7	73.7
	기획	1.9	1.8	1.7	1.7	2.6
	축제_페스티벌	4.2	5.2	4.2	3.2	4.2
	레지던스	1.5	0.9	1.0	2.3	1.8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연수등 교육프로그램	1.4	1.8	1.1	1.3	1.2
세미나, 회의	0.5	0.4	0.5	0.6	0.5
경연대회	0.2	0.2	0.3	0.1	0.1
전시	1.5	0.6	1.3	1.6	2.3
발간	0.9	0.7	0.8	1.0	1.2
정보화	0.1	0.0	0.1	0.1	0.1
조사연구	2.5	2.3	2.4	3.9	1.6
행사	0.7	0.5	0.5	0.5	1.2
연구	0.6	0.2	0.5	0.6	0.9
강좌	0.2	0.1	0.3	0.2	0.2
기타	6.2	5.6	4.1	7.1	8.4
서울	30.5	27.0	29.8	34.9	30.7
경기	6.3	4.9	6.9	7.1	6.3
인천	1.4	1.1	1.5	1.6	1.4
부산	2.1	2.0	2.1	2.3	2.2
대구	1.8	1.7	1.7	1.9	2.0
울산	0.7	0.8	1.0	0.5	0.4
경북	1.4	1.0	1.4	1.7	1.4
경남	1.9	1.7	1.8	2.2	2.0
광주	1.4	1.3	0.9	1.6	1.6
전북	1.8	1.4	1.5	2.4	2.1
전남	1.4	.9	1.1	1.9	1.7
대전	1.5	1.3	1.4	1.5	1.9
세종	0.2	0.3	0.1	0.2	0.3
충북	1.3	0.8	1.2	1.7	1.4
충남	1.2	0.8	1.1	1.2	1.6
제주	0.6	0.3	0.6	0.6	0.8
강원	1.9	1.3	1.5	2.2	2.7
전국	32.2	42.6	36.2	23.7	25.2
해외	10.4	8.8	8.2	10.9	14.1

공연_[지원신청] 사업 특성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17,771	4,291	5,077	3,857	4,546	
국제 교류 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259	42	50	83	84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10	-	5	5	-
	한국예술국제 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101	23	30	23	25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52	7	24	21	-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75	27	34	14	-
		국제예술교류지원	1,503	346	358	368	431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		221	-	-	-	221	
문화 예술 향유 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매칭형	2,171	-	-	940	1,231
		순회처발굴형	905	-	-	214	691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4,045	1,786	2,259	-	-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595	445	150	-	-
		지역예술가참여순회	485	-	485	-	-
		소규모순회	483	-	-	483	-
신나는예술여행_청년예술		219	-	-	-	219	
예술 인력 육성	현장예술 인력육성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995	316	202	226	251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986	285	204	252	245
		연수단원정규직고용전환지원	64	-	24	16	24
	차세대예술인 력육성	무대예술전문교육	10	-	1	9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576	125	169	152	130	
예술 창작 지원	공연예술창작 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137	43	27	34	33
		뮤지컬창작산실	473	132	118	103	120
		창작실험활동지원	501	-	177	140	184
		오페라창작산실	117	31	37	25	24
		창작활성화지원	112	-	-	112	-
		무용창작산실	541	116	148	137	140
		연극창작산실	1,010	235	244	257	274
		음악창작산실	212	57	29	77	49
	전통예술창작산실	372	73	91	102	106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운영	128	-	-	64	64	
공연예술 행사지원	413	202	211	-	-		

공연_[지원신청] 사업 특성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사례 수		17,771	4,291	5,077	3,857	4,546
국제	예술가	96.3	100.0	90.9	94.3	100.0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교류 지원	해외레지던스지원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3.7	-	9.1	5.7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5.2	5.7	6.7	5.4	3.7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2.7	1.7	5.4	4.9	-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3.8	6.7	7.6	3.3	-
		국제예술교류지원	77.0	85.9	80.3	86.4	63.7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	11.3	-	-	-	32.6	
문화 예술 향유 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매칭형	24.4	-	-	57.4	57.5
		순회처발굴형	10.2	-	-	13.1	32.3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45.4	80.1	78.1	-	-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6.7	19.9	5.2	-	-
		지역예술가참여순회	5.4	-	16.8	-	-
		소규모순회	5.4	-	-	29.5	-
	신나는예술여행_청년예술	2.5	-	-	-	10.2	
예술 인력 육성	현장예술 인력육성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48.7	52.6	47.0	45.7	48.3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48.2	47.4	47.4	51.0	47.1
		연수단원정규직고용전환지원	3.1	-	5.6	3.2	4.6
	차세대예술 인력육성	무대예술전문교육	1.7	-	0.6	5.6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98.3	100.0	99.4	94.4	100.0	
예술 창작 지원	공연예술창 작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3.9	6.3	3.1	3.4	3.5
		뮤지컬창작산실	13.6	19.2	13.5	10.4	12.9
		창작실험활동지원	14.4	-	20.3	14.2	19.8
		오페라창작산실	3.4	4.5	4.2	2.5	2.6
		창작활성화지원	3.2	-	-	11.3	-
		무용창작산실	15.6	16.9	17.0	13.9	15.1
		연극창작산실	29.1	34.2	28.0	26.0	29.5
		음악창작산실	6.1	8.3	3.3	7.8	5.3
	전통예술창작산실	10.7	10.6	10.4	10.3	11.4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운영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100.0	-	-	100.0	100.0
공연예술 행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100.0	100.0	100.0	-	-	

공연_선정자 특성 분석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성	여	1,639	333	422	476	408
	남	2,782	608	716	778	680
연령	20/30대	1,263	187	298	400	378
	40대	1,365	291	353	414	307
	50대	1,129	281	306	282	260
	60대 이상	645	179	177	154	135
구분	개인	501	96	151	116	138
	단체	3,920	845	987	1,138	950
분야	연극	1,339	305	348	389	297
	음악	876	191	220	255	210
	무용	651	158	182	163	148
	전통예술	892	197	247	260	188
	다원예술	67	36	4	0	27
	예술일반	596	54	137	187	218
유형	공연	2,838	597	733	830	678
	기획	196	42	51	49	54
	축제_페스티벌	219	60	76	42	41
	레지던스	141	24	30	43	44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106	29	28	23	26
	세미나_회의	35	10	12	7	6
	경연대회	8	3	3	1	1
	전시	50	1	10	15	24
	발간	68	12	17	21	18
	정보화	7	2	3	2	-
	조사연구	129	38	28	44	19
	행사	23	2	7	6	8
	연구	26	1	7	7	11
	강좌	9	0	4	3	2
	기타	566	120	129	161	156
	지역	서울	1,657	374	439	446
경기		236	41	58	78	59
인천		56	7	13	20	16
부산		94	21	22	33	18
대구		119	23	29	38	29
울산		25	6	10	7	2
경북		51	12	16	15	8
경남		86	10	20	36	20
광주		104	20	27	38	19
전북	118	19	29	36	34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전남	57	4	15	22	16
대전	77	16	21	21	19
세종	2	-	-	1	1
충북	64	11	16	28	9
충남	45	4	11	20	10
제주	36	3	11	14	8
강원	107	18	28	34	27
전국	924	231	214	248	231
해외	563	121	159	119	164

공연_선정자 특성 분석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성	여	37.1	35.4	37.1	38.0	37.5
	남	62.9	64.6	62.9	62.0	62.5
연령	20/30대	28.7	19.9	26.3	32.0	35.0
	40대	31.0	31.0	31.1	33.1	28.4
	50대	25.6	30.0	27.0	22.6	24.1
	60대 이상	14.7	19.1	15.6	12.3	12.5
구분	개인	11.3	10.2	13.3	9.3	12.7
	단체	88.7	89.8	86.7	90.7	87.3
분야	연극	30.3	32.4	30.6	31.0	27.3
	음악	19.8	20.3	19.3	20.3	19.3
	무용	14.7	16.8	16.0	13.0	13.6
	전통예술	20.2	20.9	21.7	20.7	17.3
	다원예술	1.5	3.8	0.4	-	2.5
	예술일반	13.5	5.7	12.0	14.9	20.0
유형	공연	64.2	63.4	64.4	66.2	62.3
	기획	4.4	4.5	4.5	3.9	5.0
	축제_페스티벌	5.0	6.4	6.7	3.3	3.8
	레지던스	3.2	2.6	2.6	3.4	4.0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2.4	3.1	2.5	1.8	2.4
	세미나_회의	0.8	1.1	1.1	0.6	0.6
	경연대회	0.2	0.3	0.3	0.1	0.1
	전시	1.1	0.1	0.9	1.2	2.2
	발간	1.5	1.3	1.5	1.7	1.7
	정보화	0.2	0.2	0.3	0.2	0.0
	조사연구	2.9	4.0	2.5	3.5	1.7
	행사	0.5	0.2	0.6	0.5	0.7
	연구	0.6	0.1	0.6	0.6	1.0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강좌	0.2	-	0.4	0.2	0.2	
	12.8	12.8	11.3	12.8	14.3	
지역	서울	37.5	39.7	38.6	35.6	36.6
	경기	5.3	4.4	5.1	6.2	5.4
	인천	1.3	0.7	1.1	1.6	1.5
	부산	2.1	2.2	1.9	2.6	1.7
	대구	2.7	2.4	2.5	3.0	2.7
	울산	0.6	0.6	0.9	0.6	0.2
	경북	1.2	1.3	1.4	1.2	0.7
	경남	1.9	1.1	1.8	2.9	1.8
	광주	2.4	2.1	2.4	3.0	1.7
	전북	2.7	2.0	2.5	2.9	3.1
	전남	1.3	0.4	1.3	1.8	1.5
	대전	1.7	1.7	1.8	1.7	1.7
	세종	-	-	-	0.1	0.1
	충북	1.4	1.2	1.4	2.2	0.8
	충남	1.0	0.4	1.0	1.6	0.9
	제주	0.8	0.3	1.0	1.1	0.7
	강원	2.4	1.9	2.5	2.7	2.5
	전국	20.9	24.5	18.8	19.8	21.2
	해외	12.7	12.9	14.0	9.5	15.1

공연_[선정] 사업 구분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문화예술향유지원	합계	36,691.4	9,713.3	7,051.8	7,933.3	11,993.0
	평균	26.9	45.6	21.4	16.6	34.9
예술창작지원	합계	47,129.3	15,269.0	16,258.3	8,160.0	7,442.0
	평균	55.6	79.5	66.4	37.4	38.6
예술인력육성	합계	25,452.6	7,635.1	5,317.0	6,139.5	6,360.9
	평균	16.5	19.1	14.3	14.6	17.9
국제교류지원	합계	9,485.4	1,969.9	2,812.2	1,803.7	2,899.7
	평균	14.3	14.4	14.7	13.0	14.8

공연_[선정] 세부사업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합계	9,850.7	6,057.9	3,792.9	-	-
	평균	25.6	36.1	17.5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순회차매칭형	합계	2,521.8	-	-	1,258.8	1,263.0
	평균	5.2	-	-	5.3	5.0
국제예술교류지원	합계	6,039.6	1,326.0	1,816.9	1,263.2	1,633.5
	평균	15.6	14.9	14.4	16.2	17.2
연극창작산실	합계	5,857.5	1,540.0	1,513.0	1,304.5	1,500.0
	평균	49.6	46.7	47.3	50.2	55.6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합계	11,737.8	3,851.0	2,248.8	2,888.0	2,750.0
	평균	15.8	19.4	12.6	14.4	16.9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합계	12,386.1	3,389.1	2,762.0	2,909.0	3,326.0
	평균	20.7	22.6	21.6	17.8	21.2
순회차발굴형	합계	12,002.0	-	-	4,272.0	7,730.0
	평균	151.9	-	-	147.3	154.6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합계	5,705.4	3,655.4	2,050.0	-	-
	평균	111.9	81.2	341.7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합계	1,135.9	395.0	232.0	224.0	284.9
	평균	6.5	7.7	4.5	6.2	8.1
무용창작산실	합계	3,127.0	624.5	850.0	820.0	832.5
	평균	25.6	21.5	25.8	27.3	27.8
창작실험활동지원	합계	1,104.0	-	350.0	354.0	400.0
	평균	14.3	-	12.5	13.6	17.4
지역예술가참여순회	합계	1,208.9	-	1,208.9	-	-
	평균	11.3	-	11.3	-	-
소규모순회	합계	2,402.5	-	-	2,402.5	-
	평균	11.3	-	-	11.3	-
뮤지컬창작산실	합계	12,446.7	4,440.0	3,479.5	2,418.7	2,108.5
	평균	124.5	158.6	139.2	109.9	84.3
공연예술행사지원	합계	15,605.0	7,260.0	8,345.0	-	-
	평균	135.7	142.4	130.4	-	-
전통예술창작산실	합계	1,344.2	235.0	414.8	324.4	370.0
	평균	24.9	26.1	23.0	23.2	28.5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합계	720.4	136.0	159.3	192.0	233.2
	평균	5.0	4.9	5.5	4.8	4.9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	합계	700.0	-	-	-	700.0
	평균	15.9	-	-	-	15.9
신나는예술여행_청년예술	합계	3,000.0	-	-	-	3,000.0
	평균	69.8	-	-	-	69.8
음악창작산실	합계	2,737.9	642.5	706.0	689.4	700.0
	평균	34.2	33.8	41.5	31.3	31.8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합계	893.0	187.0	200.0	200.0	306.0
	평균	11.3	11.7	10.0	9.1	14.6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합계	1,855.0	-	-	955.0	900.0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오페라창작산실	평균	38.6	-	-	41.5	36.0
	합계	1,450.0	340.0	400.0	385.0	325.0
	평균	46.8	48.6	50.0	42.8	46.4
창작활성화지원	합계	709.0	-	-	709.0	-
	평균	29.5	-	-	29.5	-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합계	1,181.0	185.0	498.0	165.0	333.0
	평균	36.9	23.1	83.0	18.3	37.0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합계	459.9	307.9	117.0	35.0	-
	평균	18.4	28.0	9.8	17.5	-
연수단원정규직고용전환지원	합계	180.8	-	74.2	106.5	-
	평균	6.7	-	5.7	7.6	-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합계	154.5	15.0	81.0	58.5	-
	평균	7.4	15.0	6.2	8.4	-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합계	230.0	-	140.0	90.0	-
	평균	28.8	-	28.0	30.0	-
무대예술전문교육	합계	12.0	-	-	12.0	-
	평균	2.0	-	-	2.0	-

공연_[선정] 사업구분 * 세부사업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전체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합계	950.4	136.0	299.3	282.0	233.2
			평균	6.2	4.9	8.8	6.6	4.9
	한국제예술국제교류지원	합계	8,535.0	1,833.9	2,512.9	1,521.7	2,666.5	
		평균	16.7	16.8	16.0	15.9	18.0	
	문화예술 향유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합계	36,691.4	9,713.3	7,051.8	7,933.3	11,993.0
			평균	26.9	45.6	21.4	16.6	34.9
	예술인력 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합계	24,304.7	7,240.1	5,085.0	5,903.5	6,076.0
			평균	17.8	20.8	15.9	15.6	19.0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합계	1,147.9	395.0	232.0	236.0	284.9
		평균	6.4	7.7	4.5	5.6	8.1	
	예술창작 지원	공연예술 창작산실	합계	29,669.3	8,009.0	7,913.3	7,205.0	6,542.0
			평균	43.3	56.8	43.7	36.9	38.9
공연예술특성 화극장운영		합계	1,855.0	-	-	955.0	900.0	
		평균	38.6	-	-	41.5	36.0	
공연예술행사 지원	합계	15,605.0	7,260.0	8,345.0	-	-		
	평균	135.7	142.4	130.4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국제교류 지원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합계	720.4	136.0	159.3	192.0	233.2
		평균	5.0	4.9	5.5	4.8	4.9
	국제예술공동 기금사업	합계	1,181.0	185.0	498.0	165.0	333.0
		평균	36.9	23.1	83.0	18.3	37.0
	국제교류기획리 서치지원	합계	154.5	15.0	81.0	58.5	-
		평균	7.4	15.0	6.2	8.4	-
	국제주요플랫폼 진출지원	합계	459.9	307.9	117.0	35.0	-
		평균	18.4	28.0	9.8	17.5	-
	국제예술 교류지원	합계	6,039.6	1,326.0	1,816.9	1,263.2	1,633.5
		평균	15.6	14.9	14.4	16.2	17.2
	아르코국제레지 던스개최지원	합계	230.0	-	140.0	90.0	-
		평균	28.8	-	28.0	30.0	-
청년예술교류 역량강화	합계	700.0	-	-	-	700.0	
	평균	15.9	-	-	-	15.9	
문화예술 향유지원	순회처매칭형	합계	2,521.8	-	-	1,258.8	1,263.0
		평균	5.2	-	-	5.3	5.0
	순회처발굴형	합계	12,002.0	-	-	4,272.0	7,730.0
		평균	151.9	-	-	147.3	154.6
	대상자맞춤형 프로그램	합계	9,850.7	6,057.9	3,792.9	-	-
		평균	25.6	36.1	17.5	-	-
	대상자발굴형 프로그램	합계	5,705.4	3,655.4	2,050.0	-	-
		평균	111.9	81.2	341.7	-	-
	지역예술가 참여순회	합계	1,208.9	-	1,208.9	-	-
		평균	11.3	-	11.3	-	-
	소규모순회	합계	2,402.5	-	-	2,402.5	-
		평균	11.3	-	-	11.3	-
신나는예술여행 청년예술	합계	3,000.0	-	-	-	3,000.0	
	평균	69.8	-	-	-	69.8	
예술인력 육성	공연예술전문 인력지원	합계	11,737.8	3,851.0	2,248.8	2,888.0	2,750.0
		평균	15.8	19.4	12.6	14.4	16.9
	무대예술 전문교육	합계	12.0	-	-	12.0	-
		평균	2.0	-	-	2.0	-
	한국예술 창작아카데미	합계	1,135.9	395.0	232.0	224.0	284.9
		평균	6.5	7.7	4.5	6.2	8.1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	합계	12,386.1	3,389.1	2,762.0	2,909.0	3,326.0
		평균	20.7	22.6	21.6	17.8	21.2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연수단원정규직 고용전환지원	합계	180.8	-	74.2	106.5	-
		평균	6.7	-	5.7	7.6	-
	공연예술비평 연구활성화지원	합계	893.0	187.0	200.0	200.0	306.0
		평균	11.3	11.7	10.0	9.1	14.6
	뮤지컬창작산실	합계	12,446.7	4,440.0	3,479.5	2,418.7	2,108.5
		평균	124.5	158.6	139.2	109.9	84.3
	창작실험 활동지원	합계	1,104.0	-	350.0	354.0	400.0
		평균	14.3	-	12.5	13.6	17.4
	오페라창작산실	합계	1,450.0	340.0	400.0	385.0	325.0
		평균	46.8	48.6	50.0	42.8	46.4
	창작활성화지원	합계	709.0	-	-	709.0	-
		평균	29.5	-	-	29.5	-
예술창작 지원	공연예술특성화 극장운영	합계	1,855.0	-	-	955.0	900.0
		평균	38.6	-	-	41.5	36.0
	공연예술 행사지원	합계	15,605.0	7,260.0	8,345.0	-	-
		평균	135.7	142.4	130.4	-	-
	무용창작산실	합계	3,127.0	624.5	850.0	820.0	832.5
		평균	25.6	21.5	25.8	27.3	27.8
	연극창작산실	합계	5,857.5	1,540.0	1,513.0	1,304.5	1,500.0
		평균	49.6	46.7	47.3	50.2	55.6
	음악창작산실	합계	2,737.9	642.5	706.0	689.4	700.0
		평균	34.2	33.8	41.5	31.3	31.8
	전통예술 창작산실	합계	1,344.2	235.0	414.8	324.4	370.0
		평균	24.9	26.1	23.0	23.2	28.5

공연_[선정] 사업구분 * 분야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국제교류 지원	연극	합계	2,376.2	389.4	803.8	499.6	683.4	
		평균	14.6	13.0	16.7	11.6	16.3	
	음악	합계	1,829.2	393.0	600.7	380.7	454.8	
		평균	14.9	13.6	16.7	15.2	13.8	
	무용	합계	2,314.1	424.1	778.0	506.2	605.8	
		평균	11.3	10.1	12.8	10.5	11.4	
	전통예술	합계	1,963.8	544.4	626.5	337.2	455.7	
		평균	15.8	16.0	14.2	15.3	19.0	
	예술일반	합계	1,002.1	219.0	3.1	80.0	700.0	
		평균	20.5	109.5	1.6	80.0	15.9	
	문화예술	연극	합계	2,720.9	440.3	1,124.1	876.0	280.5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향유지원	음악	평균	9.0	8.2	13.5	7.8	5.1
		합계	4,303.3	1,688.4	1,433.2	914.7	267.0
	무용	평균	16.2	41.2	20.8	8.9	5.1
		합계	546.4	62.3	212.5	177.4	94.2
	전통예술	평균	7.4	4.5	10.1	8.1	5.5
		합계	3,340.8	814.9	1,121.1	1,066.0	338.8
	다원예술	평균	10.0	16.6	12.9	8.2	5.0
		합계	1,278.4	1,177.3	-	-	101.1
	예술일반	평균	23.7	35.7	-	-	4.8
		합계	24,501.6	5,530.1	3,160.9	4,899.2	10,911.4
		평균	73.6	251.4	45.2	44.5	83.3
		합계	8,477.8	2,631.7	1,745.1	2,110.9	1,990.0
예술인력 육성	연극	평균	15.2	18.0	12.8	13.7	16.4
		합계	5,947.2	1,587.1	1,026.2	1,511.9	1,822.0
	음악	평균	18.9	20.9	14.5	17.8	22.2
		합계	3,159.6	1,081.4	727.2	703.0	648.0
	무용	평균	17.6	20.0	15.5	15.0	20.3
		합계	5,659.3	1,723.6	1,331.1	1,301.7	1,303.0
	전통예술	평균	17.1	18.7	17.1	15.5	16.9
		합계	29.0	21.0	8.0	-	-
	다원예술	평균	4.1	7.0	2.0	-	-
		합계	2,179.7	590.3	479.5	512.0	597.9
	예술일반	평균	13.9	21.1	13.3	10.2	13.9
		합계	25,785.2	8,336.0	8,313.5	4,783.2	4,352.5
예술창작 지원	연극	평균	81.9	111.1	102.6	59.8	55.1
		합계	9,199.4	3,171.5	3,371.0	1,361.4	1,295.5
	음악	평균	52.9	70.5	76.6	32.4	30.1
		합계	7,127.0	2,408.5	2,474.0	1,100.0	1,144.5
	무용	평균	36.9	50.2	46.7	23.9	24.9
		합계	3,176.3	921.0	1,149.8	561.4	544.1
	전통예술	평균	30.8	41.9	30.3	23.4	28.6
		합계	105.4	-	-	-	105.4
	다원예술	평균	17.6	-	-	-	17.6
		합계	1,736.0	432.0	950.0	354.0	-
	예술일반	평균	30.5	216.0	32.8	13.6	-
		합계					

공연_사업구분별 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신청	응답자수	17,771	4,291	5,077	3,857	4,546
	국제교류지원	여	45.7	40.0	42.3	43.8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문화예술향유지원	남		54.3	60.0	57.7	56.2	47.3
		여	36.9	35.7	36.3	38.1	38.0
	남		63.1	64.3	63.7	61.9	62.0
		여	35.5	32.4	38.5	35.4	36.2
	예술인력육성	남	64.5	67.6	61.5	64.6	63.8
		여	38.3	37.0	36.0	38.9	41.2
예술창작지원	남	61.7	63.0	64.0	61.1	58.8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선정	국제교류지원	여	46.5	40.9	47.1	42.4	52.6
		남	53.5	59.1	52.9	57.6	47.4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38.0	36.2	37.9	41.9	33.7
		남	62.0	63.8	62.1	58.1	66.3
	예술인력육성	여	31.7	32.8	33.3	30.7	29.9
		남	68.3	67.2	66.7	69.3	70.1
	예술창작지원	여	38.1	35.9	33.9	40.4	43.0
		남	61.9	64.1	66.1	59.6	57.0

공연 [선정] 사업구분별*성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국제교류지원	여	합계	4,004.5	649.9	1,228.1	664.8	1,461.8
		평균	13.0	11.6	13.6	11.3	14.2
	남	합계	5,480.9	1,320.0	1,584.1	1,138.9	1,437.9
		평균	15.4	16.3	15.7	14.2	15.5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합계	12,625.2	2,861.7	2,542.9	3,520.5	3,700.1
		평균	24.4	37.2	20.3	17.6	31.9
	남	합계	24,066.2	6,851.6	4,508.9	4,412.8	8,292.9
		평균	28.4	50.4	22.0	15.9	36.4
예술인력육성	여	합계	7,092.8	2,293.1	1,502.2	1,660.5	1,637.0
		평균	14.5	17.5	12.1	12.9	15.4
	남	합계	18,359.8	5,342.0	3,814.9	4,479.0	4,723.9
		평균	17.4	19.9	15.4	15.4	19.0
예술창작지원	여	합계	12,182.3	3,457.5	3,378.2	2,433.4	2,913.2
		평균	37.7	50.1	40.7	27.7	35.1
	남	합계	34,947.0	11,811.5	12,880.1	5,726.6	4,528.8
		평균	66.6	96.0	79.5	44.1	41.2

공연_사업구분별*연령별 특성 (단위 : 건)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17,771	4,291	5,077	3,857	4,546	
	국제교류지원	20/30대	955	136	189	212	418
		40대	616	147	149	143	177
		50대	389	94	92	95	108
		60대 이상	250	66	70	61	53
	문화예술 향유지원	20/30대	2,802	554	807	585	856
		40대	3,018	769	1,046	535	668
		50대	2,083	616	689	356	422
		60대 이상	977	284	345	160	188
	예술인력육성	20/30대	839	200	217	223	199
		40대	697	212	144	162	179
		50대	662	188	137	165	172
		60대 이상	413	123	99	98	93
	예술창작지원	20/30대	1,299	202	329	374	394
		40대	1,375	298	358	375	344
		50대	881	251	257	199	174
60대 이상		439	135	130	100	74	
선정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국제교류지원	20/30대	303	45	72	64	122
		40대	176	43	59	38	36
		50대	110	20	41	24	25
		60대 이상	68	28	18	12	10
	문화예술 향유지원	20/30대	438	34	86	185	133
		40대	484	78	135	166	105
		50대	311	72	76	85	78
		60대 이상	130	29	33	41	27
	예술인력육성	20/30대	318	87	80	84	67
		40대	450	125	100	125	100
		50대	472	112	115	130	115
		60대 이상	298	73	76	78	71
	예술창작지원	20/30대	204	21	60	67	56
		40대	255	45	59	85	66
		50대	236	77	74	43	42
60대 이상		149	49	50	23	27	

공연_사업 구분별*연령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17,771	4,291	5,077	3,857	4,546	
	국제교류지원	20/30대	43.2	30.7	37.8	41.5	55.3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선정		40대	27.9	33.2	29.8	28.0	23.4	
		50대	17.6	21.2	18.4	18.6	14.3	
		60대 이상	11.3	14.9	14.0	11.9	7.0	
	문화예술 향유지원	20/30대	31.6	24.9	28.0	35.8	40.1	
		40대	34.0	34.6	36.2	32.7	31.3	
		50대	23.5	27.7	23.9	21.8	19.8	
	예술인력육성	60대 이상	11.0	12.8	12.0	9.8	8.8	
		20/30대	32.1	27.7	36.3	34.4	30.9	
		40대	26.7	29.3	24.1	25.0	27.8	
	예술창작지원	50대	25.4	26.0	22.9	25.5	26.7	
		60대 이상	15.8	17.0	16.6	15.1	14.5	
		20/30대	32.5	22.8	30.6	35.7	40.0	
		40대	34.4	33.6	33.3	35.8	34.9	
		50대	22.1	28.3	23.9	19.0	17.6	
		60대 이상	11.0	15.2	12.1	9.5	7.5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국제교류지원		20/30대	46.1	33.1	37.9	46.4	63.2
			40대	26.8	31.6	31.1	27.5	18.7
50대			16.7	14.7	21.6	17.4	13.0	
60대 이상			10.4	20.6	9.5	8.7	5.2	
문화예술 향유지원		20/30대	32.1	16.0	26.1	38.8	38.8	
		40대	35.5	36.6	40.9	34.8	30.6	
		50대	22.8	33.8	23.0	17.8	22.7	
예술인력육성		60대 이상	9.5	13.6	10.0	8.6	7.9	
		20/30대	20.7	21.9	21.6	20.1	19.0	
		40대	29.3	31.5	27.0	30.0	28.3	
예술창작지원		50대	30.7	28.2	31.0	31.2	32.6	
		60대 이상	19.4	18.4	20.5	18.7	20.1	
		20/30대	24.2	10.9	24.7	30.7	29.3	
		40대	30.2	23.4	24.3	39.0	34.6	
		50대	28.0	40.1	30.5	19.7	22.0	
		60대 이상	17.7	25.5	20.6	10.6	14.1	

공연_[선정] 사업구분별*연령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선정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국제 교류 지원	20/30대	합계	3,155.5	348.5	636.9	581.4	1,588.7
			평균	10.4	7.7	8.8	9.1	13.0
		40대	합계	2,624.6	562.9	990.8	552.6	518.3
			평균	14.9	13.1	16.8	14.5	14.4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문화 예술 향유 지원	50대	합계	2,191.7	536.0	817.9	393.1	444.7	
		평균	19.9	26.8	19.9	16.4	17.8	
	60대 이상	합계	1,352.0	472.0	346.6	274.4	259.0	
		평균	19.9	16.9	19.3	22.9	25.9	
	문화 예술 향유 지원	20/30대	합계	10,688.6	1,776.2	1,914.8	2,740.1	4,257.5
			평균	24.4	52.2	22.3	14.8	32.0
		40대	합계	11,986.9	4,408.4	2,410.0	2,464.2	2,704.3
			평균	24.8	56.5	17.9	14.8	25.8
50대		합계	10,033.1	2,559.0	1,776.0	1,865.3	3,832.8	
		평균	32.3	35.5	23.4	21.9	49.1	
60대 이상		합계	3,978.6	969.7	951.0	863.7	1,194.2	
		평균	30.6	33.4	28.8	21.1	44.2	
예술 인력 육성	20/30대	합계	3,195.7	1,007.3	548.4	872.0	768.0	
		평균	10.0	11.6	6.9	10.4	11.5	
	40대	합계	7,498.2	2,265.7	1,541.8	1,785.8	1,904.9	
		평균	16.7	18.1	15.4	14.3	19.0	
	50대	합계	9,241.2	2,834.0	1,999.3	2,132.9	2,275.0	
		평균	19.6	25.3	17.4	16.4	19.8	
	60대 이상	합계	5,471.5	1,505.1	1,224.5	1,336.8	1,405.0	
		평균	18.4	20.6	16.1	17.1	19.8	
예술 창작 지원	20/30대	합계	6,396.1	812.5	1,516.9	1,758.7	2,308.0	
		평균	31.4	38.7	25.3	26.2	41.2	
	40대	합계	10,718.9	1,636.0	3,038.7	3,630.9	2,413.3	
		평균	42.0	36.4	51.5	42.7	36.6	
	50대	합계	17,833.9	7,267.5	6,875.7	1,947.5	1,743.2	
		평균	75.6	94.4	92.9	45.3	41.5	
	60대 이상	합계	12,021.4	5,553.0	4,737.0	822.9	908.5	
		평균	80.7	113.3	94.7	35.8	33.6	

공연_사업구분별*성별*연령별 특성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17,771	4,291	5,077	3,857	4,546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511	66	103	98	244
			40대	249	48	52	59	90
			50대	177	41	36	49	51
			60대 이상	72	22	21	17	12
	국제교류지원	남	20/30대	444	70	86	114	174
			40대	367	99	97	84	87
			50대	212	53	56	46	57
			60대 이상	178	44	49	44	41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문화예술 향유지원	여	20/30대	1,065	205	304	221	335	
		40대	1,141	279	383	217	262	
		50대	752	209	252	137	154	
		60대 이상	314	100	109	48	57	
	남	20/30대	1,737	349	503	364	521	
		40대	1,877	490	663	318	406	
		50대	1,331	407	437	219	268	
		60대 이상	663	184	236	112	131	
	예술인력육성	여	20/30대	398	94	111	103	90
			40대	183	52	38	42	51
			50대	220	53	50	56	61
			60대 이상	116	34	29	25	28
남		20/30대	441	106	106	120	109	
		40대	514	160	106	120	128	
		50대	442	135	87	109	111	
		60대 이상	297	89	70	73	65	
예술창작지원		여	20/30대	560	80	146	158	176
			40대	467	107	102	132	126
			50대	339	90	94	82	73
			60대 이상	159	52	43	35	29
	남	20/30대	739	122	183	216	218	
		40대	908	191	256	243	218	
		50대	542	161	163	117	101	
		60대 이상	280	83	87	65	45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선정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168	26	47	29	66
			40대	73	14	24	17	18
			50대	47	6	16	11	14
			60대 이상	16	9	3	2	2
		남	20/30대	135	19	25	35	56
			40대	103	29	35	21	18
			50대	63	14	25	13	11
			60대 이상	52	19	15	10	8
	문화예술 향유지원	여	20/30대	183	16	40	81	46
			40대	189	30	51	73	35
			50대	106	25	26	29	26
			60대 이상	39	6	8	17	8
		남	20/30대	255	18	46	104	87
			40대	295	48	84	93	70
			50대	205	47	50	56	52
			60대 이상	91	23	25	24	19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인력육성	여	20/30대	140	38	38	34	30
		40대	112	32	26	30	24
		50대	152	37	39	43	33
		60대 이상	79	22	20	19	18
	남	20/30대	178	49	42	50	37
		40대	338	93	74	95	76
		50대	320	75	76	87	82
		60대 이상	219	51	56	59	53
예술창작지원	여	20/30대	100	6	35	34	25
		40대	74	12	11	31	20
		50대	97	34	22	17	24
		60대 이상	48	17	13	6	12
	남	20/30대	104	15	25	33	31
		40대	181	33	48	54	46
		50대	139	43	52	26	18
		60대 이상	101	32	37	17	15

공연_사업구분별*성별*연령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17,771	4,291	5,077	3,857	4,546	
지원 신청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50.6	37.3	48.6	43.9	61.5
			40대	24.7	27.1	24.5	26.5	22.7
			50대	17.5	23.2	17.0	22.0	12.8
			60대 이상	7.1	12.4	9.9	7.6	3.0
		남	20/30대	37.0	26.3	29.9	39.6	48.5
			40대	30.6	37.2	33.7	29.2	24.2
			50대	17.7	19.9	19.4	16.0	15.9
			60대 이상	14.8	16.5	17.0	15.3	11.4
	문화예술 향유지원	여	20/30대	32.5	25.9	29.0	35.5	41.5
			40대	34.9	35.2	36.5	34.8	32.4
			50대	23.0	26.4	24.0	22.0	19.1
			60대 이상	9.6	12.6	10.4	7.7	7.1
남		20/30대	31.0	24.4	27.4	35.9	39.3	
		40대	33.5	34.3	36.1	31.4	30.6	
		50대	23.7	28.5	23.8	21.6	20.2	
		60대 이상	11.8	12.9	12.8	11.1	9.9	
예술인력육성	여	20/30대	43.4	40.3	48.7	45.6	39.1	
		40대	20.0	22.3	16.7	18.6	22.2	
		50대	24.0	22.7	21.9	24.8	26.5	
		60대 이상	12.6	14.6	12.7	11.1	12.2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창작지원	남	20/30대	26.0	21.6	28.7	28.4	26.4	
		40대	30.3	32.7	28.7	28.4	31.0	
		50대	26.1	27.6	23.6	25.8	26.9	
		60대 이상	17.5	18.2	19.0	17.3	15.7	
	여	20/30대	36.7	24.3	37.9	38.8	43.6	
		40대	30.6	32.5	26.5	32.4	31.2	
		50대	22.2	27.4	24.4	20.1	18.1	
		60대 이상	10.4	15.8	11.2	8.6	7.2	
	남	20/30대	29.9	21.9	26.6	33.7	37.5	
		40대	36.8	34.3	37.2	37.9	37.5	
		50대	22.0	28.9	23.7	18.3	17.4	
		60대 이상	11.3	14.9	12.6	10.1	7.7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선정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55.3	47.3	52.2	49.2	66.0
			40대	24.0	25.5	26.7	28.8	18.0
			50대	15.5	10.9	17.8	18.6	14.0
			60대 이상	5.3	16.4	3.3	3.4	2.0
	남	20/30대	38.2	23.5	25.0	44.3	60.2	
		40대	29.2	35.8	35.0	26.6	19.4	
		50대	17.8	17.3	25.0	16.5	11.8	
		60대 이상	14.7	23.5	15.0	12.7	8.6	
문화예술 향유지원	여	20/30대	35.4	20.8	32.0	40.5	40.0	
		40대	36.6	39.0	40.8	36.5	30.4	
		50대	20.5	32.5	20.8	14.5	22.6	
		60대 이상	7.5	7.8	6.4	8.5	7.0	
남	20/30대	30.1	13.2	22.4	37.5	38.2		
	40대	34.9	35.3	41.0	33.6	30.7		
	50대	24.2	34.6	24.4	20.2	22.8		
	60대 이상	10.8	16.9	12.2	8.7	8.3		
예술인력육성	여	20/30대	29.0	29.5	30.9	27.0	28.6	
		40대	23.2	24.8	21.1	23.8	22.9	
		50대	31.5	28.7	31.7	34.1	31.4	
		60대 이상	16.4	17.1	16.3	15.1	17.1	
	남	20/30대	16.9	18.3	16.9	17.2	14.9	
		40대	32.0	34.7	29.8	32.6	30.6	
예술창작지원	여	20/30대	31.3	8.7	43.2	38.6	30.9	
		40대	23.2	17.4	13.6	35.2	24.7	
		50대	30.4	49.3	27.2	19.3	29.6	
		60대 이상	15.0	24.6	16.0	6.8	14.8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남	20/30대	19.8	12.2	15.4	25.4	28.2
		40대	34.5	26.8	29.6	41.5	41.8
		50대	26.5	35.0	32.1	20.0	16.4
		60대 이상	19.2	26.0	22.8	13.1	13.6

공연_사업구분별*성별*연령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합계	1,578.2	142.5	414.4	244.1	777.2
			평균	9.4	5.5	8.8	8.4	11.8
		40대	합계	1,085.1	169.9	458.3	200.3	256.6
			평균	14.9	12.1	19.1	11.8	14.3
		50대	합계	811.4	99.0	255.4	198.0	259.0
			평균	17.3	16.5	16.0	18.0	18.5
		60대 이상	합계	390.4	188.0	100.0	22.4	80.0
			평균	24.4	20.9	33.3	11.2	40.0
	남	20/30대	합계	1,577.3	206.0	222.5	337.3	811.5
			평균	11.7	10.8	8.9	9.6	14.5
		40대	합계	1,539.5	393.0	532.5	352.3	261.7
			평균	14.9	13.6	15.2	16.8	14.5
		50대	합계	1,380.3	437.0	562.5	195.1	185.7
			평균	21.9	31.2	22.5	15.0	16.9
		60대 이상	합계	961.6	284.0	246.6	252.0	179.0
			평균	18.5	14.9	16.4	25.2	22.4
문화예술 향유지원	여	20/30대	합계	3,829.5	565.4	673.0	1,255.0	1,336.1
			평균	20.9	35.3	16.8	15.5	29.0
		40대	합계	4,404.9	1,565.9	892.5	1,219.3	727.2
			평균	23.3	52.2	17.5	16.7	20.8
		50대	합계	3,307.5	704.2	918.8	606.5	1,078.0
			평균	31.2	28.2	35.3	20.9	41.5
		60대 이상	합계	1,079.1	26.2	58.6	439.7	554.6
			평균	27.7	4.4	7.3	25.9	69.3
	남	20/30대	합계	6,859.1	1,210.8	1,241.8	1,485.1	2,921.4
			평균	26.9	67.3	27.0	14.3	33.6
		40대	합계	7,582.0	2,842.5	1,517.5	1,244.9	1,977.1
			평균	25.7	59.2	18.1	13.4	28.2
		50대	합계	6,725.6	1,854.8	857.2	1,258.8	2,754.8
			평균	32.8	39.5	17.1	22.5	53.0
		60대 이상	합계	2,899.5	943.5	892.4	424.0	639.6
			평균	31.9	41.0	35.7	17.7	33.7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인력육성	여	20/30대	합계	1,115.2	346.4	176.8	305.0	287.0
			평균	8.0	9.1	4.7	9.0	9.6
		40대	합계	1,802.4	570.0	344.3	447.1	441.0
			평균	16.1	17.8	13.2	14.9	18.4
		50대	합계	2,751.2	951.3	624.5	604.4	571.0
			평균	18.1	25.7	16.0	14.1	17.3
		60대 이상	합계	1,380.0	402.4	353.6	292.0	332.0
			평균	17.5	18.3	17.7	15.4	18.4
	남	20/30대	합계	2,080.5	660.9	371.6	567.0	481.0
			평균	11.7	13.5	8.8	11.3	13.0
		40대	합계	5,695.8	1,695.7	1,197.5	1,338.7	1,463.9
			평균	16.9	18.2	16.2	14.1	19.3
		50대	합계	6,490.0	1,882.7	1,374.8	1,528.5	1,704.0
			평균	20.3	25.1	18.1	17.6	20.8
		60대 이상	합계	4,091.5	1,102.7	870.9	1,044.8	1,073.0
			평균	18.7	21.6	15.6	17.7	20.2
예술창작지원	여	20/30대	합계	2,589.9	276.0	747.0	709.9	857.0
			평균	25.9	46.0	21.3	20.9	34.3
		40대	합계	2,367.0	205.0	555.0	1,121.0	486.0
			평균	32.0	17.1	50.5	36.2	24.3
		50대	합계	4,783.9	1,920.5	1,263.7	480.5	1,119.2
			평균	49.3	56.5	57.4	28.3	46.6
		60대 이상	합계	2,282.5	1,056.0	722.5	122.0	382.0
			평균	47.6	62.1	55.6	20.3	31.8
	남	20/30대	합계	3,806.2	536.5	769.9	1,048.8	1,451.0
			평균	36.6	35.8	30.8	31.8	46.8
		40대	합계	8,351.9	1,431.0	2,483.7	2,509.9	1,927.3
			평균	46.1	43.4	51.7	46.5	41.9
		50대	합계	13,050.0	5,347.0	5,612.0	1,467.0	624.0
			평균	93.9	124.3	107.9	56.4	34.7
		60대 이상	합계	9,738.9	4,497.0	4,014.5	700.9	526.5
			평균	96.4	140.5	108.5	41.2	35.1

공연_사업구분별*성별*구분별 특성 (단위 : 건)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17,771	4,291	5,077	3,857	4,546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417	64	77	83	193
			단체	599	114	135	142	208
		남	개인	243	40	52	47	104
			단체	962	227	237	242	256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신청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개인	53	-	53	-	-
			단체	3,230	796	997	624	813
		남	개인	58	-	58	-	-
			단체	5,562	1,435	1,786	1,013	1,328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328	70	99	87	72
			단체	605	165	132	145	163
		남	개인	248	52	71	71	54
			단체	1,450	439	298	352	361
	예술창작지원	여	개인	339	59	87	89	104
			단체	1,199	270	303	320	306
		남	개인	250	61	72	61	56
			단체	2,228	499	620	581	528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144	26	39	24	55	
		단체	164	30	51	35	48	
	남	개인	80	12	19	19	30	
		단체	275	69	82	61	63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개인	5	-	5	-	-	
		단체	513	77	120	200	116	
	남	개인	5	-	5	-	-	
		단체	841	136	200	277	228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105	32	33	21	19	
		단체	385	99	91	108	87	
	남	개인	68	16	19	18	15	
		단체	988	252	229	273	234	
예술창작지원	여	개인	57	2	20	25	10	
		단체	266	67	63	63	73	
	남	개인	37	8	11	9	9	
		단체	488	115	151	121	101	

공연_사업구분별*성별*구분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17,771	4,291	5,077	3,857	4,546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41.0	36.0	36.3	36.9	48.1
			단체	59.0	64.0	63.7	63.1	51.9
		남	개인	20.2	15.0	18.0	16.3	28.9
			단체	79.8	85.0	82.0	83.7	71.1
	문화예술 향유지원	여	개인	1.6	-	5.0	-	-
			단체	98.4	100.0	95.0	100.0	100.0
		남	개인	1.0	-	3.1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선정	예술인력육성	여	단체	99.0	100.0	96.9	100.0	100.0	
			개인	35.2	29.8	42.9	37.5	30.6	
		남	단체	64.8	70.2	57.1	62.5	69.4	
			개인	14.6	10.6	19.2	16.8	13.0	
	예술창작지원	여	단체	85.4	89.4	80.8	83.2	87.0	
			개인	22.0	17.9	22.3	21.8	25.4	
		남	단체	78.0	82.1	77.7	78.2	74.6	
			개인	10.1	10.9	10.4	9.5	9.6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46.8	46.4	43.3	40.7	53.4	
			단체	53.2	53.6	56.7	59.3	46.6	
		남	개인	22.5	14.8	18.8	23.8	32.3	
단체			77.5	85.2	81.2	76.3	67.7		
문화예술 향유지원	여	개인	1.0	-	4.0	-	-		
		단체	99.0	100.0	96.0	100.0	100.0		
	남	개인	0.6	-	2.4	-	-		
예술인력육성	여	단체	99.4	100.0	97.6	100.0	100.0		
		개인	21.4	24.4	26.6	16.3	17.9		
	남	단체	78.6	75.6	73.4	83.7	82.1		
		개인	6.4	6.0	7.7	6.2	6.0		
예술창작지원	여	단체	93.6	94.0	92.3	93.8	94.0		
		개인	17.6	2.9	24.1	28.4	12.0		
	남	단체	82.4	97.1	75.9	71.6	88.0		
		개인	7.0	6.5	6.8	6.9	8.2		
단체				93.0	93.5	93.2	93.1	91.8	

공연_[선정] 사업구분별*성별*구분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421	941	1,138	1,254	1,088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합계	1,032.8	147.0	280.2	125.4	480.3
			평균	7.2	5.7	7.2	5.2	8.7
		단체	합계	2,971.7	502.9	947.9	539.4	981.5
			평균	18.1	16.8	18.6	15.4	20.4
	남	개인	합계	560.0	91.0	143.4	85.6	240.0
			평균	7.0	7.6	7.5	4.5	8.0
		단체	합계	4,920.9	1,229.0	1,440.7	1,053.3	1,197.9
			평균	17.9	17.8	17.6	17.3	19.0
문화예술 향유지원	여	개인	합계	58.9	-	58.9	-	-
			평균	11.8	-	11.8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단체	합계	12,566.3	2,861.7	2,484.0	3,520.5	3,700.1		
		평균	24.5	37.2	20.7	17.6	31.9		
	남	개인	합계	52.9	-	52.9	-	-	
			평균	10.6	-	10.6	-	-	
		단체	합계	24,013.3	6,851.6	4,456.0	4,412.8	8,292.9	
			평균	28.6	50.4	22.3	15.9	36.4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합계	566.0	239.0	130.0	82.0	115.0	
			평균	5.4	7.5	3.9	3.9	6.1	
		단체	합계	6,526.8	2,054.1	1,372.2	1,578.5	1,522.0	
			평균	17.0	20.7	15.1	14.6	17.5	
	남	개인	합계	414.0	135.0	102.0	87.0	90.0	
			평균	6.1	8.4	5.4	4.8	6.0	
		단체	합계	17,945.8	5,207.0	3,712.9	4,392.0	4,633.9	
			평균	18.2	20.7	16.2	16.1	19.8	
	예술창작지원	여	개인	합계	1,084.0	48.0	290.6	516.9	228.5
				평균	19.0	24.0	14.5	20.7	22.9
			단체	합계	11,098.3	3,409.5	3,087.6	1,916.5	2,684.7
				평균	41.7	50.9	49.0	30.4	36.8
남		개인	합계	601.7	65.0	214.4	203.9	118.4	
			평균	16.3	8.1	19.5	22.7	13.2	
		단체	합계	34,345.3	11,746.5	12,665.7	5,522.7	4,410.4	
			평균	70.4	102.1	83.9	45.6	43.7	

2. 시각예술분야

시각_지원신청자 특성 분석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2,962	788	785	788	601
성	여	1,800	462	471	482	385
	남	1,162	326	314	306	216
연령	20/30대	1,353	345	373	354	281
	40대	718	195	180	188	155
	50대	401	120	105	110	66
	60대 이상	484	127	126	133	98
선정여부	선정	946	255	250	240	201
	비선정	2,016	533	535	548	400
구분	개인	1,851	484	519	481	367
	단체	1,111	304	266	307	234
유형	공연	44	15	9	14	6
	기획	74	17	24	21	12
	축제_페스티벌	55	16	12	11	16
	레지던스	539	111	130	159	139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95	35	18	30	12
	세미나_회의	44	13	11	16	4
	전시	1,286	340	348	317	281
	발간	94	26	25	21	22
	정보화	2	-	-	1	1
	조사연구	454	149	151	128	26
	행사	41	8	8	7	18
	연구	62	18	17	16	11
	강좌	8	4	1	2	1
	기타	164	36	31	45	52
	지역	서울	1,652	468	449	438
경기		440	108	123	112	97
인천		29	10	8	7	4
부산		91	23	34	19	15
대구		44	8	16	12	8
울산		14	2	-	8	4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경북	31	8	8	10	5
	경남	34	8	9	9	8
	광주	97	18	27	30	22
	전북	45	15	11	9	10
	전남	67	20	13	19	15
	대전	32	11	12	5	4
	세종	6	3	2	1	0
	충북	48	11	13	12	12
	충남	49	14	6	13	16
	제주	26	9	4	6	7
	강원	54	16	10	14	14
	전국	47	21	4	9	13
	해외	156	15	36	55	50

시각_지원신청자 특성 분석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2,962	788	785	788	601
성	여	60.8	58.6	60.0	61.2	64.1
	남	39.2	41.4	40.0	38.8	35.9
연령	20/30대	45.8	43.8	47.6	45.1	46.8
	40대	24.3	24.8	23.0	23.9	25.8
	50대	13.6	15.2	13.4	14.0	11.0
	60대 이상	16.4	16.1	16.1	16.9	16.3
선정여부	선정	31.9	32.4	31.8	30.5	33.4
	비선정	68.1	67.6	68.2	69.5	66.6
구분	개인	62.5	61.4	66.1	61.0	61.1
	단체	37.5	38.6	33.9	39.0	38.9
유형	공연	1.5	1.9	1.1	1.8	1.0
	기획	2.5	2.2	3.1	2.7	2.0
	축제_페스티벌	1.9	2.0	1.5	1.4	2.7
	레지던스	18.2	14.1	16.6	20.2	23.1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3.2	4.4	2.3	3.8	2.0
	세미나_회의	1.5	1.6	1.4	2.0	0.7
	전시	43.4	43.1	44.3	40.2	46.8
	발간	3.2	3.3	3.2	2.7	3.7
	정보화	0.1	-	-	0.1	0.2
	조사연구	15.3	18.9	19.2	16.2	4.3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행사	1.4	1.0	1.0	0.9	3.0
	연구	2.1	2.3	2.2	2.0	1.8
	강좌	0.3	0.5	0.1	0.3	0.2
	기타	5.5	4.6	3.9	5.7	8.7
지역	서울	55.8	59.4	57.2	55.6	49.4
	경기	14.9	13.7	15.7	14.2	16.1
	인천	1.0	1.3	1.0	0.9	0.7
	부산	3.1	2.9	4.3	2.4	2.5
	대구	1.5	1.0	2.0	1.5	1.3
	울산	0.5	0.3	-	1.0	0.7
	경북	1.0	1.0	1.0	1.3	0.8
	경남	1.1	1.0	1.1	1.1	1.3
	광주	3.3	2.3	3.4	3.8	3.7
	전북	1.5	1.9	1.4	1.1	1.7
	전남	2.3	2.5	1.7	2.4	2.5
	대전	1.1	1.4	1.5	0.6	0.7
	세종	0.2	0.4	0.3	0.1	-
	충북	1.6	1.4	1.7	1.5	2.0
	충남	1.7	1.8	0.8	1.6	2.7
	제주	0.9	1.1	0.5	0.8	1.2
	강원	1.8	2.0	1.3	1.8	2.3
	전국	1.6	2.7	0.5	1.1	2.2
해외	5.3	1.9	4.6	7.0	8.3	

시각_[지원신청] 사업 특성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2,962	788	785	788	601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해외 레지던스 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554	117	127	166	144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12	-	4	8	-
	한국예술국 제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72	23	22	16	11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34	4	19	11	-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13	2	11	0	-
		국제예술교류지원	659	172	182	159	146
문화예술 향유지원	신나는예술 여행	순회차매칭형	26	-	-	7	19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37	37	-	-	-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7	7	-	-	-
		소규모순회	9	-	-	9	-
예술인력 육성	현장예술인 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319	92	70	85	72
		연수단원정규직고용전환지원	23	-	4	11	8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창작 지원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560	179	176	136	69
		공간지원	227	35	63	68	61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연구지원	124	48	29	31	16
		전시지원	241	72	60	67	42
		전시사전연구지원	45	-	18	14	13

시각_[지원신청] 사업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2,962	788	785	788	601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97.9	100.0	96.9	95.4	100.0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2.1	-	3.1	4.6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9.3	11.4	9.4	8.6	7.0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4.4	2.0	8.1	5.9	-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1.7	1.0	4.7	-	-
	국제예술교류지원	84.7	85.6	77.8	85.5	93.0	
문화예술 향유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차매칭형	32.9	-	-	43.8	100.0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46.8	84.1	-	-	-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8.9	15.9	-	-	-
		소규모순회	11.4	-	-	56.3	-
예술인력 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93.3	100.0	94.6	88.5	90.0
		연수단원정규직고용전환지원	6.7	-	5.4	11.5	10.0
	차세대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술창작 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35.6	22.6	37.1	37.8	46.2
		비평연구지원	19.5	31.0	17.1	17.2	12.1
		전시지원	37.8	46.5	35.3	37.2	31.8
		전시사전연구지원	7.1	-	10.6	7.8	9.8

시각_선정자 특성 분석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성	여	576	148	146	152	130
	남	370	107	104	88	71
연령	20/30대	293	67	73	78	75
	40대	294	76	78	77	63
	50대	154	51	38	39	26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구분	60대 이상	205	61	61	46	37
	개인	452	119	121	117	95
	단체	494	136	129	123	106
유형	공연	12	4	3	3	2
	기획	37	6	15	12	4
	축제_페스티벌	13	1	4	5	3
	레지던스	192	42	41	56	53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58	21	12	17	8
	세미나_회의	19	7	5	4	3
	전시	399	122	113	86	78
	발간	34	7	10	9	8
	정보화	1	-	-	1	-
	조사연구	57	21	17	12	7
	행사	18	3	2	5	8
	연구	20	6	5	7	2
	기타	86	15	23	23	25
지역	서울	487	132	126	121	108
	경기	194	50	59	51	34
	인천	10	4	2	2	2
	부산	29	7	11	4	7
	대구	15	3	3	6	3
	울산	1	-	-	1	-
	경북	15	4	4	4	3
	경남	9	3	3	2	1
	광주	29	7	8	7	7
	전북	20	8	6	4	2
	전남	20	6	4	6	4
	대전	4	3	-	-	1
	세종	1	-	-	1	-
	충북	28	8	8	7	5
	충남	14	3	3	4	4
	제주	9	4	1	1	3
	강원	12	3	4	4	1
전국	19	7	3	3	6	
해외	30	3	5	12	10	

시각_선정자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성	여	60.9	58.0	58.4	63.3	64.7
	남	39.1	42.0	41.6	36.7	35.3
연령	20/30대	31.0	26.3	29.2	32.5	37.3
	40대	31.1	29.8	31.2	32.1	31.3
	50대	16.3	20.0	15.2	16.3	12.9
	60대 이상	21.7	23.9	24.4	19.2	18.4
구분	개인	47.8	46.7	48.4	48.8	47.3
	단체	52.2	53.3	51.6	51.3	52.7
유형	공연	1.3	1.6	1.2	1.3	1.0
	기획	3.9	2.4	6.0	5.0	2.0
	축제_페스티벌	1.4	0.4	1.6	2.1	1.5
	레지던스	20.3	16.5	16.4	23.3	26.4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6.1	8.2	4.8	7.1	4.0
	세미나_회의	2.0	2.7	2.0	1.7	1.5
	전시	42.2	47.8	45.2	35.8	38.8
	발간	3.6	2.7	4.0	3.8	4.0
	정보화	0.1	-	-	0.4	0.0
	조사연구	6.0	8.2	6.8	5.0	3.5
	행사	1.9	1.2	0.8	2.1	4.0
	연구	2.1	2.4	2.0	2.9	1.0
	기타	9.1	5.9	9.2	9.6	12.4
	지역	서울	51.5	51.8	50.4	50.4
경기		20.5	19.6	23.6	21.3	16.9
인천		1.1	1.6	0.8	0.8	1.0
부산		3.1	2.7	4.4	1.7	3.5
대구		1.6	1.2	1.2	2.5	1.5
울산		0.1	-	-	0.4	0.0
경북		1.6	1.6	1.6	1.7	1.5
경남		1.0	1.2	1.2	0.8	0.5
광주		3.1	2.7	3.2	2.9	3.5
전북		2.1	3.1	2.4	1.7	1.0
전남		2.1	2.4	1.6	2.5	2.0
대전		0.4	1.2	-	-	0.5
세종		0.1	-	-	0.4	-
충북		3.0	3.1	3.2	2.9	2.5
충남		1.5	1.2	1.2	1.7	2.0
제주		1.0	1.6	0.4	0.4	1.5
강원		1.3	1.2	1.6	1.7	0.5
전국		2.0	2.7	1.2	1.3	3.0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해외	3.2	1.2	2.0	5.0	5.0

시각_[선정] 사업구분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국제교류지원	합계	4,250.0	1,027.9	1,375.1	883.1	963.9
	평균	10.9	10.4	13.0	8.5	11.8
예술인력육성	합계	3,817.3	886.6	986.3	990.8	953.6
	평균	13.3	11.8	11.9	14.0	16.2
예술창작지원	합계	6,722.7	1,765.0	1,814.7	1,682.0	1,461.0
	평균	27.8	23.9	29.7	29.5	29.2
문화예술향유지원	합계	142.9	29.6	-	70.3	43.0
	평균	5.7	4.2	-	8.8	4.3

시각_[선정] 세부사업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국제예술교류지원	합계	2,222.0	554.1	632.0	547.9	488.0
	평균	14.2	13.2	12.9	14.4	18.1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합계	175.6	0.0	88.0	72.0	15.6
	평균	3.4	0.0	4.9	7.2	2.0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합계	1,043.6	280.8	233.1	222.8	306.9
	평균	5.4	6.4	5.8	3.9	5.8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합계	3,593.6	886.6	884.0	885.0	938.0
	평균	15.8	14.8	14.3	16.4	18.4
전시지원	합계	2,393.7	666.0	714.7	620.0	393.0
	평균	42.0	25.6	51.0	62.0	56.1
공간지원	합계	3,838.0	975.0	970.0	925.0	968.0
	평균	32.8	29.5	34.6	33.0	34.6
비평연구지원	합계	401.0	124.0	100.0	107.0	70.0
	평균	8.0	8.3	7.7	8.2	7.8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합계	616.4	63.0	336.0	48.4	169.0
	평균	34.2	9.0	84.0	9.7	84.5
전시사건연구지원	합계	90.0	-	30.0	30.0	30.0
	평균	5.0	-	5.0	5.0	5.0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합계	24.9	24.9	-	-	-
	평균	4.2	4.2	-	-	-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합계	123.0	80.0	43.0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순회처매칭형	평균	13.7	20.0	8.6	-	-
	합계	54.8	-	-	11.8	43.0
	평균	4.2	-	-	3.9	4.3
연수단원정규직고용전환지원	합계	48.1	-	14.3	33.8	-
	평균	4.8	-	4.8	4.8	-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합계	146.0	50.0	96.0	-	-
	평균	16.2	25.0	13.7	-	-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합계	99.0	-	35.0	64.0	-
	평균	19.8	-	35.0	16.0	-
소규모순회	합계	58.5	-	-	58.5	-
	평균	11.7	-	-	11.7	-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합계	4.7	4.7	-	-	-
	평균	4.7	4.7	-	-	-

시각_[선정] 사업구분별*세부사업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해외 레지던스지원	합계	1,142.6	280.8	268.1	286.8	306.9
		평균	5.7	6.4	6.5	4.7	5.8
	한국예술국제 교류지원	합계	3,107.4	747.1	1,107.0	596.3	657.0
		평균	16.2	13.6	17.0	13.9	22.7
문화예술 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합계	142.9	29.6	-	70.3	43.0
		평균	5.7	4.2	-	8.8	4.3
예술인력 육성	현장예술 인력육성	합계	3,641.7	886.6	898.3	918.8	938.0
		평균	15.4	14.8	13.8	15.1	18.4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합계	175.6	-	88.0	72.0	15.6
		평균	3.4	-	4.9	7.2	2.0
예술창작 지원	시각예술 창작산실	합계	6,722.7	1,765.0	1,814.7	1,682.0	1,461.0
		평균	27.8	23.9	29.7	29.5	29.2

시각_[선정] 세부사업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국제교류 지원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합계	1,043.6	280.8	233.1	222.8	306.9
		평균	5.4	6.4	5.8	3.9	5.8
	국제예술공동 기금사업	합계	616.4	63.0	336.0	48.4	169.0
		평균	34.2	9.0	84.0	9.7	84.5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국제교류기획 리서치지원	합계	123.0	80.0	43.0	-	-
		평균	13.7	20.0	8.6	-	-
	국제주요플랫폼 진출지원	합계	146.0	50.0	96.0	-	-
		평균	16.2	25.0	13.7	-	-
	국제예술 교류지원	합계	2,222.0	554.1	632.0	547.9	488.0
		평균	14.2	13.2	12.9	14.4	18.1
	아르코국제레지 던스개최지원	합계	99.0	-	35.0	64.0	-
		평균	19.8	-	35.0	16.0	-
문화예술 향유지원	순회차매청형	합계	54.8	-	-	11.8	43.0
		평균	4.2	-	-	3.9	4.3
	대상자맞춤형 프로그램	합계	24.9	24.9	-	-	-
		평균	4.2	4.2	-	-	-
	대상자발굴형 프로그램	합계	4.7	4.7	-	-	-
		평균	4.7	4.7	-	-	-
	소규모순회	합계	58.5	-	-	58.5	-
		평균	11.7	-	-	11.7	-
예술인력 육성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합계	175.6	-	88.0	72.0	15.6
		평균	3.4	-	4.9	7.2	2.0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	합계	3,593.6	886.6	884.0	885.0	938.0
		평균	15.8	14.8	14.3	16.4	18.4
	연수단원정규직 고용전환지원	합계	48.1	-	14.3	33.8	-
		평균	4.8	-	4.8	4.8	-
예술창작 지원	공간지원	합계	3,838.0	975.0	970.0	925.0	968.0
		평균	32.8	29.5	34.6	33.0	34.6
	비평연구지원	합계	401.0	124.0	100.0	107.0	70.0
		평균	8.0	8.3	7.7	8.2	7.8
	전시지원	합계	2,393.7	666.0	714.7	620.0	393.0
		평균	42.0	25.6	51.0	62.0	56.1
	전시사전 연구지원	합계	90.0	-	30.0	30.0	30.0
		평균	5.0	-	5.0	5.0	5.0

시각_[선정] 사업구분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국제교류지원	합계	4,250.0	1,027.9	1,375.1	883.1	963.9
	평균	10.9	10.4	13.0	8.5	11.8
문화예술향유지원	합계	142.9	29.6	-	70.3	43.0
	평균	5.7	4.2	-	8.8	4.3
예술인력육성	합계	3,817.3	886.6	986.3	990.8	953.6
	평균	13.3	11.8	11.9	14.0	16.2
예술창작지원	합계	6,722.7	1,765.0	1,814.7	1,682.0	1,461.0
	평균	27.8	23.9	29.7	29.5	29.2

시각_사업구분별 성비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2,962	788	785	788	601
	국제교류지원	여	63.0	57.2	63.0	63.6	68.4
		남	37.0	42.8	37.0	36.4	31.6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62.0	56.8	-	62.5	73.7
		남	38.0	43.2	-	37.5	26.3
	예술인력육성	여	59.4	59.8	59.2	60.8	57.0
		남	40.6	40.2	40.8	39.2	43.0
	예술창작지원	여	57.8	60.0	54.7	56.7	60.6
		남	42.2	40.0	45.3	43.3	39.4
	선정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국제교류지원		여	66.2	60.6	63.2	70.2	72.0
		남	33.8	39.4	36.8	29.8	28.0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72.0	57.1	-	62.5	90.0
		남	28.0	42.9	-	37.5	10.0
예술인력육성		여	52.4	50.7	47.0	60.6	52.5
		남	47.6	49.3	53.0	39.4	47.5
예술창작지원		여	61.2	62.2	65.6	54.4	62.0
		남	38.8	37.8	34.4	45.6	38.0

시각_[선정] 사업구분별*성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국제교류지원	여	합계	2,697.3	601.3	796.7	630.5	668.8
		평균	10.4	10.0	11.9	8.6	11.3
	남	합계	1,552.7	426.6	578.4	252.6	295.1
		평균	11.8	10.9	14.8	8.1	12.8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합계	89.5	16.7	-	35.3	37.5
		평균	5.0	4.2	-	7.1	4.2
	남	합계	53.4	12.9	-	35.0	5.5
		평균	7.6	4.3	-	11.7	5.5
예술인력육성	여	합계	2,005.6	386.1	490.2	593.3	536.0
		평균	13.3	10.2	12.6	13.8	17.3
	남	합계	1,811.7	500.5	496.1	397.5	417.6
		평균	13.2	13.5	11.3	14.2	14.9
예술창작지원	여	합계	4,306.7	1,032.0	1,316.7	1,031.0	927.0
		평균	29.1	22.4	32.9	33.3	29.9
	남	합계	2,416.0	733.0	498.0	651.0	534.0
		평균	25.7	26.2	23.7	25.0	28.1

시각_사업구분별*연령별 특성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2,962	788	785	788	601
	국제교류지원	20/30대	601	121	148	168	164
		40대	446	120	124	112	90
		50대	151	41	48	37	25
		60대 이상	144	36	45	42	21
	문화예술향유지원	20/30대	16	4	-	7	5
		40대	25	10	-	5	10
		50대	25	19	-	4	2
		60대 이상	13	11	-	-	2
	예술인력육성	20/30대	580	182	181	143	74
		40대	67	16	14	21	16
		50대	89	25	18	25	21
		60대 이상	163	47	36	42	38
	예술창작지원	20/30대	156	38	44	36	38
		40대	180	49	42	50	39
		50대	136	35	39	44	18
60대 이상		164	33	45	49	37	
선정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국제교류지원	20/30대	178	40	39	52	47
		40대	150	36	47	40	27
		50대	36	13	7	9	7
		60대 이상	27	10	13	3	1
	문화예술향유지원	20/30대	7	1	-	4	2
		40대	10	2	-	2	6
		50대	6	3	-	2	1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인력육성	60대 이상	2	1	-	-	1
	20/30대	61	16	21	12	12
	40대	56	11	14	19	12
	50대	60	16	16	15	13
	60대 이상	111	32	32	25	22
예술창작지원	20/30대	47	10	13	10	14
	40대	78	27	17	16	18
	50대	52	19	15	13	5
	60대 이상	65	18	16	18	13

시각_사업구분별*연령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2,962	788	785	788	601
	국제교류지원	20/30대	44.8	38.1	40.5	46.8	54.7
		40대	33.2	37.7	34.0	31.2	30.0
		50대	11.3	12.9	13.2	10.3	8.3
		60대 이상	10.7	11.3	12.3	11.7	7.0
	문화예술 향유지원	20/30대	20.3	9.1	-	43.8	26.3
		40대	31.6	22.7	-	31.3	52.6
		50대	31.6	43.2	-	25.0	10.5
		60대 이상	16.5	25.0	-	-	10.5
	예술인력육성	20/30대	64.5	67.4	72.7	61.9	49.7
		40대	7.5	5.9	5.6	9.1	10.7
		50대	9.9	9.3	7.2	10.8	14.1
		60대 이상	18.1	17.4	14.5	18.2	25.5
	예술창작지원	20/30대	24.5	24.5	25.9	20.1	28.8
		40대	28.3	31.6	24.7	27.9	29.5
		50대	21.4	22.6	22.9	24.6	13.6
60대 이상		25.8	21.3	26.5	27.4	28.0	
선정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국제교류지원	20/30대	45.5	40.4	36.8	50.0	57.3
		40대	38.4	36.4	44.3	38.5	32.9
		50대	9.2	13.1	6.6	8.7	8.5
		60대 이상	6.9	10.1	12.3	2.9	1.2
	문화예술 향유지원	20/30대	28.0	14.3	-	50.0	20.0
		40대	40.0	28.6	-	25.0	60.0
		50대	24.0	42.9	-	25.0	10.0
		60대 이상	8.0	14.3	-	-	-
	예술인력육성	20/30대	21.2	21.3	25.3	16.9	20.3
		40대	19.4	14.7	16.9	26.8	20.3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창작지원	50대	50대	20.8	21.3	19.3	21.1	22.0
		60대 이상	38.5	42.7	38.6	35.2	37.3
	20/30대	20/30대	19.4	13.5	21.3	17.5	28.0
		40대	32.2	36.5	27.9	28.1	36.0
		50대	21.5	25.7	24.6	22.8	10.0
		60대 이상	26.9	24.3	26.2	31.6	26.0

시각_[선정] 사업구분별*연령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국제교류지원	20/30대	합계	1,276.9	345.2	301.8	273.8	356.0	
		평균	7.2	8.6	7.7	5.3	7.6	
	40대	합계	1,885.2	368.6	672.3	431.4	412.9	
		평균	12.6	10.2	14.3	10.8	15.3	
	50대	합계	719.9	183.0	239.0	133.9	164.0	
		평균	20.0	14.1	34.1	14.9	23.4	
	60대 이상	합계	368.0	131.0	162.0	44.0	31.0	
		평균	13.6	13.1	12.5	14.7	31.0	
	문화예술향유 지원	20/30대	합계	47.7	4.0	-	38.6	5.1
			평균	6.8	4.0	-	9.7	2.6
40대		합계	51.0	9.4	-	14.8	26.8	
		평균	5.1	4.7	-	7.4	4.5	
50대		합계	34.0	11.5	-	16.9	5.6	
		평균	5.7	3.8	-	8.5	5.6	
60대 이상		합계	10.2	4.7	-	-	5.5	
		평균	5.1	4.7	-	-	5.5	
예술인력육성		20/30대	합계	322.9	14.3	127.0	102.0	79.6
			평균	5.3	0.9	6.0	8.5	6.6
	40대	합계	799.2	157.3	174.4	259.5	208.0	
		평균	14.3	14.3	12.5	13.7	17.3	
	50대	합계	961.1	243.1	238.1	229.9	250.0	
		평균	16.0	15.2	14.9	15.3	19.2	
	60대 이상	합계	1,734.2	471.9	446.8	399.5	416.0	
		평균	15.6	14.7	14.0	16.0	18.9	
	예술창작지원	20/30대	합계	1,234.9	195.0	348.9	275.0	416.0
			평균	26.3	19.5	26.8	27.5	29.7
40대		합계	2,151.7	532.0	622.7	512.0	485.0	
		평균	27.6	19.7	36.6	32.0	26.9	
50대		합계	1,548.0	560.0	359.0	414.0	215.0	
		평균	29.8	29.5	23.9	31.8	43.0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60대 이상	합계		1,788.0	478.0	484.0	481.0	345.0
	평균		27.5	26.6	30.3	26.7	26.5

시각_사업구분별*성별*연령별 특성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2,962	788	785	788	601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456	90	115	123	128
			40대	276	65	84	69	58
			50대	78	19	22	22	15
			60대 이상	36	8	9	14	5
		남	20/30대	145	31	33	45	36
			40대	170	55	40	43	32
			50대	73	22	26	15	10
			60대 이상	108	28	36	28	16
	문화예술 향유지원	여	20/30대	9	4	-	1	4
			40대	18	6	-	5	7
			50대	18	12	-	4	2
			60대 이상	4	3	-	-	1
		남	20/30대	7	-	-	6	1
			40대	7	4	-	-	3
			50대	7	7	-	-	-
			60대 이상	9	8	-	-	1
	예술인력육성	여	20/30대	380	122	113	96	49
			40대	44	10	9	13	12
			50대	42	10	8	15	9
60대 이상			68	19	17	17	15	
남		20/30대	200	60	68	47	25	
		40대	23	6	5	8	4	
		50대	47	15	10	10	12	
		60대 이상	95	28	19	25	23	
예술창작지원	여	20/30대	126	31	36	29	30	
		40대	111	29	26	30	26	
		50대	58	17	13	21	7	
		60대 이상	72	16	18	21	17	
	남	20/30대	30	7	8	7	8	
		40대	69	20	16	20	13	
		50대	78	18	26	23	11	
		60대 이상	92	17	27	28	20	
선정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137	31	29	39	38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40대	98	24	31	26	17	
		50대	17	5	2	6	4	
		60대 이상	7	-	5	2	-	
	남	20/30대	41	9	10	13	9	
		40대	52	12	16	14	10	
		50대	19	8	5	3	3	
		60대 이상	20	10	8	1	1	
		여	20/30대	4	1	-	1	2
			40대	9	1	-	2	6
50대	5		2	-	2	1		
문화예술 향유지원	남	20/30대	3	-	-	3	-	
		40대	1	1	-	-	-	
		50대	1	1	-	-	-	
	여	60대 이상	2	1	-	-	1	
		20/30대	37	12	9	9	7	
		40대	37	6	9	13	9	
예술인력육성	여	50대	28	8	6	9	5	
		60대 이상	49	12	15	12	10	
		20/30대	24	4	12	3	5	
	남	40대	19	5	5	6	3	
		50대	32	8	10	6	8	
		60대 이상	62	20	17	13	12	
		여	20/30대	39	9	12	7	11
40대	53		18	14	10	11		
50대	19		9	4	5	1		
60대 이상	37		10	10	9	8		
예술창작지원	남	20/30대	8	1	1	3	3	
		40대	25	9	3	6	7	
		50대	33	10	11	8	4	
	여	60대 이상	28	8	6	9	5	

시각_사업구분별*성별*연령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2,962	788	785	788	601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53.9	49.5	50.0	53.9	62.1
			40대	32.6	35.7	36.5	30.3	28.2
		남	50대	9.2	10.4	9.6	9.6	7.3
			60대 이상	4.3	4.4	3.9	6.1	2.4
			20/30대	29.2	22.8	24.4	34.4	38.3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문화예술 향유지원		40대	34.3	40.4	29.6	32.8	34.0	
		50대	14.7	16.2	19.3	11.5	10.6	
		60대 이상	21.8	20.6	26.7	21.4	17.0	
	여	20/30대	18.4	16.0	-	10.0	28.6	
		40대	36.7	24.0	-	50.0	50.0	
		50대	36.7	48.0	-	40.0	14.3	
		60대 이상	8.2	12.0	-	-	7.1	
		남	20/30대	23.3	-	-	100.0	20.0
			40대	23.3	21.1	-	-	60.0
	50대		23.3	36.8	-	-	-	
	예술인력육성	여	20/30대	71.2	75.8	76.9	68.1	57.6
			40대	8.2	6.2	6.1	9.2	14.1
50대			7.9	6.2	5.4	10.6	10.6	
60대 이상			12.7	11.8	11.6	12.1	17.6	
남		20/30대	54.8	55.0	66.7	52.2	39.1	
		40대	6.3	5.5	4.9	8.9	6.3	
		50대	12.9	13.8	9.8	11.1	18.8	
		60대 이상	26.0	25.7	18.6	27.8	35.9	
예술창작지원		여	20/30대	34.3	33.3	38.7	28.7	37.5
			40대	30.2	31.2	28.0	29.7	32.5
			50대	15.8	18.3	14.0	20.8	8.8
			60대 이상	19.6	17.2	19.4	20.8	21.3
	남	20/30대	11.2	11.3	10.4	9.0	15.4	
		40대	25.7	32.3	20.8	25.6	25.0	
		50대	29.0	29.0	33.8	29.5	21.2	
		60대 이상	34.2	27.4	35.1	35.9	38.5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선정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52.9	51.7	43.3	53.4	64.4
			40대	37.8	40.0	46.3	35.6	28.8
			50대	6.6	8.3	3.0	8.2	6.8
			60대 이상	2.7	-	7.5	2.7	-
	남	20/30대	31.1	23.1	25.6	41.9	39.1	
		40대	39.4	30.8	41.0	45.2	43.5	
		50대	14.4	20.5	12.8	9.7	13.0	
		60대 이상	15.2	25.6	20.5	3.2	4.3	
	문화예술 향유지원	여	20/30대	22.2	25.0	-	20.0	22.2
			40대	50.0	25.0	-	40.0	66.7
			50대	27.8	50.0	-	40.0	11.1
		남	20/30대	42.9	-	-	100.0	-
40대	14.3	33.3	-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인력육성		50대	14.3	33.3	-	-	-	
		60대 이상	28.6	33.3	-	-	100.0	
	여	20/30대	24.5	31.6	23.1	20.9	22.6	
		40대	24.5	15.8	23.1	30.2	29.0	
		50대	18.5	21.1	15.4	20.9	16.1	
		60대 이상	32.5	31.6	38.5	27.9	32.3	
	남	20/30대	17.5	10.8	27.3	10.7	17.9	
		40대	13.9	13.5	11.4	21.4	10.7	
		50대	23.4	21.6	22.7	21.4	28.6	
		60대 이상	45.3	54.1	38.6	46.4	42.9	
	예술창작지원	여	20/30대	26.4	19.6	30.0	22.6	35.5
			40대	35.8	39.1	35.0	32.3	35.5
50대			12.8	19.6	10.0	16.1	3.2	
60대 이상			25.0	21.7	25.0	29.0	25.8	
남		20/30대	8.5	3.6	4.8	11.5	15.8	
		40대	26.6	32.1	14.3	23.1	36.8	
		50대	35.1	35.7	52.4	30.8	21.1	
		60대 이상	29.8	28.6	28.6	34.6	26.3	

시각_[선정] 사업구분별*성별*연령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합계	946.5	258.3	209.9	199.7	278.6
			평균	6.9	8.3	7.2	5.1	7.3
		40대	합계	1,340.6	236.0	496.8	313.6	294.2
			평균	13.7	9.8	16.0	12.1	17.3
		50대	합계	355.2	107.0	55.0	97.2	96.0
			평균	20.9	21.4	27.5	16.2	24.0
		60대 이상	합계	55.0	-	35.0	20.0	-
			평균	7.9	-	7.0	10.0	-
	남	20/30대	합계	330.3	87.0	91.9	74.1	77.4
			평균	8.1	9.7	9.2	5.7	8.6
		40대	합계	544.6	132.6	175.5	117.8	118.7
			평균	10.5	11.1	11.0	8.4	11.9
		50대	합계	364.7	76.0	184.0	36.7	68.0
			평균	19.2	9.5	36.8	12.2	22.7
60대 이상		합계	313.0	131.0	127.0	24.0	31.0	
		평균	15.7	13.1	15.9	24.0	31.0	
문화예술 향유지원	여	20/30대	합계	12.7	4.0	-	3.6	5.1
			평균	3.2	4.0	-	3.6	2.6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인력육성	40대	합계	46.3	4.7	-	14.8	26.8		
		평균	5.1	4.7	-	7.4	4.5		
		50대	합계	30.5	8.0	-	16.9	5.6	
			평균	6.1	4.0	-	8.5	5.6	
	남	20/30대	합계	35.0	-	-	35.0	-	
			평균	11.7	-	-	11.7	-	
		40대	합계	4.7	4.7	-	-	-	
			평균	4.7	4.7	-	-	-	
		50대	합계	3.5	3.5	-	-	-	
			평균	3.5	3.5	-	-	-	
		60대 이상	합계	10.2	4.7	-	-	5.5	
			평균	5.1	4.7	-	-	5.5	
	예술인력육성	여	20/30대	합계	204.0	0.0	64.0	84.0	56.0
				평균	5.5	0.0	7.1	9.3	8.0
40대			합계	551.2	85.8	109.4	180.0	176.0	
			평균	14.9	14.3	12.2	13.8	19.6	
50대			합계	484.6	128.7	104.0	139.9	112.0	
			평균	17.3	16.1	17.3	15.5	22.4	
60대 이상			합계	765.9	171.6	212.8	189.5	192.0	
			평균	15.6	14.3	14.2	15.8	19.2	
남		20/30대	합계	118.9	14.3	63.0	18.0	23.6	
			평균	5.0	3.6	5.3	6.0	4.7	
		40대	합계	248.0	71.5	65.0	79.5	32.0	
			평균	13.1	14.3	13.0	13.3	10.7	
		50대	합계	476.5	114.4	134.1	90.0	138.0	
			평균	14.9	14.3	13.4	15.0	17.3	
60대 이상	합계	968.3	300.3	234.0	210.0	224.0			
평균	15.6	15.0	13.8	16.2	18.7				
예술창작지원	여	20/30대	합계	1,089.9	185.0	341.9	213.0	350.0	
			평균	27.9	20.6	28.5	30.4	31.8	
		40대	합계	1,646.7	344.0	585.7	387.0	330.0	
			평균	31.1	19.1	41.8	38.7	30.0	
		50대	합계	510.0	195.0	110.0	175.0	30.0	
			평균	26.8	21.7	27.5	35.0	30.0	
		60대 이상	합계	1,060.0	308.0	279.0	256.0	217.0	
			평균	28.6	30.8	27.9	28.4	27.1	
	남	20/30대	합계	145.0	10.0	7.0	62.0	66.0	
			평균	18.1	10.0	7.0	20.7	22.0	
		40대	합계	505.0	188.0	37.0	125.0	155.0	
			평균	20.2	20.9	12.3	20.8	22.1	
		50대	합계	1,038.0	365.0	249.0	239.0	185.0	
			평균	31.5	36.5	22.6	29.9	46.3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60대 이상	합계			728.0	170.0	205.0	225.0	128.0
	평균			26.0	21.3	34.2	25.0	25.6

시각_사업구분별*성별*구분별 특성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2,962	788	785	788	601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682	146	188	181	167
			단체	165	36	42	48	39
		남	개인	327	80	87	94	66
			단체	170	56	48	37	29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단체	49	25	-	10	14
		남	단체	30	19	-	6	5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371	122	112	91	46
			단체	165	40	36	50	39
		남	개인	189	57	64	45	23
			단체	177	52	38	46	41
	예술창작지원	여	개인	188	52	46	48	42
			단체	180	41	47	54	38
		남	개인	94	27	22	22	23
			단체	175	35	55	56	29
	선정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220	54	52	61	53
			단체	39	6	15	12	6
		남	개인	94	25	27	26	16
			단체	38	14	12	5	7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단체	18	4	-	5	9
		남	단체	7	3	-	3	1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30	12	7	7	4
			단체	121	26	32	36	27
		남	개인	21	3	11	3	4
			단체	116	34	33	25	24
예술창작지원		여	개인	58	19	17	10	12
			단체	90	27	23	21	19
		남	개인	29	6	7	10	6
			단체	65	22	14	16	13

시각_사업구분별*성별*구분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응답자수			2,962	788	785	788	601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신청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80.5	80.2	81.7	79.0	81.1
			단체	19.5	19.8	18.3	21.0	18.9
		남	개인	65.8	58.8	64.4	71.8	69.5
			단체	34.2	41.2	35.6	28.2	30.5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단체	100.0	100.0	-	100.0	100.0
		남	단체	100.0	100.0	-	100.0	100.0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69.2	75.3	75.7	64.5	54.1
			단체	30.8	24.7	24.3	35.5	45.9
		남	개인	51.6	52.3	62.7	49.5	35.9
			단체	48.4	47.7	37.3	50.5	64.1
	예술창작지원	여	개인	51.1	55.9	49.5	47.1	52.5
			단체	48.9	44.1	50.5	52.9	47.5
남		개인	34.9	43.5	28.6	28.2	44.2	
		단체	65.1	56.5	71.4	71.8	55.8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선정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84.9	90.0	77.6	83.6	89.8
			단체	15.1	10.0	22.4	16.4	10.2
		남	개인	71.2	64.1	69.2	83.9	69.6
			단체	28.8	35.9	30.8	16.1	30.4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단체	100.0	100.0	-	100.0	100.0
		남	단체	100.0	100.0	-	100.0	100.0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19.9	31.6	17.9	16.3	12.9
			단체	80.1	68.4	82.1	83.7	87.1
		남	개인	15.3	8.1	25.0	10.7	14.3
			단체	84.7	91.9	75.0	89.3	85.7
	예술창작지원	여	개인	39.2	41.3	42.5	32.3	38.7
			단체	60.8	58.7	57.5	67.7	61.3
남		개인	30.9	21.4	33.3	38.5	31.6	
		단체	69.1	78.6	66.7	61.5	68.4	

시각_사업구분별*성별*구분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946	255	250	240	201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합계	1,827.5	530.3	405.7	481.7	409.8
			평균	8.3	9.8	7.8	7.9	7.7
		단체	합계	869.8	71.0	391.0	148.8	259.0
			평균	22.3	11.8	26.1	12.4	43.2
	남	개인	합계	894.7	262.6	345.4	156.6	130.1
			평균	9.5	10.5	12.8	6.0	8.1
		단체	합계	658.0	164.0	233.0	96.0	165.0
			평균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문화예술 향유지원	여	단체	평균	17.3	11.7	19.4	19.2	23.6
			합계	89.5	16.7	-	35.3	37.5
			평균	5.0	4.2	-	7.1	4.2
	남	단체	합계	53.4	12.9	-	35.0	5.5
			평균	7.6	4.3	-	11.7	5.5
			합계	100.0	-	38.0	54.0	8.0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평균	3.3	-	5.4	7.7	2.0
			합계	1,905.6	386.1	452.2	539.3	528.0
			평균	15.7	14.9	14.1	15.0	19.6
	남	개인	합계	75.6	-	50.0	18.0	7.6
			평균	3.6	-	4.5	6.0	1.9
			합계	1,736.1	500.5	446.1	379.5	410.0
	단체	평균	15.0	14.7	13.5	15.2	17.1	
		합계	1,643.9	364.0	527.9	400.0	352.0	
		평균	28.3	19.2	31.1	40.0	29.3	
예술창작지원	여	단체	합계	2,662.7	668.0	788.7	631.0	575.0
			평균	29.6	24.7	34.3	30.0	30.3
			합계	544.0	117.0	94.0	225.0	108.0
	남	개인	평균	18.8	19.5	13.4	22.5	18.0
			합계	1,872.0	616.0	404.0	426.0	426.0
			평균	28.8	28.0	28.9	26.6	32.8

3. 문학분야

문학_지원신청자 특성 분석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154	194	222	2,045	1,693
성	여	2,244	79	103	1,133	929
	남	1,910	115	119	912	764
연령	20/30대	436	62	64	151	159
	40대	768	29	42	365	332
	50대	1,532	34	41	784	673
	60대 이상	1,396	68	75	730	523
선정여부	선정	532	57	79	206	190
	비선정	3,622	137	143	1,839	1,503
구분	개인	3,578	77	102	1,881	1,518
	단체	576	117	120	164	175
유형	공연	124	36	33	28	27
	기획	17	3	3	10	1
	축제_페스티벌	25	4	9	7	5
	레지던스	177	35	60	34	48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21	8	5	2	6
	세미나_회의	67	7	10	22	28
	경연대회	1	-	-	-	1
	전시	46	-	1	28	17
	발간	3,382	32	44	1,813	1,493
	조사연구	104	34	26	33	11
	행사	48	9	7	14	18
	연구	18	7	1	6	4
	강좌	35	8	8	11	8
기타	89	11	15	37	26	
지역	서울	1,505	72	66	850	517
	경기	695	6	18	357	314
	인천	97	1	2	41	53
	부산	204	5	1	91	107
	대구	158	3	3	85	67
	울산	53	-	1	18	34
	경북	130	3	3	58	66
	경남	149	4	7	68	70
	광주	116	2	-	62	52
	전북	125	3	7	54	61
	전남	113	7	4	56	46
	대전	86	2	4	39	41
	세종	22	1	-	7	14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충북	90	4	2	48	36
	충남	82	1	6	37	38
	제주	29	-	1	11	17
	강원	115	6	4	48	57
	전국	168	37	23	65	43
	해외	217	37	70	50	60

문학_지원신청자 특성 분석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154	194	222	2,045	1,693
성	여	54.0	40.7	46.4	55.4	54.9
	남	46.0	59.3	53.6	44.6	45.1
연령	20/30대	10.6	32.1	28.8	7.4	9.4
	40대	18.6	15.0	18.9	18.0	19.7
	50대	37.1	17.6	18.5	38.6	39.9
	60대 이상	33.8	35.2	33.8	36.0	31.0
선정여부	선정	12.8	29.4	35.6	10.1	11.2
	비선정	87.2	70.6	64.4	89.9	88.8
구분	개인	86.1	39.7	45.9	92.0	89.7
	단체	13.9	60.3	54.1	8.0	10.3
유형	공연	3.0	18.6	14.9	1.4	1.6
	기획	0.4	1.5	1.4	0.5	0.1
	축제_페스티벌	0.6	2.1	4.1	0.3	0.3
	레지던스	4.3	18.0	27.0	1.7	2.8
	연수등_교육프로그램	0.5	4.1	2.3	0.1	0.4
	세미나_회의	1.6	3.6	4.5	1.1	1.7
	경연대회	-	-	-	-	0.1
	전시	1.1	-	0.5	1.4	1.0
	발간	81.4	16.5	19.8	88.7	88.2
	조사연구	2.5	17.5	11.7	1.6	0.6
	행사	1.2	4.6	3.2	0.7	1.1
	연구	0.4	3.6	0.5	0.3	0.2
	강좌	0.8	4.1	3.6	0.5	0.5
	기타	2.1	5.7	6.8	1.8	1.5
지역	서울	36.2	37.1	29.7	41.6	30.5
	경기	16.7	3.1	8.1	17.5	18.5
	인천	2.3	0.5	0.9	2.0	3.1
	부산	4.9	2.6	0.5	4.4	6.3
	대구	3.8	1.5	1.4	4.2	4.0
	울산	1.3	-	0.5	0.9	2.0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경북	3.1	1.5	1.4	2.8	3.9
	경남	3.6	2.1	3.2	3.3	4.1
	광주	2.8	1.0	0.0	3.0	3.1
	전북	3.0	1.5	3.2	2.6	3.6
	전남	2.7	3.6	1.8	2.7	2.7
	대전	2.1	1.0	1.8	1.9	2.4
	세종	0.5	0.5	-	0.3	0.8
	충북	2.2	2.1	0.9	2.3	2.1
	충남	2.0	0.5	2.7	1.8	2.2
	제주	0.7	-	0.5	0.5	1.0
	강원	2.8	3.1	1.8	2.3	3.4
	전국	4.0	19.1	10.4	3.2	2.5
해외	5.2	19.1	31.5	2.4	3.5	

문학_[지원신청] 사업 특성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154	194	222	2,045	1,693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해외 레지던스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176	31	59	36	50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5	2	1	-	2
	한국예술국제 교류지원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4	-	-	4	-
		국제예술교류지원	49	9	15	14	11
문화예술 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순회치발굴형	68	-	-	36	32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36	36	-	-	-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76	21	55	-	-
예술인력 육성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136	44	37	30	25
		예술창작 지원	문학창작산실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85	40	45
문예지발간지원	172			-	-	87	85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34			11	10	5	8
문학행사및연구지원	66			-	-	26	40
아르코문학창작기금	3,247			-	-	1,807	1,440

문학_[지원신청] 사업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154	194	222	2,045	1,693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해외 레지던스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8.6	18.2	6.3	-	15.4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6.9	-	-	22.2	0.0
		국제예술교류지원	84.5	81.8	93.8	77.8	84.6
문화예술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순회처발굴형	37.8	-	-	100.0	100.0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20.0	63.2	-	-	-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42.2	36.8	100.0	-	-
예술인력육성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술창작지원	문학창작산실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2.4	78.4	81.8	0.0	0.0
		문예지발간지원	4.8	-	-	4.5	5.4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0.9	21.6	18.2	0.3	0.5
		문학행사및연구지원	1.8	-	-	1.4	2.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90.1	-	-	93.9	91.5

문학_선정자 특성 분석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성	여	268	21	36	106	105
	남	264	36	43	100	85
연령	20/30대	93	20	24	26	23
	40대	122	10	13	50	49
	50대	149	7	12	64	66
	60대 이상	165	20	30	64	51
구분	개인	281	28	36	113	104
	단체	251	29	43	93	86
유형	공연	41	6	10	13	12
	기획	3	-	1	1	1
	축제_페스티벌	12	1	2	6	3
	레지던스	69	17	22	16	14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3	1	-	-	2
	세미나_회의	21	5	5	5	6
	전시	7	-	-	5	2
	발간	275	4	14	131	126
	조사연구	38	14	10	9	5
	행사	18	3	2	7	6
	연구	5	2	1	-	2
	강좌	12	1	6	4	1
기타	28	3	6	9	10	
지역	서울	219	26	30	92	71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경기	65	2	5	32	26
인천	8	-	-	3	5
부산	16	-	-	6	10
대구	13	-	2	4	7
울산	1	-	-	1	-
경북	11	2	1	3	5
경남	15	-	3	4	8
광주	10	-	-	6	4
전북	5	-	2	1	2
전남	13	1	2	7	3
대전	8	-	-	4	4
세종	3	-	-	1	2
충북	6	1	1	3	1
충남	7	-	2	4	1
제주	1	-	1	-	-
강원	15	1	2	3	9
전국	40	8	5	12	15
해외	76	16	23	20	17

문학_선정자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성	여	50.4	36.8	45.6	51.5	55.3
	남	49.6	63.2	54.4	48.5	44.7
연령	20/30대	17.6	35.1	30.4	12.7	12.2
	40대	23.1	17.5	16.5	24.5	25.9
	50대	28.2	12.3	15.2	31.4	34.9
	60대 이상	31.2	35.1	38.0	31.4	27.0
구분	개인	52.8	49.1	45.6	54.9	54.7
	단체	47.2	50.9	54.4	45.1	45.3
유형	공연	7.7	10.5	12.7	6.3	6.3
	기획	0.6	-	1.3	0.5	0.5
	축제_페스티벌	2.3	1.8	2.5	2.9	1.6
	레지던스	13.0	29.8	27.8	7.8	7.4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0.6	1.8	-	-	1.1
	세미나_회의	3.9	8.8	6.3	2.4	3.2
	전시	1.3	-	-	2.4	1.1
	발간	51.7	7.0	17.7	63.6	66.3
	조사연구	7.1	24.6	12.7	4.4	2.6
행사	3.4	5.3	2.5	3.4	3.2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연구	0.9	3.5	1.3	-	1.1
	강좌	2.3	1.8	7.6	1.9	0.5
	기타	5.3	5.3	7.6	4.4	5.3
지역	서울	41.2	45.6	38.0	44.7	37.4
	경기	12.2	3.5	6.3	15.5	13.7
	인천	1.5	-	-	1.5	2.6
	부산	3.0	-	-	2.9	5.3
	대구	2.4	-	2.5	1.9	3.7
	울산	0.2	-	-	0.5	-
	경북	2.1	3.5	1.3	1.5	2.6
	경남	2.8	-	3.8	1.9	4.2
	광주	1.9	-	-	2.9	2.1
	전북	0.9	-	2.5	0.5	1.1
	전남	2.4	1.8	2.5	3.4	1.6
	대전	1.5	-	-	1.9	2.1
	세종	0.6	-	-	0.5	1.1
	충북	1.1	1.8	1.3	1.5	0.5
	충남	1.3	-	2.5	1.9	0.5
	제주	0.2	-	1.3	-	-
	강원	2.8	1.8	2.5	1.5	4.7
	전국	7.5	14.0	6.3	5.8	7.9
	해외	14.3	28.1	29.1	9.7	8.9

문학_[선정] 사업구분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예술창작지원	합계	5,057.7	511.7	450.0	2,180.0	1,916.0
	평균	15.1	34.1	23.7	13.9	13.2
국제교류지원	합계	977.3	212.1	346.9	172.1	246.2
	평균	11.6	11.2	14.5	8.2	12.3
문화예술향유지원	합계	1,970.0	531.2	461.3	478.4	499.2
	평균	29.8	66.4	22.0	23.9	29.4
예술인력육성	합계	280.0	-	120.0	80.0	80.0
	평균	6.1	-	8.0	10.0	10.0

문학_[선정] 세부사업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합계	1,690.0	-	-	890.0	800.0
	평균	10.0	-	-	10.0	10.0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합계	517.7	133.1	178.9	88.1	117.6
	평균	8.9	11.1	9.9	6.3	8.4
문예지발간지원	합계	1,706.0	-	-	940.0	766.0
	평균	17.1	-	-	18.4	15.6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합계	280.0	-	120.0	80.0	80.0
	평균	6.1	-	8.0	10.0	10.0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합계	364.0	164.0	200.0	-	-
	평균	19.2	27.3	15.4	-	-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합계	969.9	508.6	461.3	-	-
	평균	40.4	169.5	22.0	-	-
순회처발굴형	합계	977.5	-	-	478.4	499.2
	평균	26.4	-	-	23.9	29.4
문학행사및연구지원	합계	200.0	-	-	100.0	100.0
	평균	8.7	-	-	8.3	9.1
국제예술교류지원	합계	273.6	69.0	52.0	84.0	68.6
	평균	11.9	11.5	10.4	12.0	13.7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합계	22.6	22.6	-	-	-
	평균	4.5	4.5	-	-	-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합계	1,097.7	347.7	250.0	250.0	250.0
	평균	43.9	38.6	41.7	50.0	50.0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합계	186.0	10.0	116.0	-	60.0
	평균	62.0	10.0	116.0	-	60.0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합계	-	-	-	-	-
	평균	-	-	-	-	-

문학_[선정] 사업구분별*세부사업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해외 레지던스지원	합계	517.7	133.1	178.9	88.1	117.6
		평균	8.9	11.1	9.9	6.3	8.4
	한국예술국제 교류지원	합계	459.6	79.0	168.0	84.0	128.6
		평균	17.7	11.3	28.0	12.0	21.4
문화예술 향유지원	신나는예술여행	합계	1,970.0	531.2	461.3	478.4	499.2
		평균	29.8	66.4	22.0	23.9	29.4
예술인력 육성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합계	280.0	-	120.0	80.0	80.0
		평균	6.1	-	8.0	10.0	10.0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창작 지원	문학창작산실	합계	5,057.7	511.7	450.0	2,180.0	1,916.0
		평균	15.1	34.1	23.7	13.9	13.2

문학_[선정] 세부사업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국제교류 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 지원	합계	517.7	133.1	178.9	88.1	117.6
		평균	8.9	11.1	9.9	6.3	8.4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	합계	186.0	10.0	116.0	-	60.0
		평균	62.0	10.0	116.0	-	60.0
	국제예술교류지원	합계	273.6	69.0	52.0	84.0	68.6
		평균	11.9	11.5	10.4	12.0	13.7
문화예술 향유지원	순회치발굴형	합계	977.5	-	-	478.4	499.2
		평균	26.4	-	-	23.9	29.4
	대상자맞춤형 프로그램	합계	22.6	22.6	-	-	-
		평균	4.5	4.5	-	-	-
대상자발굴형 프로그램	합계	969.9	508.6	461.3	-	-	
	평균	40.4	169.5	22.0	-	-	
예술인력 육성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합계	280.0	-	120.0	80.0	80.0
		평균	6.1	-	8.0	10.0	10.0
예술창작 지원	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	합계	364.0	164.0	200.0	-	-
		평균	19.2	27.3	15.4	-	-
	문예지발간지원	합계	1,706.0	-	-	940.0	766.0
		평균	17.1	-	-	18.4	15.6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합계	1,097.7	347.7	250.0	250.0	250.0
		평균	43.9	38.6	41.7	50.0	50.0
	문학행사및연구 지원	합계	200.0	-	-	100.0	100.0
		평균	8.7	-	-	8.3	9.1
아르코문학창작 기금	합계	1,690.0	-	-	890.0	800.0	
	평균	10.0	-	-	10.0	10.0	

문학_[선정] 사업구분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국제교류지원	합계	977.3	212.1	346.9	172.1	246.2	
	평균	11.6	11.2	14.5	8.2	12.3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문화예술향유지원	합계	1,970.0	531.2	461.3	478.4	499.2
	평균	29.8	66.4	22.0	23.9	29.4
예술인력육성	합계	280.0	-	120.0	80.0	80.0
	평균	6.1	-	8.0	10.0	10.0
예술창작지원	합계	5,057.7	511.7	450.0	2,180.0	1,916.0
	평균	15.1	34.1	23.7	13.9	13.2

문학_사업구분별 성비 (단위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4,154	194	222	2,045	1,693
	국제교류지원	여	57.3	59.5	65.3	48.1	54.0
		남	42.7	40.5	34.7	51.9	46.0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43.3	36.8	40.0	50.0	53.1
		남	56.7	63.2	60.0	50.0	46.9
	예술인력육성	여	58.8	52.3	59.5	73.3	52.0
		남	41.2	47.7	40.5	26.7	48.0
	예술창작지원	여	54.2	19.6	18.2	55.4	55.0
		남	45.8	80.4	81.8	44.6	45.0
	선정	응답자수		532	57	79	206
국제교류지원		여	48.8	42.1	66.7	42.9	40.0
		남	51.2	57.9	33.3	57.1	60.0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48.5	50.0	23.8	55.0	70.6
		남	51.5	50.0	76.2	45.0	29.4
예술인력육성		여	50.0	33.3	60.0	87.5	25.0
		남	50.0	66.7	40.0	12.5	75.0
예술창작지원		여	51.2	26.7	31.6	50.3	57.2
		남	48.8	73.3	68.4	49.7	42.8

문학_[선정] 사업구분별*성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국제교류지원	여	합계	387.6	99.5	161.4	56.8	69.9
		평균	9.5	12.4	10.1	6.3	8.7
	남	합계	589.7	112.7	185.5	115.3	176.3
		평균	13.7	10.2	23.2	9.6	14.7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합계	1,259.6	512.9	129.6	268.0	349.2
		평균	39.4	128.2	25.9	24.4	29.1
	남	합계	710.4	18.3	331.7	210.4	150.0
		평균	20.9	4.6	20.7	23.4	30.0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인력육성	여	합계	162.0	-	72.0	70.0	20.0
		평균	7.0	-	8.0	10.0	10.0
	남	합계	118.0	-	48.0	10.0	60.0
		평균	5.1	-	8.0	10.0	10.0
예술창작지원	여	합계	2,400.7	163.7	184.0	1,038.0	1,015.0
		평균	14.0	40.9	30.7	13.1	12.2
	남	합계	2,657.0	348.0	266.0	1,142.0	901.0
		평균	16.2	31.6	20.5	14.6	14.5

문학_사업구분별*연령별 특성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4,154	194	222	2,045	1,693	
	국제교류지원	20/30대	68	12	18	11	27	
		40대	64	8	21	20	15	
		50대	45	10	18	8	9	
		60대 이상	57	12	18	15	12	
	문화예술향유지원	20/30대	29	7	9	7	6	
		40대	42	15	15	5	7	
		50대	52	15	16	11	10	
	예술인력육성	20/30대	133	43	37	29	24	
		40대	206	-	-	104	102	
	예술창작지원	40대	662	6	6	340	310	
		50대	1,435	9	7	765	654	
		60대 이상	1,282	36	42	702	502	
	선정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국제교류지원	20/30대	17	4	7	3	3
			40대	28	5	8	8	7
50대			17	4	4	3	6	
60대 이상			22	6	5	7	4	
문화예술향유지원		20/30대	9	1	2	4	2	
		40대	12	2	4	2	4	
		50대	20	3	6	6	5	
예술인력육성		60대 이상	25	2	9	8	6	
		20/30대	45	15	15	8	7	
예술창작지원		20/30대	22	-	-	11	11	
		40대	82	3	1	40	38	
		50대	112	0	2	55	55	
		60대 이상	118	12	16	49	41	

문학_사업구분별*연령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4,154	194	222	2,045	1,693	
	국제교류지원	20/30대	29.1	28.6	24.0	20.4	42.9	
		40대	27.4	19.0	28.0	37.0	23.8	
		50대	19.2	23.8	24.0	14.8	14.3	
		60대 이상	24.4	28.6	24.0	27.8	19.0	
	문화예술향유지원	20/30대	16.1	12.3	16.4	19.4	18.8	
		40대	23.3	26.3	27.3	13.9	21.9	
		50대	28.9	26.3	29.1	30.6	31.3	
	예술인력육성	20/3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술창작지원	20/30대	5.7	-	-	5.4	6.5
			40대	18.5	11.8	10.9	17.8	19.8
	50대		40.0	17.6	12.7	40.0	41.7	
		60대 이상	35.8	70.6	76.4	36.7	32.0	
선정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국제교류지원	20/30대	20.2	21.1	29.2	14.3	15.0	
		40대	33.3	26.3	33.3	38.1	35.0	
		50대	20.2	21.1	16.7	14.3	30.0	
		60대 이상	26.2	31.6	20.8	33.3	20.0	
	문화예술향유지원	20/30대	13.6	12.5	9.5	20.0	11.8	
		40대	18.2	25.0	19.0	10.0	23.5	
		50대	30.3	37.5	28.6	30.0	29.4	
	예술인력육성	20/3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술창작지원	20/30대	6.6	-	-	7.1	7.6
			40대	24.6	20.0	5.3	25.8	26.2
	50대		33.5	0.0	10.5	35.5	37.9	
		60대 이상	35.3	80.0	84.2	31.6	28.3	

문학_[선정] 사업구분별*연령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국제교류지원	20/30대	합계	157.8	43.2	66.6	23.9	24.2
		평균	9.3	10.8	9.5	8.0	8.1
	40대	합계	233.9	55.9	55.6	48.8	73.6
		평균	8.4	11.2	6.9	6.1	10.5
	50대	합계	339.9	50.4	159.3	26.6	103.7
		평균	20.0	12.6	39.8	8.9	17.3
	60대 이상	합계	245.7	62.6	65.5	72.9	44.7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평균	11.2	10.4	13.1	10.4	11.2
문화예술향유지원	20/30대	합계	225.4	4.3	60.0	101.3	59.8
		평균	25.0	4.3	30.0	25.3	29.9
	40대	합계	742.8	505.0	98.4	30.0	109.4
		평균	61.9	252.5	24.6	15.0	27.3
	50대	합계	500.6	13.1	159.6	177.9	150.0
		평균	25.0	4.4	26.6	29.7	30.0
60대 이상	합계	501.2	8.8	143.3	169.2	180.0	
	평균	20.0	4.4	15.9	21.1	30.0	
예술인력육성	20/30대	합계	270.0	-	120.0	80.0	70.0
		평균	6.0	-	8.0	10.0	10.0
예술창작지원	20/30대	합계	230.5	-	-	117.5	113.0
		평균	10.5	-	-	10.7	10.3
	40대	합계	976.2	70.7	12.0	465.5	428.0
		평균	11.9	23.6	12.0	11.6	11.3
	50대	합계	1,293.5	-	28.0	643.5	622.0
		평균	11.5	-	14.0	11.7	11.3
	60대 이상	합계	2,533.5	441.0	410.0	929.5	753.0
		평균	21.5	36.8	25.6	19.0	18.4

문화_사업구분별*성별*연령별 특성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154	194	222	2,045	1,693	
지원 신청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44	9	13	6	16
			40대	41	6	13	12	10
			50대	35	7	17	6	5
			60대 이상	14	3	6	2	3
		남	20/30대	24	3	5	5	11
			40대	23	2	8	8	5
			50대	10	3	1	2	4
			60대 이상	43	9	12	13	9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20/30대	20	6	6	5	3
			40대	20	6	5	4	5
			50대	26	7	7	6	6
			60대 이상	12	2	4	3	3
		남	20/30대	9	1	3	2	3
			40대	22	9	10	1	2
50대			26	8	9	5	4	
60대 이상			45	18	11	10	6	
예술인력육성	여	20/30대	78	22	22	21	13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창작지원	남	20/30대	55	21	15	8	11	
		여	20/30대	133	-	-	69	64
			40대	455	3	2	242	208
			50대	844	1	-	463	380
	60대 이상		509	6	8	286	209	
	남	20/30대	73	-	-	35	38	
		40대	207	3	4	98	102	
		50대	591	8	7	302	274	
		60대 이상	773	30	34	416	293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9	2	6	-	1	
		40대	18	4	5	5	4	
		50대	8	1	3	2	2	
		60대 이상	6	1	2	2	1	
	남	20/30대	8	2	1	3	2	
		40대	10	1	3	3	3	
		50대	9	3	1	1	4	
		60대 이상	16	5	3	5	3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20/30대	5	1	-	2	2
			40대	9	1	2	2	4
50대			12	2	2	4	4	
60대 이상			6	-	1	3	2	
남		20/30대	4	-	2	2	-	
		40대	3	1	2	-	-	
		50대	8	1	4	2	1	
		60대 이상	19	2	8	5	4	
예술인력육성		여	20/30대	23	5	9	7	2
		남	20/30대	22	10	6	1	5
예술창작지원	여	20/30대	17	-	-	7	10	
		40대	62	2	1	29	30	
		50대	56	-	-	27	29	
		60대 이상	36	2	5	15	14	
	남	20/30대	5	-	-	4	1	
		40대	20	1	-	11	8	
		50대	56	-	2	28	26	
		60대 이상	82	10	11	34	27	

문학_사업구분별*성별*연령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응답자수	4,154	194	222	2,045	1,693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신청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32.8	36.0	26.5	23.1	47.1
			40대	30.6	24.0	26.5	46.2	29.4
			50대	26.1	28.0	34.7	23.1	14.7
			60대 이상	10.4	12.0	12.2	7.7	8.8
		남	20/30대	24.0	17.6	19.2	17.9	37.9
			40대	23.0	11.8	30.8	28.6	17.2
			50대	10.0	17.6	3.8	7.1	13.8
			60대 이상	43.0	52.9	46.2	46.4	31.0
	문화예술향유 지원	여	20/30대	25.6	28.6	27.3	27.8	17.6
			40대	25.6	28.6	22.7	22.2	29.4
			50대	33.3	33.3	31.8	33.3	35.3
			60대 이상	15.4	9.5	18.2	16.7	17.6
		남	20/30대	8.8	2.8	9.1	11.1	20.0
			40대	21.6	25.0	30.3	5.6	13.3
			50대	25.5	22.2	27.3	27.8	26.7
			60대 이상	44.1	50.0	33.3	55.6	40.0
	예술인력육성	여	20/3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남	20/3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술창작지원	여	20/30대	6.9	-	-	6.5	7.4
			40대	23.4	30.0	20.0	22.8	24.2
			50대	43.5	10.0	0.0	43.7	44.1
			60대 이상	26.2	60.0	80.0	27.0	24.3
		남	20/30대	4.4	-	-	4.1	5.4
			40대	12.6	7.3	8.9	11.5	14.4
			50대	35.9	19.5	15.6	35.5	38.8
			60대 이상	47.0	73.2	75.6	48.9	41.4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선정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22.0	25.0	37.5	-
40대				43.9	50.0	31.3	55.6	50.0
50대				19.5	12.5	18.8	22.2	25.0
60대 이상				14.6	12.5	12.5	22.2	12.5
남			20/30대	18.6	18.2	12.5	25.0	16.7
			40대	23.3	9.1	37.5	25.0	25.0
			50대	20.9	27.3	12.5	8.3	33.3
			60대 이상	37.2	45.5	37.5	41.7	25.0
문화예술향유 지원		여	20/30대	15.6	25.0	-	18.2	16.7
			40대	28.1	25.0	40.0	18.2	33.3
			50대	37.5	50.0	40.0	36.4	33.3
			60대 이상	18.8	-	20.0	27.3	16.7
		남	20/30대	11.8	-	12.5	22.2	-
			40대	8.8	25.0	12.5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인력육성		50대	23.5	25.0	25.0	22.2	20.0
		60대 이상	55.9	50.0	50.0	55.6	80.0
	여	20/3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남	20/30대	100.0	100.0	100.0	100.0
예술창작지원	여	20/30대	9.9	-	-	9.0	12.0
		40대	36.3	50.0	16.7	37.2	36.1
		50대	32.7	-	-	34.6	34.9
		60대 이상	21.1	50.0	83.3	19.2	16.9
	남	20/30대	3.1	-	-	5.2	1.6
		40대	12.3	9.1	-	14.3	12.9
		50대	34.4	-	15.4	36.4	41.9
		60대 이상	50.3	90.9	84.6	44.2	43.5

문학_[선정] 사업구분별*성별*연령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국제교류지원	여	20/30대	합계	96.9	29.1	56.3	-	11.5
			평균	10.8	14.6	9.4	-	11.5
		40대	합계	153.5	52.4	30.4	27.9	42.9
			평균	8.5	13.1	6.1	5.6	10.7
		50대	합계	83.4	15.4	43.3	16.6	8.1
			평균	10.4	15.4	14.4	8.3	4.1
	60대 이상	합계	53.8	2.5	31.5	12.4	7.4	
		평균	9.0	2.5	15.8	6.2	7.4	
	남	20/30대	합계	60.9	14.1	10.3	23.9	12.7
			평균	7.6	7.0	10.3	8.0	6.4
		40대	합계	80.3	3.5	25.2	20.9	30.7
			평균	8.0	3.5	8.4	7.0	10.2
		50대	합계	256.6	35.0	116.0	10.0	95.6
			평균	28.5	11.7	116.0	10.0	23.9
60대 이상		합계	191.9	60.1	34.0	60.5	37.3	
		평균	12.0	12.0	11.3	12.1	12.4	
문화예술향유 지원	여	20/30대	합계	115.4	4.3	-	51.3	59.8
			평균	23.1	4.3	-	25.7	29.9
		40대	합계	699.4	500.0	60.0	30.0	109.4
			평균	77.7	500.0	30.0	15.0	27.3
		50대	합계	316.1	8.6	59.6	127.9	120.0
			평균	26.3	4.3	29.8	32.0	30.0
		60대 이상	합계	128.7	-	10.0	58.8	60.0
			평균	21.5	-	10.0	19.6	30.0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남	20/30대	합계	110.0	-	60.0	50.0	-	
			평균	27.5	-	30.0	25.0	-	
		40대	합계	43.4	5.0	38.4	-	-	
			평균	14.5	5.0	19.2	-	-	
		50대	합계	184.5	4.5	100.0	50.0	30.0	
			평균	23.1	4.5	25.0	25.0	30.0	
		60대 이상	합계	372.5	8.8	133.3	110.4	120.0	
			평균	19.6	4.4	16.7	22.1	30.0	
	예술인력육성	여	20/30대	합계	162.0	-	72.0	70.0	20.0
				평균	7.0	-	8.0	10.0	10.0
남		20/30대	합계	108.0	-	48.0	10.0	50.0	
			평균	4.9	-	8.0	10.0	10.0	
예술창작지원	여	20/30대	합계	176.5	-	-	77.5	99.0	
			평균	10.4	-	-	11.1	9.9	
		40대	합계	744.2	40.7	12.0	351.5	340.0	
			평균	12.0	20.4	12.0	12.1	11.3	
		50대	합계	572.0	-	-	278.0	294.0	
			평균	10.2	-	-	10.3	10.1	
		60대 이상	합계	898.0	123.0	172.0	321.0	282.0	
			평균	24.9	61.5	34.4	21.4	20.1	
	남	20/30대	합계	54.0	-	-	40.0	14.0	
			평균	10.8	-	-	10.0	14.0	
		40대	합계	232.0	30.0	-	114.0	88.0	
			평균	11.6	30.0	-	10.4	11.0	
		50대	합계	721.5	-	28.0	365.5	328.0	
			평균	12.9	-	14.0	13.1	12.6	
		60대 이상	합계	1,635.5	318.0	238.0	608.5	471.0	
			평균	19.9	31.8	21.6	17.9	17.4	

문학_사업구분별*성별*구분별 특성 (단위 : 건)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지원 신청	응답자수			4,154	194	222	2,045	1,693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127	23	45	25	34
			단체	7	2	4	1	-
		남	개인	68	10	20	19	19
			단체	32	7	6	9	10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단체	78	21	22	18	17
		남	단체	102	36	33	18	15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80	23	22	22	13
		남	개인	56	21	15	8	12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창작지원	여	개인	1,864	-	-	1,036	828	
		단체	88	10	10	31	37	
	남	개인	1,383	-	-	771	612	
		단체	269	41	45	87	96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선정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39	8	15	8	8
			단체	2	-	1	1	-
		남	개인	27	5	6	8	8
			단체	16	6	2	4	4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단체	32	4	5	11	12
		남	단체	34	4	16	9	5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23	5	9	7	2
		남	개인	23	10	6	1	6
	예술창작지원	여	개인	120	-	-	60	60
			단체	52	4	6	19	23
		남	개인	49	-	-	29	20
			단체	115	11	13	49	42

문학_사업구분별*성별*구분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4,154	194	222	2,045	1,693
지원 신청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94.8	92.0	91.8	96.2	100.0
			단체	5.2	8.0	8.2	3.8	-
		남	개인	68.0	58.8	76.9	67.9	65.5
			단체	32.0	41.2	23.1	32.1	34.5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단체	100.0	100.0	100.0	100.0	100.0
		남	단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100.0	100.0	100.0	100.0	100.0
		남	개인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술창작지원	여	개인	95.5	-	-	97.1	95.7	
		단체	4.5	100.0	100.0	2.9	4.3	
	남	개인	83.7	-	-	89.9	86.4	
		단체	16.3	100.0	100.0	10.1	13.6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선정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95.1	100.0	93.8	88.9	100.0
			단체	4.9	-	6.3	11.1	-
		남	개인	62.8	45.5	75.0	66.7	66.7
			단체	37.2	54.5	25.0	33.3	33.3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단체	100.0	100.0	100.0	100.0	100.0	
	남	단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100.0	100.0	100.0	100.0	100.0	
	남	개인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술창작지원	여	개인	69.8	-	-	75.9	72.3	
		단체	30.2	100.0	100.0	24.1	27.7	
	남	개인	29.9	-	-	37.2	32.3	
		단체	70.1	100.0	100.0	62.8	67.7	

문학_사업구분별*성별*구분별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응답자수				532	57	79	206	190
국제교류지원	여	개인	합계	374.6	99.5	158.4	46.8	69.9
			평균	9.6	12.4	10.6	5.9	8.7
		단체	합계	13.0	-	3.0	10.0	-
			평균	6.5	-	3.0	10.0	-
	남	개인	합계	258.1	53.7	60.5	70.3	73.7
			평균	9.6	10.7	10.1	8.8	9.2
		단체	합계	331.6	59.0	125.0	45.0	102.6
			평균	20.7	9.8	62.5	11.3	25.7
문화예술향유지원	여	단체	합계	1,259.6	512.9	129.6	268.0	349.2
			평균	39.4	128.2	25.9	24.4	29.1
	남	단체	합계	710.4	18.3	331.7	210.4	150.0
			평균	20.9	4.6	20.7	23.4	30.0
예술인력육성	여	개인	합계	162.0	-	72.0	70.0	20.0
			평균	7.0	-	8.0	10.0	10.0
	남	개인	합계	118.0	-	48.0	10.0	60.0
			평균	5.1	-	8.0	10.0	10.0
예술창작지원	여	개인	합계	1,200.0	-	-	600.0	600.0
			평균	10.0	-	-	10.0	10.0
		단체	합계	1,200.7	163.7	184.0	438.0	415.0
			평균	23.1	40.9	30.7	23.1	18.0
	남	개인	합계	490.0	-	-	290.0	200.0
			평균	10.0	-	-	10.0	10.0
		단체	합계	2,167.0	348.0	266.0	852.0	701.0
			평균	18.8	31.6	20.5	17.4	16.7